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8호 2020.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몽골민족사와 역사서술 연구

이평래 ■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추이 7

김장구 ■ 중국 역사학계의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사 서술 분석 45

김성수 ■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민족문화공정(民族文化工程),
연혁과 전망 85

논문

서길수 ■ 아프리카시암 고구리[高句麗] 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

– 고구리[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Ⅱ) 153

전상우 ■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原典)과 편찬 방식 239

한철호 ■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일본지지도요략(日本地誌要略)』
편찬과 독도 인식 279

김영수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샌프란시스코조약 전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 333

서평

강인욱 ■ 유라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선사시대와 고대

– 『중국통사 1-고대에서 기원전 500년까지-』를 중심으로 373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87



Contents

Special Issue Research on Mongolian History and History Writing

Lee Pyungrae ■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Pan-Mongolism 7

Kim Janggoo ■ An Analysis on the Narratives of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in the Academic Circle of China 45

Kim Sungsoo ■ Ethnic Culture-based Development Projects in Inner Mongolia: History and Prospects 85

Articles

SO Gilsu ■ Consideration on the New Dispute on the Koguri (高句麗) envoy at the Afrasiab wall painting – Critical View on the Denial Theory of the Dispatch of a Koguri envoy(II) 153

Jeon Sangwoo ■ The Original Text and the Compilation Method of the Records of Koguryo (高句麗傳) of *Liangshu* (梁書) 239

Han Cheolho ■ Meiji Geographer Otsuki Shuji's *Nihon-chishi-yoryaku* (日本地誌要略) and His Recognition of Dokdo 279

Kim Youngsoo ■ Naming Issues on Ulleungdo and Dokdo in Japan before and after the Declaration of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and Treaty of San Francisco 333

Book Review

Kang Inuk ■ A new Eurasian view to the study of Ancient China and archaeology – a review for “Istoriya Kitaya N.1(Chinese history Vol.1 from earliest time to 5 cen. BCE),” pub. by Nauka, Russia, 2016, p.975. 373



특집

몽골민족사와 역사서술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추이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1911년 독립선언과 범몽골주의의 발흥
- III. 1921년 혁명과 범몽골주의의 새로운 전개
- IV.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범몽골주의의 쇠퇴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20세기 초기에 발흥한 범몽골주의(Pan-Mongolism)의 역사적 추이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범몽골주의는 몽골인들의 정치 및 문화적 통합을 제창하는 민족통합운동과 사상을 말한다. 즉 현재의 몽골국, 중국, 러시아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계 민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건립하려는 주장과 운동을 범몽골주의라고 한다. 주로 몽골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등 몽골인 거주지,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의 통합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몽골 북부의 투바공화국을 통합의 범위에 넣기도 한다.¹ 그러나 20세기 전체를 통하여 가장 자주 얘기되었고, 역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민족통합운동은 몽골국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통합이다.

범몽골주의라는 말은 원래 러시아 신비주의 철학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V. S. Soloviev, 1853~1900)가 발표한 ‘범몽골주의’(Panmongolizm, 1894)라는 시(詩)에 처음 등장한다.² 솔로비요프는 19세기 슬라브 문화권에서 널리 퍼진 범슬라브주의(Pan-Slavism)에 착안하여 이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슬라브주의가 공통의 언어와 종교를 바탕으로 슬라브족을 단결시키려고 한 사

* 투고: 2020년 3월 23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20년 5월 25일

** 본인의 논문에 대해 유익한 비평을 보내준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면의 제한과 전체적인 틀을 고쳐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일부 지적사항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1 Pan-Mongolism, <https://en.wikipedia.org/wiki/Pan-Mongolism>(검색일: 2020년 1월 20일); Robert A. Rupen, 1964, *Mongols of the Twentieth Century, Part I*, Bloomington, Indiana Univ., Hague: Mouton & Co., p. 69; Christopher Kaplonski, 2004, *Truth, History, and Politics in Mongol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p. 15.

2 이 시의 우리말 번역은 박종소, 2001,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러시아연구』 11-2, 80쪽 참고.

상이나 운동이라면, 솔로비요프 작품 속의 범몽골주의는 몽골인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려고 한 운동 또는 이념이었다. 다만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몽골은 몽골인뿐 아니라 동방의 제민족, 즉 황인종을 지칭하였다. 실제로 솔로비요프는 그의 또 다른 작품에서 몽골을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티베트인으로 구체화하거나 황인종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이 동방 민족들을 규합하여 서방세계를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³ 이 동방 제민족을 결집시키려고 한 이념과 운동이 바로 범몽골주의이다.

이런 점에서 솔로비요프 시 속의 범몽골주의는 황인종의 침략에 대한 심리적 공포나 경계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연구자의 지적⁴처럼 러시아인의 황인종에 대한 공포는 먼 옛날 훈족의 침략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공포의 전설이 13~14세기에 러시아를 지배한 몽골군에 의해 현실화되었으며, 그것이 러시아사 전체를 관통하는 ‘타타르의 멍에(tatarskoe igo)’로 정착된 결과이다. 이처럼 몽골에 대한 심리적 공포 또는 경계심에서 나온 범몽골주의를 민족통합 운동이라는 정치운동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사람이 러시아 외교관 코로스토티츠(I. Ya. Korostovets)이다. 그는 1919년 부랴트, 내몽골, 바르가(Barga) 대표들이 원동러시아 치타에서 대몽골국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한 사건을 “부랴트 분리주의자의 선동과 그들의 범몽골운동 계획 시도”⁵라고 특기했는데, 여기서 분리주의는 이제 막 수립된 소비에트로부터의 분리를 말한다.

이처럼 범몽골주의는 20세기 초기 러시아인들이 몽골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말은 소련 시기 내내 소련 당국의 몽골 민족주의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3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지음, 박종소 옮김, 2009, 『악에 관한 세 편의 대화』, 문학과지성사, 194~299쪽.

4 田中 克彦, 2017, 「パンモンゴリズムという語の起源と發展」, 『モンゴルと東北アジア』 vol. 3, 30쪽.

5 코로스토티츠 著, 高山洋吉 譯, 1943, 『蒙古近世史』, 東京: 森北書店, 469쪽.

그러나 이 말이 어디에서 왔든 간에 범몽골주의는 몽골인들이 20세기 초기 청조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발흥하기 시작하여 20세기 내내 몽골 민족운동의 중심 주제로 기능했으며,⁶ 1990년대 초기 몽골인민공화국의 체제전환 이후 현재 까지도 그 희미한 잔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은 몽골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은 물론이고, 현재 크게 세 나라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몽골 정체성’ 그리고 지난 세기와 금세기의 몽중 및 몽러 관계의 주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이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기를 시야에 넣고 범몽골주의의 전개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하나도 없다. 물론 1911년 독립선언 후 전개된 민족통합운동⁷과 1919년 치타에서 성립된 대몽골 임시정부⁸를 범몽골주의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이나 1990년대 초기 몽골국, 네이멍구자치구, 부랴트공화국에서 나타난 몽골 민족주의 흥기를 범몽골주의 유산으로 보는 글⁹ 등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시기 범몽골주의자에 대한 탄압 관련 자료집¹⁰이나 범몽골주의의 기원을 논한 논고,¹¹ 최근 범몽골주의와 1930년대 몽골어 문제 및 범몽골주의 연구의 필요

6 Xiaoyuan Liu, 2006, *Reins of Liberation, An Entangled History of Mongolian Independence, Chinese Territoriality, and Great Power Hegemony 1911-195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 6.

7 Л. Жамсран, 1992, *Монголын сэргэн мандалтын эхэн*, Улаанбаатар; Mei-hua Lan, 1996, *The Mongolian Independence Movement of 1911: A Pan-Mongolian Endeavor*(Ph.D. De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張啓雄, 2001, 「汎モンゴル統一運動-別角度から見たハルハ獨立-」, 『人文學報』 85.

8 二木博史, 1997a, 「大モンゴル國臨時政府の成立」, 『東京外國語大學論集』 54; Б. В. Базаров, 2002, *Неизвестное из Истории Панмонголизма*, Улан-Удэ: 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9 二木博史, 1997b, 「パンモンゴリズムの現在」, 『アジア讀本, モンゴル』, 東京: 河出書房新社, 118~125쪽.

10 Г. Ариунболд, 2011, “Нармай Монгол”-изм-(“Панмонголизм”)-ын хэрэгт хэлмэгдсэн Монголчууд, 1937-1941, Улаанбаатар.

11 田中 克彦, 2017, 앞의 글.

성을 제창한 논고 등도 있다.¹²

이들은 20세기 초기에 발흥한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추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극히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범몽골주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특정 부분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쳐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필자는 선학들의 연구를 적극 수용하여 20세기 내내 전개된,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범몽골주의의 시대적 변화를 민족통합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보려고 한다. 먼저 1911년 독립선언, 1921년 민족민주혁명,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민족통합운동을 범몽골주의의 시각에 따라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몽골주의의 성격이 바뀌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결론 삼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0세기 범몽골주의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최종 목표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20세기 범몽골주의 연구의 서설에 해당한다.

II. 1911년 독립선언과 범몽골주의의 발흥

1911년 독립선언은 20세기 몽골인들의 민족통합운동의 서막이었다. 1368년 원조 멸망 후 몽골인들은 극심한 내부분열에 시달리다가 17세기 초기부터 청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200여 년에 걸친 청의 몽골지배는 몽골인들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청 지배 시기 몽골인들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

12 Ц. Шагдарсүрэн, 2015, “ПанМонголизм буюу нармай Монголын үзэл хэмээгч хийгээд түүний монгол хэл бичигт холбогдсон учир шалтгаан”, *Түүхийн судлал боть XLIII-XLIV*; П. Наранбаяр, 2017, “Нармай монголын үзэлийн тухайд судлаачийн бодол”, *XX зууны Монгол: Түүх, соёл, геополитик,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ууд*, Улаанбаатар.

는 독립과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는 일이었다. 1911년 독립선언과 함께 민족통합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범몽골운동 또는 대몽골운동 등 여러 가지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민족통합운동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이 시기 민족통합운동이 독립 후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독립과 함께 구상되고 실행된 치밀한 계획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말해준다.¹³

할하(Khalkh)¹⁴ 불교 수장 집준담바 호탁트(Jebzundamba Khutagt, 1870~1924)가 1895년 바담도르지(Badamdorj)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시아 황제에게 청조로부터 독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딜라브 호탁트(Dilav Khutagt)의 증언¹⁵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방러 대표단이 독립에 대한 지원과 함께 몽골인들이 장성(長城) 이북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이다. 이는 몽골인 거주지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뜻과 같다. 1911년 7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결정한 복드산 비밀회의에 할하는 물론 하이산(Khaisan)과 악왕-자삭(Agvan-Zasak) 등 내몽골인과 서몽골인까지 참여한 것¹⁶이나 같은 해 7월 29일 독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난 대표단에 하이산이 포함된 것도 우연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몽골인 및 외국인 연구자들이 하이산의 존재를 민족통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 후 몽골의 고위급 방러 대표단(1912년과 1913년), 카흐타 몽중러 삼국협정(1914~1915), 서

13 張啓雄, 2001, 앞의 글, 28쪽; 이평래, 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 156~158쪽.

14 현재 몽골국 몽골족의 주요 집단과 그들의 거주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외몽골에 해당한다.

15 Owen Lattimore & Fujiko Isono, 1982, *Diluv Khutagt - Memoirs Autobiography of a Mongol Buddhist Reincarnation in Religion and Revolutio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pp. 67~68.

16 A. B. Бурдков, 1969, *В Старой и Новой Монголи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pp. 29~30.

몽골(1912)과 내몽골 통합전쟁(1913)에 각지의 내몽골인들이 대표와 지휘관으로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1911년 8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방러 대표단은 러시아 황제와 외무부에 올리는 서한을 지참했는데, 이 서한에서 몽골인들은 할하와 더불어 내몽골의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알리고 내몽골인들 또한 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¹⁷ 이는 당시 몽골인들이 내외몽골을 포괄하는 독립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생각은 “대저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은 없다. 청조의 이러한 상황은 모두 때가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여러 몽골족은 모두 하나가 되어 독립을 이룩하고 황교(黃敎)를 부흥시키고 외세 지배와 고통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¹⁸라고 한 쥘준담바의 룬덴¹⁹에 잘 나타나 있다. 방러 대표단이 귀국하고 신해혁명 발발 직후인 1911년 11월 28일 몽골왕공들은 시국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쥘준담바에게 보고했는데, 룬덴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내려진 것으로 사실상 독립을 촉구하는 명령이었다.

이 룬덴의 가르침에 따라 할하왕공들은 1911년 12월 1일 몽골이 청 지배를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공식선포하고 곧바로 민족통합에 착수하였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후레(Khüree, 현재의 울란바토르)의 임시정부는 내몽골 6맹(盟), 후흐 호트(Khökh khot)의 투메드(Tümed), 울드(Ööld), 바르가, 다리강가(Dariganga), 알라샤(Alashaa), 간쑤성, 산시성 등 각지의 몽골족 거주지에 독

17 Л. Дэндэв, 2003, *XX зууны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эх сурвалж(1911-1921), Уйгаржин монгон бичгээс кирилл үсэгт буулгаж хэвлэлд бэлтгэсэн О. Батсайхан*, Улаанбаатар, pp. 112~117; А. Очир, Г. Пүрвээ, 1982,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1911 оны үндэсний эрх чөлөө тусгаар т огтнолын төлөө тэмцэл, Баримт бичиг эмхтгэл(1900-1914)*, Улаа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pp. 164~168.

18 Л. Дэндэв, 2003, 위의 책, p. 118.

19 Lünden<Tib. Lung-bstan,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불교 수장의 詔書 또는 가르침을 말한다.

립을 통보하고 귀부를 권유하는 서신을 보냈다.²⁰ 서신의 주요 내용도 독립과 민족통합에 관한 것이다. 사실 수식어가 붙은 인사말을 빼면 서신은 이 두 마디로 요약된다. 귀부 권유는 1911년 12월 29일 쩌준담바 호탁트가 복드 칸(Bogd khaan)으로 신정부의 국가수반에 추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호응하여 각지의 몽골인들이 적극적으로 귀부를 청원해왔다. 현재 국립공문서보관소에는 이 시기 귀부와 관련하여 몽골 신정부와 내몽골 등지의 몽골인들 간에 주고받은 방대한 자료가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1913년 기준으로 내몽골 총 49기(旗) 중 36기와 차하르(Tsaskhar), 홉스굴의 오랑하이(Khövsögöl uryankhai), 두르부드(Dörvöd), 자흐친(Zakhchin), 알타이 오랑하이(Altai uryankhai), 토르고드(Torguud), 호쇼드(Khoshuud), 다라강가, 바르가 등 몽골 족과 탄누 오랑하이(Tanu Uryankgai, 현재 투바공화국 거주민), 카자흐 등 투르크계 민족들이 귀부를 알렷다.²¹ 여러 연구자의 지적처럼 귀부 청원서에는 독립과 민족통합에 대한 강한 지지와 함께 몽골인의 정체성의 상징인 전통생업과 종교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²²

쩌준담바 호탁트의 즉위식 또한 민족통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당시 후레 주재 러시아 대리영사 라브도프스키는 1911년 12월 11일 본국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12월 29일 쩌준담바를 할하의 군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 즉위식은 대체로 칭기스 칸 왕조 초기 몇몇 군주 시대의 몽골 관습에 따라 진행

20 Л. Дэндэв, 2006, *Монголын товч түүх, Монгол бичгээс хөрвүүлж оршил бичиж тайлбар нэрсийн хэлхээ хийсэн Доктор С. Чүлээн*, Улаанбаатар, pp. 86~87; Н. Магсаржав, 1994,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э түүх, Монголоос кирилл бичигт булгасан О.Батсайхан, З. Лонжид*, Улаанбаатар, p. 11.

21 Ж. Гэрэлвадрах, 2014, *Монголчуудын нэгдсэн улс байгуулахын төл өөх тэмцэл I, Варимт бичий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p. 8, pp. 71~74.

22 Urgunge Onon & Derrick Pritchatt, 1989, *Asia's First Modern Revolution*, Leiden · New York · København · Köln, p. 23, 39; Ж. Гэрэлвадрах, 2014, 위의 책, p. 7.

될 것입니다”²³라고 얼마 후 열릴 즉위식을 몽골제국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포포프라는 러시아인도 “몽골이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 입헌군주국이 되지는 못했으나 칭기스 칸이 건설한 제국과 전통적인 관계가 있는 군주가 무한(無限) 권력을 갖는 제국이 되었다”²⁴라고 하듯이 새로운 국가를 몽골제국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처럼 새 국가를 몽골제국, 새 군주를 칭기스 칸과 연결시킨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우선 신정부의 군주로 추대된 쩡준담바 호탁트는 형식상 칭기스 칸의 직계후손이었다.²⁵ 몽골제국은 또한 모든 몽골인들을 통합한 통일국가였다. 이런 점에서 몽골제국은 민족통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1911년 12월 1일 독립선언 전후한 시기의 문건에 “대몽골국”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주목을 요한다. 같은 해 11월 30일 임시정부는 후에 주재 청조 판사대신(辦事大臣) 산도[San-Do, 三多]에게 사람을 보내 “몽골인들은 모든 땅을 스스로 지키고, 전권을 가진 대몽골국을 건설하여, 쩡준담바를 칸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통지하고 신속히 몽골을 떠날 것을 요청하였다.²⁶ 또한 12월 7일 임시정부는 할하와 접경하고 있는 실링골(Shilingol)맹, 울란차브(Ulaantsav)맹, 이흐 조(Ikh zuu)맹, 알라샤, 다리강가, 바르가 등지의 몽골인에게 서신을 보내 대몽골국을 세우려는 중요한 때에 각자의 지역방위를 튼튼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²⁷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몽골국은 1206년에 창건된 몽골제국

23 陳春華 譯, 1991, 『俄國外交文書選譯』,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쪽.
 24 И. И. Попов, 1912, *От Небесной Империи к Серединной Республике: История Китая, Монголии, Тибета и наших Сношений с Китаем*, Москва, p. 267.
 25 칭기스 칸의 직계인 투셰트 칸 고펬도르지의 아들 자나바자르(1635~1723)는 티베트의 活佛 쩡준담바의 轉生으로 추대되었는데, 그 후 그와 그의 전생들은 몽골불교의 수장 역할을 하였다. 위의 쩡준담바는 자나바자르 이후 여덟 번째 전생이다. 그는 티베트인이지만 제1대 쩡준담바의 전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칭기스 칸의 후예로 인정된다.
 26 Л. Дэндэв, 2006, 앞의 책, p. 84; 陳崇祖, 1965, 『外蒙古近世史』, 臺北: 文海出版社, 10~11쪽.
 27 Б. Ширэндэв, Ш. Напагдорж, 1972, В. *Котвичийн хувийн архиваас*

의 공식명칭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몽골제국은 민족통합의 상징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를 대몽골국이라고 부른 것은 민족통합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부 내각 구성에 내몽골 등지에서 귀부해 온 사람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것도 민족통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당시 중앙부서의 차관은 대부분 내몽골인이 담당했는데, 그중 일부는 식견이 뛰어나 장관들이 그들을 시켰다²⁸고 하듯이 신정부 내에서 내몽골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귀부자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한 것은 이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민족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에서 나왔다. 이는 1912년 5~8월에 진행된 호브드(Khovd) 통합전쟁에서도 확인된다. 이전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브드 전투는 할하, 바르가, 차하르, 오랑하이, 두르부드, 토르고드 등 몽골계 민족의 대동단결하에 수행되었다. 또한 담딩수렌(Damdinsüren), 막사르자브(Magsarjav), 톡토흐(Togtokh), 하이산, 담딩바자르(Damdinbazar), 담비장찬(Dambijantsan) 등 할하, 내몽골, 서몽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투를 지휘하고, 심지어 탄누 오랑하이인들까지 전쟁에 참여한 것²⁹은 이 전쟁이 민족통합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민족통합을 향한 몽골인의 노력은 1912년 10~11월에 진행된 몽러회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시기 러시아의 대몽골정책의 기초는 “몽골의 지위를 중국 종주권하의 자치국으로 두고 그 적용범위를 할하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11년 8월 17일 각료회의 의장 스톨리핀(P. A. Stolypin) 주재하에 열린 “원동

олдсон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зарим бичиг, Үлаанбаатар: Ш 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хэвлэл, pp. 103~106; Н. Магсаржав, 1994, 앞의 책, p. 11.

28 中見立夫, 1976, 「ハイサンとオタイ」, 『東洋學報』 57-1/2, 133쪽.

29 Josef Šima, 1974, “On the Character of the So-Called Pan-Mongol Movement After 1911”, *Ar Or* 42-2, pp. 103~104; Л. Жамсран, 1992, 앞의 책, p. 87.

문제특별회의” 결정으로 제정러시아가 소멸할 때까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외교관 코로스토비츠도 이 원칙에 따라 몽골과의 교섭을 시도하였다. 몽골 측은 귀부지역의 몽골국에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중국과 협상하겠다고 협박하였다.³⁰ 난항을 거듭하던 회담은 몽골의 범위에서 내몽골을 빼는 대신 협정문에 “외몽골”을 “몽골”로 쓰자는 몽골 측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1912년 11월 3일에 타결되었다. 사실 “몽골”이라는 단어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말이다.³¹ 일부 연구자들은 몽골 측이 이처럼 애매한 개념의 사용을 주장한 것은 향후 몽골의 범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즉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려운 내몽골을 협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 “몽골”이라고 영토의 범위를 애매하게 처리함으로써 후일을 기약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몽골정부는 몽리협정을 전후한 시기부터 몽골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즉 몽골정부는 몽리협정 체결 직후인 1912년 말 한드도르지(Khanddorj) 외무장관을 페테르부르크에 파견하여 내몽골을 지배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외교교섭을 시도한다. 또한 몽골 대표단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머무는 동안 체렌치메드(Tserenchimed) 내무장관 등은 민족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물론 전자는 러시아, 후자는 하얼빈 주재 러시아 및 일본 외교관의 방해로 실패한다. 외교협상을 통한 민족통합 노력이 좌절되자 몽골인들은 무력을 통한 내몽골 통합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1913년 초에 시작된 내몽골 통합전쟁이다.

내몽골 통합전쟁은 중화민국의 적극적인 내몽골 정책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30 陳春華 譯, 1991, 앞의 책, 72~76쪽; Baabar, 1999, *From World Power to Soviet Satellite, History of Mongolia*, Edited by C. Kaplonski, University of Cambridge, pp. 150~151.

31 О. Батсайхан, 2002, *Монголы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 ба Хятад, Орос, Монгол гурван улсын 1915 оны хиагтын гэрээ*, Улаанбаатар, p. 85; 울르가다이·타이븐, 2003, 「ボグド・ハン政府軍の一九一三年の内モンゴルへの軍事行動についての考察」, 『蒙古史研究』7, 461~462쪽.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1911년 독립선언 이후 본격화된 민족통합정책의 한 과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전술했듯이 몽골인들은 독립선언 이전부터 내몽골 통합을 기획하고, 독립선언 직후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 따라서 몽골 입장에서 보면 내몽골은 통합되어야 마땅하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었다. 독립선언 직후 임시정부에서 내몽골 등지에 보낸 호소문에서 각 지역의 방위를 특기한 것³²도 이 때문이었다. 내몽골 통합전쟁의 지휘관들이 대부분 내몽골 출신의 귀부자들이라는 것도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이다. 코로스토비츠의 회고에 따르면 바로 이들이 내몽골 침공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³³

무기와 보급 및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초기 내몽골 원정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1913년 11월 5일 러중 베이징선언[北京宣言] 직후 러시아의 개입으로 몽골군의 군사작전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리고 대략 19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에 걸쳐 몽골군의 철군이 이루어지면서 내몽골 통합전쟁은 종결된다. 그 후에도 물론 외교적 수단에 의한 내몽골 통합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독립선언과 함께 추진된 적극적인 민족통합운동의 열기는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한다. 주지하듯이 그 후 1915년 카흐타 삼국협정에 의하여 몽골은 독립을 상실하고 중국 종주권하의 자치국으로 전락한다.³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19년 말 중국은 무력을 동원하여 몽골의 자치국 지위마저 폐기하고 직접지배

32 Б. Ширэндэв, Ш. Нацагдорж, 1972, 앞의 책, pp. 103~106.

33 コロストヴィエツ 著, 高山洋吉 譯, 1943, 앞의 책, 362~365쪽.

34 1919년 봄 러시아 치타에서는 부랴트인, 내몽골인, 바르가인들의 주도로 몽골족의 통합을 목표로 내건 대몽골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反볼셰비키파의 세묘노프(G. M. Semyonov) 및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과의 관련성 등 여러 이유로 이 문제는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原暉之, 1989, 『シベリア出兵-革命と干渉 1917-1922』, 東京: 筑摩書房; 二木博史, 1997b, 앞의 글; Б. В. Базаров, 2002, 앞의 책; Ivan Sablin, 2017, *Governing Post-Imperial Siberia and Mongolia, 1911-1924, Buddhism,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State and Autonomy Building*, New York: Routledge 등 참고.

를 실현한다. 이렇게 하여 청조로부터 독립과 함께 실행에 옮겨진 민족통합운동은 잠시 중단된다.³⁵

Ⅲ. 1921년 혁명과 범몽골주의의 새로운 전개

1921년 혁명과 더불어 몽골인들은 또다시 민족통합에 나선다. 몽골인들의 민족통합에 대한 의지는 몽골인민당 제1회 당 대회(1921년 3월 1~3일)에서 채택된 당 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부랴트인 체벤 잠차라노(Ts. J. Jamtsarano)가 작성한 당해 강령 제2항에는 인민당의 과제로서 민족통합이 명기되어 있다.³⁶ 그해 7월 11일 인민정부 수립 후 몽골인들은 이 지침에 따라 곧바로 민족통합에 착수하였다. 1921년 10월 26일~11월 5일에 열린 몽리회담이 그 출발점이었다. 첫 회의에서 단장(S. Danzan)을 비롯한 몽골 대표들은 소비에트 대표에게 “몽골 대표의 선언”이라는 8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항목에는 몽골인들이 해결해야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몽골족의 통합, 중국으로부터 해방, 독립국가 건설”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에트 측이 즉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³⁷ 사실 몽골대표단이 제시한 민족통합, 중국으로부터의 해방, 독립국가 건설은 1911년 독립선언 이후 전개된 민족운동의 핵심 과제였다.

“몽골 대표의 선언” 세 번째 조항과 네 번째 조항에는 민족통합을 위한 구체

35 이평래, 2009, 「1912-1913년 북드 정부의 내몽골 통합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14호, 75~77쪽.

36 Ж. Болдбаатар, М. Саждорж, Б. Ширэндэв, 2003,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Тав дугаар боть*, Улаанбаатар, pp. 115~117; Г. Дашням, З. Лонжид, 2001, *Монголын хувьсгалчдын түүхт зөвлөлтөөн(1921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1-3)*, Улаанбаатар, pp. 57~59.

37 青木雅浩, 2011, 『モンゴル近現代史研究』, 東京: 早稲田大學出版部, 43쪽.

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³⁸ 먼저 세 번째 조항에서 몽골정부는 탄누 오랑하이
 이가 칭 지배 시기 내내 몽골의 관할하에 있었음을 근거로 이곳을 몽골에 귀속
 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몽골인들은 그전에도 소비에트 측에 오랑하이 귀속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컨대 1920년 8월 몽골 대표들은 이르쿠츠크에서 코민테
 른 대표에게 제정 시기 러시아에 빼앗긴 탄누 오랑하이를 몽골로 귀속시켜달라
 고 요청하고, 그해 가을 모스크바에 가서도 소비에트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의견
 을 전하였다. 또한 1921년 6~7월 코민테른 제3회 대회에 참가한 몽골 대표들
 역시 탄누 오랑하이 귀속문제를 거론하였다.³⁹ 전술했듯이 1911년 12월 29일
 신정부 출범 직후 몽골정부는 모든 몽골족 거주지에 귀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
 냈는데, 탄누 오랑하이도 그중 하나였다.⁴⁰ 따라서 세 번째 조항의 오랑하이 귀
 속 요청은 1911년 독립선언 이후 발흥한 민족통합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조항은 종교와 뿌리가 같은 부랴트인들의 할하로의 이주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 와중에 부랴트에서 몽골로 이
 주한 사람이 많았을 뿐 아니라 1921년 몽골혁명을 전후해서도 많은 부랴트인
 이 몽골로 이주하였다. 그런가 하면 1921년 이후 부랴트인 거주지에서는 부랴
 트의 할하에의 통합 움직임까지 나타났다.⁴¹ 인민정부에서는 이 모든 사정을 고
 려하여 부랴트인의 이주에 대한 소비에트의 관대한 조치를 요청했던 것이다. 따
 라서 부랴트인들의 이주허가 요청도 민족통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8 Ж. Лонжид, О. Батсайхан, 1995, *Жанжин Данзан*, Улаанбаатар, pp. 11~12; 青木雅浩, 2011, 위의 책, 44쪽.

39 Ж. Лонжид, О. Батсайхан, 1995, 위의 책, pp. 13~14; 青木雅浩, 2011, 위
 의 책, 63쪽, 70쪽.

40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1982, 『中俄關係史料-外蒙古』, 臺北, 120~121쪽.

41 生駒雅則, 1995, 「ダムバドルツ政權下のモンゴル: 第一次國共合作とモンゴル
 民族解放運動」, 『一九二〇年代の中國』, 東京: 汲古書院, 279쪽.

이렇게 보면 두 조항은 상술한 민족통합에 관한 당 강령의 지침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정부는 1924년까지도 공식적으로 이 민족통합노선을 견지하였다. 이는 “몽골계 여러 집단과 관계를 맺고 전체 몽골족을 통합한다는 목표는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이다”⁴²라고 규정한 인민당 제 3회 당 대회(1924년 8~9월) 결정문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제1회 국가대회의(의회, 1924년 11월 8~28일)에서 몽골과 소비에트 및 코민테른 대표 외에 부랴트, 티베트, 오르도스, 바르가 대표 등 14명이 축사를 한 것⁴³도 몽골족 통합의 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축사에서는 실제로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저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몽골족을 통합하는 데 향하게 하고, 아시아 피압박 약소국 대중을 예속에서 해방시키는 데 원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⁴⁴라고 한 부랴트 인민위원장 에르바노프(M. N. Ervanov)의 축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민족통합 염원은 오르도스와 바르가 및 기타 지역에서 온 몽골인 대표들의 축사에서도 확인된다.⁴⁵

그 후 민족통합운동은 내몽골혁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하지 만 1921년 혁명은 내몽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청조 말기부터 한인의 이주와 목초지 개간에 저항했던 내몽골인들은 1911년 독립선언 후 신생 몽골국에 귀부하고, 1919년 대몽골국 건설운동에 참여했으며, 1921년 혁명에 자극을 받아 각지에서 민족주의 활동가 그룹이 생겨났다.⁴⁶ 이 과정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의 당과 정부는 무기와 자금지원, 당원교육 등을 통해 내몽골 활동가들을 원조하였

42 Г. Долгоржав, 1966, *Монгол ард намын гурув дугаар их хурал*, Үлаа 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p. 220.

43 Ж. Болдбаатар, М. Саждорж, Б. Ширэндэв, 2003, 앞의 책, p. 153.

44 С. Баатар, “Нармай Монгол” хэмээх хадны мангаа, <http://www.fact.mn/2848.html>(검색일: 2020년 1월 11일).

45 Robert A. Rupen, 1964, 앞의 책, p. 187.

46 ボルツギン・フスレ, 2011, 『中國共産黨・國民黨の對内モンゴル政策(1945-49年)』, 東京: 風響社, 31쪽.

다. 특히 담바도르지(Ts. Dambadorj) 집권기인 1924~1927년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925년 10월 13일 장자커우[張家口]에서 개최된 내몽골 인민혁명당 제1회 당 대회에 몽골인민혁명당(1925년 3월 이전에는 몽골인민당) 중앙위위원장 담바도르지, 몽골혁명청년동맹 중앙위서기 보안네메흐(S. Buyannemekh)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1925년에 개최된 제4회 당 대회 보고에 의하면 몽골인민혁명당은 지난 1년간 2만 투그릭(당시 당의 1년 수입은 7만 투그릭)을 내몽골인민혁명을 위해 지출하고, 1926년 인민혁명당 중앙위는 5만 양전(洋錢)을 당의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재교육에 방면에서도 1926년 말 40명 이상의 내몽골 활동가를 울란바토르 당대학에서 교육시켰다.⁴⁷

사회주의 시기 몽골 연구자들은 담바도르지 정권의 내몽골에 대한 지원을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주의적 활동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연구자들은 담바도르지가 내몽골 지원의 이론적 근거를 위에서 인용한 제3회 당 대회의 민족통합 관련 결정문에서 찾고 있다는 점, 담바도르지가 범몽골주의자인 부랴트인 엘베크도르지 린치노(E. D. Rinchino)와 몽골 주재 코민테른 대표의 갈등에서 전자를 옹호한 점, 1927년부터 민족통합운동을 좌악시킨 코민테른과 담바도르지 정권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점 등을 들어 이 시기 내몽골에 대한 원조가 민족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⁸

이 점은 두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부랴트 활동가 엘베크도르지 린치노는 1911년 독립선언을 할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 몽골족의 독립을 의미하고, 이러한 민족통합사상이 몽골인민당 강령으로 이어졌으며, 내몽골인민혁명당에 대한 지원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20세기 초기 민

47 二木博史, 1984, 「ダムバドルジ政権の内モンゴル革命援助」, 『一橋論叢』 92-3, 370~371쪽; Irina Y. Morozova, 2009, *Socialist Revolutions in Asia, The Social History of Mongolia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Routledge, pp. 56~57.

48 二木博史, 1984, 위의 글, 375~378쪽.

족통합운동을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⁴⁹ 또한 내몽골인민혁명당의 설립과정과 그 후 활동을 통해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메르세[Merse, 郭道甫], 보얀게렐[Buyangerel, 福明泰] 등 내몽골인민혁명당 창립 주도세력이 처음에 몽골인민당원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속한 홀룬보이르(Khölönbuir)혁명 그룹이 원래 몽골인민당 동방부로서 출발했다는 것이 이를 증언한다. 메르세 등은 1919년 치타에서 전개된 대몽골국 건설운동에도 참여할 만큼 홀룬보이르 지역은 범몽골주의 전통이 강한 곳이다. 상기한 것처럼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과 몽골혁명청년동맹 서기가 내몽골인민혁명당의 창당대회에 참가하고, 10명의 당 중앙위원 중에 홀룬보이르 출신자와 내몽골 출신자 외에, 할하 출신의 보얀네메흐와 부랴트 출신의 오시로프(I. A. Oshirov)가 선출된 것 또한 내몽골인민혁명당의 범몽골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⁰

그러나 1927년 장제스의 반공 쿠데타로 국공합작이 붕괴되면서 내몽골인민혁명당은 분열되고 곧이어 소멸로 이어졌다. 몽골인민공화국에서도 1928년에 개최된 제7회 당 대회에서 담바도르지를 비롯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부가 모스크바 유학생들로 교체되면서 민족통합운동에 제동이 걸렸다. 물론 그 후에도 체벤 잠차라노가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 서한(1931년 8월 15일)을 보내 민족통합방안을 제안하고,⁵¹ 아마르(A. Amar) 몽골인민공화국 총리가 스탈린과의 회담(1936년 12월 23일) 도중 내몽골 통합에 대한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⁵² 이전처럼 적극적인 통합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몽골인들의 생각과 별개로 소련과 코민테른은 처음부터 민족통합운동을 범

49 Э. Д. Ринчино, 1927, “К Вопросу о Национальном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и и Монголии в Связи с Задачами Китайской Революции”, *Революционный Восток* № 2, pp. 66~70, p. 74.

50 볼즈긴·프스레, 2011, 앞의 책, 31~40쪽.

51 С. Идшинноров, 1997, *Жамсраны Цэвээн, Түүвэр зохиолууд*, Улаанбаатар, 8, pp. 35~37.

52 О. Батсайхан, 2005,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д (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p. 265.

몽골주의로 경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제4회 당 대회에서 결정된 제2차 당 강령에 1921년 제1회 당 대회에서 채택한 민족통합을 적시한 강령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1925년 9월 25일 열린 제4회 당 대회 결정문을 보면 “몽골족 자신의 바람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민족을)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은 동방의 여러 나라, 특히 중국에서 민족해방을 위한 국민혁명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밝혀둔다”⁵³라고 되어 있듯이 민족통합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당 강령에 대한 몽골 주재 코민테른 대표 암가예프(M. Amagaev, 1925년 8월~1927년 12월 재임)의 발언, 즉 “할하 몽골을 중심으로 다른 몽골 여러 집단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좋지 않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몽골국 건설이라는 위험한 길로 들어갈 것이다”⁵⁴라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⁵⁵

따라서 제4회 당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에 민족통합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코민테른 대표 암가예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제정러시아는 할하와 내몽골 등 기타 몽골인 거주지의 통합에 확실하게 반대하였다. 이 기조는 소련 시기에도 일관되게 지켰으며, 소련 당국은 범몽골주의를 경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⁵⁶ 그 구체적인 지침이 방금 언급한 암가예프의 발언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1930년대 후반에 수많은 몽골인

53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дэргэдэх намын түүхийн институт, 1966, *Монгол ардын хувьсгалт нам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 бичгүүд 1920-1940 он, Нэг дүгээр дэвтэр*, Улаа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p. 144.

54 *Монгол ардын хувьсгалт намын IV их хурал(1971)*, Улаанбаатар: p. 97(二木博史, 1984, 앞의 글, 376쪽에서 재인용).

55 1925년 이후 민족통합운동에 대한 소련과 코민테른의 압박에 대한 설명은 Robert A. Rupen, 1966, 앞의 책, pp. 187~188 참고.

56 Robert A. Rupen, 1964, 앞의 책, p. 186; Болзугин·Фусле, 2011, 앞의 책, 118쪽; Ц. Ватбаяр, 2015, *Монгол ба их гүрнүүд, XX зуун 1 боть*, Улаанбаатар, p. 334.

이 범몽골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숙청되었다.⁵⁷ 이렇게 하여 인민정부 수립과 함께 새롭게 전개된 민족통합운동은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IV. 제2차 세계대전과 범몽골주의의 쇠퇴

제2차 세계대전은 1930년에 중단된 내외몽골 통일운동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1927년 이후 닫혀 있던 몽골과 중국(내몽골)의 국경은 1945년 가을부터 유동적으로 변하였다. 이 시기에 국경 양쪽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대표들이 파견되고 민족통합을 위한 각종 집회가 열렸다.⁵⁸ 1930년대 중반 이후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민족통합운동이 재개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민족통합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44년 1월 22일 몽골 지도자 초이발산(Kh. Choibalsan)은 스탈린과의 회담 말미에서 닝샤, 간쑤, 칭하이 등지의 몽골족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을 요청했는데, 스탈린은 이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표하였다. 몽골족 사이에서의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그날 밤 만찬 석상에서 스탈린이 초이발산을 가리켜 외몽골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내몽골 지도자라고 추켜세우고, 동석한 미코얀(A. I. Mikoyan)이 내몽골인들이 자유를 얻으면 몽골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한 것⁵⁹으로 미루어 민족통합을 말한 것이 분명하다.⁶⁰

57 Г. Ариунболд, 2011, 앞의 책.

58 Christopher P. Atwood, 1999, "Sino-Soviet Diplomacy and the Second Partition of Mongolia, 1945-1946", *Mongolia in the Twentieth Century, Landlocked Cosmopolitan*, Edited by Stephen Kotkin and Bruce A. Elleman, New York, London: M. E. Sharpe, p. 137.

59 Л. Бат-Очир, 1996, *Чойбалсан, Намтарын нь балархайг тодруулаху й...*, Улаанбаатар, p. 168; О. Батсайхан, 2005, 앞의 책, p. 272.

60 이 말이 곧 스탈린 등이 내외몽골의 통합을 지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이 문

이처럼 양국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민족통합 논의는 1945년 가을 몽골의 대일전(對日戰) 참전으로 구체화되었다. 몽골의 참전이 처음 얘기된 것은 1945년 7월 5일 초이발산과 스탈린의 모스크바 회담 때였다. 몽골의 참전은 국제협력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초이발산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⁶¹ 문제는 초이발산의 참전 요청이 국제협력에 그치지 않고 내몽골 통합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회담 때 초이발산은 스탈린에게 중국인들이 내몽골, 알라샤, 오르도스에 사는 몽골인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는 매우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다음 날 몽골 주재 러시아 대사 이바노프(I. A. Ivanov)를 만나서 내몽골 통합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⁶²

두 지도자의 합의에 따라 몽골의 참전이 확정되었다. 몽골군은 소련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한 다음 날인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을 따라 중국 동북지역과 내몽골로 진군하였다. 초이발산 총리는 8월 9일 전장으로 떠나는 몽골군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은 정부의 명령으로 우리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의 국경을 넘어 모든 몽골인의 철천지원수 일본 사무라이들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인 내몽골, 바르가 영토로 들어갑니다”⁶³라고 대일전을 내몽골 해방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0일 국가소회의와 몽골정부는 “몽골족의 통합”과 “인접국들과의 우호협력”에 근거하여 일본과 “성전(聖戰)”을 선포한다⁶⁴고 발표하였다. 대일 선전포고이다.

선전포고 당일에 있었던 울란바토르 노동자 집회에서 행한 초이발산의 연설

제로 몽골 지도자들을 때로는 고무시키고 때로는 좌절시키면서 몽골문제를 관리하였다.

- 61 Christopher P. Atwood, 1999, 앞의 글, p. 143; Ц. Батбаяр, 2015, 앞의 책, p. 302.
- 62 О. Батсайхан, 2005, 앞의 책, p. 273.
- 63 Д. Цэдэвсүрэн, 1981, *Монгол Зөвлөлийн харилцаа 1921-1974, Бари мт материалын 2 боть эмхтгэл*, Үлаа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p. 134.
- 64 Д. Цэдэвсүрэн, 1981, 위의 책, pp. 135~136.

과 대국민 담화에는 참전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국민 담화에서 초이발산은 “일본 파시스트 집단을 완전히 무찌르고 일본 침략자들을 괴멸시킨 다음, 전체 몽골족을 자유롭고 독립된 완전한 주권을 갖춘 하나의 형제국가로 통합시키는 과업을 충족시킬 것이다”⁶⁵라고 대일전의 목표가 민족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또 노동자 집회에서 할하, 두르부드, 토르고드, 오이라드(Oirad), 부랴트, 바르가, 내몽골, 차하르, 오르도스, 하르친(Kharchin), 다리강가, 알라샤, 칭하이 등지의 몽골인뿐 아니라 신장의 카자흐와 오랑하이 등 투르크계 민족까지 대일전에 나서도록 촉구했는데,⁶⁶ 이는 누가 보아도 몽골족의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⁶⁷

이러한 선전활동은 내몽골에서도 이루어졌다. 소련이 대일전을 선포한 8월 8일 당일 초이발산은 내무부 장관 삭다르자브(B. Shagdarjav)와 동 부처의 소련 선임고문에게 소몽군의 후방에서 활동할 “기동 파견대”의 조직을 지시하였다.⁶⁸ 그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해방된 지역”에서의 질서유지라는 점에서 민족통합을 위한 활동 또한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령지에서의 안무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회를 통한 대면(對面) 요청과 전단지 살포를 통한 간접 요청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연구자가 소개한 1945년 8월 말 차하르 지역과 8월 28일 홀룬보이르 지역에서의 몽골정부 대표의 활동이 이 점을 확인해준다.⁶⁹

여러 연구자의 지적처럼 전단지를 통한 민족통합운동은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내몽골에 뿌려진 전단지의 호소문에는 “몽골 형제들이여! ... 붉은 군대는 아시아 대륙 인민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위대한 몽골인

65 “Үнэн” сонин No. 181, 1945년 8월 11일자.

66 Д. Цэдэвсүрэн, 1981, 앞의 책, pp. 136~139.

67 볼즈긴·프스레, 2011, 앞의 책, 105쪽.

68 Christopher P. Atwood, 1999, 앞의 글, p. 144.

69 Christopher P. Atwood, 1999, 위의 글, pp. 149~152.

민들을 통합시켜 그들에게 민족해방을 가져다주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 점령자들의 면전에서 정의로운 전쟁의 칼을 추켜세웠습니다”⁷⁰라고 대일전에서의 협력과 민족통합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나중에 몽골인민공화국으로 이주한 바르가 출신의 백제(D. Begje)는 이러한 전단지에 국가소회의와 몽골정부의 서명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⁷¹ 이는 곧 전단지가 정부 주도로 제작되고 뿌려졌다는 증거이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현지 거주민에 대한 안무활동과 더불어 “통합하여 사는 것의 축복(Negtgen suukhyn yörööl)”, “주목(注目)을 요하는 글(Ankhaarlyn bichig)” 등의 전단지가 내몽골에 살포되었음이 공문서 및 구술증언에 의하여 확인된다.⁷²

이에 화답하듯 내몽골에서는 소몽군의 진격과 일본군의 패배로 인한 힘의 공백을 틈타 독립운동 및 자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짧은 시기 내몽골에서는 20세기에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도래하였다”⁷³고 지적한 한 연구자의 설명도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당시 내몽골에서는 내외몽골 통합, 독립, 자치 등 내몽골 장래에 대해 세 갈래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⁷⁴

이 중에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27년 이후 해체된 내몽골인민혁명당 부활과 이들에 의하여 주도된 내외몽골 통합운동이다. 1945년 8월 14일 하푹가[Khafunga, 哈豊阿], 보얀만다흐[Buyanmandakh, 博彦滿都] 등 옛 만주국 관리들은 동몽골(내몽골 동부)에서 내몽골인민해방위원회

70 Л. Жамсран, 1997, *Монголын төрий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н сэргэлт*, Улаанбаатар, p. 244.

71 УТА X-11, Д-1, Хд-911, no. 96.

72 Л. Жамсран, 1997, 앞의 책, pp. 244~245; Christopher P. Atwood, 1999, 앞의 글, pp. 152~153.

73 볼쯔긴·فس레, 2011, 앞의 책, 97쪽.

74 Л. Жамсран, 1997, 앞의 책, p. 250; 毛里和子, 2008, 『周縁からの中國, 民族問題と國家』, 東京: 東京大出版會, 177~179쪽; 볼쯔긴·فس레, 2011, 앞의 책, 97쪽.

를 조직하고, 4일 후인 18일 내몽골인민혁명당을 부활시키고 같은 당 동몽골중앙위원회 명의로 “내몽골인민해방선언”을 발표하였다.⁷⁵ 당해 선언문에는 “내몽골인민혁명당 지도하에 소련과 몽골인민공화국의 지도를 받아 내몽골을 몽골인민공화국에 가입시킨다”라고 내외몽골 통합이 표명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발표된 몽골인민공화국 총리와 간부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도 “전체 몽골족의 통합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고 역시 민족통합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동몽골 지역의 내외몽골 통합운동은 1945년 10월 5일 내몽골인민혁명청년동맹 결성, 내외몽골 통합을 위한 선전과 서명운동, 몽골인민공화국 지도자 초이발산에의 통합 청원서 제출 등 여러 방식으로 이어졌다. 물론 내몽골 중부지역인 실링골맹과 차하르맹 등지에서도 몽골인민공화국과의 통합 청원서가 제출되었지만⁷⁶ 통합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된 곳은 동몽골이다.

이처럼 내외몽골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민족통합운동은 소련정부의 압력과 중국 내 민족운동 그룹 간 이합집산에 따라 갑자기 그 열기가 식어간다. 우선 언론 보도내용이 완전히 바뀐다. 1945년 8월 10일 대일 선전포고 후 2주일 이상 몽골인민공화국 언론은 대일전을 민족통합을 위한 성전으로 언급하고, 이 기간에 대중매체에서 몽골족 통합 관련 슬로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26일을 끝으로 언론에서 내외몽골 통합 관련 기사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다. 그 대신 8월 28일에는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한 장제스 인터뷰 기사가 소개되고, 그 다음 날인 8월 29일에는 8월 14일에 체결된 중소우호조약 기사가 대서특필된다.⁷⁷ 사회주의 시기 대중매체가 정부 통제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75 Л. Жамсран, 1997, 앞의 책, pp. 248~249; 毛里和子, 2008, 위의 책, 185쪽; 볼즈긴·فس레, 2011, 위의 책, 98~99쪽.

76 Christopher P. Atwood, 1999, 앞의 글, pp. 148~152; 볼즈긴·فس레, 2011, 위의 책, 18~19쪽.

77 이 시기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Christopher P. Atwood, 1999, 위의 글, pp. 152~153; Ц. Батбаяр, 2015, 앞의 책, pp. 308~309; Ж. Үрангуя, Б. Эрдэ нэбилэг, 2018, *Дайны золиос болсон хүмүүс 1945–1947 онд Монгол д байсан японцууд*, Улаанбаатар, pp. 46~47 등 참고.

언론보도의 변화는 국가정책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변화 이면에 소련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체로 1945년 10월과 11월을 지나면서 내몽골에서의 민족통합운동도 서서히 막을 내린다. 소련의 개입, 내몽인들의 통합청원에 대한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⁷⁸ 중국공산당의 적극적인 활동 등 여러 이유로 내몽골의 민족통합 주창자들은 1945년 말~1946년 초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 후 내몽골 민족운동 그룹은 중국공산당원 올란 후[Ulaan khüü, 雲澤, 1906~1988]가 지도하는 자치운동의 기치하에 하나로 통합된다.

그렇다고 민족통합을 위한 몽골인들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초이발산은 실링골맹 수니드 우기(右旗)에서 “내몽골인민공화국임시정부” 헌법이 통과된 직후인 1945년 9월 16~18일 이곳을 방문한다. 임시정부를 축하하기 위한 사적인 방문이라고 하지만 내몽골 통합을 염두에 둔 방문이 틀림없다.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그의 방문 자체가 내몽골인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한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⁷⁹ 그는 또한 같은 해 10월에도 현재의 국경선에 몽골의 모든 영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몽중 국경에 대하여 다시 토의해야 한다⁸⁰는 의견을 몽골 주재 소련 대사에게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외

78 대다수 연구자들은 초이발산이 내외몽골 통합을 요청한 내몽골인들의 청원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잠스란(Л. Жамсран, 1997, 앞의 책, p. 251)의 말대로 몽골정부가 내외몽골 통합을 원치 않은 소련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초이발산이 올란바토르를 찾아온 내몽골 대표의 청원을 거절했다는 몽골 자료는 없다. 애트우드(Christopher P. Atwood, 1992, “The East Mongolian Revolution and Chinese Communism”, *Mongolian Studies* Vol. 15, p. 42)는 내몽골 대표단의 한 사람인 보안계렬의 증언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이발산이 내몽골 측의 내외몽골 통합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의는 보르지긴 후슬레(ボルツギン·フスレ, 2001, 앞의 책, 118쪽)가 지적한 것처럼 내몽골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중국 측 논리에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9 Xiaoyuan Liu, 2006, 앞의 책, p. 366.

80 王永祥, 2003, 『雅爾達密約與中蘇日蘇關係』, 臺北: 東大圖書公司, 431쪽.

몽골”만의 독립을 약속한 중소우호조약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초이발산과 몽골 지도자들은 1945년 8월 14일 중소 간에 교환된 몽골인민공화국만의 독립을 명시한 각서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였다.⁸¹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초이발산은 민족통합이 좌절된 데 대한 불만으로 그해 12월 21일 스탈린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지 않았다⁸²고 알려질 정도로 몽골인들의 내몽골 통합 의지는 강렬하였다.

그 때문이었겠지만 1946년 2월 22일에도 초이발산은 스탈린에게 싱안맹 [興安盟]과 내몽골에서의 선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⁸³ 내몽골 통합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 후에도 초이발산과 스탈린은 여러 차례 내외몽골 통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예컨대 1947년 8월 27일 캅카스의 휴양지⁸⁴와 1949년 9월 30일~10월 1일 소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내외몽골 통합과 몽골의 장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1949년 소치 만남에서 초이발산은 내외몽골인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하고, 두 지역의 몽골인들이 언어, 관습, 종교가 같을 뿐 아니라 내몽골인들이 몽골인민공화국과 통합을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민족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⁸⁵ 초이발산 이후 몽골 지도자들 중 민족통합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정치지도자는 확인되지 않는다.⁸⁶ 예컨대 초이발산 사후 권좌에 오른 체덴발(Yu. Tsendenbal)은 1952년 9월 5일 회담에서 내몽골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의도적인 질문에 대

81 С. Г. Лузянин, 2003,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Политиче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 1911-1946 гг.*,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ОГНИ〉, pp. 253~254.

82 Christopher P. Atwood, 1999, 앞의 글, p. 157.

83 О. Батсайхан, 2005, 앞의 책, p. 313.

84 Л. Бат-Очир, 1996, 앞의 책, pp. 181~182; Ц. Батбаяр, 2015, 앞의 책, p. 323.

85 Л. Бат-Очир, 1996, 위의 책, pp. 185~188; О. Батсайхан, 2005, 앞의 책, pp. 317~319; Ц. Батбаяр, 2015, 위의 책, pp. 330~333.

86 П. Наранбаяр, 2017, 앞의 글, p. 174.

해 아예 민족통합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⁸⁷ 당연히 그런 정치운동이나 회담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1952년 1월 26일 초이발산의 죽음과 더불어 20세기 초기에 발흥한 범몽골주의의 불꽃이 점점 꺼져갔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20세기 초기에 발흥한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추이를 민족통합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 후 1990년대 초기 체제전환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범몽골주의의 또 다른 현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려고 한다.

첫째, 1911년 독립선언 후 전개된 민족통합운동을 범몽골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청조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독립국가 수립은 수백 년 동안 몽골인들이 꿈꿔온 민족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민족통합운동은 서신을 통한 귀부권유와 외교교섭 등 평화적인 방법뿐 아니라 무력을 동원한 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병력, 군수물자, 무기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된 1913년 내몽골 통합전쟁은 비록 실패했지만 민족통합운동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내몽골 통합전쟁의 실패 후에도 외교적 수단에 의한 내몽골 통합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독립선언과 함께 추진된 적극적 민족통합 열기는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한다. 그리고 1915년 카흐타 삼국협정으로 몽골이 중국 종주권하의 자치국이 되면서 민족통합운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둘째, 1921년 혁명 후 전개된 민족통합운동을 범몽골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21년 혁명과 독립국가 수립 후 몽골인들은 또다시 민족통합에 나선다. 무엇보다도 몽골인민당 제1회 당 대회(1921년 3월 1~3일)에서 승인된 당 강령에

87 O. Батсайхан, 2005, 앞의 책, pp. 319~321.

민족통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확인해준다. 이 강령에 따라 몽골인민당과 정부 지도자들은 소비에트 측에 탄누 오랑하이의 몽골로의 귀속과 부랴트인의 몽골 이주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1924~1927년 담바도르지 정권 시기에는 내몽골 민족운동 진영에 대한 무기와 자금 및 인력양성 교육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코민테른이 민족통합운동에 개입하고, 1928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부가 축출되면서 민족통합운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 연장선상에서 그 후 수많은 몽골인이 범몽골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숙청되면서 민족통합운동은 또다시 중단된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전후하여 진행된 민족통합운동을 범몽골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45년 8월 9일 몽골군은 소련군과 함께 대일전에 나서 만주와 내몽골로 진격하였다. 이때 몽골군은 일본군으로부터 동 지역을 해방 시킴과 함께 내몽골인에 대한 통합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합 작업은 전단지 배포를 통한 민족단결 호소와 점령지에서의 대면 작업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지 몽골인들 역시 1920년대 후반에 소멸한 내몽골인민혁명당 부활을 통한 몽골인민혁명당과의 관계 증진 및 몽골인민공화국과의 통합선전, 몽골정부에 대한 통합 청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몽골군의 통합요청에 협조하였다. 소련은 이번에도 민족통합운동에 개입하여 또다시 몽골인들의 꿈을 좌절시켰다. 물론 초이발산 몽골 총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때까지 스탈린과의 회담을 통하여 내몽골 통합을 시도하지만 소련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지속된 민족통합운동은 1952년 1월 26일 강력한 범몽골주의자였던 초이발산 총리가 사망한 후 서서히 막을 내리고, 대략 이 시기부터 할하 중심주의(Khalkh-Centrism)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할하는 지역적으로 외몽골, 종족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다수 집단을 지칭하는 말인데, 1950년대 중반 이후 몽골에서는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범몽골주의 대신 할하를 중시하는 할하 중심주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할하방언과 할하문화가 몽골어와 몽골문화의 기준이 되고 할하와 다른 몽골계 민족 상호 간에 차별의식이

생겨난다. 할하 중심주의는 범몽골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여기에도 소련의 정책이 개입하였다. 당시 소련은 중국에 인민정권이 수립된 마당에 몽골인민공화국을 확실하게 자국의 위성국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범몽골주의를 견제하고 할하 중심주의를 조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기 소련 붕괴와 몽골인민공화국의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몽골 민족주의가 흥기하면서 몽골, 중국, 러시아에 사는 몽골계 민족 사이에서 다시 민족통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문화통합과 전통의 계승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범몽골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부활한 것이다. 처음에는 민족어와 민족종교의 보전이 중심이 되었지만 현재는 문화와 예술, 축제 등 거의 전 영역으로 통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범몽골주의의 현재의 모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평가하기도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몽골인들이 문화적 통합과 전통의 계승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이지만 몽골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부랴트 공화국 및 기타 지역의 몽골인 중에는 아직도 전체 몽골족의 통합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정부가 이러한 몽골인들의 활동에 늘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몽골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 박종소, 2001,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러시아연구』 11-2.
-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지음, 박종소 옮김, 2009, 『악에 관한 세 편의 대화』, 문학과지성사.
- 이평래, 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
- _____, 2009, 「1912-1913년 북드 정부의 내몽골 통합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14호.

중국어

- 王永祥, 2003, 『雅爾達密約與中蘇日蘇關係』, 臺北: 東大圖書公司.
- 張啓雄, 2001, 「汎モンゴル統一運動-別角度から見たハルハ獨立-」, 『人文學報』 85.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1982, 『中俄關係史料-外蒙古』, 臺北.
- 陳崇祖, 1965, 『外蒙古近世史』, 臺北: 文海出版社.
- 陳春華 譯, 1991, 『俄國外交文書選譯』,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일본어

- 毛里和子, 2008, 『周縁からの中國, 民族問題と國家』, 東京: 東京大出版會.
- ボルツギン・フスレ, 2011, 『中國共產黨・國民黨の對内モンゴル政策(1945-49年)』, 東京: 風響社.
- 生駒雅則, 1995, 「ダムバドルツ政權下のモンゴル: 第一次國共合作とモンゴル民族解放運動」, 『一九二〇年代の中國』, 東京: 汲古書院.
- ウルゲダイ・タイブン, 2003, 「ボグド・ハン政府軍の一九一三年の内モンゴルへの軍事行動についての考察」, 『蒙古史研究』 7.
- 原暉之, 1989, 『シベリア出兵—革命と干涉 1917-1922』, 東京: 筑摩書房.
- 二木博史, 1984, 「ダムバドルツ政權の内モンゴル革命援助」, 『一橋論叢』 92-3.

- _____, 1997a, 「大モンゴル国臨時政府の成立」, 『東京外国語大学論集』 54.
- _____, 1997b, 「パンモンゴリズムの現在」, 『アジア読本, モンゴル』, 東京: 河出書房新社.
- 田中 克彦, 2017, 「パンモンゴリズムという語の起源と発展」, 『モンゴルと東北アジア』 vol. 3.
- 中見立夫, 1976, 「ハイサンとオタイ」, 『東洋學報』 57-1/2.
- 青木雅浩, 2011, 『モンゴル近現代史研究』, 東京: 早稲田大學出版部.
- コロストヴィエツ 著, 高山洋吉 譯, 1943, 『蒙古近世史』, 東京: 森北書店.

영어

- Atwood, Christopher P., 1992, “The East Mongolian Revolution and Chinese Communism”, *Mongolian Studies* Vol.15.
- _____, 1999, “Sino-Soviet Diplomacy and the Second Partition of Mongolia, 1945-1946”, *Mongolia in the Twentieth Century, Landlocked Cosmopolitan*, Edited by Stephen Kotkin and Bruce A. Elleman, New York, London: M.E. Sharpe.
- Baabar, 1999, *From World Power to Soviet Satellite, History of Mongolia*, Edited by C. Kaplonski, University of Cambridge.
- Kaplonski, Christopher, 2004, *Truth, History, and Politics in Mongol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 Lan, Mei-hua, 1996, *The Mongolian Independence Movement of 1911: A Pan-Mongolian Endeavor*(Ph.D. De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attimore, Owen & Isono, Fujiko, 1982, *Diluv Khutagt-Memoirs Autobiography of a Mongol Buddhist Reincarnation in Religion and Revolutio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Liu, Xiaoyuan, 2006, *Reins of Liberation, An Entangled History of Mongolian Independence, Chinese Territoriality, and Great Power Hegemony 1911-195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rozova, Irina Y., 2009, *Socialist Revolutions in Asia, The Social History of Mongolia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Routledge.

- Onon, Urgunge & Pritchatt, Derrick, 1989, *Asia's First Modern Revolution*, Leiden · New York · København · Köln.
- Rupen, Robert A., 1964, *Mongols of the Twentieth Century. Part I*, Bloomington, Indiana Univ., Hague: Mouton & Co..
- Sablin, Ivan, 2017, *Governing Post-Imperial Siberia and Mongolia, 1911-1924. Buddhism,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State and Autonomy Building*, New York: Routledge.
- Šima, Josef, 1974, "On the Character of the So-Called Pan-Mongol Movement After 1911", *Ar Or* 42-2.

몽골어

- Ариунболд, Г., 2011, "Нармай Монгол"-изм-(“Панмонголизм”)-ын хэрэгт хэлмэгдсэн Монголчууд, 1937-1941, Улаанбаатар.
- Батбаяр, Ц., 2015, *Монгол ба их гүрнүүд, XX зуун 1 боть*, Улаанбаатар.
- Бат-Очир, Л., 1996, *Чойбалсан, Намтарын нь балархайг тодруулахуй...*, Улаанбаатар.
- Батсайхан, О., 2002, *Монголы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 ба Хятад, Орос, Монгол гурван улсын 1915 оны Хиагтын гэрээ*, Улаанбаатар.
- _____, 2005,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д(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 Болдбаатар, Ж., Саждорж, М., Ширэндэв, Б., 2003,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Тав дугаар боть*, Улаанбаатар.
- Гэрэлвадрах, Ж., 2014, *Монголчуудын нэгдсэн улс байгуулахын төлөөх тэмцэл I, Варимт бичий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 Дашням, Г., Лонжид, З., 2001, *Монголын хувьсгалчдын түүхт зөвлөлтөөн(1921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1-3)*, Улаанбаатар.
- Долгоржав, Г., 1966, *Монгол ард намын гурав дугаар их хурал*, Улаа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 Дэндэв, Л., 2003, *XX зууны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эх сурвалж(1911-1921), Үй гаржин монгон бичгээс кирилл үсэгт буулгаж хэвлэлд бэлтгэсэн О.*

- Батсайхан, Үлаанбаатар.
- Дэндэв, Л., 2006, *Монголын товч түүх, Монгол бичгээс хөрвүүлж оршил бичиж тайлбар нэрсийн хэлхээ хийсэн Доктор С.Чулуун*, Үлаанбаатар.
- Жамсран, Л., 1992, *Монголын сэргэн мандалтын эхэн*, Үлаанбаатар.
- _____, 1997, *Монголын төрий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н сэргэлт*, Үлаанбаатар.
- Идшинноров, С., 1997, *Жамсраны Цэвээн, Түүвэр зохиолууд*, Үлаанбаатар.
- Лонжид, Ж., Батсайхан, О., 1995, *Жанжин Данзан*, Үлаанбаатар.
- Магсаржав, Н., 1994,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э түүх, Монголоос кирилл бичигт булгасан О.Батсайхан, З.Лонжид*, Үлаанбаатар.
-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дэргэдэх намын түүхийн институт, *Монгол ардын хувьсгалт нам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 бичгүүд 1920-1940 он, Нэг дүгээр дэвтэр*, Үлаа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 Монгол ардын хувьсгалт намын IV их хурал(1971)*, Үлаанбаатар.
- Наранбаяр, П., 2017, “Нармай монголын үзэлийн тухайд судлаачийн бодол”, *XX зууны Монгол: Түүх, соёл, геополитик,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ууд*, Үлаанбаатар.
- Очир, А., Пүрвээ, Г., 1982,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1911 оны үндэсний эрх чөлөө,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н төлөө тэмцэл, Баримт бичиг эмхтгэл (1900-1914)*, Үлаа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 Үрангуа, Ж., Эрдэнэбилэг, Б., 2018, *Дайны золиос болсон хүмүүс 1945-1947 онд Монголд байсан японцууд*, Үлаанбаатар.
- Цэдэвсүрэн, Д., 1981, *Монгол Зөвлөлийн харилцаа 1921-1974, Баримт материалын 2 боть эмхтгэл*, Үлаанбаатар: Ү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 Шагдарсүрэн, Ц., 2015, “ПанМонголизм буюу нармай Монголын үзэл хэмээгч хийгээд түүний монгол хэл бичигт холбогдсон учир шалтгаан”, *Түүхийн судлал боть XLIII-XLIV*.

Ширэндэв, Б., Напагдорж, Ш., 1972, *В. Котвичийн хувийн архиваас олсон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зарим бичиг*, Ү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хэвлэл.

러시아어

Базаров, Б. В., 2002, *Неизвестное из истории панмонголизма*, Үлан-Үдэ: 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Бурдков, А. В., 1969, *В Старой и Новой Монголи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Лузянин, С. Г., 2003,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Политиче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 1911-1946 гг*,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ОГНИ».

Попов, И. И., 1912, *От Небесной Иимперии к Серединной Республике: История Китая, Монголии, Тибета и Наших Сношений с Китаем*, Москва.

Ринчино, Э. Д., 1927, “К Вопросу о Национальном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и Монголии в Связи с Задачами Китайской Революции”, *Революционный Восток* № 2.

인터넷 자료

Pan-Mongolism, <https://en.wikipedia.org/wiki/Pan-Mongolism>(검색일: 2020년 1월 20일).

Баатар, С., “Нармай Монгол” хэмээх хадны мангаа, <http://www.fact.mn/2848.html>(검색일: 2020년 1월 11일).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추이

이평래

이 글은 20세기 초기에 발흥한 범몽골주의(Pan-Mongolism)의 역사적 추이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범몽골주의는 몽골인들의 정치 및 문화적 통합을 제창하는 민족통합운동과 사상을 말한다. 즉 현재의 몽골국, 중국, 러시아연방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계 민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건립하려는 주장과 운동을 범몽골주의라고 한다. 주로 몽골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동북지역, 신장 등의 몽골인 거주지,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의 통합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몽골국 북부의 투바공화국을 통합의 범위에 넣기도 한다. 그러나 20세기 전체를 통하여 가장 자주 얘기되고, 역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민족통합운동은 몽골국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통합이다.

범몽골주의는 몽골인들이 20세기 초기 청조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발흥하기 시작하여 20세기 내내 민족운동의 중심축으로 기능했으며, 1990년대 초기 몽골국의 체제전환 이후 현재까지도 변형된 형태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추이에 대한 분석은 몽골 근현대사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재 몽골, 중국, 러시아에 분산거주하고 있는 몽골계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세 나라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기를 시야에 넣고 범몽골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하나도 없다. 이 점에 유념하고 지난 1세기의 역사를 범몽골주의 관점에서 재평가함으로써 몽골 근현대사와 몽골, 중국, 러시아의 삼국관계를 새롭게 해석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최종목표이다.

먼저 Ⅱ장에서는 1911년 독립선언 이후 전개된 민족통합운동을 범몽골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1921년 혁명 후 전개된 민족통합운동을 범몽골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전후하여 진행된 민족통합운동을 범몽골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V장 맺음말 부분에서는 1950년대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범몽골주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개진하였다.

주제어: 범몽골주의, 민족통합운동, 몽골국, 네이멍구자치구, 부랴트공화국, 1911년 독립선언, 1921년 혁명, 제2차 세계대전

ABSTRACT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Pan-Mongolism

Lee Pyungra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Pan-Mongolism, which first originat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Pan-Mongolism is an idea and national movement that urges Mongolians' political and cultural unification. In other words, Pan-Mongolism is a national movement to build a single state by uniting Mongolian ethnic groups residing in Mongolia, China and the Russia Federation. The movement specifically calls for the integration of Mongolia,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Neimenggu), Northeast China, Xinjiang as well as the Buryat Republic of the Russia Federation. However, in some cases, the Tuva Republic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Mongolia is also included in the movement. Still, the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that had been most talked about and was realized in the twentieth century is the unification of Mongolia and Inner Mongolia of China.

Since its independence from the Qing dynast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Mongols called for pan-Mongolism, which anchored the

national movement through out the twentieth century. The movement, though in a modified form, still continues even after the change of regime in Mongolia in the early 1990s. Therefore, studying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pan-Mongolism is critical in understanding not only the development of Mongoli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the identity of ethnic Mongolians residing in different locations of Mongolia, China and Russia,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three countrie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is topic, there has been lack of research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an-Mongolism from the twentieth century. With this in mind, the study reexamines the history of the past century with a focus on pan-Mongolism and ultimately offers a new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Mongolia as well as the relations among Mongolia, China and Russia.

In Chapter two, the paper investigates the national movement for unity that was initiated after Mongolia'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11 in terms of pan-Mongolism. Chapter 3 examines the national movement for unity that unfolded after the Revolution of 1921 in the perspective of pan-Mongolism, while Chapter 4 covers the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that began after World War II in the context of pan-Mongolism.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transition of pan-Mongolism from the 1950 to present.

Keywords: Pan-Mongolism, national movement for unity, Mongolia, Inner Mongolia, Buryat Republic,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11, Revolution of 1921, World War II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역사학계의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사 서술 분석

김장구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전문연구원

- I. 머리말
- II. 신중국 성립 이전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
- 「몽고민족문제」(1946/1993)를 중심으로
- III. 개혁·개방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사' 서술의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급(省級) 행정구역인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는 1947년 5월 1일, 즉 1949년 10월 1일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보다 2년 5개월 먼저 민족자치구를 성립하였고,¹ 이후 새롭게 성립되는 다른 ‘자치구’의 모범이 되었다.² 즉, 뒤를 이어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는 1955년 9월 30일, ‘광시장족[廣西壯族]자치구’는 1958년 3월 5일, ‘닝샤회족[寧夏回族]자치구’는 1958년 10월 25일, ‘시짱[西藏]자치구’는 1965년 9월 9일에 각각 성립되었다.³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 또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변강정책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네이멍구자치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1949년 이후 중국 역사학계, 특히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출간된 간사(簡史)류나 통사(通史)류의 ‘몽고족(蒙古族)’ 관련 서술과 ‘네이멍구 자치구사’ 서술의 흐름과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⁴

* 투고: 2020년 4월 13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20년 5월 25일

** 이 논문은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AHF-2019-기획연구-27]

*** 이 글에서 ‘몽골’은 오늘날 몽골국과 객관적인 모든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에 사용했으며, ‘몽고(蒙古)’는 중국 측에서 서술한 내용이나 인용문을 적을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국립국어연구원 표기안에 따르면 ‘칭기즈 칸’이 맞지만, 몽골어 현실음과 너무 거리가 멀어 ‘칭기스 칸’으로 표기했습니다.(필자 주)

1 郝維民主編, 1991, 『內蒙古自治區史』,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1쪽.

2 郝維民主編, 1991, 위의 책, 1~2쪽.

3 國家民族事務委員會研究室, 2006, 『新中國民族工作十講』, 北京: 民族出版社, 87~88쪽.

4 이와 관련하여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費孝通, 1987(1999), 『中華民族多元一體格

중국 중앙정부에서 볼 때 ‘네이멍구자치구’는 오늘날에도 신장위구르자치구나 시짱자치구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⁵ 한편 네이멍구자치구의 몽고족들은 자신들을 ‘중화민족(中華民族) 대가정(大家庭)’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중앙의 방향과 다른 발언과 서술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식인들은 해외로 망명하거나 ‘반체제 인사’로 지목되어 감시를 받는다.⁶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몽고족간사’나 ‘몽고족통사’류는 ‘몽고족’ 이전 고대 유목민과 유목국가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몽고족’의 기원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칭기스 칸의 몽골제국 시기부터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몽고민족통사’는 ‘몽고족의 기원’을 다루기는 하지만 역시 주된 서술 내용은 13세기 칭기스 칸과 몽골제국부터이다. 한편 『내몽고통사강요』(2006)는 네이멍구지구의 선사시대부터 사회주의 시기(2000년 12월)까지 다루고,⁷ 『내몽고통사』(2007)는 네이멍구 지역의 선사시대 역사부터 민국 시기, 즉 1949년 ‘신중국 성립 이전’까지만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⁸

이하 본문에서 중국, 특히 네이멍구자치구에서 발간된 단행본 등 자료를 통해 각 시대별로 ‘네이멍구자치구사[內蒙古自治區史]’를 어떤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지, 오해나 고의적인 역사왜곡은 없는지 등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局/(修訂本)』,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가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5 심혁주, 2014, 「시짱항목의 실태와 추진 현황」, 박장배 등,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평래, 2014, 「북강항목의 실태와 추진 현황」, 박장배 등,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재훈, 2019,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65호, 동북아역사재단.

6 양하이잉(楊海英) 지음, 우상규 옮김, 2018, 『反중국역사』, 파주: 살림, 특히 7장 289~315쪽.

7 郝維民·齊木德道爾吉 主編, 2006, 『內蒙古通史綱要』, 北京: 人民出版社.

8 曹永年 主編, 2007, 『內蒙古通史』 1~4,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II. 신중국 성립 이전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 - 『몽고민족문제』(1946/1993)를 중심으로

오늘날 중국의 큰 관심사는 정치·경제뿐 아니라 소수민족 문제, 빈부 격차, 자원 개발과 환경 문제 등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그중에서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이미 신중국 성립 이전부터 명확하게 존재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몽고사 연구를 극히 중요하게 여긴다. 일찍이 항일(抗日)전쟁 시기인 1940년을 전후하여 연안(延安)에서 민족문제연구회를 성립했으며(필자 강조-이하 동일함), 조직적이고 영도적으로 몽고(민족)문제를 연구했다. 연안에서 마르크스주의 사학 공작자(工作者)가 몽고의 역사와 사회문제를 연구하였고, 민족문제연구회가 그의 『몽고민족문제』라는 책을 편찬·출간하여 몽고족의 사회역사 발전의 규율과 민족관계 등을 탐색하였고, 일본제국주의의 몽고민족 침략과 압박, 국민당 반동파의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를 드러내서 비판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몽고 사학자가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하여 쓴 첫 번째 몽고사 전문서적이다.⁹

이 『몽고민족문제(蒙古民族問題)』는 본문이 65쪽밖에 안 되는 소책자이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대변했기 때문에, 항일[중일]전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회’가 출간해준 것이다.¹⁰ 이하 이 책의 내용 중

9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蒙古族通史(修訂版)』上·中·下, 北京: 民族出版社, 緒論 17쪽.

10 劉春, 1946, 『蒙古民族問題』, 張家口: 內蒙古出版社. 그러나 원본은 구득하지 못했으며, 필자가 이용한 판본은 다음과 같다.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蒙古民族問題』, 北京: 民族出版社.

에 중국 공산당 중앙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념 등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이 책의 ‘출판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책은 유춘(劉春)이 항일전쟁 시기에 ‘몽고민족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1940년에 쓰기 시작하여 1942년 5월에 초고를 완성하였고, 두 차례 개수(改修)를 통해 1944년 말에 완성한 저술이다. 1945년 봄 다시 교열을 보고 연안(延安)에서 출판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항복하여 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인쇄는 하지 못했다. 저자는 원고를 가지고 장가구(張家口)로 가서 1946년 내몽고출판사(內蒙古出版社)에서 발행할 수 있었다. 최근에 저자[劉春]는 우연한 기회에 65쪽밖에 안 되는 이 얇은 책의 원본을 구하게 되어, 1993년 북경 민족출판사(民族出版社)에서 다시 출판하였다. 이 책을 다시 출간한 배경은 “이 책이 출간된 것이 거의 40여 년이 되었지만, 책의 내용과 정황 등이 간단명료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른 시기에 민족문제를 연구한 저작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사 문헌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¹¹

본문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장은 결론 부분이다. 이하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분석하겠다. 제1장의 제목은 「몽고와 몽고민족」(1~3쪽)이다.

13세기(1206년) 이전 蒙古(Mongol)는 현재 몽고지방에 있던 한 부락에 대한 명칭이었다. 13세기에 몽고인들이 강성해진 영향으로 인해, 몽고는 몽고민족과 몽고지방을 아우르는 명칭이 되었다. ... 명대 이후 한문 서적에서는 모두 ‘몽고(蒙古)’라고 적었다. 몽고인에 대한 다른 명칭은 “달단(韃靼, Tatar)”인데, ... 현재 몽고인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명칭은 아니다. 한인(漢人)들 중에 몽고인을 “달자(韃子)”라고 부르는 이가 있는데, 이는 모욕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¹²

11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出版說明.

이 책의 저자는 제일 먼저 ‘몽고(蒙古)’와 ‘달단(韃靼)’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한인(漢人)’들이 몽고인을 낮춰 부르는 ‘달자(韃子)’라는 호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보면, 당시까지도 ‘한인’들이 ‘몽고인’들을 ‘달자’라고 낮춰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자’라는 호칭의 폐지 주장은 중국 공산당이 ‘신중국’ 성립 이후 한족과 모든 소수민족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민족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¹³

다음으로 1940년대 일본 제국의 무력 통치하에 있던 네이멍구의 현실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몽고인민공화국 건립 후 외몽고는 자유로운 해방을 맞아 행복한 민주자유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국 일본[日寇]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네이멍구는 이 흐조맹[伊克昭盟]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제국 일본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 ... 다행히 제국 일본의 노예 상태가 아닌 지역의 몽고 인민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 대지주(大地主)와 대자산계급(大資產階級),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의 암흑 통치와 잔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 파시스트 독재자와 국민당의 폭정하에서 신음하는 몽고인은 대략 30~40만 명에 달한다.¹⁴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 1940년대 ‘몽고인민공화국’은 1921년 독립과 1924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해방되고 민주자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데 비해 네이멍구의 대부분 지역은 일본 제국주의자의 압제하에 일부 지역은 대지주와 대자산계급, 그리고 대한족주의자들에게 핍박받고 있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서술하였다.

12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1~2쪽.

13 國家民族事務委員會研究室, 2006, 『新中國民族工作十講』, 北京: 民族出版社, 특히 8~9강, 142~185쪽.

14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앞의 책, 3쪽.

이어서 제2장에서는 「몽고민족의 기원 문제」(4~7쪽)를 서술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지주자산계급, 특히 장제스[蔣介石]로 대표되는 국민당(國民黨)의 ‘몽한동원론(蒙漢同源論)’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지주 자산계급, 특히 국민당(國民黨)은 몽고민족을 압박하고 노예로 삼기 위해 일련의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이론을 채택하여, 중국에는 하나의 민족만이 있고 중국은 한 개의 민족으로 이룩한 국가이므로 “국족(國族)”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몽한동원(蒙漢同源)’을 말할 뿐 아니라 몽고민족은 이미 한족에 동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재에는 이미 몽고민족은 없다고 주장한다. … 즉 몽고인과 한인은 기원이 하나이며 같은 종족으로 같은 조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이는 한족에서 파생된 지파라는 등 그들의 주장은 ‘몽한동원론(蒙漢同源論)’으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오늘날 ‘몽한동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사기(史記)』의 기록을 가지고 몽한동원을 단언하는데, 이는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¹⁵

이어서 제3장에서 「몽고역사와 몽고사회의 발전에 대하여」(8~14쪽)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중국 사서에는 대대로 “행국(行國)[유목국가]”과 “거국(居國)”[정주국가]으로 몽고사회와 장성 이남의 중원사회를 구별해 왔다. … 따라서 우리들은 몽고사회의 발전을 연구할 때 그 발전의 특징을 살펴 연구해야 하며 그들을 농업사회의 부용세력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들이 격리되었다거나 고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몽고사회의 발전은 중원사회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와 중대한 상호작용을 했다.¹⁶

15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5~7쪽.

16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8쪽.

이 문장에서 저자는 ‘몽고사회’를 ‘농업사회’의 부庸(附庸)세력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몽고사회의 발전은 중원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보면 ‘몽고사회’의 독립성을 말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원의 ‘농업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 중국 내의 ‘네이멍구자치구’의 실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만주 청’의 몽고 지배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보자.

청(淸) 통치자들은 동북(東北)에서 출발하였고 만주인들은 오래지 않아 목축경제에서 농업경제로 변화하였으며, 그들은 몽고민족과 역사 발전상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비교적 몽고의 정황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청 정부의 정책은 최악의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몽고사회와 몽고민족의 발전을 엄중하게 속박하였다.¹⁷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자는 분명히 몽고인들이 ‘만주 청’과 ‘중국’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가 만약 ‘신중국’이 ‘만주 청’의 역사를 통째로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오늘날에 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어서 『몽고민족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제5장 「몽고민족문제의 제기 방식[蒙古民族問題的提法]」의 서술을 살펴보자.

몽고민족의 해방운동은 이미 중국 혁명운동의 일부이며, 따라서 중국 혁명문제 중에서 몽고민족문제는 또한 중국 국내 민족문제로서 제기된 것이다. … 이와 같이 중국 무산계급은 몽고민족의 해방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며,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여 몽고민족과 함께 연합하여 싸워나가야 한다.¹⁸

17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14쪽.

18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29쪽.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1940년대 서술한 『몽고민족문제(蒙古民族問題)』의 몇몇 문장을 통해 저자의 생각과 중국 공산당의 생각, 그리고 오늘날 ‘신중국’의 역사인식의 흐름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¹⁹ 저자는 결론 부분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우리들은 몽한 각 민족은 반드시 단결하여 항전할 것이며, 더욱더 긴밀하고 공고해져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국민당 파시스트주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우리는) 신민주주의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러면 몽고민족과 중국 각 민족은 철저한 해방을 얻을 것이다.²⁰

이렇게 깊은 연원을 가진 ‘신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정책은 점차 정교해져 마침내 『신중국민족공작십강(新中國民族工作十講)』으로 완성되었다.²¹ 이 책은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에서 출간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민족정책 성립과 인식, 방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료이다.²²

Ⅲ. 개혁·개방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사’ 서술의 분석

1. 출간 배경·목적과 일반 현황 서술 분석

신중국 성립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의 역사 서술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중앙

19 더욱 자세한 내용은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53~62쪽 참조.

20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65쪽.

21 國家民族事務委員會研究室, 2006, 『新中國民族工作十講』, 北京: 民族出版社.

22 國家民族事務委員會研究室, 2006, 위의 책.

권력의 안정화,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약진 운동’, ‘중·소 국경분쟁’, ‘문화대혁명’ 등 국내외의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겨우 도극도(陶克濤) 편저 『내몽고역사개술』(상책)²³과 여원암(余元奩)의 『내몽고역사개요』²⁴가 있을 뿐이다.²⁵

현대 신중국의 역사 서술은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 분명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²⁶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는 전중국 통치에 자신감을 회복하며, 몽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역사적 역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민족 통일국가’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서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간행된 ‘몽고족간사’류와 ‘몽고족통사’류, ‘네이멍구자치구사’ 등 단행본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여 서술했는지를 출간 배경 등을 살펴보면서 비교, 분석하겠다.

『몽고족간사(蒙古族簡史)』(1985)는 국가민위(國家民委) 《민족문제오종총서(民族問題五種叢書)》중 두 번째 총서 시리즈인 《중국소수민족간사총서(中國少數民族簡史叢書)》로 간행된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소수민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이 책을 간행한 목적은 「출판 설명」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중국]는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로, 우리들의 위대한 조국을 함께 만들어온 오랜 발전 과정 중에서 각 민족 인민들은 모두 자신들의 공헌을 이룩하였다. 각 민족의 역사는 모두 조국의 역사와 나눌 수 없는 구성 부분이다. 각 민족 인민들이 자신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민족단결을 한층 더 굳건하게 하며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기

23 陶克濤 編著, 1957, 『內蒙古歷史概述』(上冊), 呼和浩特: 內蒙古新華書店.

24 余元奩, 1958, 『內蒙古歷史概要』, 上海人民出版社.

25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18쪽.

26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위의 책, 18~19쪽.

위해, 우리들은 이 《중국소수민족간사총서》를 정식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서의 편찬과 출판은 장기간에 걸친 집단 노력의 결과물이다. 일찍이 1959년 당 중앙과 모주석(毛主席)의 지시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족위원회’와 ‘국무원 민족사무위원회’의 직접적인 영도하에 대규모로 소수민족 사회역사조사 공작을 진행하였다. … 소수민족 사료, 특히 소수민족 문자 사료에 대해 한층 더 수집하고 정리, 연구하였고, 이 총서의 서술은 이용 가능한 사료를 모두 구사하여 출판하게 되었으나, 우리 편찬자들의 수준이 고르지 않아 누락되거나 잘못된 곳이 있을 것으로 책임을 피하지 않겠으니 독자들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이다.²⁷

이 『몽고족간사』(1985)는 이후 수정되어 『몽고족간사(수정본)』(2009)로 민족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국가민위 《민족문제오총총서》의 총수정편집위원회 주임 이덕수(李德洙, 朝鮮族)의 「수정재판 총서(總序)」를 살펴보면 그 의도와 목적을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가민위 《민족문제오총총서》는 《중국소수민족》, 《중국소수민족간사총서》, 《중국소수민족자치지방개황총서》, 《중국소수민족어언간지총서》, 《중국소수민족사회역사조사자료총간》을 포괄하며,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기원부터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발전 과정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량의 원시적이고 생생하며 극히 귀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중국민족 문제에 관한 대형 종합성을 가진 총서로 중국 민족문제 연구의 중대한 항목이며 중대한 출판 공정이다. … 이번 수정 재판의 전체적인 원칙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체례와 판본을 통일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이며, 모두 민족출판사에서 출판 발행한다.²⁸

27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蒙古族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출판 설명.

28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蒙古族簡史(修訂本)』, 北京: 民族出版社, 국가민위 《민족문제오총총서》 수정재판 총서(總序) 1~4쪽.

《민족문제오종총서》의 두 번째 시리즈인 《중국소수민족간사총서》의 수정 재판 설명에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국가민위 《민족문제오종총서》 지이(之二) 《중국소수민족간사총서》는 모두 55권으로, 앞 세기 1980년대부터 이어서 출판되었다. 이 《총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중국 각 소수민족의 역사발전 과정을 기술하여 출판 후 광범위한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신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각 소수민족은 경제 문화 등 방면에서 천지가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반세기에 걸친 그간의 세월을 살펴보면 각 소수민족 역사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 되었으며 민족 공작의 발전된 필요에 따라 국가민위는 《총서》를 수정하여 재판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²⁹

다음으로 『몽고족(蒙古族)』(1991)은 《민족지식총서(民族知識叢書)》 시리즈로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 출간한 것인데, 각 소수민족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그 「출판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중국]는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한족과 각 소수민족은 오랫동안 광활한 토지에서 공동으로 노동, 생활, 번영을 이루었으며, 우리들의 위대한 조국을 만드는 데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를 번영하고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데 반드시 각 민족끼리 친밀하게 서로 돕고 단결하는 우호적인 국면을 만들고, 단결을 최우선으로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 새로운 형세하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 출판사는 내용을 주로 하고 소수민족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진을 실은 “민족 지식총서”를 출판하기로 결정했다.³⁰

29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수정재판 설명 1쪽.

이전의 『몽고족간사/수정본』(1985/2009)와 『몽고족』(1991)에 이어 본격적으로 네이멍구의 몽고족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서술한 『몽고족통사(蒙古族通史)』 상·중·하(1991)가 출간되었다.

일찍이 1979년에 네이멍구자치구의 유관기관은 내몽고사회과학원에게 『몽고족통사』를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 … 1986년에는 네이멍구자치구 철학사회과학 “칠오(七五)” 중점 과학연구 항목으로 지정되었다. 서술하면서 우리들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몽고의 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역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힘을 다했다.³¹

이 『몽고족통사』 상·중·하(1991)는 10년 후에 『몽고족통사(修訂版)』 상·중·하(2001년)로 수정판이 발행되었다. 「수정출판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몽고족통사』 제1판은 1991년 9월에 출판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이 책은 몽고족 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발전을 충실히 반영한 전저(專著)로, 엄숙한 유물사관과 축적된 학술을 출발점으로 삼아 충실한 자료와 엄격한 서술 방법으로 오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 이번 수정은 14만여 자에 달하는, ‘서론’과 제6편 ‘근대 후반기의 몽고족’, ‘부록 1 대사년표’, ‘부록 2 몽고족 역사 인물지’ 등을 포괄한 내용을 새로 더했다. … 원서의 5편에 대해서도 편집과 교정, 문자 수정 등을 진행했으므로 이 새로운 수정판은 더욱 풍부하고 읽기에 좋을 것이다.³²

30 白歌樂·王路·吳金, 1991, 民族知識叢書『蒙古族』, 北京: 民族出版社, 出版說明.

31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蒙古族通史』上, 北京: 民族出版社, 前言 4쪽.

32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수정출판 설명 1쪽.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역사학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네이멍구 자치구’의 역사 서술에 주의를 기울여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네이멍구자치구 고대사와 몽고족의 기원 서술 분석

1) 몽고족 인구와 분포

이번에는 먼저 ‘몽고족’의 인구수와 분포 지역에 대한 서술을 분석해보자.

몽고족은 조국 대가정 중에서 역사가 유구하며 근면하고 용감한 하나의 민족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북방의 광활한 초원에서 활동하며 살아왔다. ... 오랜 역사발전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 몽고족 인구는 341만 1,657명(1982년 통계)이다. 주로 네이멍구자치구에 거주하는데 그 인구는 248만 9,780명으로 우리나라 몽고족 인구의 73%를 차지한다.³³

1990년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몽고족 인구는 모두 480만 6,849명이다. ... 주요 거주 지역은 민족의 발상지인 네이멍구 고원으로 바로 오늘날 네이멍구자치구이다. 1986년 통계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의 몽고족은 285만 4,500명이다.³⁴

몽고민족의 인구는 모두 800만 명이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 몽고 3개 국가에 분포한다. 중국의 몽고족은 480만 6,849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0.42%를 차지하며, 주로 내몽고(337만), 요녕(58.7만), 길림(15.6만), 흑룡강(14만), 신장(13.7만), 청해(7.1만), 하북(14.3만), 감숙(0.83만)등 8개 성과 자치구에 분포한다. ... 몽골

33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앞의 책, 1쪽.

34 白歌樂·王路·吳金, 1991, 앞의 책, 1~2쪽.

국 인구는 240만 명으로 몽고족은 전체 인구에서 230만 명을 차지한다. 러시아의 몽고족은 모두 67.5만 명으로 주로 부리아트와 칼무크 두 자치공화국에 분포한다.³⁵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몽고족통사(修訂版)』(2001)에서는 새로운 서술이 추가되었다. 즉, 몽고족의 분포 지역과 인구수에 기존에는 서술되지 않던 러시아와 몽골국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중국 영토 내의 ‘몽고족’에 대해서만 기술했지만 『몽고족통사(修訂版)』(2001)부터는 중국 영토를 넘어 ‘몽고족’이 거주하는 러시아와 몽골국 등 외국까지도 서술 범위에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의 변화는 이제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국가(지역)까지 ‘의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몽고족은 주로 아시아 중부 몽고고원에 거주한다. 몽고고원 동남부의 막남몽고(나이멍구)는 나이멍구 고원이라 부른다. ... 막북지구(오늘날 몽골국)는 아시아 중부의 내륙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156.5만km²이다. ... 막서몽고(오이라트 몽고, 또는 오이라트라고 부른다)는 주로 천산 남북에 거주한다.³⁶

이 서술 내용에도 몽고족 분포 범위가 중국을 넘어 몽골국까지 포함되었고, 몽골국 영토의 크기까지도 서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흉노와 고대 유목국가에 대하여

아래에서는 ‘흉노’에 대한 서술을 분석하여 중국 역사학계의 역사인식과 그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5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緒論 1쪽.

36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위의 책, 緒論 1~3쪽.

흉노의 흥기부터 칭기스 칸에 이르기까지 1,400여 년 동안 몽고지구의 역사는 대체로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후 1세기 말까지로, 즉 흉노의 흥성 시기이다. 기원후 2세기부터 6세기 중엽까지 선비와 유연이 융비하던 시기이다. 기원후 6세기부터 9세기는 돌궐[투르크]과 회궐[위구르]이 차례로 한국(汗國)을 건립한 시기이다. 기원후 10세기 초부터 몽고족의 흥기까지는 거란[遼]과 여진[金]이 차례로 통치하거나 통제하는 시기이다.³⁷

흉노부터 칭기스 칸이 흥기할 때까지 각 유목국가의 영토는 변화가 있었는 했지만 대체로 오늘날 몽골국 영토를 중심으로 네이멍구자치구 등 중국의 북부 변경지역을 포함하였다. 위의 서술은 오늘날 중국 영토뿐 아니라 몽골국 영토까지도 중국역사의 일부인 ‘북방 유목민족’의 영역이었음을 은연중에 설파하는 것이다.

전국 시기 중원지구에서 칠웅이 병립했던 시기에 몽고지구에는 서부의 흉노와 동부의 동호 두 부락연맹이 출현하였다. ... 진시황이 육국을 병합하여 통일된 진조(기원전 221년)를 건립하고 오래지 않아 흉노의 수령 목득(冒頓)이 정권을 빼앗아 기원전 209년(秦二世 元年)에 선우(單于)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 장성지대 이북의 광대한 지구를 통제하면서 중국역사상 첫 번째 유목국가를 건립하였다. 흉노국가의 출현은 우리나라 북방민족의 역사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 한 무제 시기(기원전 140~87년)에 한조의 국력이 강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흉노의 침략을 막아내자 흉노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흉노는 선우정을 음산에서 막북으로 옮기게 되었다.³⁸

37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앞의 책, 2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앞의 책, 2쪽.

38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2~3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2~3쪽.

이 서술에서도 ‘흉노’와 ‘동호’는 중국의 ‘전국 시기’에 출현했으며, 그들이 활약했던 ‘몽고지구’까지 중국역사의 범위로 보고 있다. 또한 유목민 ‘흉노’는 ‘중국역사상 첫 번째 유목국가’를 설립했다고 주장한다. 흉노의 공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중화 중심주의’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원전 1세기 중엽 흉노 통치자 내부에서 선우 자리를 놓고 투쟁이 폭발하여 5선우가 병립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혼전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최후에는 호한야 선우가 통일하게 되었다. 이어서 호한야는 그의 형 질지 선우와 권력을 다투다가 패배하여 기원전 53년(漢 甘露 元年)에 한조에 귀부하여 한조의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되었다.

동한시대, 즉 기원후 1세기 중엽에 이르러 흉노는 다시 남북의 두 개의 부로 분열되었다. 남흉노는 헤락시축제 선우(이 또한 호한야 선우라고 칭함)의 인솔하에 한조에 귀부하였다. 기원후 216년 호주천 선우가 입조하고 조조가 그를 업(鄴)에 억류하자 흉노인들은 이때부터 점차 한족에게 융합되었다. 십육국 시기에 흉노의 후예들은 앞뒤로 전조, 북량, 하 등의 정권을 건립하였다. 그들 또한 점차 한족에 융합되었다.³⁹

이어서 흉노의 ‘분열’과 한나라에 ‘귀부’했음을 강조하며 이후 ‘흉노’인들은 점차 한족에 ‘융합’되었다고 함으로써 흉노인들과 흉노의 역사를 ‘중국역사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몽고족의 기원에 대하여

‘흉노’와 그들의 역사가 ‘중국역사의 일부’라는 주장과 역사 서술은 집요하고도

39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3~4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3쪽.

일관되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몽고족’과 그들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어서 ‘몽고족’의 기원에 대한 서술을 통해 살펴보겠다.

기원후 12세기에 몽고고원의 각 부족들의 족속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몽고인과 돌궐인 두 계통이었다. ... 언어 방면으로 보면 당시 그들의 몽고어는 실위-달단인들의 언어를 바탕으로 돌궐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지역 방면으로 보면, 그들이 몽고고원에 거주하기 이전에 오늘날 내몽고 동부로부터 몽고고원으로 확산되면서 현지의 돌궐인과 기타 각 민족들과 결합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⁴⁰

이 서술에서는 ‘몽고족’의 기원이 ‘네이멍구 동부’의 ‘실위(室韋)’이기 때문에 몽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이며, 그들이 활동했던 ‘몽고지구’도 중국의 영토라는 논리이다. 오늘날에도 명백하게 독립된 주권국가인 ‘몽골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볼 수밖에 없다.

일, 우리나라 북방의 “기마민족”—몽고족과 그 아름다운 고향
몽고족은 우리나라 북방 초원에서 기원하였으며, 역사가 유구하며 또 흥미로운 점이 많은 민족이다. 사람들은 모두 ‘일대천교(一代天驕)’인 칭기스 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며, 몽고족이 중원으로 들어와 원조제국을 건설한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⁴¹

위 내용에서는 ‘칭기스 칸’으로 대표되는 몽고족 역시 ‘우리나라[중국] 북방 초원’에서 기원했으며, 그 후예들이 중국의 역대 왕조 중 하나인 ‘원조(元朝)’를 건설했기 때문에 모두 중국역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

40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9~10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8쪽.

41 白歌樂·王路·吳金, 1991, 앞의 책, 1쪽.

면, 몽골이 당시 ‘중국’ 지방을 정복하여 통치한 것임에도 정복 통치자와 그 집단까지도 ‘자국사’로 이해하는 ‘중화주의’ 인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몽고족은 고대 망건하(望建河, 오늘날 額爾古納河) 동안 일대의 한 오랜 부락에서 기원하였다. 가장 이른 시기에 보이는 기록은 신·구 『당서(唐書)』의 ‘몽골실위(蒙兀室韋)’라는 단어 중의 ‘몽골’이 ‘몽고(蒙古)’라는 단어의 최초의 번역 명칭이며, ‘몽고’라는 단어는 원대 문헌에 처음으로 적었다. ... 그들은 점차 서쪽의 몽고 초원으로 이동하여 오난, 케룰렌, 툴라 하, 즉 삼하(三河)의 수원에 도달했다.⁴²

칭기스 칸의 이름은 테무진이며, 니룬 몽고 보르지긴 키야트씨 사람으로 1162년 텔리온 볼닥(오늘날 몽고인민공화국 다달 솜 경내)에서 출생했다.⁴³

위 인용문들에서는 흉노 등 몽골 이전의 유목민족에 대해서는 일체 서술하지 않고, 오늘날 몽골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동호(東胡) 계통의 한 지파인 ‘실위(室韋)’, 그중에서 ‘몽골실위(蒙兀室韋)’부터 서술하고 있다.⁴⁴ 이는 동호, 실위, ‘몽골실위’ 등 정치집단을 모두 중국역사의 일부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몽골’이 이동한 곳과 ‘테무진’이 태어난 곳이 분명히 오늘날 ‘몽골국 영토’인데도 마치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이해하며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고부의 족원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학술계에서 쟁론이 끊이지 않았으며, 아직 까지도 일치된 의견이 없다. 현재 다수의 학자들은 몽고가 동호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⁴⁵

42 白歌樂·王路·吳金, 1991, 위의 책, 7쪽.

43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앞의 책, 29쪽;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30쪽.

44 白歌樂·王路·吳金, 1991, 앞의 책, 7~8쪽.

45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앞의 책, 2쪽; 內蒙古社

칭기스 칸 시대 몽고부가 강대해지고 몽고제부를 통일하는 핵심이 되면서 “달단”이라는 이름은 점차 “몽고”로 대체되었으며, 몽고는 실위계 제부족의 총칭이 되었다. ‘몽고(蒙古)’는 『구당서』에 ‘몽을실위(蒙兀室韋)’라고 처음 보이는데, 대실위의 한 구성원이었고 홀룬 호 이남의 산림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다.⁴⁶

위의 서술 내용들은 ‘몽고’의 기원이 고대 중국의 변강에 살았던 소수민족인 ‘동호(東胡)’~‘실위(室韋)’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 후예인 ‘몽고족’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두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중국사의 일부라는 논리이다.

3. 몽골제국사와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사 서술 분석

아래에서는 칭기스 칸과 몽골제국, 쿠빌라이 카안과 원조(元朝)에 대한 서술을 분석하여 네이멍구자치구의 몽고족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중국 역사학계의 인식과 흐름을 살펴보겠다.

몽고 각 부족의 통일은 당시의 진보적인 현상으로 몽고민족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 몽고 각 부족의 통일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결과였고, 테무진은 이러한 발전의 추세에 따라 탁월한 정치군사적인 재능으로 이 역사의 어려운 책임을 담당했으며, 몽고민족의 형성에 최대 공헌을 하였다. 그는 중국역사상 한 명의 아주 뛰어난 인물이자 몽고민족의 영웅이다.⁴⁷

칭기스 칸은 1207년부터 1227년까지 20여 년 동안 대외전쟁을 펼쳤다. 전쟁의

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2쪽.

46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위의 책, 3쪽;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위의 책, 3쪽.

47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앞의 책, 35~36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앞의 책, 28~29쪽.

크기와 원정로의 거리, 점령지구의 광대함 등은 인류역사상 공전의 규모였으며, 칭기스 칸을 ‘세계의 황제’ 또는 ‘세계를 정복한 칸’이라고도 부른다. … 우리들은 칭기스 칸의 대외원정이 당시 국내와 국제적인 형세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며, 당시 몽고의 국정과 주위 환경 등을 연구하여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⁴⁸

몽고국 건립 이후 설립한 국가기구와 군사행정제도, 성문법, 문자 등은 몽고족이 정치,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 일보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⁴⁹

몽고지구를 통일함으로써 몽고국이 출현했지만, 몽고 통치계급은 약탈과 통치 범위를 확대하려는 욕망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전쟁을 일상적인 활동이며 재부를 약탈하는 첩경으로 여겼다.⁵⁰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술을 보면, ‘테무진’, 즉 칭기스 칸을 ‘중국역사상 한 명의 아주 뛰어난 인물이자 몽고민족의 영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칭기스 칸이 스스로 ‘중국인’ 또는 ‘중국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세 번째 인용문을 뒤집어보면, 마치 ‘수준 낮은’ 몽고족이 ‘수준 높은’ 중국인으로 발전했다는 논리가 보이는 듯하다. 네 번째 인용문은 ‘몽고 통치계급’을 약탈과 정복전쟁을 일삼는 존재로 한정시키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다. 세계역사상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48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앞의 책, 53쪽;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55쪽.

49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앞의 책, 44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앞의 책, 35쪽.

50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45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36쪽.

중원지구의 통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쿠빌라이는 … 1272년(至元 9年) 중도를 대도로 고치고 수도로 선포하여 대도는 원조 다민족국가의 정치 중심이 되었다. … 1271년(至元 8年) 중원의 전통에 따라 몽고국이라는 국호를 대원(大元)으로 바꿨다. 이로써 원조라는 칭호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⁵¹

13세기 초부터 몽고민족은 세계역사 무대에 등장하여 역사상 휘황찬란한 흔적을 남겼다. 칭기스 칸과 그 후계자들은 세계정복을 위해 남쪽을 정벌하고 서쪽을 토벌하여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몽고제국을 건립하였고, 후에 쿠빌라이가 중원을 평정하고 대리와 토번을 정복함으로써 중국역사상 전에 없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건립하였다. 몽고제국과 원조는 유라시아를 통치했을 뿐 아니라 동서 경제 문화의 교류를 통해 조국을 통일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 공고, 발전하는 데 지울 수 없는 작용을 일으켰다.⁵²

이 인용문은 오늘날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원형을 ‘원조’에서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쿠빌라이 카안이 마치 ‘대몽고국(Yeke Mongyol Ulus)’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대원(大元)’이라는 국호를 칭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이미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⁵³

몽고 통치자들은 무력으로 전국을 통일한 후에 인위적으로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을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 몽고인과 색목인은 신임과 우대를 받았지만, 한인과 남인은 의심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⁵⁴

51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63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50쪽.

52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앞의 책, 前言 1쪽;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前言 1쪽.

53 김호동, 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집, 역사학회.

54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앞의 책, 95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위 인용문은 이른바 몽골 시대 ‘민족 등급제’에서 가장 낮은 지위인 ‘한인(漢人)’과 ‘남인(南人)’에 속했던 ‘한족’들의 불우했던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오랑캐’인 몽고족의 중국 통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역시 ‘차별’이 아닌 각 민족 ‘본속주의(本屬主義)’ 입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⁵⁵

다음으로 쿠빌라이 카안[몽골어 세첸 카안 Sečen qa'an, 중국사에서 원(元) 세조(世祖)]과 ‘원조’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자.

쿠빌라이는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중원(中原)의 문사(文士)들과 관계를 맺었고 중원 한지(漢地)의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왕부(王府)에 한 무리의 한족지주와 지식인들을 그의 막료(幕僚)로 두었으며, 그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통치와 용병, 재정과 둔전(屯田) 등 사무에 활용했고, 카안의 자리를 빼앗아 ‘나라를 세운다’는 계획도 대부분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⁵⁶

대몽고국이 중원에 자리를 잡은 이후 그들은 통치의 실제 필요와 한문화의 영향을 받아 몇몇 행정기구와 관련 제도를 만들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통치는 기본적으로는 초원 유목국가가 피정복지인 정주 농경지구의 백성들을 간접통치하는 국면이었다. 이러한 국면의 근본적인 변화는 쿠빌라이가 원조(元朝)를 건립한 이후이다. 쿠빌라이는 즉위 후에 중원지구의 통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남송(南宋)을 정복하기 위해 한족 지주계급 사대부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중원지구를 다스렸던 역대 봉건통치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중앙집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기구는 날로 완비되기 시작했다.⁵⁷

2009, 앞의 책, 75쪽.

55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158~163쪽.

56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앞의 책, 141쪽;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앞의 책, 145쪽.

57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위의 책, 186쪽; 內蒙古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쿠빌라이가 ‘한인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지(중국)’를 통치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건의를 받아 국가 통치기구를 ‘완비’할 수 있었다고 서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명(明)과 몽골의 관계에 대한 서술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원조 말년에 홍건군이 이끄는 각 민족 인민들의 반원 기의가 폭발하여 원조의 통치를 무너뜨렸다. 1368년 봄, 농민기의군의 영수 주원장은 응천[南京]에서 명조를 건립하였다. ... 이로써 전 중국을 통치하던 원조는 멸망했고, 몽고 봉건영주들과 명조가 장기간에 걸쳐 대치하는 국면이 시작되었으며, 몽고 내부는 봉건영주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되면서 할거와 통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⁵⁸

북원과 명조 사이의 전쟁 결과 중원 통치를 회복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대봉건영주들은 도리어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 했으며, 서로 패권을 다투는 등 봉건 세력이 할거하는 국면이 형성되었고, 몽고 대칸의 실력과 권위는 크게 떨어지고 점차 대봉건영주들이 대칸을 끌어안고 권력을 다투는 도구가 되었으며, 일차적으로 버려지거나 살해되기도 하면서 대칸은 실제로 많은 영주들 중 한 명으로 하락하였다.⁵⁹

당시 몽골초원으로 돌아간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분열상태가 지속되기는 했지만, 때때로 통일의 기운이 일어난 적도 있고, 또한 명과의 전쟁과 교류도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명조는 왜 이렇게 분열되었던 ‘몽골’을 복속시키거나 정복하지 못했는가? 당시 명조는 심지어 ‘분열된 몽골’조차도 싸워 이길

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위의 책, 190쪽.

58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앞의 책, 125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앞의 책, 99쪽.

59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132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104쪽.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과 몽골’은 모두 중국사로 이해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과 몽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6세기 말에 몽고는 분열되어 할거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몽고지구는 고비 사막을 경계로 막남, 막북, 막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각 부는 다시 허다한 유목집단(部)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쇠락하던 명조와 흥기하는 후금과 각각 서로 다른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막남의 몽고 각 부족 중에서 여진의 눈장 유역 근처에 있던 코르친 등 부족은 후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경제 교류도 했으며, 명조와 인접한 오르도스 부, 귀화성의 투메드, 차하르, 카라친 부 등은 명조와 빈번하게 접촉하며 평화적으로 호시를 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⁶⁰

청조는 막남몽고를 병합하기 시작하고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마침내 전국을 통일하고, 몽고의 상층 계급은 청조와의 연합통치에 참가하면서 청조가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적 다민족국가 발전을 촉진하였다.⁶¹

명과 조선 두 나라가 당시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틈을 타 여진족의 후예들이 흥기하며 ‘후금(後金)’을 건국하였다. 이어 1636년에 민족명을 ‘만주(滿洲)’로, 국호를 ‘대청(大清, 다이칭 구룬)’으로 바꾸고 조선과 명을 공격한 다음 내몽고 지역의 몽골인들을 우호세력으로 삼아 국력을 떨치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말에 북몽골(외몽골)을, 18세기 중반에 서몽골(준가르)을 차례로 정복하여 마

60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208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165쪽.

61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209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166쪽.

침내 전 몽골을 자신들의 통치하에 들이게 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이런 ‘만주 청’의 역사도 ‘중국사’의 일부이며, 심지어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 근·현대 네이멍구자치구사 서술 분석

이어서 근·현대 시기의 네이멍구자치구의 역사 서술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용문을 살펴보면 ‘네이멍구’의 몽고족들은 모두 처음부터 ‘중국 공산당’과 같은 입장과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서술은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중국 공산당 특유의 역사 이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사회가 반(半)식민지화·반(半)봉건화가 됨에 따라 몽고족 사회는 원래의 모순과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모순이 첨예하고 신속하게 발생하였다. 외국 자본과 제국주의가 몽고지구를 침략하면서 몽고족과 외국 침략자 사이에 민족 모순이 발생하였다. ... 청 통치자의 압박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투쟁의 목표는 직접 청 정부로 향했다. ... 몽고족 인민의 반제, 반봉건 투쟁은 용감하고 굳세며, 눈물겨운 것으로 근대 중국 각 민족 인민의 혁명투쟁사상 찬란한 한 장이 되었다.⁶²

1840년 아편전쟁이 폭발하여 중국 인민들은 반식민지 반봉건이라는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네이멍구 각 민족 인민들과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은 단결하여 일어나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어렵고도 힘든 투쟁을 전개했다. 모두가 압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함께 피 흘려 투쟁함으로써 수천 년간 왕래하면서 역사를 이루어온 각 민족 인민들은 진실로 단

62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287~288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227~228쪽.

결하고 마침내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민주혁명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1947년 5월에 내몽고자치구가 성립되었고,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함으로써 네이멍구 역사와 중국역사는 함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⁶³

위 인용문들은 무산계급 인민들이 아편전쟁 이후 내부의 봉건 통치계급, 외부의 제국주의자와 그들과 결합한 대자산계급 등의 착취와 압박에 더욱 시달리게 되면서 반제, 반봉건, 반자본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에 나섰으며, 중국 공산당은 그들과 손을 잡고 민주혁명에 성공함으로써 ‘신중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⁶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이멍구’ 인민들의 투쟁은 ‘근대 중국 각 민족 인민의 혁명투쟁사상 찬란한 한 장’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의 무조건 항복으로 중국 인민의 항일민족혁명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항일전쟁의 승리 후 중국 공산당과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은 평화, 민주, 독립, 부강한 신중국을 건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은 빛나는 미래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제스 국민당 측은 미 제국주의의 지지하에 내전과 독재, 매국적인 방침을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지주 대자산계급이 통치하는 반봉건 반식민지 국가를 건립하려고 함으로써 중국을 어둠으로 이끌려고 하였다.⁶⁵

일본의 투항 이후 네이멍구지구의 몽한 각 민족계층 인민들은 국민당에 대하여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지주계급은 국민당에 기대어 봉건적 착취제도를 유지하고자 국민당의 반동책동을 지지하였다. 몽고족 봉건 상층계급의 일부 중에

63 曹永年 主編, 2007, 『內蒙古通史』 1,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緒論 15쪽.

64 네이멍구 혁명사에 대해서는 郝維民主編, 1997, 『內蒙古革命史』,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참고.

65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앞의 책, 428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앞의 책, 340쪽.

서 이미 일본제국주의의 편에 섰던 이들은 이번에는 변신하여 국민당 반동파의 앞잡이가 되었으며, 일부 몽고 왕공 상층계급 사람들은 몽고족 인민의 자치요구를 이용하여 민족해방을 기치로 정치적인 모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⁶⁶

위의 인용문은, 항일[중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중국 공산당과 각 민족 인민들과는 달리 장제스와 국민당은 여전히 중국을 어둠으로 이끌려고 했으며, 네이멍구의 지주와 봉건 통치자, 왕공들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열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많은 몽고족 인민 군중들의 원망에 따라 적시에 동-서몽고 자치운동을 통일하는 공작을 전개하였다. ... “4·3” 회의는 몽고민족 역사상 그리고 내몽고 근대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 이로써 몽고족이 수백 년 동안 받아왔던 청 왕조와 북양 군벌, 국민당의 분할통치의 국면을 타개하고, 몽고족 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연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통일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발전하여 몽고민족을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내몽고자치운동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발전하여 네이멍구 자치정부를 건립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를 놓은 것이다.⁶⁷

1947년 5월 1일 네이멍구자치정부 정식 수립이 선포되었다. 5월 19일 마오쩌둥 주석과 주덕 총사령관이 전보를 보내 열렬히 축하하였다. “일찍이 곤란을 겪는 내몽고 동포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영도하에 자유 광명의 신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내몽고 민족이 한족과 국내 기타 민족들과 긴밀하게 단결하여 민족 압박과 봉건 압박을 물리치고 신몽고와 신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리라 믿는다!”⁶⁸

66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429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341쪽.

67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436~438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346~348쪽.

네이멍구자치정부의 수립은 중국 공산당 민족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이로써 네이멍구 민족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몽고민족 해방이라는 중대한 성과를 실현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라는 민족이론이 중국에서 시행된 위대한 실천이며, 또한 네이멍구혁명과 몽고민족 해방투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⁶⁹

위 인용문은 ‘중국 공산당’이 분열된 네이멍구 민족을 해방시키고, ‘4·3회의’를 통해 ‘네이멍구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1947년 5월 1일 ‘네이멍구자치구’가 성립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⁰

『몽고족간사(修訂本)』(2009)의 특징은 『몽고족간사』(1985)에는 없던 ‘제6장: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몽고족』’이라는 한 장을 새롭게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중국 성립 이후 1956년 9월까지 몽고족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삼대 전역(戰役) 이후 인민해방전쟁의 승리가 이어짐에 따라 국민당의 중국대륙 통치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전국의 각 몽고족지구의 해방전쟁도 승리를 거두는 중이었다. 네이멍구 동맹(東盟)지구와 실린골과 차하르 두 맹이 해방을 획득한 후 오르도스 몽고지구와 알라샤, 에치나 기 지구도 이미 해방 전야에 놓이게 되었다. 동시에 기타 성의 몽고족도 1949년 이후 차례로 해방을 획득하였다.⁷¹

68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441~442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351쪽.

69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위의 책, 443쪽;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352쪽.

70 ‘4·3會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십시오. 김선호, 1996, 「4.3會議와 內蒙古自治政府 成立過程」, 『중앙아시아연구』 1호, 65~80쪽.

71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앞의 책, 375쪽.

1953년 3월 중공중앙은 「대한족주의 비판」이라는 지시를 제출하여 일부 지방의 당원과 간부들 중에 존재하는 심각한 ‘대한족주의’ 사상에 대해 신문에 문장을 실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형식을 통해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민족정책 대조사는 전국 각 몽고족지구의 발전을 가져왔다.⁷²

1947년 5월 1일부터 1957년 5월까지 네이멍구자치구는 10년에 걸쳐 찬란한 역정을 달려왔다.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의 어려운 분투를 통해 네이멍구의 각종 경제문화 사업은 모두 커다란 성취를 얻었으며 동시에 자치구의 면모도 천지가 뒤바뀔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다.⁷³

중공과 정부의 영도하에 각 몽고족지구가 해방을 획득한 후 사회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함으로써 거대한 진보가 발생했다.⁷⁴

1949년부터 1956년 말까지 중국사회는 천지가 뒤바뀌는 변화가 발생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사업에서도 거대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중앙과 인민정부가 정확한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전국의 각 소수민족지구의 인민들은 해방과 민주권리를 얻었으며, 또한 각 지구는 당과 국가의 관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업도 커다란 발전과 진보를 이룩하였다.⁷⁵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신중국’ 성립 이후 네이멍구의 ‘몽고족’을 비롯하여 모든 소수민족이 해방되어 민주 권리를 획득했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과연 오

72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395쪽.

73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406쪽.

74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408쪽.

75 『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위의 책, 412쪽.

늘날에도 ‘모든 중국인’이 같은 생각일까?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1987년 5월 네이멍구자치구 성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편찬, 발간한 『내몽고자치구사(內蒙古自治區史)』(1991)의⁷⁶ 서언(序言)을 보면 그 서술 의도와 목적을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내몽고자치구사』 서술은 1947년 5월부터 1987년 5월까지 네이멍구자치구 40년의 역사이다. 40년 동안 네이멍구의 각 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민족민주 혁명의 최종 승리를 획득하였으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거쳤고, 또 네이멍구자치구에서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변화를 발생시켰다. 비록 1958년 이후 일부 과오와 우여곡절이 있었고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갑작스런 위협에 처하기도 했지만 자치구 성립 이후 40년에 걸친 성취는 위대했으며 업적은 휘황한 것이었고 역사 경험은 지극히 풍부하여 감히 우리나라의 모범자치구라 할 만하다.⁷⁷

25년에 걸친 혁명 투쟁을 거쳐 네이멍구 자치정부를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1947년 5월 네이멍구 자치정부가 성립되었으며, 마침내 네이멍구자치구가 탄생하였다. 네이멍구 혁명 25년의 역정을 설명하자면, 1.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으로 무장하여 봉기한 중국 공산당은 네이멍구 혁명의 유일하며 정확한 영도자였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랐기 때문에 네이멍구 혁명은 점차 커지고 강해졌으며, 분열에서 통일로, 부분에서 전체로 이어졌고, 정확하고 바른 지도에 따라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로 인해 민족민주 혁명이라는 철저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2. 25년에 걸친 혁명투쟁 중에서 끊임없이 혁명 통일전선을 형성한 것은 네이멍구 혁명의 발전과 승리를 향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3. 네이멍구 혁명이 개시되었을 때 중국 공산당은 네이멍구 인민혁명당 창건과 무장혁명을 통과시킴

76 郝維民主編, 1991, 앞의 책, 1~6쪽.

77 郝維民主編, 1991, 위의 책, 1~2쪽.

로써 네이멍구 인민혁명군이 성립되고, 무장 투쟁을 시도할 수 있었다. 4. 중국 공산당은 네이멍구 민족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식하였으며, 새로운 탐색을 통해 네이멍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5. 몽한(蒙漢) 각 민족의 단결 투쟁은 네이멍구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⁷⁸

어렵고 힘든 오랜 투쟁의 역사는, 우리나라 몽고민족이 오랜 역사와 풍부한 민족 문화를 지녔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압박, 국내 각 민족 공동의 적들에 반대하는 뛰어난 혁명 전통을 지녔음을 증명한다.⁷⁹

IV. 맺음말

맺음말을 대신하여 마대정(馬大正)이 총서편위원회 총주편 《중국변강통사》의 분권 『북강통사(北疆通史)』(2003)의 주편(主編)인 조운전(趙雲田)이 「전언(前言)」의 마지막 부분에 밝힌 ‘몇 가지 계시’를 보면, 현재 중국의 변강 인식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제1.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하나의 국가이다.
- 제2. 중국은 하나의 통일다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발전과 공고화의 과정을 거쳤다.
- 제3. 중국 다민족국가의 발전 과정 중에서 ‘북강(北疆)’은 때에 따라 변화하였다. 어떤 역사 시기, 예를 들면 원조와 청조 시기에 북강의 범위는 오늘에 비해 범위가 넓었다.

78 郝維民主編, 1991, 위의 책, 4~5쪽.

79 白歌樂·王路·吳金, 1991, 앞의 책, 6쪽.

제4.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발전 과정 중에 여러 정권이 병립하는 분열 시기를 겪었다.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건립된 여러 정권은 시종 스스로 나라라고 칭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모두 당시 중국의 일부분이었다.⁸⁰

이제 위의 인용문을 하나씩 뒤집어보도록 하겠다.

제1. 중국은 한 번도 하나의 국가인 적이 없었다.

제2. 중국은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해 늘 변강의 소수민족과 주변 세력을 위협하였다.

제3. 중국의 ‘북강’은 때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으며, 또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4.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여러 정권이 병립하는 분열 시기를 겪었지만, 분열 시기에 병립했던 여러 정권도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었으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중화세계’의 일원이었던 주변국(지역)들은 모두 언젠가 ‘중국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80 趙雲田 主編, 2003, 『北疆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前言 5~6쪽.

참고문헌

단행본

-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 박장배 등, 2014,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양하이잉(楊海英) 지음, 우상규 옮김, 2018, 『反중국역사』, 파주: 살림.
- 國家民族事務委員會研究室, 2006, 『新中國民族工作十講』, 北京: 民族出版社.
-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1991, 『蒙古族通史』上·中·下, 北京: 民族出版社【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所『蒙古族通史』編寫組, 2001, 『蒙古族通史(修訂版)』上·中·下, 北京: 民族出版社】.
- 『蒙古族簡史』編寫組, 1985, 『蒙古族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蒙古族簡史』修訂本編寫組, 2009, 『蒙古族簡史(修訂本)』, 北京: 民族出版社】.
- 民族問題研究會 編, 1993, 『蒙古民族問題』, 北京: 民族出版社【원본: 劉春, 1946, 『蒙古民族問題』, 張家口: 內蒙古出版社】.
- 白歌樂·王路·吳金, 1991, 民族知識叢書『蒙古族』, 北京: 民族出版社.
- 費孝通, 1987(199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修訂本)』,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曹永年 主編, 2007, 『內蒙古通史』1~4,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趙雲田 主編, 2003, 『北疆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 郝維民主編, 1991, 『內蒙古自治區史』,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_____, 1997, 『內蒙古革命史』,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郝維民·齊木德道爾吉 主編, 2006, 『內蒙古通史綱要』, 北京: 人民出版社.

논문

- 김선호, 1996, 「4.3會議와 內蒙古自治政府 成立過程」, 『중양아시아연구』 1, 중양 아시아학회.
- 김호동, 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역사학회.
- 심혁주, 2014, 「시짱항목의 실태와 추진 현황」, 박장배 등,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이평래, 2014, 「북강항목의 실패와 추진 현황」, 박장배 등,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정재훈, 2019,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65,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역사학계의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사 서술 분석

김장구

오늘날 중국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은 모두 ‘변강(邊疆)’을 둘러싼 것들이다. ‘서부대개발’, 동북공정과 북강공정 등 ‘변강사지 연구’, ‘소수민족’, ‘빈부 격차’ 문제 등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이 변강으로 귀결된다. 중국 공산당의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은 ‘신중국’ 성립 이전부터 아주 깊었다. 이를 『몽고민족문제』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네이멍구’의 몽고족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몽고)민족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적극 채택하여 실행하였다.

이어서 중국 역사학계의 ‘네이멍구자치구사’ 서술 내용과 흐름을 분석해보았다. 그 흐름은 중국의 ‘한족’ 역사가들이 강제하기보다는 네이멍구의 ‘몽고족’ 역사학자들이 스스로 중국이라는 ‘다민족 통일국가’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임을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흉노’와 ‘몽고족’은 모두 오늘날 중국 영토 내에서 기원했으며, 칭기스 칸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원형을 만든 중국의 소수민족인 ‘몽고족’ 출신의 영웅으로 중국사의 한 구성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元世祖]는 수준 높은 한지(漢地)의 문화를 받아들여 ‘한화(漢化)’

된 인물로, 중국 왕조인 ‘원(元)’의 설립자로 서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명과 몽골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지만 모두 중국사의 일부이며, 청을 세운 만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네이멍구의 ‘몽고족’은 일본 제국주의, 봉건 통치계급, 대자산계급, 대한족주의 등의 압제와 침략에 맞서 ‘중국 공산당’과 같은 노선을 걸었으며, 마침내 해방을 쟁취하여 ‘신중국’을 성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한다. 마침내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민족자치구역’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네이멍구자치구’로 발전하고 있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임을 모든 네이멍구 관련 역사서에서 무한 반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네이멍구자치구사, 변강, 북강공정, 『몽고민족문제』, 통일적 다민족국가

ABSTRACT

An Analysis on the Narratives of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in the Academic Circle of China

Kim Janggoo

Most of the recen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re associated with the issue of “borderlands.” All the policies are focused on the borderland issue as can be seen from the China Western Development Program and research projects on the history and geography of Chinese borderlands, such as the Northeast Project and Northern Borderland Project. Difficulties that China now faces, including the ethnic minorities in China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re all incorporated into the borderland issu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taken a keen interest on the issues of borderland and ethnic minorities sinc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issue of ethnic Mongolians. The Mongols in Inner Mongoli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thnic Mongolians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as a consequence, their opinions were accepted and the Chinese government in turn implemented policies to address the ethnic issue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and narratives in regards to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in Chinese academia, and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hinese academic circle encourage Mongolian researchers themselves to confess that the Mongols are proud members of the united multiethnic nation of China.

Historically, both the Xiongnu and the Mongols are originated from the regions, which are current territory of Chin. Chinggis Qan, a hero from the Mongol ethnic group, formed a prototype of the “united multiethnic nation” in Chinese history. Qubilai Qa’an, his grandson, was a sinicized figure who accepted highly sophisticated culture of the Han Chinese. A history book describes him as the founder of Yüan, one of the Chinese dynasties.

Ming and Mongolia were separated in north and south, but they both form part of Chinese history, and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history of Manchus who founded the Qing dynasty. The Mongols in Inner Mongolia followed the same path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ir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feudal ruling class, proprietary class as well as great Sino-centrism, and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achieving independence.

History books discussing Inner Mongolia repeatedly describe that Inner Mongolia has been the best example among the autonomous regions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and a proud member of the united multiethnic natio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eywords: history of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borderlands, Northern Borderland Project, ethnic issues of Mongolia, united multiethnic nation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민족문화공정(民族文化工程), 연혁과 전망

김성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기초교육학부 교수

- I. 머리말
- II. 민족문화대구건설(民族文化大區建設) 논의의 확산
- III. 초원문화연구공정(草原文化研究工程)을 통한 네이멍구 문화산업기반의 구축
- IV.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민족문화대구(民族文化大區)에서 민족문화강구(民族文化強區)로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지난 20년간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이하 네이멍구자치구로 표기]에서 진행된 사회과학 관련 국책연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목적과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¹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대개 국가사과기금(國家社科基金)과 자치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집행은 네이멍구자치구 공산당 조직 산하 선전부(宣傳部)와 선전부의 지휘를 받는 네이멍구사회과학원(內蒙古社會科學院)이 중심이 되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산하 중국변강연구소(中國邊疆研究所), 네이멍구도서관(內蒙古圖書館) 및 네이멍구 각 지역 도서관, 네이멍구인민출판사(內蒙古人民出版社), 네이멍구대학(內蒙古大學), 난징대학[南京大學]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기도 했다.²

* 투고: 2020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20년 5월 25일

** 이 논문은 2019년 동북아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AHF-2019-기획연구-27].

1 이하에서 다룰 “사회과학 관련 국책연구사업”은 네이멍구 지역을 둘러싼 역사와 문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사회과학 관련 국책연구사업으로 명명한 것은 사회주의 중국 사회의 학문분류 방식에 따른 것인데, 현대 중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文史哲을 위주로 하는 인문학도 사회과학의 일부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처럼 인문·사회과학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人文이라는 용어를 학문 분류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 대학에서 발행되는 학술잡지를 自然科學版과 社會科學版으로 분리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과학판을 哲學社會科學版 또는 哲學人文社科版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1999년 베이징대학에 “人文學部”를 설립하여 文史哲 관련 학과를 여기에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문의 대분류로서 人文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中國社會科學院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중국 정부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에서 인문학의 학문 분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연과학의 상대개념으로 사회과학을 널리 사용하고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네이멍구 역사와 문화 분야의 연구도 중국 정부의 사회과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네이멍구자치구 정부의 후원 아래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이 수행한 국책사업을 살펴보면 민족문화대구건설공정(民族文化大區建設工程, 2002~), 초원문화연구공정(草原文化研究工程, 2004~2014),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프로젝트’[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 2010~],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2013~현재) 등이다.³ 이 사업들은 모두 네이멍구자치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민족문화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 목적과 사업 대상, 소재가 같다는 점에서 이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 사업 목표로 제시된 관광문화건설[旅遊文化建設], 문화대구건설[建設文化大區], 문화대시(盟)건설[建設文化大市(盟)] 등 3개 항목은 2020년 현재 “민족문화강구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나 변강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어쩌면 모순될 수 있는 두 방향의 목표를 한데 아우르려는 정부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본문에서 필자는 ‘민족문화대구건설공정’, ‘초원문화연구공정’,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등 4개 사업의 내용을 3장에 걸쳐 서술하고 사업단계에 따라 각 사업의 특징, 목적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초원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네이멍구의 민족문화 구상이 중앙정부의 변강정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지향점을 추론해보겠다.

-
- 2 이 글의 서술과정에 언급된 중국어 고유명사는 가능한 변체자 한문으로 옮겨 적었다. 다수 등장하는 행정구역명, 정책명 등 고유명사는 변체자로 적거나 한글로 적을 경우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음차하여 적었다. 內蒙古, 네이멍구 등이 그것이다.
 - 3 民族文化大區建設工程(2002~)과 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2010~)의 경우 관련 사업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종결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후자인 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的 경우 사업기간 동안 項目 대신 工程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항목과 공정을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할 이유는 발 견하지 못했으며 필자는 항목을 프로젝트로 번역하여 적기도 하였다.

II. 민족문화대구건설(民族文化大區建設) 논의의 확산

네이멍구자치구가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2002년 봄이었다. 1990년대 마련된 경제성장의 기틀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네이멍구자치구에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는 중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면도 있었지만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조력자이면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소외감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자치구 내부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탈피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곧바로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이어졌고 그것의 시발점이 된 것이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였다.

그러나 민족문화대구건설을 사회발전의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네이멍구자치구만이 아니었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도 아니었다. 이에 2절에서는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가 시작된 윈난성 리장(雲南省麗江)의 예를 소개하고 이것이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호응을 얻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이 논의는 관광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는 2000년 제시된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중요사상”(“三個代表’重要思想”)과 연결되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네이멍구자치구와 연결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국가정책의 거시적 어젠다가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와 이후 계속되는 몇 개의 연구공정을 통해 추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지에이[解毅]의 민족문화대구건설론

윈난성 리장은 쓰촨과 윈난 서부에서 시작되는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시작점으로 과거 차마고도의 경제적 풍요로움은 오늘날 리장 고성(古城)과 목씨토사부(木氏土司府)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덕분에 1990년대 이미 국내외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리장 지위부서기(地委副書記)로 활동하던 지에이[解毅]는 1999년 발표한 글에서 리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서 민족문화대구 건설론을 주창했다.⁴

리장현 나키[Nakhi 또는 Naxi, Nashi; 納西] 민족 출신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에이에게 1997년 리장이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1999년 장쩌민 주석이 리장을 방문했던 일련의 사건은 지역 관료로서 자신의 정책 포부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1999년 장쩌민 주석이 지진 복구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윈난성 서북 리장을 방문하였다. 1996년 중국 최악의 지진을 맞았던 리장을 방문한 장쩌민 주석은 앞으로 리장을 국제관광명소[國際旅遊景區], 윈난 서북의 중요 상업지구(商貿區), 특색 있는 민족문화대구(民族文化大區), 생태환경보호구(生態環境保護區)로 육성할 것을 주장한 이른바 “사대구(四大區)” 전략을 제시하였다.⁵ 당시 리장 지위부서기로 활동하던 지에이는 리장의 상황에 시의적절한 발전 전략으로서 민족문화대구건설에 주의하였다.

그는 나키족(納西族)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문화명방(文化名邦)” 리장의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이를 리장 발전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나키, 이(彝, Nuosuo 또는 Lolo), 티베트 등 다양한 민족문화가 어우

4 解毅, 1999, 「麗江建設民族文化大區之我見」, 『雲南社會科學』, 1999年第6期, 79~84쪽.

解毅(1956~2016, 納西族)는 1973년 중학교 교사를 거쳐 1981년 리장현위[麗江縣委] 간부를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리장현위서기[麗江縣委書記], 중국 공산당 누장주[怒江州] 당위서기(黨委書記, 2002~2007), 윈난성위조직부원 부부장(雲南省委組織部副部長, 2007~2014) 등을 역임하였다.

5 중국에서 四大區는 다양한 용례가 있다. 四大地理分區, 四大經濟分區가 그것인데, 지리적 관점에서 四大區는 서북지구, 북방지구, 남방지구, 청장지구(靑藏地區)를 의미하며, 경제의 관점에서 나뉜 四大區는 동부, 중부, 서부, 동북 지역을 의미한다. 이 외 공업기지로 四大區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京津唐工業基地, 遼中南工業基地, 滬寧杭工業基地, 珠江三角洲工業基地가 그것이다. 장쩌민 주석이 四大區를 언급한 것은 이렇듯 중국 사회 다방면에서 사용되어온 四大區라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리장 방문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러진 리장의 독특한 문화 전통, 나기를 비롯한 지역 인민의 문화적 소양, 최근 리장 관광산업의 발전, 리장 지역 연구의 발전 등을 민족문화대구건설의 조건으로 삼고 해당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민족문화대구를 형성하는 민족문화는 다른 지역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민족문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 사회발전, 주민의 생활,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것인데 문화시장을 발전시켜 이것이 해당 지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적어도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정도로 새로운 경제의 중심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문화사업을 계획, 발전, 관리하는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 생태환경과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 보호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역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문화산업에 참여할 우수한 인재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점, 관광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통해 리장의 지명도를 높여 리장 주민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리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민족문화대구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추진의 원칙을 밝히기도 하였다. 첫째, 문화와 경제의 결합, 즉 문화산업이 현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자각, 둘째, 전통 문화, 환경 보호와 개발의 결합, 셋째, 보급(普及)과 제고(提高)의 결합, 넷째, 전통의 계승과 창조(創造)의 결합, 다시 말해 독자적 문화 보존과 함께 문화의 개방성에도 주의할 것, 다섯째, 지역 대중의 삶과 분리된 문화발전, 문화산업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지역 대중의 문화의식의 향상을 기반으로 문화수준을 높이고 문화의식의 너른 보급을 통해 문화계승과 발전의 두꺼운 내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상에서 밝힌 민족문화대구건설의 목표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으로 1999~2005년까지 문화사업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

할 것,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할 것, 유·무형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할 것, 전체 계획의 구체화를 바탕으로 유형의 문화시설을 건설하며, 문화산업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대중의 문화의식을 제고하여, 내적으로 문화적 토양을 단단히 하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선순환적 산업구조를 만들 것, 관련 법률제정을 통해 이상의 육성 방안을 법과 제도로써 후원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지에이의 구상은 당시 중국 남부 소수민족지역에서 불고 있던 소수민족문화와 관광산업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분위기와 관련 있다. 1990년대 소수민족지역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리장이 포함된 윈난성뿐만 아니라 구이린[桂林]을 중심으로 한 광시성[廣西省], 구이저우성[貴州省]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⁷ 중국지망(中國知網)이 제공하는 ‘민족문화여유(民族文化旅遊)’ 관련 논문 목록을 살펴보면 관련 연구는 주)9에 언급했듯이 199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대략 2000년까지는 광시, 구이저우, 윈난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와 생태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⁸ 그러나 2001~2004년 사이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

6 2006~2015년 리장 전체 경제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러한 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리장 관광문화산업이 리장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王延中·丁賽, 2015, 『中國民族地區經濟社會調查報告·2013年調查問卷分析·南方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雲南省社會科學院 編, 『雲南經濟發展報告2015~2016』, 雲南大學出版社 등을 참조. 金毅, 2004, 「民族文化旅遊開發模式與評價」, 『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 2004年第1期, 41~44쪽에서는 2002년 지역별 관광수입 추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7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0년 國家民委 소속이며, 旅遊局의 감독을 받는 中國民族旅行社를 설립시켰다. 구이저우에서는 민족문화의 세계 진출을 위한 연도회를 개최했으며 그 내용은 楊政銀·田光輝·宗太慶, 1991, 「走向世界的民族文化: “貴州民族文化走向世界討論會”綜述」, 『貴州文史叢刊』, 1991年第1期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민족문화는 민족경제발전의 동력”임을 강조하였다. 광시성에서는 1991년 10월 28~30일 사이 류저우[柳州]시에서 제1회 旅遊文化理論研討會를 개최하여 다수의 논문을 『旅遊學刊』을 통해 발표하였다.

8 www.cnki.net를 참조. 민족문화와 관광업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1991년 처음 등장하여 1998년까지 매년 3~5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1999~2004년 사이

어 헤이룽장[黑龍江], 후난[湖南], 신장[新疆], 내이멍구[內蒙古] 등지에서도 해당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민족문화대구건설의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남중국 소수민족 중심 지역 윈난, 구이저우, 광시를 중심으로 한 민족문화의 상품화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왜 이 지역 민족문화 연구와 발전, 더 나아가 이를 경제적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에 동의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이들 지역은 중국 북서 내이멍구, 신장, 시짱[西藏] 등지와는 달리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민족주의 운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1990년대 관광산업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민족 문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문화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민족문화의 활성화가 민족주의의 고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중화민족대가정(中華民族大家庭)의 이상을 소수민족 각각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각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남방장성(南方長城)의 역사와 문화’라는 새로운 테마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⁹ 민족문화의 내용에 대한 문

14~86편에 이르는 성장을 보였으며, 2007년 198편, 2010년 296편, 2015년 410편, 최근에는 500편 전후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 9) 何穎·顏景·何曉萍, 2001, 「廣西民族文化的產業化發展研究」, 『民族歷史與文化研究』, 2001年第2期(總64期), 70~75쪽에서는 1999~2000년 사이에 구이린[桂林]을 중심으로 한 광시성[廣西省] 관광업이 관광객 78%, 수입액 69.1%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광시성만의 독자적 이미지[廣西形象]를 발굴하여 형상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뒤이어 王亞力, 2003, 「南方長城與“長城文化之旅”的開發」, 『旅遊學刊』, 2003年第3期(第18卷), 52~57쪽에서 1615년부터 축조하여 청대 乾嘉 연간까지 중수된 약 190km에 달하는 苗疆長城을 북방의 장성과 대비하여 南方長城으로 명명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광시 소수민족 문화는 물론 중화세계의 남방 경계로서 이 지역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중화세계의 일원으로서 광시 문화를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제는 뒤이어 서술할 네이멍구에서 일어난 민족문화건설의 논의에서 계속 살펴 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민족문화건설의 논의는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중국 남서부 광시, 구이저우, 윈난의 3개 성에서 시험된 후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북부, 북서부 변강지역에서 선택된 다음 시험대는 네이멍구자치구였다.¹⁰

2. 네이멍구자치구의 민족문화대구건설공정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서 민족문화대구건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였다. 네이멍구당 위원회 선전부부부장(內蒙古黨委宣傳部副部長)이며 문련당조직서기[文聯黨組書記]였던 아구라[阿古拉]에 따르면 2002년 네이멍구자치구 선전부장회의에서 처음으로 민족문화대구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¹¹

네이멍구 전체 문화공작회의(文化工作會議)에 앞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좌담회의 주제는 각각 관광문화건설, 문화대구건설, 문화대시(甍)건설 등 3개로 압축되었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문화대구건설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네이멍구자치구에서 관광산업은 GDP의 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독특한 자연환경, 몽골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네이멍구 경

10 서북지역에서도 지역 소수민족 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네이멍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民族文化大區建設과 이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민족문화연구공정과 같은 각종 문화정책이 신장이나 시짱에서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 지역의 민족정책 노선이 네이멍구와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楊兆萍·謝婷·李曉彥, 2001. 12, 「典型少數民族文化旅遊地開發與保護: 以喀什地區為例」, 『干旱區地理』, 第24卷 第4期, 332~337쪽 등을 참고.

11 阿古拉, 2002, 「建設文化大區要動員全社會參與」, 『內蒙古宣傳』, 2002年第10期, 24쪽.

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¹² 그러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 등 각종 설비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네이멍구 지역 전체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네이멍구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에 네이멍구 주민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각 정부 부서와 관광산업,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였고, 관광문화의 시대적 추세에 맞춰 여행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분야의 개발을 독려했다. 이러한 네이멍구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과 전략은 앞서 살펴본 지에이의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네이멍구의 상황에 맞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후 10여 년에 걸친 다양한 문화정책과 사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00년대 초 네이멍구 지역의 문화정책을 이끄는 여러 관료가 민족문화대구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네이멍구자치구 문화청장 가오옌칭[高延靑]은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이를 산업 분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문화대구건설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였다.¹³ 독특한 민족문화 전통을 가졌음에도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낙후한 상황에 놓여 있던 네이멍구자치구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

12 네이멍구자치구에서 관광산업이 GDP의 4%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桂宇, 2006, 5, 「少數民族地區旅遊產業政策體系研究」, 雲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10~12쪽에 따르면, 서남, 서북의 소수민족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관광산업 비중이 2000년 기준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칭하이와 닝샤, 간쑤의 경우 2~3%로 네이멍구보다 낮지만 이 외 성은 모두 네이멍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윈난의 경우 8%로 가장 높았고 2005년에는 1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2001~2005년 사이 네이멍구 관광산업 자체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5년간 약 22% 이상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13 高延靑, 2002, 「弘揚民族文化 建設內蒙古民族文化大區」, 『內蒙古宣傳』, 2002年第10期, 24쪽.

고 주민의 소양, 도덕성,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제도 등 광범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올란차드 대극장[烏蘭恰特大劇院], 네이멍구박물관[內蒙古博物館], 네이멍구회의전시센터[內蒙古會展中心], 네이멍구문화빌딩[內蒙古文化大廈], 네이멍구민족예술센터[內蒙古民族藝術中心] 등 사회문화시설 기반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2002~2005년 사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광범한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표 1>에서 대강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¹⁴ 그중 주목되는 것은 실린골맹[錫林郭勒盟]의 패자묘수복공정(貝子廟修復工程)과 몽원문화원(蒙元文化苑)의 설립인데 청대 사원인 패자묘(貝子廟)와 원대 상도(上都) 유적을 배경으로 한 가장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었다.¹⁵

<표 1> 2002~2005년 네이멍구자치구 신축 문화시설의 내용과 투자금액

행정구역명	시기	문화시설 명칭	투자금액 (인민폐/만 원)
呼和浩特市	2003	塞北影樂宮, 玉泉區影視娛樂城, 博物館 2期工程, 雲中文化宮	4,000
包頭市	2002~2003	阿爾丁植物園, 市博物館(美術館) 北方兵器城廣場	12,600
呼倫貝爾市	2004~2005	呼倫貝爾民族博物館, 呼倫貝爾劇院, 巴爾虎博物館, 青少年活動中心	4,180
興安盟	2005	文化中心	500
通遼市	2003~2005	廣電中心, 文化新聞中心	15,000

14 青格勒, 2005, 「打造文化品牌建設民族文化大區」, 『思想工作』, 2005年9期, 28쪽.

15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투자가 이뤄진 항목은 錫林郭勒盟 蒙元文化苑이다. 3억人民幣, 즉 5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錫林郭勒盟 正南藍旗 경내에 위치한 元上都와 원대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이다. 蒙元文化苑의 위치는 錫林郭勒盟의 중심지 錫林浩特 河西開發區이며, 元上都 유적과는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 元上都는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赤峰市	2003	博物館, 文化館, 敖漢惠文廣場	1,950
錫林郭勒盟	2003~2005	貝子廟修復工程, 蒙元文化苑, 錫林浩特國際賽場	35,000
鄂爾多斯市	2004	烏蘭宮	2,410
巴彥淖爾市	2003~2005	文體中心, 歌舞團藝術大樓, 臨河區文化藝術中心, 標準田徑訓練場, 五原縣文體中心, 磴口縣圖書館, 磴口縣文化藝術大樓, 杭錦後旗廣電培訓大樓	7,150
烏海市	2003~2005	文體中心, 人民廣場擴建, 奧林匹克體育中心, 圖書館, 青少年科技館, 獅城社區活動室 등 13개 社區活動室, 烏達區人民廣場, 海南區文化廣場	28,047
阿拉善盟	2005	巴彥浩特多功能體育場	11,000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관광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민족문화대구건설사업 중에는 문헌 영인·출판 사업도 포함되었다. 몽골문[蒙古文] 『대장경(大藏經)』 400권의 영인·출판 사업이 그것인데 2005년 2월 사업이 시작되어 2015년까지 출판사업을 완료하였다.¹⁶ 이러한 문헌 영인·출판 사업은 이후 진행되는 여러 사업에서 계속 연결되어 진행되므로 마지막 IV장 ‘네이멍구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에서 함께 다루겠다.

네이멍구자치구 당위부서기(黨委副書記) 천광린[陳光林]은 사업의 책임자로서 민족문화대구건설의 배경과 사업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네이멍구가 풍부한 지하자원과 사막, 초원, 삼림 등 독특한 생태환경을 가졌으며 중국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동서로 긴 지형을 지니고 있으므로 북쪽을 향해 크게 열려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내부적으로는 민족단결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독자적이며 높은 수준의 인문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민족문화대구건설을 위한 견조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¹⁷

16 內蒙古社會科學院, 『『大藏經』影印本 出版工程』,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68>를 참조.

17 鄒龍漢, 2003, 「建設民族文化大區 實現人民文化利益: 訪自治區黨委副書記陳光林」, 『內蒙古宣傳』, 2003年第4期, 4~5쪽.

따라서 선진국 문화산업 발전의 모범 사례를 통해 문화산업이 네이멍구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암각화에서 공산당 혁명 유적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경제발전의 자원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유적의 관광상품화는 물론 민족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관광산업의 기반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제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교육, 각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관광인프라 투자, 관리 조직 성립, 법적 지원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2년 네이멍구자치구가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를 제기한 무렵은 앞서 리장의 간부였던 지에이가 민족문화대구건설을 제창한 시기와는 다른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0년 2월 광둥성 시찰 중 장쩌민 국가주석이 발표한 “삼개대표’중요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내용은 잘 알려진 대로, 중국 공산당은 시종일관 중국 선진 사회생산력의 발전 요구, 중국 선진문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인민대중의 근본 이익 등 세 가치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개대표’ 사상은 이후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므로 그 중요성을 새로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생산력과 선진문화가 어떻게 다양한 민족을 포함하는 중국 인민대중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먼저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와 관련하여 공산당이 제시한 “중국의 선진문화”는 민족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선진문화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따라 이어지는 사회주의 선진문화로서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 선진문화’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원리와 중국문화의 결합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중국적 사회주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선진문화라는 것은 중국문화 중 가장 우수한 부분을 승화시키고, 중국문화의 계승과 함께 다른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고도의 과학기술과 인문정신의 통일, 소수를 위한 귀족문화가 아닌 대중

이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대중의 문화 소양을 향상시켜 대중이 문화의 창조자가 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는 인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에 더 나아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진문화’ 확산, 문화체제개혁 심화, 문화산업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니, 2000년 무렵부터 영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여기에서 기인함을 이해할 수 있다.¹⁸

‘중국특색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이 2000년 “삼개대표”중요사상을 통해 다시금 거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사회 각 분야에서 이 노선을 견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다. 현대 중국 공산당 문화 분야 정책기조에 대한 다음 글은 사회주의 선진문화가 “삼개대표”중요사상을 통해 인민의 이익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하고 있다.

14대(十四大, 中國共產黨第十四次全國代表大會, 1992년 10월)가 덩샤오핑 [鄧小平]이 제시한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이 갖는 주도적 지위를 인정한 이래, 당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인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1991년 江澤民 同志는 중국 공산당 성립 70주년 기념식 축사 중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문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공산당 15대(十五大, 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 1997년 9월)는 대표대회의 주제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채택하였다. ‘삼개대표’ 중요 사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시종일관 중국선진문화가 나가야 할 방향을 대표’하며, 이를 당이 갖춰야 할 선진적 성격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공산당은 중국 특색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일대 도약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의 十五屆五中全會(중국공산당 제15회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

18 이러한 문화산업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 2005년 공산당중앙, 국무원이 『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的若干意見』을 발표하고, 중공 중앙이 全國文化體制改革工作會議을 개최하는 등 활동으로 계속 이어졌다.

의, 2000년 10월 9~11일)는 문화산업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열거하였다. 공익적 사업과 수익성 문화산업을 구분하고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문화건설이론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 후, 정부는 인민의 기본 문화 권익을 보장하고 지원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공공 문화 서비스체계의 확충에 노력했으며, 문화자원을 함께 건설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文化民生을 개선하였다. 국유경영 위주의 문화사업 기구를 기업 모델로 바꿔 문화시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을 바꿔 정부와 기업, 관리감독과 사업 주체를 분리하여 문화산업의 생산력을 확대하였다. 胡錦濤 同志는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주장하면서 반드시 중국적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의 十七屆六中全會(2011년 10월 15~18일)에서 『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고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시기, ‘五講四美三熱愛’의 활동이 文明城市, 文明村鎮, 文明行業을 새로이 일으켜 세우는 활동을 이끌었다. (有理想, 有道德, 有文化, 有紀律의) ‘四有’公民, 公民道德의 배양에서부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건설하는 데 이르기까지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두 개의 바퀴를 굴려 발전하였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문화의 풍성한 결과를 이 끌었다.”¹⁹

중국 공산당이 견지해온 중국적 사회주의 모델은 개혁개방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중국 사회는 현재도 사회주의 혁명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개혁개방의 시대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19 歐陽雪梅, 2019. 7. 10, 「新中國70年社會主義文化建設及其經驗」, 『光明日報』, 11版. 문화정책에 관한 공산당의 입장은 中共中央黨史和文獻研究院 編, 2017, 『習近平關於社會主義文化建設論述摘編』을 참조. 어우양쉐메이[歐陽雪梅]는 후난 출신의 역사학자이다.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當代中國研究所 연구원으로 『當代中國文化』(當代中國系列叢書, 五洲傳播出版社, 2014) 등을 출판했고, 관련 문장으로 「改革開放40年中國文化建設的成就」, 『國家行政學院學報』, 2018年第6期 등 중국공산당의 문화정책과 관련한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다.

중시되고 있는 문화산업 육성, 중국적 선진문화의 구축과 확산이라는 노선이 추구하는 방향도 결국 중국적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20세기 초 공산사회주의 혁명이론과 함께 중국에 밀려든 “전반서화론(全般西化論)”, “민족허무주의(民族虛無主義)”가 1990년대 중국 사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개탄했던 양정인(楊政銀)은 민족 없는 중국적 사회주의 현대화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풍부한 중국 고대문화 자원과 5,000년 문명이 응집된 전통의 우월함으로써 중국적 사회주의 현대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⁰ 화하(華夏)가 중화(中華)의 핵심임을 인정하는 순간 중화의 포용성은 현대 중국을 구성하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된다. 다만 모든 민족의 역사와 전통은 고대 중국의 역사전통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고 종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중국적 사회주의의 나아갈 방향이다. 결국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적 국가 체제로의 전환점에 선 당과 중국 정부는 민족문화대구건설과 잇따른 여러 문화정책을 통해 중국적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민족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소수민족 스스로 그것을 체화할 수 있는 점진적이면서 과감한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회주의 선진문화 속에 자리할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인민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형상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Ⅲ. 초원문화연구공정(草原文化研究工程)을 통한 내이명구 문화산업기반의 구축

2002년 민족문화대구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내이명구자치구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초원문화공정이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면서 내이명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20 楊政銀·田光輝·宗太慶, 1991, 앞의 글, 153쪽.

상품이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는 초원, 생산방식에서는 유목, 역사적으로는 몽골제국[元朝]이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2004년 7월에 시작되어 3기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1기(2004~2007), 2기(2008~2011), 3기(2012~2014)로 나뉘어 진행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북방 초원문화의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초원문화를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독자 학문 영역으로서 초원문화를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초원문화 이론과 내용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네이멍구의 주민에게는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네이멍구의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각인시키자는 것이다.

초원에서 출발한 여러 정권이 중국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이상 선사와 역사시대를 넘나드는 초원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널리 포용함으로써 중화문명의 구성요소로서 초원문화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초원문화연구공정이 초원과 중원의 역사 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일찍이 국내학자로서 이평래는 초원문화연구공정이 “문화적 측면에서의 중국화”라고 정의하면서 초원문화공정에서는 황허, 창장 문화와 더불어 초원문화가 중화문명의 3대 구성요소라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북방 초원문화 자체가 가까이는 황허, 멀리는 창장의 고대문화와 연결되어 문화적 융합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²¹

우툰잉[吳團英]은 민족문화대구건설, 초원문화연구공정 등 네이멍구 문화정책을 이끌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간의 강연록을 모아 『초원문화강연록(草原文化講演錄)』을 출간하였다. 초원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 초원문화의 특징, 유목문화와 초원문화의 관계와 포괄성 등을 논함으로써 초원문화는 시종일관 중화문화의 큰 구조 안에서 발전해왔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초원문화가 자치구의 문화건설사업의 핵심이며 민족문화강구건설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

21 이평래, 2014, 「초원공정, 문화라는 이름의 다목적 공정」, 『중국의 변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76쪽.

다고 하였다.²²

초원문화연구공정을 주도한 것은 네이멍구자치구 정부와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이었다.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2001년 민족문화대구건설 논의가 시작되던 즈음 이미 초원문화연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초원문화가 중화문화 발전과정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밝히는 작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초원문화의 오랜 역사전통, 다양한 민족이 공통으로 창조한 문화, 중원의 문화와는 달리 다양한 민족이 초원문화 형성에 참여했다는 점. 황허, 창장 유역 문화와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는 중화문명의 구성요소로서 초원문화학(草原文化學)이 독자학문 분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2004년 7월에 초원문화연구공정을 본격화하면서 2006년부터 《초원문화연구총서(草原文化研究叢書)》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초원문화학 성립에 박차를 가하였다.²³

그 결과 초원문화연구공정에 대한 학계는 물론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 8월 호흐트[呼和浩特]에서는 여러 행사가 거행되었다. 첫째는 중국·네이멍구초원문화절[中國·內蒙古草原文化節, 이하 초원문화축제]이며, 둘째는 중국·네이멍구초원문화연구토회[中國·內蒙古草原文化研討會]이다. 초원

22 헤이룽장 출신 達斡爾族人 우환잉[吳團英, 1957~]은 內蒙古自治區人大常委會副主任, 中國蒙古學學會會長으로 유목문화공정, 북부변강역사와 현상공정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이끌고 있다. 관련 대표저작으로 吳團英, 2016, 『草原文化講演錄』, 遠方出版社; 吳團英·馬永貞·包雙龍, 2006, 『文化內蒙古』 3冊, 內蒙古教育出版社 등이 있다. 『草原文化講演錄』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中華一體多元共存不容破壞」, 「弘揚草原文化 構建和諧社會: 首屆中國草原文化高層論壇綜述」 등 문장에서 초원문화의 의미와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로 유목문화, 초원문화라는 용어는 네이멍구를 대표하는 용어로 일찍이 사용되고 있었고, 초원과 유목을 통해 이 지역을 소개하고자 하는 대중서의 발간은 이미 1990년대 네이멍구 바랄 지역에서 보인다. 邢莉, 1995, 『遊牧文化』, 北京燕山出版社; 邢莉·易華, 1998, 『草原文化』, 遼寧教育出版社. 후자는 《中國地域文化叢書》(총 24책) 중 일부로 출간되었다.

23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465> (2011년 5월 13일)

문화축제, 초원문화연토회의 순서로 행사의 시작과 의미를 간략히 서술해보겠다.

초원문화축제는 2004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2020년 8월 제17회 행사를 앞두고 있다. 대중적 축제인 만큼 이 행사기간에는 우포 모으기 대회, 서화전, 모델선발대회, 패션쇼 등 몽골전통문화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이 행사가 시민 대중의 초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네이멍구초원문화보호발전기금회[內蒙古草原文化保護發展基金會]가 2006년 4월 설립되었다.²⁴ 시민과 기업이 정부 정책을 후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셈인데 네이멍구를 대표하는 여러 기업이 이를 후원하고 있고 네이멍구 문화·관광 산업이 초원문화공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축제기간에는 다양한 공연예술이 시민과 만나게 되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후호트시[呼和浩特市] 울란대극장[烏蘭恰特, 자치구 성립 60주년 기념극장]에서 거행된 15회 초원문화축제 행사에서는 ‘울란모치르[烏蘭牧騎]²⁵의 신작이 발표되었고, 16회 초원문화축제 행사에서는 경극 <대성괴(大

24 內蒙古草原文化保護發展基金會에 대해서는 <http://www.gccd.org.cn/nmzx/jjh.asp>를 참조. 네이멍구초원문화보호발전기금회는 2006년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민간기구로서 초원문화 확산과 다양한 초원문화 보존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초원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네이멍구 에너지 산업을 후원하기 위해 매년 8월 鄂爾多斯에서 內蒙古國際能源大會를 개최하고 있다.

25 울란모치르[烏蘭牧騎]는 內蒙古 유목, 반농반목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조직된 공연단체이다. 시초는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울란후[烏蘭夫] 사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57년 錫林郭勒 蘇尼特右旗에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직 초기 9명으로 시작한 소규모 단체였으나 현재는 네이멍구 전역에 75개의 울란모치르가 매년 7,000회 이상의 공연을 수행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선전활동 단체가 되었다. 2017년 울란모치르 성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울란모치르 단원과 시진핑 서기 사이에 서신 왕래가 이뤄지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2018년 2월 CCTV에서 울란모치르 성립

盛魁)가 상연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올란모치르는 1957년 저우언라이 총리와 올란후 네이멍구자치구서기(內蒙古自治區書記)의 구상으로 성립된 사회주의 선전활동단체이다. 2017년 6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축하활동을 거행했고 신중국 성립 초기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열정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중국 사회문화가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대성괴’는 흑호트(당시 歸化城), 울리아스테[烏里雅蘇台], 흙드[科布多] 등지를 오가며 활동한 청대 진상(晉商)을 대표하는 상호(商戶)이다.²⁶ 초원문화공정이 한창이던 2009년 네이멍구자치구 정부, 네이멍구방송국[內蒙古電視臺], 위취엔구인민정부[玉泉區人民政府], 오르도스양롱그룹[鄂爾多斯羊絨集團], 베이징진상박물관[北京晉商博物館]이 공동투자하여 장편 TV 연속극으로 제작했고, 그 인기를 몰아 경극으로 제작한 후 여러 지역에서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명청 시기 몽골초원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상인을 소재로 하여 몽골과 중국 내지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극 중 곳곳에서 진상을 통해 중국 내지의 선진문화가 몽골초원으로 전파된다는 설정을 하고 있어 몽골 근현대 사에서도 중화문명이 초원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4년 시작된 초원문화연토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네이멍구 사회과학원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차에 걸쳐 전국 규모의 학술연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물로 『논초원문화(論草原文化)』 15집을 출간하였다. 그

60주년 기념 특별 공연을 제작 방송하면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26 ‘大盛魁’는 청대 康熙 연간 준가르 갈단과 전쟁 중에 군량 공급을 위해 몽골과 내지를 연결하여 활동했던 晉商의 활동에서 시작된 商戶이다. 王相卿, 史大學, 張杰 등이 殺虎口에 개설한 吉盛堂에서 시작하여 후에 大盛魁로 개명하였고, 서몽골 烏里雅蘇台를 근거로 러시아와의 교역에 주력하다가 후에 呼和浩特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였다.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는 낙타만 2만 두가 넘었다고 전하나 1929년 몽골-러시아 교역이 어려워지자 도산하였다. 현재 呼和浩特市 玉泉區에 大盛魁의 옛 건물을 복원하여 自治區文物로 보호하고 있다.

중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초원문화』 제1집에 실린 글의 면면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²⁷

<표 2> 『논초원문화』 제1집에 실린 논문과 저자 일람표

연번	주제	제목	저자	저자 소속
1	정치이론	선진문화를 드높이고 민족문화대구를 건설하자 [弘揚先進文化 建設民族文化大區(代序)]	陳光林	中共內蒙古自治區省委
2	정치이론	중화문화발전사에서 초원문화의 위상과 작용 [論草原文化在中華文化發展史上的地位與作用]	內蒙古社會科學院 課題組	內蒙古社會科學院
3	정치이론	중국문화와 세계문화 발전과정 중 네이멍구 초원문화의 위상과 영향 [內蒙古草原文化在中國文化和世界文化發展史上的地位和影響]	董恒宇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內蒙古委員會
4	정치이론	초원문화의 구조적 특징을 논함 [論草原文化的建構特征]	歐諾	內蒙古新聞出版社
5	고고	초원문명의 형성과 그 역사적 지위에 대한 시론 [試論草原文明的形成及其歷史地位]	王綿厚	遼寧省博物館
6	생태환경	중화문화의 큰 계통 중 초원문화의 지위와 영향을 논함 [論北方草原文化在中華文化大系中的地位及其影響]	烏恩	內蒙古農業大學

27 제1회 초원문화연토회는 2004년 8월 呼和浩特市人民政府, 內蒙古社會科學院, 內蒙古草原民俗文化研究院, 內蒙古大草原乳業集團, 內蒙古日報社, 『北方新報』, 內蒙古電視台 등의 후원 아래 呼和浩特市에서 개최되었다. 연토회 개최 이후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아 董恒宇·馬永眞 主編, 2005, 『中國內蒙古第首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로 발간하였다. 제5회를 맞이한 2008년 연토회부터는 馬永眞·王學儉·錢榮旭 主編, 『論草原文化』로 이름을 바꿔 2009년 第5輯으로 內蒙古教育出版社에서 출간하여 제15집까지 출간되었다. 그러나 「中國知網」에서는 제9집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http://new.gb.oversea.cnki.net/libproxy.snu.ac.kr/KNavi/DPaperDetail?pcode=CIPD&lwjcode=MNGS200408001&hycode=007305> 참조.

연번	주제	제목	저자	저자 소속
7	문화사	초원문명과 네이멍구민족문화대구건설을 논함[論草原文明與內蒙古民族文化大區建設]	何天明	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8	정치이론	중화문명에 대한 초원문화의 역사적 공헌[草原文化對中華文明的歷史貢獻]	潘照東	內蒙古社會科學院
9	정치이론	초원문화를 논함[論草原文化]	寶力格, 盛明光, 黃金	內蒙古社會科學院
10	문화사 고고	考古 발굴을 통해 본 몽골 초원문명의 위대한 공헌[從考古發現場看內蒙古草原文明的偉大貢獻]	王大方, 張文芳	內蒙古文化廳
11	문화사	몽골민족 전통 문화를 논함: 초원문화의 본질[論蒙古族傳統文化: 草原文化的本體論研究]	烏雲巴圖	內蒙古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2	문화사	초원문화의 위상과 특징 그리고 정신[略論草原文化的地位, 特色和精神]	賈喜喜	미상
13	정치이론	역사는 뿌리, 문화는 혼[歷史是根 文化是魂: 寫在內蒙古草原文化節之際]	郝誠之	內蒙古沙產業草產業協會
14	문화사	초원생태문화에 대한 철학적 사고[對草原生態文化的哲學思考]	格·孟和	內蒙古師範大學
15	문화사	중국 북방 초원문화를 구성하는 복합생태의 기초를 논함[論中國北方草原文化的复合生態基礎]	葛根高娃	內蒙古社會科學院
16	문화사	초원생태환경과 북방 유목민족 음식문화의 관계를 논함[論草原生態環境與北方游牧民族飲食文化的關係]	張景明	大連大學美術學院
17	고고	包頭 출토 “單于天降”과 “單于和親”瓦當[包頭出土的“單于天降”和“單于和親”瓦當]	張海斌	包頭博物館
18	문학	난세 초원의 영웅: 《蒙古秘史》중 자무카에 대한 새로운 해석[亂世草原 英雄本色: 《蒙古秘史》札木合形象的重新定位]	王素敏	미상
19	문헌학	《中國蒙古文古籍總目》: 몽골 민족 역사 문화의 정화[《中國蒙古文古籍總目》: 蒙古族歷史文化的薈萃與見證]	申曉亭	中國國家圖書館

연번	주제	제목	저자	저자 소속
20	문화이론	현대 예술론 중 초원문화의 의의[論當代藝術話語中的草原文化內涵]	李樹榕, 木蘭, 葛根珠崗	內蒙古大學
21	음악학	모린호르 음악과 몽골 초원문화[馬頭琴音樂與蒙古族草原文化]	李紅梅	미상
22	경영학	초원문화자본의 개발과 이용 [略論“草原文化資本”的開發利用]	王忠民	西北大學
23	경영학	초원문화와 네이멍구 문화산업 발전전략 분석 [草原文化與內蒙古文化產業發展戰略分析]	海峰	武漢大學
24	정치이론	과학적 문화발전관을 견지하여 민족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함[堅持科學的文化發展觀 加快民族文化產業的跨越式發展]	王利俊	內蒙古建築職業技術學院
25	산업경영	네이멍구 피혁공예의 현대산업화[把內蒙古皮革工藝美術業建設成現代文化產業]	趙彥鈺	미상
26	관광문화	초원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지역 경제건설을 번영시키자[發展草原文化 繁榮我區經濟建設: 蒙古族文化是內蒙古旅游文化的精髓]	寶音滿達胡	內蒙古旅遊局
27	문화이론	민족문화대구를 건설하고 문물건축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자[建設民族文化大區 保護開發文物建築文化遺產]	郭朝洪, 海紅	內蒙古科技與經濟雜誌社, 內蒙古科學技術委員會
28	정치이론 행정학	초원문화의 꿈을 널리 알려 전파하자 [弘揚和傳播草原文化的遐想]	王玉希	內蒙古管理幹部學院
29	정치이론	초원문화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충실히 하자: 초원문화연토회를 마치며 [爲發展草原文化打好理論基礎: 內蒙古草原文化研討會綜述]	張志華	內蒙古師範大學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초원문화연토회는 본격적인 몽골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연구보다는 초원문화 이론을 심화시킬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매년 연토회를 거듭하면서 장성(長城)과 초원의 관계, 황허 문명과 초원의

관계, 네이멍구 선사문화와 증원의 관계, 오르도스 등 네이멍구 특정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다루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초원문화 이론 관련 논문이다.²⁸

초원문화연구공정 초기부터 그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5년 5월 네이멍구사회과학원에 초원문화연구소(草原文化研究所)를 설치하였다. 자치구 정부는 「네이멍구자치구국민경제화사회발전제12개5년규획강요[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를 반포하여 초원문화학을 몽골학 등과 함께 자치구 철학사회과학 분야 중점 학문 분야로 지정하고 이를 수행할 조직으로 초원문화연구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²⁹

이 연구소는 이후 “초원문화연구공정”은 물론 “중국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정”, “네이멍구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등을 이끌고 있으며 그간 『초원문화개론(草原文化概論)』, 『몽골민족 문화연구(蒙古族文化研究)』, 『홍산제문화와 북방유목민족 원시종교 비교연구(紅山諸文化與北方游牧民族原始宗教比較研究)』, 『몽골민족 호한가연구(蒙古族好漢歌研究)』, 『몽골민족 현대 시가연구(蒙

-
- 28 네이멍구 초원과 長城의 문화적 관계에 대해 陶玉坤, 2006, 「長城與中國文化地理」, 董恒宇·馬永眞 主編, 『中國內蒙古第二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를 참조. 해당 논문집 외에도 張海斌, 2000, 「包頭境內的戰國秦漢長城與古城」, 『內蒙古文物考古』, 2000年第1期; 薛瑞澤, 2010, 『秦漢魏晉南北朝黃河文化與草原文化的交融』, 科學出版社 등을 참조. 초원과 증원 문화의 관계에 대해 李紅梅, 2006, 「黃土文化與草原文化的完美結合: 淺談二人臺音樂中蒙漢文化交融」, 董恒宇·馬永眞 主編, 『中國內蒙古第二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 王利俊·王東輝, 2008, 「“和文化”, 草原文化的核心價值: 兼論呼和浩特市昭君文化的當代意義」, 董恒宇·馬永眞 主編, 『中國內蒙古第四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 등을 참조. 초원문화이론과 관련하여 內蒙古社會科學院 草原文化研究課題組 명의로 여러 편의 초원문화 이론과 실재를 다룬 글을 『論草原文化』에 발표하였다.
- 29 2013년 7월 『內蒙古自治區志·社會科學志』 중 「蒙古學」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또 다른 「文化學研究」 장에 「草原文化研究」節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는 초원문화가 독자 학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古族現代詩歌研究』, 『초원과 공존하다: 하르간트 초원의 생태인류학 연구[與草原共存: 哈日干圖草原的生態人類學研究]』, 『몽골민족 오보제사의 문화정체성연구[蒙古族敖包祭祀的文化認同研究]』, 『홍기라드부족사[弘吉剌部族史]』 등 20여 권의 학술서적과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학술서적의 대부분은 《초원문화연구총서》로서 네이멍구교육출판사[內蒙古教育出版社]에서 발행되었으며³⁰ 이 외에도 『초원문화연구논총』 2집, 『초원문화연구자료선편(草原文化研究資料選編)』 12집,³¹ 『초원문화와 문학예술논총[草原文化與文學藝術論叢]』³² 등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의 초원문화 연구는 주변 학술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활동이 함께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네이멍구대학의 경우 역사와 관광문화학원[歷史與旅遊文化學院] 아래 네이멍구대학 초원문화유산연구센터[內蒙古大學草原文化遺產研究中心]를 설치 운영하였고, 같은 대학 출판사에서 2008~2009년 사이 《초원문화심종총서(草原文化尋踪叢書)》를 발간하였다.³³ 각 지역별로도 초원문화 관련 총서가 발간되었는데, 스칭하이[史淸海]의

30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670> (게재일: 2017년 10월 31일);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69>(게재일: 2020년 3월 30일); 張景明, 2006, 『草原飲食文化研究』; 那木吉拉, 2006, 『草原圖騰文化研究』; 白紅梅, 2006, 『草原那達慕文化研究』; 呼日勒沙, 2007, 『草原文化區域分布研究』; 毅松·塗建軍·白蘭, 2007, 『達斡爾族鄂溫克族鄂倫春族文化研究』; 陶克套, 2007, 『草原文化與現代文明研究』; 朋·烏恩, 2007, 『蒙古族文化研究』; 塔拉, 2007, 『草原考古學文化研究』; 扎格爾, 2007, 『草原物質文化研究』; 曉克, 2007, 『草原文化史論』, 內蒙古教育出版社 등. 이러한 초원문화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초원문화와 연결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徐慧賢, 2017, 『草原文化與社會結構變遷視覺下牧區民間金融發展』, 經濟管理出版社 등.

31 牛森 主編, 2005, 『草原文化研究資料選編』, 內蒙古教育出版社.

32 巴特爾 主編, 2012, 『草原文化與文學藝術論叢』 第6輯, 內蒙古人民出版社.

33 네이멍구 출판사에서 《草原文化尋踪叢書》로 발간된 책으로는 孫建華·楊星宇, 2008, 『大遼公主: 陳國公主墓發掘紀實』; 楊澤蒙, 2008, 『遠祖의 傾訴: 鄂爾多斯青銅器』; 劉兆和, 2009, 『日落黑城: 大漠文明搜尋手記』; 黃雪寅, 2008, 『追夢中原: 從嘎仙洞到龍門石窟的鮮卑人』; 苗潤華·杜華, 2008, 『草原佛聲』

『초원힐영(草原擷英)』(2014)이 《실린골맹 초원문화연구총서[錫林郭勒盟草原文化研究系列叢書]》로 네이멍구과학기술출판사[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학술활동 이외에 사회과학원과 초원문화연구소의 노력으로 2005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초원문화유산보호일(草原文化遺產保護日)로 지정하여 유·무형의 문화재 지정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민간의 보호 노력 등을 이끌게 되었다. 또한 네이멍구방송국과의 협업으로 <초원문화의 핵심이념(草原文化的核心理念)> 5집, <역사의 흔적: 초원문화의 역사적 공헌[歷史的足跡: 草原文化的歷史貢獻]> 5집 등을 제작하였으며 방송국은 2004년 5월 1일부터 <하늘빛 고향[蔚藍的故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원문화의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방송국 홈페이지에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초원문화’ 메뉴가 첫 화면에 드러나 있는 점도 흥미롭다.³⁴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초원문화연구공정이 네이멍구 사회 각계각층에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서 네이멍구의 정치적 위상은 물론 역사·문화적으로도 중원과 초원이 오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공통의 문화를 형성해온 것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면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네이멍구 주민에게뿐만 아니라 네이멍구 외부의 중국 사회에도 북강(北疆)을 각인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초원문화연구공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몽골 초원과 황허 문명 사이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그 자체로 한 덩어리였음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오랜 역사를 관통해 몽골을 대표해온 유목문화는 이제 네이멍구 초원문화의 일부로 위치하게 되었다. 유라시아 동서를 관통하는 초원의 길, 그 주변의 유목 사회와는 구별되는 네이멍구만의 초원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³⁵ 유목문화는

蒙古地區黃教第一寺美岱召記』 등이 있으며, 歷史與旅遊文化學院 교수 장지우 허[張久和] 등이 『草原文化史論』(內蒙古教育出版社, 2007)을 출간하였다.

34 內蒙古網絡廣播電視臺 騰格里網, <http://www.nmtv.cn/> 참조.

초원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거나 중원과 네이멍구 초원의 오랜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우탄잉의 논술이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다.³⁶ 물론 2002년 초창기부터 의도했던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현재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탄잉이 제시한 초원문화 이론은 분명 중앙정부의 변강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유라시아의 초원보다는 중원에 연결된 네이멍구의 초원문화를 확립해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 초원과 중원이 대체로 격리되어 있었고 장성이 그 경계의 역할을 해왔으며 때로 중원을 넘보던 북방의 정권도 결국 문화적 열세 때문에 한화(漢化)되었다는 전통적 역사 해석에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게 된다.

추보[儲波]는 네이멍구 지역의 역사가 여러 시대를 거쳐 중원의 문화와 한덩어리가 되어 발전해왔음을 지적하였다. 근현대의 혁명은 물론이고 선사시대 역사·문화에서도 같은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했는데, 핵심은 농경과 유목 문화가 서로 만나 융합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네이멍구 선사문화를 대표해온 홍산문화(紅山文化, 현재 赤峰, 朝陽 지역), 대요문화(大窪文化, 흑호트시 동쪽 33km 保舍少鄉), 하투문화(河套文化, 寧夏 賀蘭山 東 薩拉烏蘇河 연안), 하가점문화(夏家店文化, 현재 赤峰市 松山區), 주개구문화(朱開溝文化, 현재 鄂爾多斯)가 농경과 유목의 혼합 문화에서 발전했다는 것이다.³⁷ 이는 곧 황허 유역의 선사

35 네이멍구사회과학원에서는 초원문화연구공정과는 별도로 유라시아 초원의 길, 실크로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一帶一路 프로젝트가 따로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2008년 7월 개소한 俄羅斯與蒙古國研究所의 명칭을 內蒙古‘一帶一路’研究所로 개칭하고 2012년부터 內蒙古中長期經濟社會發展研究工程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몽골과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 “草原絲綢之路經濟帶” 건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73> 참조.

36 앞의 주)19 참조.

37 2013년 3월 19일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이 주최한 초원문화학술회담회에서는 “무엇이 초원문화인가?”, “초원문화학의 이론과 근거”, “초원문화의 대표적 저작과 저자들”, “초원문화의 개념, 범주와 발전양상”, “紅山, 大窪, 薩拉烏蘇, 河套, 昭君文

문화와 유사한 경계 형태를 유지하여 서로 접점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백악기의 차간노르[查干諾爾] 공룡화석에는 아시아제일공룡[亞洲第一恐龍], 흥륭와유지(興隆洼遺址, 네이멍구자치구 赤峰市 敖漢旗 寶國吐鄉, 신석기 유적)에는 화하제일촌(華夏第一村), 홍산문화 잉뉴트기[翁牛特旗] 산성탈[三星塔拉] 가차촌[嘎查村]에서 출토된 벽옥룡(碧玉龍)에는 중화제일룡(中華第一龍 또는 天下第一龍), 요 상경(遼 上京)과 중경(中京) 유적에는 초원제일도(草原第一都)라는 별칭을 붙여 초원 남부의 여러 역사 유적이 중화문명의 구성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⁸

과거 초원의 역사는 곧 북방유목민족의 역사이며 때로 중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심대한 영향이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황허 유역을 근거로 몇 개의 왕조를 구성하여 중국사의 일부를 구성한 점을 일컫는다. 그러나 하나같이 문화적으로 낙후해서 중화문명에 흡수되어 그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록·관텐은 이를 정복왕조라고 일컫기도 했지만, 이 또한 초원의 정치 세력이 중화 세계에 흡수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이 농경사회 우위의 역사 전개를 당연시하는 입장은 황허 유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동서로 길게 뻗은 초원지대의 남북에서는 농경과 유목 세계의 오랜 접촉, 갈등, 융합의 과정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사 전공자인 자오린[趙林]은 거시적 관점에서 기원전 15세기에서 기원후 15세기까지 유라시아 초원지대와 농경지대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갈등과 융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중해 동부, 이란고원, 인도 북부, 황허 유역에 이르기까지 북방 초원 세계의 침입과 농경문화의 확장

화와 초원문화의 관계와 한계” 등을 논하면서 본문에서 다뤘던 선사문화의 농목 융합적 요소와 함께 昭君文化를 초원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 즉 漢代 匈奴로 下嫁했다고 알려진 王昭君의 고사를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고 漢과 흉노 사이에 이뤄졌던 민족융합의 모범적 사례로 삼고자 하였다.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464> 참조.

38 儲波, 2004, 「加快文化發展建設民族文化大區」, 『求是』, 2004年第10期, 39쪽.

이 이뤄졌다고 보았다.³⁹

이러한 논의는 정주(농경)와 유목 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왔는가 하는 거시사의 오랜 관심 분야 중 하나였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농경사회가 이룩한 문명이 점차 확산되면서 ‘화외지(化外之地)’가 문명의 영역으로 흡수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농경과 유목의 대립, 농경에 의한 유목의 흡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곧 인류 문명의 선구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즉, 중화주의적 역사관이 세계사의 큰 흐름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경문화 위주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네이멍구의 초원문화는 분명 농경 중심의 황하 남부 ‘중원’에 문화적으로 병합되어 화하의 일부가 되었다고 이해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원문화연구과정에서 제시한 초원문화는 유목과 정주 사회에 대한 역사학계의 오랜 논의에서 네이멍구를 조금은 다른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유목이라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으로는 농목이 혼재하고, 동시에 중원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화하의 주요한 근원 중의 하나인 곳이 바로 네이멍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네이멍구 너머의 초원세계와 분리된 네이멍구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데 이는 과거 오랫동안 농경사회 중심의 흡수이론이 이루어지 못한 성과가 아닌가 한다.

39 趙林, 2002, 「農耕世界與遊牧世界的衝突融合及其歷史效應」, 『武漢大學學報(人文版)』, 2002年第6期, 700~706쪽. 자오린은 3차에 걸친 북방 유목국가의 남하를 첫째, 기원전 2000년 무렵 인도 아리안계의 남하, 둘째, 동유럽에서 활동한 훈(Hun)을 포함하는 흉노의 활동, 셋째, 돌궐, 위구르, 거란, 여진으로 연결되는 몽골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IV.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민족 문화대구(民族文化大區)에서 민족문화강구(民族文化強區)로

1.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 사업과의 관계

초원문화연구공정이 사업 후기로 접어든 2010년 8월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와 함께 국가사회과학기금의 후원을 받아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를 시작하였다.⁴⁰ 5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가 투입되어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물은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문고[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文庫]』로 출간되고 있다. 대략 2020년 3월까지 40여 권이 네이멍구대학출판사와 광시사범대학출판사[廣西師範大學出版社]에서 출간되었고, 나머지 60여 권은 출판을 앞두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대흠차주고료판사대신아문당안당책회편(清代欽差駐庫倫辦事大臣衙門檔案檔冊匯編)』 20권은 몽골국 국가당안총국(國家檔案總局), 몽골국과학원 역사고고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영인 출간한 자료집이다. 몽골, 만주, 한문, 러시아 문자로 기록된 8,870권에 달하는 사료로 1758년(건륭 23)에서 1911년(선통 3) 사이의 기록을 담고 있다.⁴¹

40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65> 참조.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烏恩特, 2011, 「國家社科基金特別項目《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 『內蒙古年鑒』, 遠方出版社. 참조. 같은 해인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邊疆中國歷史與現狀研究가 시작되어 「中國邊疆研究文庫」가 黑龍江教育出版社에서 발간되었다. 2012~2015년에 걸쳐 『奉使俄羅斯日記·出塞紀略·從西紀略』(2014), 『西盟會議始末記·偵蒙記·征蒙戰事詳記』(2014), 『口北三邊志』(2015) 등 100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전체 목록은 <https://www.douban.com/note/648815879/> 참조.

41 厲聲·畢奧男·烏蘭巴根·阿拉騰奧其爾·S, 楚侖·D, 烏力吉巴圖爾·A, 奧其爾·N, 崗巴特 主編, 2017, 『清代欽差駐庫倫辦事大臣衙門檔案檔冊匯編』

몽골 부족사 연구로 『투머드사[土默特史]』, 『논호르친사[嫩科爾沁史]』 등이 출간되었는데 국가사업으로 몽골 부족사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⁴² 다고르족[達斡爾族] 문학연구 시리즈로 『다고르족문화변천연구[達斡爾族文化變遷研究]』, 『다고르족시가연구[達斡爾族詩歌研究]』, 『다고르족소설연구[達斡爾族小說研究]』, 『다고르족산문연구[達斡爾族散文研究]』, 『다고르족보고문학 및 희극문학연구[達斡爾族報告文學及戲劇文學研究]』⁴³ 등도 출간되었고, 네이멍구 지역조사사업으로 《네이멍구농촌목구가차촌현상추양조사총서[內蒙古農村牧區嘎查村現狀抽樣調查叢書]》 시리즈,⁴⁴ 주제사로 『유목행국체제와 왕조변속호동연구[遊牧行國體制與王朝藩屬互動研究]』, 『청대수원성: 팔기주방연구[清代綏遠城: 八旗駐防研究]』, 『내재된 상호성: 청대몽골입장오다연구[嵌入式互動: 清代蒙古入藏熬茶研究]』 등 변강사(邊疆史) 관련 연구서도 다수 출간되었다.⁴⁵

20권,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42 몽골부족사 연구로 胡日查, 2018, 『嫩科爾沁史』, 네이멍구대학출판사; 曉克 主編, 2018, 『土默特史』, 네이멍구대학출판사 등이 있다.
- 43 다고르[達斡爾族] 문학연구의 결과물로 托婭·李樹新 주편, 《다고르족현대문학연구총서[達斡爾族當代文學研究叢書]》가 네이멍구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총서는 崔榮, 2012, 『達斡爾族詩歌研究』; 李樹新, 2012, 『達斡爾族小說研究』; 趙延花, 2013, 『達斡爾族散文研究』; 托婭, 2013, 『達斡爾族報告文學及戲劇文學研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고르 문화와 관련하여 毅松 主編, 2017, 『達斡爾族文化變遷研究』가 네이멍구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 44 네이멍구출판사에서 출간된 雙寶, 2018, 『內蒙古農村牧區社會結構現狀調查研究』; 張敏, 2018, 『內蒙古農村牧區基本公共服務調查研究』; 朱椽, 2018, 『內蒙古農村牧區基層社會治理調查研究』; 敖仁其 主編, 2018, 『內蒙古農村牧區嘎查村問卷調查數據統計』 등이 있다. 참고로 '가차[嘎查]'는 네이멍구자치구의 가장 작은 자치 촌락 단위를 일컫는다.
- 45 네이멍구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된 張志華, 2015, 『內蒙古邊境管理與防務研究』; 劉蒙林, 2017, 『清代綏遠城: 八旗駐防研究』; 呂文利, 2017, 『嵌入式互動: 清代蒙古入藏熬茶研究』; 李大龍·李元暉, 2018, 『遊牧行國體制與王朝藩屬互動研究』; 蓋志毅, 2018, 『將內蒙古建成我國北方重要的生態安全屏障研究』; 金鑫, 2018, 『布特哈衙門: 軍政制度沿革研究』; 範恩實, 2019, 『地緣與族群:

초원문화연구공정이 초원문화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대 중적 확산을 목표로 했다면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사업은 역사, 문헌, 문 학, 문화, 사회조사 등 네이멍구 인문사회과학 여러 분야의 학술적 성장을 염두 에 둔 학술연구기반강화사업이었다. 이는 물론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변강 역사와 현상시리즈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신장역사와 현상종합연구프로젝트[新疆歷史與現狀綜合研究項目]», 「서남변강역사와 현상 종합연구프로젝트[西南邊疆歷史與現狀綜合研究項目]」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면도 있었지만 2002년 민족문화대구건설논의 이후 네이멍구 학술계 전반에 형성된 질적·양적 팽창의 추세가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본격화되 는 네이멍구자치구의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의 추진 방향과 내용은 앞서 진행 한 「초원문화연구»,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사업과 연속성을 보이는데 특 히 후자는 역사문헌 연구와 출간, 지역조사, 주제사 연구 등 사업에서 그 연결성 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2.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의 주요 사업 내용

2013년 5월 14일 네이멍구자치구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영도소조(領導小組) 의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은 네이멍구자치구 당위상위(黨委常委), 선전부부장(宣傳部部長) 올란(烏蘭)과 영도소조의 부조장 을 맡은 자치구인대상위회부주임(自治區人大常委會副主任), 중국몽골학학회회 장[中國蒙古學學會會長] 우탄잉 등이 참석하였다. 우탄잉은 앞서 살펴본 대로

遼代以前蒙古草原與東北地區族群關係研究』 등이 있다. 그중 蓋志毅의 『將內 蒙古建成我國北方重要的生態安全屏障研究』는 10년에 걸쳐 102개 旗縣을 조 사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방대한 작업으로 시진핑 주석의 “四個全面” 重要思想에 근거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공산당의 주목을 받고 있다. 內 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66>; 內蒙 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75> 참조.

초원문화이론을 정립하고 초원문화연구공정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회의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2012년 11월 8~14일)에서 강조한 “사회주의문화강국건설(社會主義文化強國建設)” 논의를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⁴⁶

자치구 정부는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을 자치구의 민족문화건설 중대사업인 동시에 자치구 사회과학 발전전략을 위한 특별사업(사업코드 2014TB001)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업은 근래 진행된 몽골학 연구, 역사문화자원조사사업의 성과, 「초원문화연구공정」,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등 국책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몽골학 연구의 발전과 인재 양성, 문화 전파, 학술 교류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은 크게 6개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네이멍구 역사문화 관련 자료(文獻檔案)의 연구·출판 사업, 둘째, 네이멍구자치구 여러 지역에 대한 사회역사조사사업의 수행, 셋째, 주제사 연구, 넷째, 국제적으로 저명한 몽골학 관련 연구서의 번역과 출판 사업, 다섯째 네이멍구 역사문화를 전국적으로 보급, 여섯째, 네이멍구민족문화건설연구사업 DB 구축이 그것이다.

전체적인 사업 일정은 2013~2016년 6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중 문헌당안의 정리와 출판사업에 35개 사업, 네이멍구 지역 사회와 역사조사에 89개 사업, 전문 주제 연구에 81개 사업, 몽골학 문헌의 번역과 출판에 43개 사업, 네이멍구 지역 역사문화 보급 ‘주출거(走出去)’ 확산 전략에 1개 사업,⁴⁷ 네이멍구민족문화건설연구 DB 구축에 6개 사업 등 255개

46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1113> 참조. 이는 『內蒙古日報』에서 발췌한 기사이다.

47 盛明光·塞樹林, 2009, 「加快實施內蒙古文化產業“走出去”發展戰略」, 『前沿』, 2009年第4期. 경쟁력을 갖춘 문화상품, 문화 서비스, 문화자본,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네이멍구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1873>를 참조.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다.⁴⁸ 그러나 2019년 4월까지도 사업 추진 공고가 계속되었고 2020년 3월 현재 전체 계획 중 약 35%인 79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⁴⁹ 따라서 전체 사업의 내용과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적 조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역사문화 관련 자료[文獻檔案]의 연구·출판 사업, 주제사 연구사업, 몽골학 관련 연구서의 번역·출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다. 특히 몽골학 관련 연구서의 번역·출판 사업은 앞서 다른 사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가능한 자세히 다루어보겠다.

1) 네이멍구 역사문화 관련 자료[文獻檔案]의 연구·출판 사업

앞서 서술한 민족문화대구건설사업에서 몽골문 『대장경』 400권의 영인·출판 사업(2005~2015)이 시행되었고,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사업에서는 『청대흠차주교료판사대신아문당안당책회편(清代欽差駐庫倫辦事大臣衙門檔案檔冊匯編)』 20권의 사업(2010~2017)이 시행되었다. 모두 장기 사업으로 전자는 2015년, 후자는 2017년에 출판이 완료되었으니 각각의 민족문화대구건설사업이나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의 사업기간을 훌쩍 넘겨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사업기간에 겹쳐 사업이 진행된 셈이다.

『『대장경』영인본출판공정』, 즉 몽골문 『대장경』 400권의 영인·출판 사업은 초원문화공정의 일부 사업인 동시에 국가중점도서출판사업[國家重點圖書出版項目]의 일환으로 네이멍구자치구 사회과학원과 자치구 신문출판국이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몽골문 『대장경』은 『간주르[甘珠爾]』 108권, 목록 1권, 『덴주르[丹珠爾]』 225권, 목록 1권, 『종카바문집[宗喀巴文集]』 20권, 『악왕첸덴문집[阿旺却丹文集]』 5권, 『복장경[伏藏經]』 40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른

48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62> 참조.
 49 內蒙古自治區社會科學院, 연구계열 4차 공고 「“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研究系列第四批項目招標公告”(계재일: 2019년 7월 26일)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1936> 참조.

바 ‘청대 베이징 목각본’을 저본으로 하며 몽골문 이외 티베트, 한문, 만주문 『대장경』과 대조 작업을 거쳐 네이멍구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⁵⁰

초원문화연구공정 기간에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원사』회주 프로젝트[『元史』匯注項目]』가 있다. 『『원사』회주 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 8월 네이멍구자치구 사업으로 시작되어 네이멍구사회과학원과 난징대학 역사학원(歷史學院) 류잉성[劉迎勝], 천더즈[陳得芝] 교수 등이 이끄는 난징대학 민족과 변강연구소[民族與邊疆研究所] 연구진이 함께 완성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원사』가 성립된 명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교감을 진행하였고, 각종 고유명사의 해석을 붙여 2017년 1월 초고가 완성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사과기금중대항목(國家社科基金重大項目), 네이멍구자치구 “몽원문화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이다. 2016년 4월 중국 국내의 원대사 연구자들이 모여 전문가 심사를 거쳤고 대략 2017년 초고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식 출판은 확인되지 않았다.⁵¹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이후 시작된 역사문헌의 연구·번역·출판 사업으로 “청조몽골사료정리[清朝蒙古史料整理]” 사업이 있다. 이는 네이멍구인민출판사가 주관하며 특히 출판사 소속의 에르렘트[額爾德木圖]가 만문의 몽골문 번역 등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 중에는 청대 이변원 관련 문헌의 번역과 『만문원당(滿文原檔)』의 몽골문 번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몽역대청이변원제본(蒙譯大清理藩院題本)』은 순치(順治)에서 광서조(光緒朝)에 이르는 4,135건 만문 제본(題本)을 몽골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이다.⁵² 이 번역 작업은

50 內蒙古社會科學院, “中國蒙古文丹珠爾經收藏聖地”,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68> 참조.

51 이 연구는 元上都 연구와 함께 蒙元文化研究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 결과물은 베이징 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67> 참조.

52 『蒙譯清朝前期理藩院滿文題本：順治康熙朝』, 內蒙古人民出版社, 2013; 『蒙譯大清乾隆朝理藩院題本』 6권, 內蒙古人民出版社, 2015~2017; 『蒙譯大清嘉慶朝理藩院題本』 8권, 『蒙譯大清道光朝理藩院題本』 12권, 『蒙譯大清咸豐朝

2010년 네이멍구인민출판사에서 발간한 『청조전기이번원만몽문제본(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을 저본으로 번역을 진행하였다.

네이멍구 지역 문헌정리사업으로 『알락산호쇼드기몽골문역사당안[阿拉善和碩特旗蒙古文歷史檔案]』이 있다. 이는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식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네이멍구인민출판사 소속의 원방출판사(遠方出版社)에서 출간되고 있다. 전체는 80권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권이 출간되었다.⁵³ 이 자료는 알락산 좌기당안관[阿拉善左旗檔案館]과 일부 네이멍구당안관[內蒙古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던 청대 자료를 더해 출간하게 되었다. 국외의 몽골문 자료를 집성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는데 『몽골학연구문헌집성·몽골문시리즈(蒙古學研究文獻集成·蒙古文系列)』가 그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출간된 국외 몽골문 자료로는 『미국하버드대학 하버드연경도서관 몽골문문헌회편[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蒙古文文獻匯編]』 68책이 있다.⁵⁴

2014년 말 국가사회과학기금중대공모사업[國家社會科學基金重大招標項目]으로 선정된 「원명청몽골족 티베트문 전적 발굴정리와 연구[元明清蒙古族藏文典籍挖掘整理與研究]」(사업코드: 14ZDB072)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중국 국내는 물론 몽골국, 부리아트 공화국 등 주변국에 흩어져 있는 몽골민족에 의해 생산된 티베트문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네이멍구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 국가사과기금항목으로 몽골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사업과 연결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연

理藩院題本』 2권, 『蒙譯大清同治朝理藩院題本』 3권, 『蒙譯大清光緒朝理藩院題本』 5권; 『蒙譯弟子規』, 內蒙古人民出版社, 2018; 額爾木圖 譯, 2017, 『蒙譯滿文原檔』 1~3冊, 內蒙古人民出版社. 『蒙譯滿文原檔』은 전체 10책이 출간될 계획이다. 『蒙譯大清嘉慶朝理藩院題本』 이후의 출판 정보는 명확하지 않다.

53 蘇雅拉圖·布仁巴依爾·吳團英 編, 2016, 『阿拉善和碩特旗蒙古文歷史檔案』, 遠方出版社. 이 자료는 『內蒙古民族文化通鑑』 시리즈의 일부로 출간되었다.

54 畢奧南·烏蘭巴根 主編, 2015, 『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蒙文文獻匯刊』 68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구책임자인 네이멍구대학 에르든보인[額爾敦白音] 교수가 2019년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업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다.⁵⁵

이상에서 살펴본 역사문헌당안의 발굴, 정리 작업은 네이멍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민족문화 관련 국책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이상의 작업은 연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지만 때로는 문헌의 발굴지로서 명성을 얻어 그 지역 관광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몽골문 역사문헌, 당안의 발굴과 정리 작업이 2002년 민족문화대구건설이나 초원문화,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과 같은 사업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베이징의 연구기관들이 소수민족 고적정리 작업을 본격화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 고적의 목록을 만들고 자료 해제를 진행한 결과 『중국몽골문고적총목[中國蒙古文古籍總目]』, 『중국 소수민족고적제요·몽골족권[中國少數民族古籍提要·蒙古族卷]』, 『네이멍구자치구사회과학원도서관수장몽골문고적문헌통람[內蒙古自治區社會科學院圖書館收藏蒙古文古籍文獻通覽]』 등이 출간되었다.⁵⁶ 이러한 기초 작업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문헌정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주제 연구 사업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은 2014년 3월 6일 사회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론과 주제사(專題史) 연구를 공모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공모된 1차 사업에서는 전체 22개 연구 중 13개의 개론연구, 9개의 주제사 연구가 사업을 구성했으며, 2015년 2차 공모에서는 그 수가 크게 늘어 전체 47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2차

55 全國哲學社會科學工作辦公室, <http://www.npopss-cn.gov.cn/n/2015/0205/c393168-26514414.html> 참조.

56 『中國蒙古文古籍總目』編委會, 1999, 『中國蒙古文古籍總目』, 北京圖書館出版社; 孫蓓欣·申曉亭, 2000, 『中國蒙古文古籍總目』: 中國第一部大型少數民族古籍全國聯合目錄, 『中國圖書館學報』, 2000年第6期; 國家民族事務委員會 全國少數民族古籍整理研究室 編, 2013, 『中國少數民族古籍總目提要·蒙古族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사업 이후부터는 앞선 사업에서 연구자 공모에 실패한 사업이 재공모되기도 해서 3차 공모는 1, 2차 공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4차 공모는 2019년 7월 26일 네이명구사회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연구 14개가 공포되었는데 연구기간은 2년이며, 결과물은 사회과학원을 통해 출판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표 3>은 1~4차에 걸쳐 제시된 과제명을 열거한 것이다. 현재 과제 수행자에 대한 정보는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4차 사업의 경우 2019년 9월 이후 연구지원이 시작되었다면 이 연구 주제는 현재까지 연구과정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8~9월경 연구 기간이 종료되어 연구결과물이 제출된다고 예상하면 결과물이 출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중 주제 연구 사업 목록

시기	구분	과제명
1차 ⁵⁷ (2014. 3.)	개론(13)	蒙古語言文字概論, 蒙古姓氏概論, 蒙古族家譜概論, 達斡爾族民間文學概論, 達斡爾族音樂概論, 達斡爾族傳統文化概論, 蒙古族經濟概論, 鄂溫克族文學概論, 鄂溫克族音樂概論, 鄂倫春族文學概論, 鄂倫春族音樂概論, 蒙古族宗教概論, 蒙古族美學概論
	주제사(9)	蒙古族民歌史, 蒙古族民間故事史, 蒙古族民間說唱藝術史, 蒙古族經濟民俗史, 蒙古族思維發展史, 蒙古族王公史略, 內蒙古地區行政建制沿革史, 內蒙古地區民族關係史, 內蒙古城市史
2차 ⁵⁸ (2015. 9.)	개론(17)	達斡爾語概論, 鄂溫克族文學概論(1차), 蒙古姓氏概論(1차), 蒙古族家譜概論(1차), 鄂倫春族音樂概論(1차), 三少民族舞蹈概論, 三少民族美術概論, 蒙古族經濟概論(1차), 三少民族民俗概論, 內蒙古文物考古概論, 蒙古族文獻概論, 蒙古族軍事思想概論, 蒙古族歷史地理概論, 三少民族非物質文化概論, 內蒙古地名文化概論, 達斡爾族研究概論, 鄂倫春族研究概論

57 內蒙古自治區社會科學院, 연구계열 1차 공고 「“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研究系列第一批項目招標公告」(계재일: 2014년 3월 6일),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190> 참조.

58 內蒙古自治區社會科學院, 연구계열 2차 공고 「“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

	주제사 (30)	蒙古族文字史, 畏兀兒體蒙古文字史, 蒙古族語言史, 蒙古族神話傳說史, 蒙古族民歌史, 蒙古族民間說唱藝術史(1차), 元代對外關係史, 元代文獻中蒙古人名研究, 蒙古族政治制度史, 達翰爾族通史, 鄂倫春族通史, 鄂溫克族通史, 內蒙古滿族史, 內蒙古民族發展史, 蒙古族生業方式與生存環境史, 蒙古族認識論史, 蒙古族哲學本體論史, 達翰爾族教育史, 蒙古族狩獵經濟史, 蒙古族農業發展史, 內蒙古農業發展史, 蒙古族經濟民俗史(1차), 蒙古族信仰民俗史, 蒙古族語言民俗史, 蒙古族遊藝民俗史, 蒙古族社會史, 蒙古族社會思想史, 蒙古族文化史, 達翰爾族研究史
3차 ⁵⁹ (2017. 11.)	주제사(8)	蒙古族經濟民俗史(1,2차), 蒙古族信仰民俗史(2차), 蒙古族認識論史(2차), 蒙古族說唱藝術史, 元代文獻中蒙古人名研究(2차), ⁶⁰ 蒙古族商賈史, 蒙古族社會史(2차), 蒙古族生產業方式與生存環境史(2차)
4차 ⁶¹ (2019. 7.)	주제사(14)	內蒙古沿黃河(長城)區域文化研究, 察哈爾服飾文化研究, 察哈爾飲食文化研究, 茶文化之路, 蒙古族詩歌史, 蒙古族文化史(2차), 蒙古族生業方式與生存環境史(2,3차), 蒙古族民間說唱藝術史(1,2차), 打造‘沿黃文化長廊’前期研究, 內蒙古民族文化與地方特色, 民族特色產業相互促進的路徑與策略研究, 成吉思汗思想研究(上下卷), 蒙古文學熱點難點問題研究, 蒙古族藏文文學史, 蒙文譯編『御製增訂清文鑑』的校勘整理

3) 몽골학 관련 연구 문헌의 번역·출판 사업

몽골학은 몽골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의 지평을 넓혀온 국제 학술 교류가 활발한 학문 분야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비록 몽골제국이 분열하고 후퇴했지만 19세기까지도 몽골계 정권이 초원의 길과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제국주의의 시대 동아시아로 향한 유럽 열강은 대륙을 관통하는 교통로

程”研究系列第二批項目招標公告」(계재일: 2015년 9월 25일)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138> 참조.

59 內蒙古自治區社會科學院, 연구계열 3차 공고 「“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研究系列第三批項目招標公告」(계재일: 2017년 11월 17일)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509> 참조.

60 「元代文獻中蒙古人名研究」 과제는 2018년 1월 25일자로 額爾敦巴特爾(阿拉善盟地方志辦公室主任)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였다.

61 앞의 주) 47과 동일.

곳곳에서 몽골계 정권과 조우했고 이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각국 제국주의 활동의 성패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의 몽골 연구 전통은 현재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몽골학 연구 전통이 되살아나던 시점에 국외 연구성과를 빠르게 소개하여 소화할 필요가 절실했고 이런 점에서 네이명구사회과학원이 교량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네이명구사회과학원은 일찍이 1980년부터 『자료와 정보[資料與情報]』, 『몽골학자료와 정보[蒙古學資料與情報]』(1983년 更名), 『몽골학소식[蒙古學信息]』(1993년 更名)을 통해 국내의 몽골학 관련 주요 논문을 번역하여 신거나 서평을 실어 중국 몽골학 발전에 기여하였다.⁶² 더 나아가 중국의 몽골학은 1990년대 후반부터 네이명구자치구 각지의 사료를 발굴함과 동시에 베이징 제일역사당 안관(第一歷史檔案館)의 자료를 공간하고 연구하면서 국제 몽골학 및 청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지위를 회복해가고 있다. 중국 몽골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보는 네이명구자치구의 정책적 후원 아래 진행되었던 ‘북부변강역사와 현상 연구공정’에 뒤이어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국외 연구성과를 번역 출간하는 작업을 6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번역사업은 3차에 걸쳐 사업을 공시하였고, 그 각각 사업에

62 『蒙古學資料與情報』와 뒤를 이은 『蒙古學信息』에는 국외 학자의 논문과 중국 국내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몽골학 연구의 허브를 구성하고 있는 후호트[內蒙古自治區 呼和浩特市]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크고 작은 연구 좌담회, 학술회의 등이 진행되면서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이 잡지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외국 학자의 경우 외국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을 네이명구사회과학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여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컸다. 1980년대 초의 상황에서 이 잡지는 외국의 몽골학 연구성과를 중국의 몽골학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학계의 직접 교류가 확대되고 자료 공유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성격의 잡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蒙古學信息』는 2004년 4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였다.

공지된 번역서의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1차 번역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표 4>와 같다.⁶³

<표 4>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번역사업 1차 공고 목록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1	N. N. Poppe, <i>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i> ,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1955.	蒙古語比較研究	미상
2	R. Amitai-Preiss, D. O. Morgan ed., <i>The Mongol Empire and its Legacy</i> , Leiden; Boston: Brill, 1999.	蒙古帝國及其遺產	미상
3	G. D. Gulati, <i>Central Asia under the Mongols</i> , Dev Books, 2010.	蒙古統治下的中亞	劉瑾玉
4	M. Prawdin, <i>The Mongol Empire: Its Rise and Legacy</i> ,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0.	蒙古帝國的興起和影響	趙玲玲
5	Gustaf John Ramstedt, <i>Seven journeys eastward, 1898-1912: among the Cheremis, Kalmyks, Mongols, and in Turkestan, and to Afghanistan</i> , Bloomington: Mongolia Society, 1978.	七次東方旅行記	泰米爾
6	J. Curtin, <i>The Mongols: a history</i> , Boston Little, Brown, 1908.	蒙古人: 歷史	미상
7	O. Lattimore, <i>Mongol journeys</i> , Doubleday, Doran and Company, 1941.	蒙古遊記	미상
8	Takako Yamada, <i>An Anthropology of Animism and Shamanism</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1999.	對泛靈信仰與薩滿教的人類學研究	미상
9	R. Empson ed., <i>Time, Causality and Prophecy in the Mongolian Cultural region: visions of the future</i> , Folkestone: Global Oriental, 2006.	蒙古文化中的時間因果關係和預言	미상
10	C. Pegg, <i>Mongolian Music, Dance and Oral Narrative: Performing Diverse Identities</i> ,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蒙古族音樂舞蹈和口頭敘事	미상

63 內蒙古社會科學院, “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翻譯系列第一批項目招標公告(2014年 3月 6日 公포),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189> 참조.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11	Christopher P. Atwood, <i>Encyclopedia of Mongolia and the Mongol Empire</i> , Facts on File, 2004.	蒙古和蒙古帝國的百科全書	미상
12	W. Heissig, <i>Geschichte der Mongolischen Literatur</i> , Wiesbaden, O. Harrassowitz, 1972.	蒙古文學史	미상
13	Joseph von Hammer-Purgstall, <i>Geschichte der Ilchane, Das ist der Mongolen in Persien, 1200-1350</i> , Amsterdam: Philo Press, 1974.	伊利汗史蒙古人在波斯, 1200-1350	미상
14	B. Spuler, <i>Die Mongolen in Iran: Politik, Verwaltung und Kultur der Ilchanzeit, 1220-1350</i> , Berlin: Akademie-Verlag, 1955	蒙古人在伊朗: 伊利汗時代的政治管理文化, 1220-1350	미상
15	B. Spuler, <i>Die Goldene Horde, Die Mongolen in Russland, 1223-1502</i> , Leipzig: O. Harrassowitz, 1943.	金帳汗國蒙古人在俄國, 1223-1502	미상
16	<i>Der Mongolen-Sturm in der islamisch-arabischen Welt, Berichte von Augenzeugen und Zeitgenossen 1235-1250</i> , Wien: Verlag Styria Graz, 1985.	蒙古風暴: 1235-1250年間親歷者報道	미상
17	정보 미상	蒙古文學研究新動態	미상
18	정보 미상	蒙古哲學史	미상
19	저자명(Л. С. Дампилова) 외 서지사향 미상	布里亞特薩滿教神歌象徵詩	미상
20	A. Ш. Кичиков, <i>Героического Эпоса Джангар</i> , Калмыш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97.	英雄史詩江格爾	미상
21	정보 미상	穆罕默德阿勒-阿達部詞典	미상
22	<i>История Калмыкий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i> , vol. 1-3, 2009. 저자, 발행처 서지사향 미상	卡爾梅克通史	미상
23	<i>История Бурятии</i> , 2011 저자, 발행처 서지사향 미상	布里亞特史	미상
24	Mircea Eliade, <i>Le Chamanisme et Les Techniques Archaïques de l'Extase</i> , Payot, 1951.	薩滿教: 古代的愉悅術	段滿福
25	白石典之, 『モンゴル帝國史の考古學的研究』, 同成社, 2002.	蒙古帝國史考古學研究	
26	豊田有恒, 『騎馬民族の思想』, 徳間書店, 1990.	騎馬民族的思想	미상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27	伊藤幸一, 『蒙古社會經濟考』, 風媒社, 1975.	蒙古社會經濟序	미상
28	小長谷有紀, 『遊牧がモンゴル經濟お變える日』, 出版文化社, 2002.		미상
29	田山茂, 『蒙古法典の研究』, 日本學術振興會, 1967.	蒙古法典研究	미상

번역사업에 선정된 연구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하였다. 분야가 언어, 역사, 고고, 샤머니즘 등 민족, 문화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네이멍구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철학·종교연구소, 문학연구소 등의 견해가 다수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별로는 영어로 출간된 유럽 여러 연구자의 연구서와 독일어, 프랑스어 자료, 러시아, 몽골국, 일본의 연구성과가 망라되었다. 중앙아시아 일간국의 역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연구 시기가 근현대에 집중되어 있어 몽골제국시대, 즉 원대 연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연구성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 열거된 29권 중 현재까지 4권이 번역을 마치고 약간의 제목 수정을 거쳐 출판되었다. 〈표 4〉의 3, 4, 5, 24번 항목에 해당하는 『몽골제국 중앙아시아 정복사[蒙古帝國中亞征服史]』,⁶⁴ 『몽골제국의 흥기와 영향[蒙古帝國的興起和影響]』,⁶⁵ 『7차동방여행기(七次東方旅行記)』,⁶⁶ 『샤머니즘: 오래된 집신

64 G. D. 古拉提 著, 劉瑾玉 譯, 2017, 『蒙古帝國中亞征服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內蒙古民族文化通鑑·翻譯系列).

65 邁克爾普勞丁 著, 趙玲玲 譯, 2019, 『蒙古帝國的興起和影響』,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사회과학문헌출판사는 九色鹿叢書를 기획 발간하고 있는데 주로 변강, 민족, 동서문명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서는 물론 외국 학자들의 연구서를 번역하여 최근까지 17권의 관련 도서를 출판하였다. 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번역서가 九色鹿叢書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번역서가 일괄적으로 內蒙古人民出版社 등 네이멍구 소재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66 G. J. 蘭司鐵 著, 泰米爾 譯, 2013, 『七次東方旅行記』, 內蒙古人民出版社; 泰米爾, 2015, 『巴林右旗與固倫淑慧公主』, 內蒙古人民出版社.

술[薩滿教: 古老的入迷術]⁶⁷이 그것이며, 나머지 서적의 번역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중 『7차동방여행기』의 경우 번역사업이 시작된 2014년에는 이미 출간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책의 번역이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표 4〉의 11번 항목의 경우 사전을 번역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는 몽골제국은 물론 현대 몽골에 이르는 몽골사의 통시적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한 권의 전문 몽골사 연구서로서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몽골과 몽골 역사 이해를 위한 다양한 지식을 망라하고 있어 애트우드(Christopher P. Atwood)는 물론 인디애나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몽골학 연구 수준을 파악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는 사전임에도 연구서로서의 의미를 인정받아 번역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약 10년 후 2013년에 네이멍구대학교 몽골학연구센터[蒙古學研究中心] 치목도르지[齊木德道爾吉] 주편의 『몽골학백과전서[蒙古學百科全書]』 20권이 발간되었다.⁶⁸ 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몽골학백과전서』의 역사, 고고, 민속 등 부분에서 어떤 표제어를 추출했는지, 서술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1차 번역사업 공지 이후 약 1년 6개월 후에 다시 2차 번역사업 공고가 네이멍구사회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다.⁶⁹ 여기에는 1차 번역사업 공고 이

67 米爾恰伊利亞德 著, 段滿福 譯, 2017, 『薩滿教: 古老的入迷術』, 社會科學文獻出版社(內蒙古民族文化通鑑·翻譯系列).

68 齊木德道爾吉 主編, 2013, 『蒙古學百科全書』 20冊, 內蒙古人民出版社. 모두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대사권, 근현대사권, 언어문자권, 문학권, 경제권, 군사권, 과학기술권, 의학권, 교육권, 민속권, 철학권, 종교권, 문헌권, 법학권, 지리권, 예술권, 체육권, 문물고고권, 신문출판권, 국제몽골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蒙古學百科全書』 사업은 2000년 5월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네이멍구자치구 수립 60주년 기념활동의 일환으로 대부분 완성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사업 개시 후 內蒙古自治區 文化大區建設 9대 사업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자치구 정부의 후원을 받아 완성되었다.

69 內蒙古社會科學院, “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翻譯系列第二批項目招標公告(2015年 9月 25日 公報),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

후에도 시작되지 못한 몇 개의 사업이 다시 포함되었고, 몽골제국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몽골 역사, 영웅서사를 중심으로 한 문학, 샤머니즘과 불교 중심의 종교, 지역조사 등 몽골학 관련 연구서가 선정되었다.

〈표 5〉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번역사업 2차 공고 목록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1	N. N. Poppe, <i>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i> , Suomalais-ugrilainen Seura, 1955.	蒙古語比較研究	미상 (1차 사업)
2	Igor De Rachewiltz, <i>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i> , Brill, 2006.	羅依果 校注, 『蒙古秘史』	미상
3	H. Yule, <i>Cathay and the way thither</i> , London: printed for the Hakluyt Society, 1913.	契丹及通往契丹之路	미상
4	Henry H. Howorth, <i>History of the Mongols from ninth to nineteenth century</i> , 北京, 文殿閣書莊, 1927.	九至十九世紀蒙古史	미상
5	A. Sárközi, <i>Political prophecies in Mongolia in the 17-20th century</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1992.	17至20世紀時期蒙古的政治預言	미상
6	B. Spuler, <i>History of the Mongols based on Eastern and Western Accounts of the 13th and 14th centuries</i> , 1970.	蒙古史, 基于13-14世紀的東西文史料	미상
7	정보 미상	海都中亞蒙古國的發展	미상
8	정보 미상	穿越中亞遊記	미상
9	Caroline Humphrey, <i>Shamans and Elders: Experience, Knowledge and Power among the Daur Mongols</i> , Clarendon Press, 1996.	薩滿和長者	미상
10	Eva Jane N. Fridman, <i>Shamanism among the Buddhist Peoples of Russia</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2005.	俄羅斯境內佛教信徒中的薩滿教	미상

2136 참조.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11	Henri-Paul Francfort, Roberte N. Hamayon ed., <i>The Concept of Shamanism: Uses and Abuses</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2003.	薩滿教的兩個觀念：助輿書	미상
12	Takako Yamada, <i>An Anthropology of Animism and Shamanism</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1999.	對泛靈信仰與薩滿教的人類學研究	미상 (1차 사업)
13	Mihaly Hoppal, Gabor Kosa ed., <i>Rediscovery of Shamanic Heritage</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2004.	薩滿文化遺產的新發見	미상
14	C. R. Bawden, <i>The Jebtsundamba Khutughtus of Urga: text, translation and notes</i> , O. Harrassowitz, 1961. ⁷⁰	著名的蒙古佛教傳記	미상
15	Larry W. Moses, <i>The political role of Mongol Buddhism</i> , Bloomington: Asi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Indiana University, 1977.	蒙古佛教的政治角色	미상
16	A. M. Pozdneyev, <i>Religion and Rituals in Society: Lamaist Buddhism in Late 19th Century Mongolia</i> , Bloomington, Ind.: Asi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Indiana University, 1978.	社會的宗教與儀式：19世紀末蒙古喇嘛教	미상
17	C. Humphrey, Ujeed Hurelbaatar, <i>A Monastery in Time: The Making of Mongolian Buddhism</i>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莫爾根寺廟：塑造蒙古佛教	미상
18	Robert J. Miller, <i>Monasteries and Culture Change in Inner Mongolia</i> , Wiesbaden, O. Harrassowitz, 1959.	修道院和內蒙古文化的變遷	미상
19	P. Kegan, <i>Tents in Mongolia</i> , Henning Haslund, 1935.	蒙古包	미상
20	R. Empson ed., <i>Time, Causality and Prophecy in the Mongolian Cultural region: visions of the future</i> , Folkestone: Global Oriental, 2006.	蒙古文化中的時間因果關係和預言	미상

70 이 책은 서지사항 중 저자명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판단하여 필자가 고쳐 적었다. 네이밍구사회과학원이 제시한 공지문에는 J. Elverskog라고 하였으나 그의 저작 중에는 이 책이 없으며 이는 C. R. Bawden의 성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21	Herbert H. Vreeland, <i>Mongol Community and Kinship Structure</i> , Human Relations Area Files, New Haven, 1957.	蒙古社區和親屬結構	미상
22	정보 미상	蒙古民族習慣法	미상
23	정보 미상	布里亞特文學史	미상
24	저자명(Л. С. Дампилова) 외 서지사항 미상	布里亞特薩滿教神歌象徵詩	미상 (1차 사업)
25	정보 미상	布里亞特格斯爾神話學－東天	미상
26	정보 미상	布里亞特格斯爾神話學－西天	미상
27	정보 미상	蒙古史詩	미상
28	정보 미상	「格斯爾」史詩的歷史淵源	미상
29	A. Ш. Кичиков, <i>Героического Эпоса Джангар</i> , Калмыц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97.	英雄史詩「江格爾」研究	미상(1차 사업)
30	정보 미상	蒙古民間文學的幾個問題	
31	정보 미상	突厥英雄史詩	
32	정보 미상	「江格爾」資料與研究	
33	정보 미상	民間文學詩學	
34	저자명(Э. Б. Овалов) 외 서지사항 미상	史詩「江格爾」情節結構傳統及其異文	
35	정보 미상	薩滿教秘密	
36	Gerhard Doerfer, <i>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i> , Wiesbaden, 1963 – 1975.	新波斯語中的突厥語蒙古語成分	
37	저자명(W. Heissig) 외 정보 미상	蒙古英雄史詩敘事資料	
38	B. Spuler, <i>Die Mongolen in Iran: Politik, Verwaltung und Kultur der Ilchanzeit, 1220 – 1350</i> , Berlin: Akademie – Verlag, 1955.	蒙古人在伊朗: 伊利汗時代的政治管理文化, 1220 – 1350	미상 (1차 사업)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39	B. Spuler, <i>Dei Goldene Horde, Dei Mongolen in Russland, 1223-1502</i> , Leipzig: O. Harrassowitz, 1943.	金帳汗國蒙古人在俄國, 1223-1502	미상 (1차 사업)
40	<i>Der Mongolen-Sturm in der islamisch-arabischen Welt, Berichte von Augenzeugen und Zeitgenossen 1235-1250</i> , Wien: Verlag Styria Graz, 1985.	蒙古風暴: 1235-1250年間親歷者報道	미상 (1차 사업)
41	Joseph von Hammer-Purgstall, <i>Geschichte der Ilchane, Das ist der Mongolen in Persien, 1200-1350</i> , Amsterdam: Philo Press, 1974.	伊利汗史蒙古人在波斯, 1200-1350	미상 (1차 사업)
42	W. Heissig, <i>Die Familien und Kirchengeschichtsschreibung der Mongolen</i> , Wiesbaden, O. Harrassowitz, 1959.	蒙古宗譜與宗教歷史文獻(19世紀)	
43	W. Heissig, <i>Die Pekinger lamaistischen Blockdrucke in mongolischer Sprache; Materialien zur mongolischen Literaturgeschichte</i> , Wiesbaden, O. Harrassowitz, 1954.	北京木刻版蒙古文喇嘛教經典: 有關蒙古文學, 歷史資料	
44	저자명(W. Heissig) 외 정보 미상	蒙古文手繪地圖	
45	린친(1979) 외 정보 미상	蒙古國語言學: 部族分布圖	
46	갈바트르(2012) 외 정보 미상	文學理論: 歷史研究百科辭典	
47	체렌소드남(2010) 외 정보 미상	蒙古文學研究新動態	미상 (1차 사업)
48	정보 미상	蒙古哲學史	미상 (1차 사업)
49	Joseph de Guignes, <i>Histoere generale des Huns, des Turcs, des Mongols, et des autres Tartares occidentaux</i> , Paris: Chez Desaint & Saillant, 1756.	匈奴突厥蒙古及其他西方韃靼人通史	미상
50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 京都大學出版會, 2004.	蒙古帝國與大元烏魯斯	
51	中見立夫, 『滿蒙問題の歷史的構圖』, 東京大學出版會, 2013.	滿蒙問題的歷史構圖	
52	岡洋樹, 『清代モンゴル盟旗制度の研究』, 東方書店, 2007.	清代蒙古盟旗制度研究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53	森川哲雄, 『モンゴル年代記』, 白帝社, 2007.	蒙古編年史	
54	田村實造, 『中國征服王朝の研究』, 東洋史研究會, 1964.	中國征服王朝研究	
55	箭内互, 『蒙古史研究』, 刀江書院, 1930.	蒙古史研究	
56	佐口透 主編, 『モンゴル帝國と西洋』, 平凡社, 1970.	蒙古帝國和西歐	
57	長坂金雄, 『元時代』 서지사항 불명	元朝時代	
58	村上正二, 『蒼狼之國』, 文藝春秋, 1968.	蒼狼之國	미상
59	豊田有恒, 『騎馬民族の思想』, 徳間書店, 1990.	騎馬民族的思想	미상 (1차 사업)
60	岩村忍,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68.	蒙古社會經濟史研究	미상
61	島田正郎, 『清朝蒙古例の研究』, 創文社, 1982.	清朝蒙古例研究	미상
62	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蒙古時代의 出版文化	
63	정보 미상	阿伊楠, 『薩滿教今昔, 資料與研究』	

2차 사업 공고를 보면 1차 사업 공고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량의 책을 사업 목록에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11권이 1차 사업에서 번역자를 선정하지 못해 2차 사업으로 넘겨진 것으로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번역자를 선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학계를 대표해온 몽골언어학자 포페(Poppe)의 연구서는 중국 학자들에게 그간 많은 영향을 주었고, 번역되기도 하였다. 서북민족대학 허수민(赫蘇民)이 번역한 『포페바스파자 몽골어 문헌어 연구입문[鮑培八思巴字蒙古語文獻語研究入門]』(北京: 民族出版社, 2008)이 그것이다.⁷¹ 이번 번역사업에 이름을 올

71 N. N. Poppe, 1957, *The Mongolian monuments in 'Phags-pa script*, Wiesbaden, O. Harrassowitz (Göttinger asiatische Forschngen; Bd.8)

린 <표 4>와 <표 5>의 1번 항목 또한 그의 대표 저작으로 번역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학자 중에서는 독일 몽골학계를 대표하는 하이시히[Heissig, 海西希]의 연구 성과가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경성[耿昇]이 번역한 『몽골의 종교[蒙古的宗教]』가 이미 출간되기도 하였다.⁷² 이 외에 주목되는 부분은 여전히 사머니즘 관련 연구성과를 다수 반영하고, 몽골의 종교로서 티베트 불교와 그 역사에 대한 연구서 또한 적지 않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표 5> 17번 항목에 소개한 책은 2013년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로 네이멍구 동부의 주요 사원 메르겐 사원의 형성과정과 사원의 주요 활불들, 현재 사원의 의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몽골 종교의 실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네이멍구의 학자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답사할 수 있는 메르겐 사원이지만 제3자의 시선으로 몽골 현대 종교의 면면, 전통과 현재의 조우를 새로이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20세기 일본학계의 연구성과를 가능한 다수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몽골제국사 전반에 대한 통사는 물론 몽골 연대기, 법전 연구 등 몽골문 사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일본학계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스키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의 경우 이미 『유목민이 본 세계사[遊牧民的世界史]』, 『쿠빌라이의 도전[忽必烈的挑戰]』, 『몽골제국의 긴 그 후[蒙古帝國的漫長遺緒]』, 『몽골이 세계사를 뒤엎다[蒙古顛覆世界史]』 등 여러 권의 연구서가 번역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번역되지 않았던 <표 5> 50번의 저작이 번역사업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1차 번역사업 공고에서와 같이 2차 번역사업도 공고 이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1, 2차 번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72 海西希 著, 耿昇 譯, 2013, 『蒙古的宗教』, 內蒙古人民出版社. 이 책은 G. Tucci, W. Heissig, 1970, *Die Religionen Tibets und der Mongolei*, Verlag W. Kohlhammer 중 Heissig가 맡은 몽골 종교 부분만 따로 출간한 것이다.

2차 공고로부터 약 2년 후인 2017년 11월 사회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3차 번역사업이 공고되었다. 이번에는 앞서 두 차례의 경우와는 달리 이듬해 2018년 1월 31일에 13권에 대한 번역 작업자를 선정 공고하였다.⁷³

〈표 6〉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번역사업 3차 공고 목록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1	Mildred Cable, <i>The making of a pioneer: Percy Mather of Central Asia</i> , London: Hodder & Stoughton, 1935.	中亞的先驅: 馬慕杰	미정
2	Christopher P. Atwood, <i>Young Mongols and Vigilantes in Inner Mongolia's Interregnum Decades, 1911-1931</i> , Brill, 2002.	青年蒙古人	財吉拉胡
3	P. Pelliot, <i>Notes sur l'histoire de la Horde d'Or</i> , Paris: Adrien Maisonneuve, 1950	金帳汗國史評註	미정
4	David M. Farquhar, <i>The government of China under Mongolian rule</i> , Stuttgart: Steiner, 1990.	『元史·百官志』譯註	미정
5	Igor De Rachewiltz, Hok-lam Chan, et al., <i>In the Service of the Khan: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uan Period 1200-1300</i> , Harrassowitz, 1993.	羅依果, 『赴蒙古汗廷』	洪麗珠
6	정보 미상	田清波文集	미정
7	Henri-Paul Francfort, Roberte N. Hamayon ed., <i>The Concept of Shamanism: Uses and Abuses</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2003.	薩滿教的兩個觀念: 助與害	미정 (2차 사업)
8	Takako Yamada, <i>An Anthropology of Animism and Shamanism</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1999.	對泛靈信仰與薩滿教的人類學研究	宋小飛 (1, 2차 사업)

73 內蒙古社會科學院, “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翻譯系列第三批項目招標公告(2017年 11월 17日 공포),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508> 참조. 3차 공고를 통해 번역과 연구 과제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關於對“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研究系列, 翻譯系列第三批擬入項課題進行公示的公告(게재일: 2018년 1월 25일)를 통해 발표하였다.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037> 참조.

연번	원제	역서명	번역자
9	Mihaly Hoppal, Gabor Kosa ed., <i>Rediscovery of Shamanic Heritage</i> , Budapest: Akadémiai Kiadó, 2004.	薩滿文化遺產的新發見	미정 (2차 사업)
10	Larry W. Moses, <i>The political role of Mongol Buddhism</i> , Bloomington: Asi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Indiana University, 1977.	蒙古佛教的政治角色	劉瑾玉 (2차 사업)
11	A. M. Pozdneyev, <i>Religion and Rituals in Society: Lamaist Buddhism in Late 19th Century Mongolia</i> , Bloomington, Ind.: Asi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Indiana University, 1978.	社會的宗教與儀式: 19世紀末蒙古喇嘛教	金鈴 (2차 사업)
12	Rober J. Miller, <i>Monasteries and Culture Change in Inner Mongolia</i> , Wiesbaden, O. Harrassowit, 1959.	修道院和內蒙古文化的變遷	段滿福 (2차 사업)
13	정보 미상	穿越中亞遊記	미정
14	정보 미상	薩滿教秘密	미정 (2차 사업)
15	정보 미상	布里亞特文學史	薩·白嘎力賽恒 (2차 사업)
16	佐口透 主編, 『モンゴル帝國と西洋』, 平凡社, 1970.	蒙古帝國和西歐	白玉冬 (2차 사업)
17	長坂金雄, 『元時代』 서지사항 불명	元朝時代	미정 (2차 사업)
18	村上正二, 『蒼狼之國』, 文藝春秋, 1968.	좌동	宮海峰 (2차 사업)
19	『羽田博士史學論文集』	좌동	白莉莉
20	伊藤幸一, 『蒙古經濟史序說』	좌동	娜荷芽
21	吉田順一, 『蒙古遊牧及其變遷』	좌동	寶音巴特爾
22	田山茂, 『蒙古法典の研究』	蒙古法典研究	巴德瑪 (1차 사업)
23	Isabelle Charleux, <i>Temples et Monastères de Mongolie-Intérieure</i> , Paris: Comité des travaux historiques & scientifiques; 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 2006.	內蒙古的寺廟	

3차 번역사업에 선정된 항목은 모두 13개로 이 중 8개 항목은 1차 또는 2차에서 번역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3차로 이관되었다가 3차에서 번역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표 6>의 7, 9, 14, 17번 사업은 3차에서도 번역자를 선임하지 못하였다. 3차에서도 샤머니즘과 불교사 연구서가 다수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몽골제국사에 종사해온 서구의 원로학자 펠리오(P. Pelliot), 파르쿠아르(David M. Farquhar), 라슈빌츠(Igor De Rachewiltz) 등의 연구서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외에 최근의 연구성과로 샤희로(Isabelle Charleux)의 몽골 불교 관련 연구와 애트우드의 20세기 초 네이멍구 현대사를 다룬 두 권의 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후자는 몽골민족주의 운동과정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어 네이멍구 학계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 사회역사조사(社會歷史調查)사업

‘사회역사조사사업’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다. 소수민족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며 네이멍구의 몽골족 등 여러 민족의 경제, 사회, 문화, 생태환경 등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시기와 내용은 개혁개방 이후 몽골 성진(城鎮, 즉 도시), 농촌, 목구(牧區) 각 민족의 생활, 문화 등의 변화추이를 조사, 분석하고, 생산방식, 음식, 복식, 주거방식, 자연생태환경, 교육, 언어와 문자, 세시풍속, 신앙, 가무 등 민간문화, 민간문학, 도시화 등 분야를 나눠 진행해야 한다. 특히, 1950년대 조사와 비교 연구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여 자치구 여러 지역을 서로 비교 연구해야 하며, 개혁개방 이후를 위주로 하나 신중국(新中國) 성립 이후의 변화도 일부 반영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업 시작 이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형태는 20만 자 이상의 조사 문건 또는 영상작품 또는 20만 자 이상의 구술사(口述史)로 구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2014년 3월 7일에 1차 과제 공모가 있었으나⁷⁴ 연구자 선정이

74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188> 참조.

완료되지 않아 같은 내용이 2015년 9월 다시 공표되었다. 연구자 선발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선발 후 1년의 연구기간을 주었고, 모든 과제는 인민폐(人民幣) 20만 원의 과제비를 수혜하였다.⁷⁵ 네이멍구사회과학원에서 제시한 공모과제는 <표 7>과 같다.

<표 7>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사회역사조사사업 공모과제 목록

연번	과제	주제분류
1	蒙古族蘇木(鄉鎮)生產經濟(生產方式)變遷調查	생산방식
2	蒙古族嘎查(村)生活方式變遷調查	생산방식
3	蒙古族蘇木(鄉鎮)生態環境變遷調查	자연생태환경
4	蒙古族教育變遷調查	교육
5	蒙古族敖包祭祀的變遷調查	신앙
6	蒙古族傳統節日的變遷調查	세시풍속
7	蒙古族服飾變遷調查	복식
8	蒙古族城鎮化的發展調查	거주형태(도시화)
9	蒙古族婚俗變遷調查	혼인문화
10	蒙古族民間歌舞文化變遷調查	민간문화
11	蒙古族飲食文化變遷調查	음식
12	少數民族村落文化的變遷調查	민간문화
13	少數民族鄉鎮歌舞文化變遷調查	민간문화
14	少數民族城市社區文化變遷調查	민간문화
15	內蒙古城鎮社區的建立與變遷調查	거주형태(도시화)
16	漢族鄉鎮生活方式變遷調查	민간문화
17	漢族村落生產經濟, 社會關係變遷調查	생산방식

75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2137> 참조.

5) 네이멍구 역사문화 보급과 DB 구축 사업

네이멍구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의 시작과 함께 2013년 9월 네이멍구 문화의 상징물로서 네이멍구를 대표할 문화부호 “네이멍구 10대 문화부호[內蒙古十大文化符號]”를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⁷⁶ 네이멍구 문화의 상징물을 제정하여 매체를 통해 역사문화를 보급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네이멍구 대초원[內蒙古大草原], 모린호르[馬頭琴], 나아담[那達慕], 몽골 게르[蒙古包], 칭기스한[成吉思汗], 초원의 어린 자매 영웅[草原英雄小姐妹], 몽골 문자[蒙古文], 오보[敖包], 몽골말[蒙古馬], 홍산옥룡[紅山玉龍]이 10대 문화부호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네이멍구사회과학원 초원문화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210개의 문화부호를 선정하여 그중 대표성을 갖는 30개를 추린 후 네이멍구 주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10개 문화부호를 선정하였다.⁷⁷

약 2년의 작업 끝에 2015년 7월 1일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이 선정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중 ‘초원의 어린 자매 영웅’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4년 2월 네이멍구자치구 다르한·모망근기[達茂旗] 초원에서 당시 11세와 8세였던 몽골족 자매 룡메이[龍梅]와 위룡[玉榮]이 생산대(生産隊) 일원으로 양을 치다 눈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생산대의 양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몰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동상을 입어 두 소녀가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소녀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폭풍설중일주야(暴風雪中一晝夜)」라는 제목으로 1964년 3월 12일자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실리면서 이들의

7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內蒙古舉行“內蒙古十大文化符號”新聞發布會」(개재일: 2015년 7월 16일), <http://www.scio.gov.cn/m/xwfbh/gssxwfbh/xwfbh/neimenggu/Document/1441390/1441390.htm> 참조.

77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네이멍구 주민은 74%, 네이멍구 외부인은 26%였으며, 그중 도시거주자는 93.66%로 대부분 도시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설문 에 응한 사람 중 漢族이 37.86%, 蒙古族이 41.51%, 기타 민족이 20.63%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7%, 여성이 43%였다.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기념해서 중국에서는 두 소녀를 ‘초원의 어린 자매 영웅’이라고 불려왔다.⁷⁸ 이들은 네이멍구 초원의 청년노동 영웅으로 추앙받아오다가 2009년 9월 14일 신중국 성립 이래 가장 감동을 준 중국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홍산옥룡(紅山玉龍)은 C자형의 옥 룡으로 1971년 츠핑시(赤峰市) 윈뉴드기(翁牛特旗) 산상탈(三星塔拉)에서 발굴되었다. 중국에서는 중화 용문화의 기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초원문화의 원류와 증원문화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다. 네이멍구를 유목문화보다 광범한 개념인 초원문화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네이멍구의 이미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2013년 「네이멍구 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內蒙古文化資源數據庫]」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역사문헌정리, 주제연구사업, 지역조사사업 등이 그랬듯이 앞서 진행된 민족문화대구건설사업 시기 이미 시작된 사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2004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은 「네이멍구 민족민간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건설 프로젝트[內蒙古民族民間文化遺產數據庫’建設工程]」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크게 민속, 민간문학, 민간예술, 민간문화전승자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리되었다.⁷⁹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는 2007년 7월 새롭게 개관한 네이멍구박물관에서 결과물을 전시함으로써 대중과 만나게 되었다.⁸⁰ 그 후에도 자료 수집, 자료의 광범한 확산 이용률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이 시작되면서 2013년부터 약 2년에 걸쳐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이 주관하여 ‘네이멍구 문화자원 조사[內蒙古文化資源調查]’ 사업을 진행하고 2015년 2월 「네이멍구 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內蒙古文化資源數據庫]」 전문가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작업의 결과물은 19개 대분류로 구성되며

78 『人民日報』, <http://data.people.com.cn/rmrb/19640312/2> 참조.

79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3172> 참조.

80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1278> 참조.

그 아래 13만 4,427개의 문화자원 개별항목, 4만 9,892명의 문화인재(文化人才, 전통문화전승인), 5만 5,833명의 문화기구 종사자를 등록하여 네이멍구 문화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⁸¹ 이 사업은 2016년에 개통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사 데이터베이스[中華人民共和國國史數據庫]」, 「서역 문물고고 데이터베이스[西域文物考古數據庫]」 등 역사, 고고문물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⁸²

V. 맺음말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중국은 다양한 민족의 역사 전통, 다채로운 민족문화를 아우르면서 오늘날의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을 구축해왔다. 그럼에도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호에서 보이듯 중화는 한족(漢族)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염원을 담은 것이어서 한족 이외의 민족에게 주인공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신중국 건설, 문화대혁명, 개혁개방에 이르는 일련의 중국현대사에서 역사의 주역은 한족이었고, 한족의 역사가 곧 중국사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대두되기 시작하는 변경지역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의 성장-중앙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의 성장-은 물론, 한족이나 소수민족을 불문한 변경지역의 지역주의 경향은 청대 대일통(大一統)의 계승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분열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81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content.html?id=1035> 참조. 평가회의에 참석한 우탄잉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자료를 가공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후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이후 內蒙古民族文化強區建設 사업과 “8337”發展思路의 실행을 위해 공헌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8337”發展思路는 2013년 네이멍구자치구 당위원회가 제시한 정치노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http://gov.nmgnews.com.cn/8337/> 참조.

82 中華人民共和國國史數據庫, <http://prc.goosuudata.com/index.php?m=login&a=index> 참조.

이에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 인민대학(人民大學) 산하 청사연구소(淸史研究所),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티베트연구센터[藏學研究中心] 등 베이징의 주요 국책연구기관,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고 변경지역의 지방 국립대학이 협조하여 다양한 변경지역 지역학 연구가 전개되었다. 이제는 소수민족, 변경지역의 역사도 중국 역사의 주요한 부분이며 결코 경시하거나 겹가지로 다룰 수 없는 부분임을 인식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물론 소수민족이 중국 역사의 주역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민족과 변경지역 또한 중국 역사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 지적 전통의 계승 발전을 외국학계에 맡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학계의 변화는 민족주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나 일면 학술적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사학사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중국 역사학계는 한족의 역사, 정통 왕조의 역사 전통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청사(淸史)』 편찬은 물론 중앙과 각급 지역단위 연구소까지 변강사를 중국사의 본류와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이는 중국 전역의 각급 박물관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유물을 전시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베이징 중국국가박물관(中國國家博物館)의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이는 역시 소수민족과 주변 변강지역 역사를 적극적으로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소수민족 언어로 기술된 역사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는 북강사 연구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변강사지총서(邊疆史地叢書)》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한문 위주의 역사 기록물이었다면 이제는 소수민족 언어 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번역을 수행하여 이를 연구에 직접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경향은 미국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청사(New Qing History) 연구 경향과 경쟁하고 호응하면서 강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한족 이외 이른바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는 선명했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흡수 이론으로 점철될 경우 자칫 민족

주의나 지역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각 민족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독자성까지 포용할 수 있는 중화문명의 공통 근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각 민족과 중화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시작하였다. 네이멍구의 경우, 몽골을 비롯한 북부변강 지역을 구성해온 다양한 문화요소가 중화의 심원한 근원과 맞닿아 있음을 밝혀 유목과 몽골로 대표되었던 네이멍구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새로이 형상화된 초원문화의 일부로 축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네이멍구자치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문화대구건설공정’, ‘초원문화연구공정’,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프로젝트[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등 국책사업을 통해 등장한 “초원문화” 개념은 외적으로는 유라시아 초원과 네이멍구를 분리하고 내부적으로는 네이멍구에서 몽골과 유목의 중심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네이멍구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中國蒙古文古籍總目』編委會, 1999, 『中國蒙古文古籍總目』, 北京圖書館出版社.
- 孫蓓欣·申曉亭, 2000, 『中國蒙古文古籍總目』: 中國第一部大型少數民族古籍全國聯合目錄, 『中國圖書館學報』, 2000年第6期.
- 國家民族事務委員會 全國少數民族古籍整理研究室 編, 2013, 『中國少數民族古籍總目提要·蒙古族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齊木德道爾吉 主編, 2013, 『蒙古學百科全書』20冊, 內蒙古人民出版社.
- 董恒宇·馬永眞 主編, 2005, 『中國內蒙古首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
- 牛森 主編, 2005, 『草原文化研究資料選編』, 內蒙古教育出版社.
- 吳團英·馬永眞·包雙龍, 2006, 『文化內蒙古』3冊, 內蒙古教育出版社.
- 巴特爾 主編, 2012, 『草原文化與文學藝術論叢』第6輯, 內蒙古人民出版社.
- 王延中·丁賽, 2015, 『中國民族地區經濟社會調查報告·2013年調查問卷分析·南方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吳團英, 2016, 『草原文化講演錄』, 遠方出版社.

논문

- 이평래, 2014, 「초원공정, 문화라는 이름의 다목적 공정」, 『중국의 변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楊政銀·田光輝·宗太慶, 1991, 「走向世界的民族文化: “貴州民族文化走向世界討論會”綜述」, 『貴州文史叢刊』, 1991年第1期.
- 解毅, 1999, 「麗江建設民族文化大區之我見」, 『雲南社會科學』, 1999年第6期.
- 張海斌, 2000, 「包頭境內的戰國秦漢長城與古城」, 『內蒙古文物考古』, 2000年第1期.
- 何穎·顏景·何曉萍, 2001, 「廣西民族文化的產業化發展研究」, 『民族歷史與文化』.

研究』, 2001年第2期(總64期).

楊兆萍·謝婷·李曉彥, 2001. 12, 「典型少數民族文化旅遊地開發與保護: 以喀什地區為例」, 『干旱區地理』, 第24卷第4期.

阿古拉, 2002, 「建設文化大區要動員全社會參與」, 『內蒙古宣傳』, 2002年第10期.

高延青, 2002, 「弘揚民族文化 建設內蒙古民族文化大區」, 『內蒙古宣傳』, 2002年第10期.

趙林, 2002, 「農耕世界與遊牧世界的衝突融合及其歷史效應」, 『武漢大學學報(人文版)』, 2002年第6期.

王亞力, 2003, 「南方長城與“長城文化之旅”的開發」, 『旅遊學刊』, 2003年第3期(第18卷).

鄒龍漢, 2003, 「建設民族文化大區 實現人民文化利益: 訪自治區黨委副書記陳光林」, 『內蒙古宣傳』, 2003年第4期.

金毅, 2004, 「民族文化旅遊開發模式與評價」, 『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 2004年第1期.

儲波, 2004, 「加快文化發展建設民族文化大區」, 『求是』, 2004年第10期.

青格勒, 2005, 「打造文化品牌建設民族文化大區」, 『思想工作』, 2005年9期.

桂宇, 2006. 5, 『少數民族地區旅遊產業政策體系研究』, 雲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陶玉坤, 2006, 「長城與中國文化地理」, 董恒宇 馬永真 主編, 『中國內蒙古第二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

李紅梅, 2006, 「黃土文化與草原文化的完美結合: 淺談二人臺音樂中蒙漢文化交融」, 董恒宇 馬永真 主編, 『中國內蒙古第二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

王利俊·王東輝, 2008, 「“和文化”, 草原文化的核心價值: 兼論呼和浩特市昭君文化的當代意義」, 董恒宇 馬永真 主編, 『中國內蒙古第四屆草原文化研討會論文集』, 內蒙古教育出版社.

盛明光·塞樹林, 2009, 「加快實施內蒙古文化產業“走出去”發展戰略」, 『前沿』, 2009年第4期.

薛瑞澤, 2010, 『秦漢魏晉南北朝黃河文化與草原文化的交融』, 科學出版社.

烏恩特, 2011, 「國家社科基金特別項目《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 『內蒙古年

鑒』, 遠方出版社.

歐陽雪梅, 2019. 7. 10, 「新中國70年社會主義文化建設及其經驗」, 『光明日報』, 11版.

기타 자료

內蒙古社會科學院, <http://www.nmgass.com.cn>

內蒙古草原文化保護發展基金會, <http://www.gccd.org.cn/nmzx/jjh.asp>

內蒙古網絡廣播電視臺 騰格里網, <http://www.nmtv.cn>

中國知網, www.cnki.net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內蒙古舉行“內蒙古十大文化符號”新聞發布會」(계재일: 2015년 7월 16일), <http://www.scio.gov.cn/m/xwfbh/gssxwfbh/xwfbh/neimenggu/Document/1441390/1441390.htm>

『人民日報』, <http://data.people.com.cn>

中華人民共和國國史數據庫, <http://prc.goosuudata.com/index.php?m=login&a=index>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민족문화공정(民族文化工程), 연혁과 전망

김성수

이 글은 지난 20년간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서 진행된 사회과학 관련 국책연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목적과 배경을 분석해본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른바 문사철(文史哲)을 위주로 하는 인문학도 사회과학의 일부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처럼 인문·사회과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업들은 대개 국가사과기금(國家社科基金)과 자치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집행은 네이멍구자치구 공산당 조직 산하 선전부(宣傳部)와 선전부의 지휘를 받는 네이멍구사회과학원[內蒙古社會科學院]이 중심이 되어 있다.

최근까지 네이멍구자치구 정부의 후원 아래 네이멍구사회과학원이 수행한 국책사업은 민족문화대구건설공정(民族文化大區建設工程)(2002~), 초원문화연구공정(草原文化研究工程)(2004~2014),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프로젝트[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2010~),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2013~현재) 등이다. 이 사업들은 모두 네이멍구자치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민족문화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의 목적과 대상, 소재가 같다는 점에서 이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초기 사업 목표로 제시된 관광문화건설[旅游文化建設], 문화대구건설[建設文化大區], 문화대시(맹)건설[建設文化大市(盟)] 등 3개 항목은 2020년 현재 시점에 와서는 “민족문화강구건설(民族文化強區建設)”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나 변강지역의 안정과 경제 발전이라는 어찌면 모순될 수 있는 두 방향의 목표를 한데 아우르려는 정부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는 없다.

본문에서 필자는 민족문화대구건설공정, 초원문화연구공정,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프로젝트,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 등 4개 사업의 내용을 3장에 걸쳐 서술하고 사업단계에 따라 각 사업의 특징을 살피면서 동시에 이 4개 사업이 갖고 있는 연속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원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네이멍구의 민족문화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추론하였다.

주제어: 민족문화대구건설공정(民族文化大區建設工程), 초원문화연구공정(草原文化研究工程), 북부변강역사와 현상연구 프로젝트[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 민족문화건설연구공정(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초원문화, 일대일로(一帶一路)

ABSTRACT

Ethnic Culture-based Development Projects in Inner Mongolia: History and Prospects

Kim Sungsoo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thnic Culture-based Development Projects in Inner Mongolia from past two decades. These projects, sponsor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Inner Mongolian government, have been managed by the Department of Propaganda of the Inner Mongolian government and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of Inner Mongolia.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in poverty reduction of residential areas of the minorities after the economic reform, since the late 1990s the Chinese government had to establish a new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se regions. Culture-based development for ethnic minorities in China was adopted as a new initiative. In Inner Mongolia, this program, first implemented in 2002, has been underway for about 20 years. The culture-based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firmly related to tourism and security of Chinese borderlands, including steppes in Inner

Mongolian. New Ethnic Culture-based Development Projects in Inner Mongolia, such as *The Project for the Great Ethnic Cultural Area Construction* (民族文化大區建設工程), *The Inner Mongolian Steppe Culture Project* (草原文化研究工程), *The Historical Research for the Northern Borderland Project* (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 and *The Academic Research for the Cultural Area Construction of Inner Mongolia* (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China's new strategy.

Keywords: *The Project for the Great Ethnic Cultural Area Construction* (民族文化大區建設工程), *The Inner Mongolian Steppe Culture Project* (草原文化研究工程), *The Historical Research for the Northern Borderland Project* (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項目), *The Academic Research for the Cultural Area Construction of Inner Mongolia* (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the steppe culture, 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프라시압 고구리[高句麗] 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

– 고구리[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II)

서길수 | 전 서경대학교 교수

- I. 문제의 제기
- II. 사행 부정론의 논거와 선행 연구 검토
- III. 650년대 고리[高麗]의 사마르칸드 사행(使行) 가능성 검토
- IV. 고리[高麗]와 서돌궐(西突厥)의 연합 가능성 검토
- 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1. 벽화의 연대 비정과 국적 논란

1965년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서 발굴된 아프라시아트 벽화는 7세기 강국(康國)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로 보여주는 뛰어난 증거였다. 이 벽화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발굴단장이었던 알바움이 1975년 『아프라시아트 벽화』¹라는 보고서를 내면서부터다. 특히 이 벽화에는 고구려(高句麗)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2개의 깃털을 꽂은 절풍을 쓴 인물이 그려져 있어 국내 학자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발굴보고서가 나온 뒤 45년 가까이 진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1>과 같다.²

* 투고: 2020년 4월 12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20년 5월 25일

- 1 L. I. 알바움(Л. И. Альбаум), 1975, 『아프라시아트 벽화(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타슈켄트(Tashkent) 판(Фан).
- 2 ① L. I. 알바움(Л. И. Альбаум), 1975, 위의 책. ②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ミヤブ都城址 出土壁畫に見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 ③ 金元龍, 1976,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트 宮殿壁畫의 使節圖」, 한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129·130 号 谷 崔淳雨先生 華甲紀念論文集). ④ 高柄翊, 1984, 『東아시아 傳統과 近代史』, 三知院. ⑤ 박진옥, 1988,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⑥ 盧泰敦,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關한 一考察」,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23. ⑦ Boris Plyich Marshak, 1994, Le programme iconographique des peintures de la « Salle des ambassadeurs » à Afrasiab (Samarkand), Arts asiatiques, tome 49. ⑧ 文明大, 1990b, 「실크로드의 新羅使節像」, 『中國大陸의 文化』, (1) 故都長安, 한·언; 文明大, 1990a, 「실크로드上的 新羅使節像 考察」, 『(李載樂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한울. ⑨ 李殷昌, 1991, 「新羅文化와 伽耶文化의 比較研究-考古學的인 측면에서 본 新羅·伽耶 兩國文化의 同質性과 異質性을 중심으로-」, 新羅文化宣揚會, 『新羅文化

祭學術發表會論文集』9. ⑩ 정수일, 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鄭守一, 2002, 「高句麗의 西域 關係 試考」, 『高句麗研究』 14. ⑪ Markus Mode, 1993, “Sogdien und die Herrscher der Welt: Türken, Sasaniden und Chinesen in Historiengemälden des 7. Jahrhunderts n. Chr. aus Alt-Samarqand”,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Internationaler Verlag der Wissenschaften*. ⑫ 방상현, 1997, 「소그드 壁畫와 高句麗人 考察」, 『東西文化論叢』(Ⅱ). ⑬ 影山悦子, 1998, 「サマルカンド壁畫に見られる中國繪畫の要素について: 朝鮮人使節はワルフマーン王のもとを訪れたか」, 『西南アジア研究』 49. ⑭ 권영필, 2002, 「신라문화 속에 남아 있는 서역 요소」, 『신라의 실�크로드』, 백산자료원. ⑮ 노태돈, 2003, 『에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⑯ 우덕찬, 2003,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4-2. ⑰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⑱ 최광식, 2008,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 『중앙아시아축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⑲ 김용문, 2010,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 『服飾』 60-7. ⑳ 지배선, 2011,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고구려 사신의 康國 방문 이유-」, 『백산학보』(89). ㉑ 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68. ㉒ 조운재, 2012, 「古代 韓國의 鳥羽冠과 실�크로드-鳥羽冠 관련 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교육연구단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해외 전파조사 및 DB구축 사업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㉓ 정호섭, 2013,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외국 자료에 나타난 古代 한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영남학』 24. ㉔ 이재성, 2013, 「아프라시아 宮殿址 壁畫의 ‘鳥羽冠使節’에 관 고찰-高句麗에서 사마르칸트(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8-2. ㉕ 서길수, 2015, 「외국 高句麗 인물화에 나타난 닭깃털관(鷄羽冠)과 高句麗의 위상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1. ㉖ 이재성, 2016,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과정 및 시기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㉗ 이상은·김애련, 2018,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궁전 벽화에 나타난 삼국시대 복식 연구」, 한국상디자인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8-2. ㉘ 정호섭, 2019,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의 고대 한국인」,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칸트시 역사박물관 주최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라시아 궁전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㉙ 이성제, 2019a, 「고구려와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관계-고구려 사절이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칸트시 역사박물관 주최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라시아 궁전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이성제, 2019b,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고구려 사절이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65.

〈표 1〉 아프리카시업 벽화 연구사

	연도	이름	편년	국적
1	1975	알바움(L. I. Albaum)	7세기 후반	고구리 사진
2	1976	아나자와(穴澤和光·馬目順一)	7세기 중엽~666년 이전	고구리 사진
3	1976	김원용(金元龍)	7세기 중엽	신라 사진
4	1984	고병익(高柄翊)	7세기 후반	고구리 사진
5	1988	박진욱(朴晉煜)	650~660년대	고구리 사진
6	1989	노태돈(盧泰敦)	650~655년	고구리 사진
7	1994	마르샤(Boris Ilyich Marshak)	660년쯤/655년쯤	고구리 사진
8	1990	문명대(文明大)	670~715년	신라 사진
9	1991	이은창(李殷昌)	7세기쯤	신라 사진
10	1992	정수일(鄭守一)	666년쯤	고구리 사진
11	1993	모데(Markus Mode)	649년쯤	고구리 사진
12	1997	방상현(方相鉉)	749년	고구리 사진
13	1998	가게야마 에츠코(影山悦子)	658년	조선인 사진 使行 否定
14	2002	권영필(權寧弼)	7세기 3/4기	신라 사진
15	2003	노태돈(盧泰敦)	7세기 후반~8세기 초 ³	고구리 사진
16	2003	우덕찬(禹惠찬)	650~655년	고구리 사진
17	2008	권영필(權寧弼)	651~657년	고구리 사진
18	2008	최광식(崔光植)	660년쯤	고구리 사진

- 3 노태돈은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대동문화연구』 23, 1989)에서 “‘와흐르만’이라는 왕은 당의 영희 연간(650~655)에 강거도독으로 책봉된 불호만과 동일인으로 여겨지므로, 대체로 7세기 후반 와르호만왕의 치세 중 이곳을 방문한 외국 사절단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사절도 중에 보이는 두 명의 고대 한국인은 698년 무렵 건국한 발해국의 사절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신라인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8세기 초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

19	2010	김용문(金容文)	7세기	고구리 사신
20	2011	지배선(池培善)	652년	고구리 사신
21	2012	전호택(全虎兌)	651년경	고구리 사신
22	2012	조윤재(趙胤宰)	650~670년	고구리 사신
23	2013	정호섭(鄭好燮)	650년대	고구리 사신 使行 否定
24	2013	이재성(李在成)	7세기 ¾기	고구리 사신
25	2015	서길수(徐吉洙)	7세기	고구리 사신
26	2016	이재성(李在成)	662년	고구리 사신
27	2018	이상은(李相恩)·김애련(金愛蓮)	650~655년	고구리 사신
28	2019	정호섭(鄭好燮)	650년대	고구리 사신 使行 否定
29	2019a, 2019b	이성제(李成制)	650년대(?)	고구리 사신 使行 否定

지금까지 본 연구성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온 장면의 연대(年代) 비정이다. 이 논의는 처음 발굴보고서에 7세기 후반이라고 나온 뒤 고구리[高句麗] 조정이 당나라에 항복한 668년 이후라는 점 때문에 신라 사신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서벽 벽화의 주인공인 바르후만(Varkhuman)이 『신당서』에 나온 불호만(拂呼蔓)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당(唐)이 불호만을 강저도독부로 삼았다는 고종 영휘(永徽, 650~655) 연간이 비정의 기준이 되면서 차츰 신라 사신설은 사라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구리[高句麗] 사신설이 일반화되었다.

2. 새로운 논란, ‘사행(使行)을 부정(否定)하는 설’

이처럼 고구리[高句麗] 사신설이 자리를 잡아가는 1998년(정리번호 13)에 사마르칸드 벽화에 나타나는 고구리 인물은 실제 고구리가 파견한 사신을 그린 것이

아니라 현지 화가가 당나라의 그림본[模本, 手本]을 가지고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국립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의 가게야마 에츠코[影山悦子] 연구원이 「사마르칸드 벽화에 나타난 중국 회화 요소에 대하여 - 조선인 사절은 바르후만왕을 찾아갔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가게야마는 이 논문에서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고구리 사절이 실제 사마르칸드까지 간 것이 아니라, 당나라 궁정화의 그림본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주장하였다.⁴ 가게야마는 다음 해인 1999년 9월 6~10일 파리 유럽이란학회(Societas Iranologica Europaea)가 주최한 4차 이란 연구 유럽 회의에서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외국 사신의 중국식 묘사(A Chinese Way of Depicting Foreign Delegates Discerned in the Paintings of Afrasiab)」⁵라는 제목으로 같은 요지를 발표했고(발표 논문집, I권), 그 내용이 2004년 『이란학(*Studia Iranica*)』 25집에 실리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의 특징은 당시까지 많은 학자가 고구리[高句麗]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그 사신이 강국(康國)까지 온 것을 그렸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했으나, ‘고리[高麗] 사신은 강국에 간 적이 없다’는 독창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가게야마의 주장은 많은 학자가 고구리[高句麗]에서 강국에 사절을 파견한 배경과 목적을 연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구리 사절이 강국까지 간 루트를 연구한 결과를 한꺼번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강국의 화가가 단순히 당나라 그림본을 보고 그려 넣은 것이고 고구리 사신이 실제로 강국에 간 사실이 없었는데 선행 연구자들이 근거 없는 연구를 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

4 影山悦子, 1998, 앞의 책.

5 Kageyama Etsuko, 2002, “A Chinese Way of Depicting Foreign Delegates Discerned in the Paintings of Afrasiab”, in: *Philip Huyse, éd., Iran, “Questions et Connaissances”, Actes du IVe congrès européen des études iraniennes, organisé par la Societas Iranologica Europaea, Paris, 6-10 septembre 1999, vol. I: La période ancienne, Paris: Association pour l’avancement des études iraniennes(AAEI), pp. 313~327.*

리므로 이 문제는 일찍이 깊은 논의가 필요했으나 오랫동안 논란이 없었다.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는지도 모른다.

국내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깊은 관심이 없다가 10년이 지난 2008년 권영필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펴낸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에 발표된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권영필은 모데(M. Mode)가 아프라시압 벽화 연대를 소개하면서 모데를 비판한 가게야마를 언급한 뒤, “가게야마는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사절이 실제로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벽화의 화가가 상상적인 관점에서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는 간단한 주를 달았다.⁶

이러한 가게야마의 관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 2013년 정호섭이 발표한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외국 자료에 나타난 古代 한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다.⁷ 정호섭은 깃털관[羽冠]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Ⅲ형인 아프라시압 벽화는 I형인 중국의 그림본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가게야마의 설을 뒷받침하였다.

이 논지는 다시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역사박물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고,⁸ 같은 대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원인 이성제도 고구려 사신은 사마르칸드에 갈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다.⁹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학술적으로 깊이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 주제는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오는 고구려 사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국내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좋은 논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6 권영필, 2008, 앞의 글, 51쪽.

7 정호섭, 2013, 앞의 글, 102쪽.

8 정호섭, 2019, 앞의 글, 34~44쪽.

9 이성제, 2019a, 앞의 글, 61~69쪽; 이성제, 2019b, 앞의 글.

3. 연구 방법

위에서 주장한 고구리[高句麗] 사행(使行) 불가론은 크게 두 가지 논점이다. 첫째는 가게야마가 주장한 중국 그림본을 베꼈다[模寫]는 주장이고, 둘째는 사료를 통해서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동·서돌궐 지역을 거쳐 먼 강국(사마르칸드)까지 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첫째 논점은 가게야마 이후 정호섭, 이성제가 모두 주장한 것이고, 둘째 논점은 정호섭과 이성제가 주장한 것인데, 특히 이성제가 크게 다루었다. 첫째 논점은 이미 다른 논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¹⁰ 이 논문에서는 둘째 논점을 다루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Ⅱ장에서는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사행 부정론(使行否定論)의 논지를 파악하고, 고구리 사신이 직접 갔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연도까지 밝힌 선행 연구와 비교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고구리 사신이 소그드인의 도움 없이도 사행(使行)이 가능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고구리가 서녘 국가들과 접촉·교류·연합했던 역사들을 자세히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고구리가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서돌궐과 연합했다는 가설을 증명하고, 그 연합했던 시기를 제시해본다.

4. 연구의 시급성

문제의 제기만큼 더 시급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벽화에 나타난 고구리 사절의 성격이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두 나라 교류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랫동안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이 벽화의 고구리 사절을 바탕으로 7세기부터 두 나라가 교류하였다는 전제 아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0 서길수, 2020, 「아프라시아 高句麗 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I)」, 『고구려발해연구』 66.

2017년 11월 22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3박 4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연합뉴스, 2017. 11. 22.).

이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아프라시아 벽화’를 선물로 증정하였고, 2019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정상외교 선물 특별전 「대한민국에 드립니다」에서도 전시되었다(연합뉴스, 2019. 3. 27.).

2019년 4월 20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라시아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도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신이) 쓴 관에 새 깃털이 있는데 이것이 고구려의 특징이라는 것을 중국 전문가가 확인했고, 차고 있는 칼도 고구려 것이어서 고구려 사신이 이 시기에 사마르칸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양국 교류의 역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벽화의 사본을 본 것을 언급하며 “실물로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곧이어 벽화 앞에서 양 정상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우즈베크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벡조드 울다세브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장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한국 정부가 아프라시아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¹¹

대통령이 이렇게 두 나라의 역사적 교류를 강조하기 3일 전인 4월 17일 이곳에서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칸드시 역사박물관이 주최하는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로시아 궁전 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라는 학술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을 대표해서 발표한 두 학자

11 『연합통신』, 2019년 4월 20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1001100001?input=1195m>

는 모두 “고구리는 강국(사마르칸드)에 사절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는 교류가 없었고 단지 강국(사마르칸드)의 화가가 중국의 그림본을 참고하여 그렸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같은 날 학술회의를 주최하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이 “특히 아프리카시압 언덕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고대 한국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이미 1,300여 년 전부터 교류하였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한 인사말과 배치되는 것이고, 2013년부터 5년간 동북아역사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 아프리카시압 벽화 보존과 재현을 위해 한 사업이 헛일이 되는 것이다. 같은 날 고광의 연구위원이 발표한 5년간의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 ‘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과 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트 종합역사건축미술관 간의 공동학술 활동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벽화의 복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디지털 복원 연구팀은 동북아역사재단 고광의 연구위원의 총괄 기획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미술학과 서용 교수,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신빛 교수, 중앙문화유산보존센터 대표故임권웅 박사·정성운 연구원, (주)문화유산기술연구소 김지교 대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박진호 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역사, 고고, 미술사학자들로 구성하였고, Afrosiab Museum의 Samridin Mustafkulov 관장,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Uzbekistan Institute of Archaeology의 벽화수리수복실 Marina Reutova 연구원 등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3~2018년까지 벽화에 대한 2D디지털 복원모사도 제작, 3D디지털 다국어 영상 제작 및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내 영상실 설치 운용, 전시실 내 벽화 보호 기구 설치, 서벽 사절도와 銘文 인물 부분에 대한 실벽 복원모사도 제작 및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¹²

12 고광의, 2019,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디지털 복원 모사」,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

아울러 신문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나라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벽화 전시장에서 열린 ‘한·우즈베크 문화유산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시업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앙문화재연구원이 우즈베키스탄 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사마르칸드 쿨도르테파 궁성지와 성벽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2019년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¹³ 2010년 4월 1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구려 사절단 모습이 그려진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시업 박물관 소장 궁전벽화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벽화 파편 11점을 지난해 12월 국내로 들여와 최근 과학적 분석을 마무리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문제의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학계에서 시급하게 논의하여 두 나라의 교류를 위한 학술적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5. 용어 해설

이 글에서는 ‘高句麗=고구리’로, ‘高麗=고리’로 읽는다. 고구리[高句麗]는 장수왕이 413년 즉위한 뒤 나라 이름을 고리[高麗]라고 바꾸었기 때문에 5세기 초반 이후의 자료에 나오는 고리[高麗]는 역지로 고구리[高句麗]로 바꾸지 않고 원사료에 있는 그대로 고리[高麗]로 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미 2007년 『고구려연구』(27)에 「高句麗」와 「高麗」의 소리값[音價]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세하게 발표하였다. 8년이 지난 뒤까지 학술적인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일반화할 단계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쓰고 있다.¹⁴

칸드시 역사박물관 주최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13 중앙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식」, <http://www.jungang.re.kr/index.php?mc=06&md=read1&idx=197&bn=1343>

14 자세한 논리는 서길수의 『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高句麗]』(여유당, 2019a)와 『장수왕이 바꾼 나라이름 고리[高麗]』(여유당, 2019b) 참고.

II. 사행 부정론의 논거와 선행 연구 검토

1. 고리[高麗]의 사마르칸드 사행 부정론의 논거

1) 정호섭의 고구리[高句麗] 사절 파견 부정론

정호섭의 주장은 고구리가 사마르칸드를 가려면 동돌궐 루트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650년대 동돌궐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고구리 사절이 그 루트를 통과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첫머리에서는 고구리와 동돌궐은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시작했으나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통과하기 어렵다고 반전되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돌궐 루트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아프리카시업 벽화에 나오는 사절은 고구리가 실제 파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돌궐은 내부분열과 철륵(鐵勒)의 여러 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혼란이 일어나 630년에 이미 멸망하고 설연타를 비롯한 철륵의 세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동돌궐 루트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다. 동돌궐이 지배했던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2) 이성제의 고구리[高句麗] 사절 파견 부정론

(1) 설연타와의 교섭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아프리카시업 사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고구리와 서녘의 교섭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설연타와의 교섭이었다. 이성제는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첫째, 설연타를 움직이려 했던 고구리의 계획은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15 정호섭, 2013, 앞의 글, 115쪽.

실효성과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 말갈을 통해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고구리 사신이 직접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¹⁶

(2) 소그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막북(漠北)초원에서 사마르칸드까지 가는 길은 소그드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650년대는 그들이 이미 당나라 주·현(州縣)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⁷

(3) 중앙아시아와 몽골초원이 당의 지배 아래 있어 사행(使行) 불가능

이성제는 정호섭과 마찬가지로 “고구리 영역 밖 7,000km 떨어진 곳을 갈 수 있겠는가?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성제는 설연타를 격파한 당이 몽골초원을 통제해나갔기 때문에 고구리 사절이 초원길을 통해서 강국(사마르칸드)에 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이성제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한다.

당은 652년과 655년, 그리고 657년에 걸쳐 세 차례 원정군을 파견하였고, 658년 2월 석국(石國,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아사나하로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특히 657년 원정은 소정방(蘇定方)을 이려도행군대총관(伊麗道行軍大總官)으로 삼아 천산산맥 남북의 두 경로로 진공했던 것으로, 도주한 아사나하로를 석국까지 추격했다는 점에서 당이 사태 해결에 기울인 관심의 정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 설연타가 사라진 몽골초원에는 회골과 복고부를 비롯한 철록 제부가 남아 있었지만, 이들 모두는 당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다. 서돌궐이 당에 저항하자 철록 제부는 그 토벌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고, 그 공을 인정받은 수장은 당의

16 이성제, 2019b, 앞의 글, 248~250쪽.

17 이성제, 2019b, 위의 글, 250~251쪽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초원을 통과하여 서돌궐로 가려는 시도가 무망했음을 알려준다. 650년대 전반기의 시점에서 몽골초원은 당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 지배의 정도는 한 차례의 원정에 5만의 병력을 문제없이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했다면 고구려가 서방으로 사절을 보내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절은 몽골초원을 벗어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보인다.¹⁸

이성제는 651년부터 657년까지 당과 서돌궐의 전쟁을 검토하고, 그 당시 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리[高麗] 사신이 갈 수 없었다고 보았다.

(4) 적국인 당(唐)과 고구려가 한 장면에 그려질 수 없다

이성제는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등장하는 사절들을 분석하여 적국인 당나라와 고구려가 함께 그려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⁹

이성제는 위에서 본 네 가지를 들어 고구려가 실제 사신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아프리카시압 벽화가 실제 찾아온 사신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본을 베껴 그린 것이고, 그러한 그림본은 돌궐에서 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 구체적인 고리[高麗] 사행 연도를 제시한 연구성과

위에서 본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행을 부정하려면 이미 존재한 긍정론을 극복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대 들어오면서 동양사를 전공한 지배선과 이재성은 강국(사마르칸드)

18 이성제, 2019b, 위의 글, 254~255쪽.

19 이성제, 2019b, 위의 글, 258쪽.

의 역사는 물론 수·당·돌궐·거란과 고구리 관계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여 이 부분에 부족한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좋은 재료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바르후만이 강거도독으로 임명된 것을 658년으로 확정 짓고, 지배선은 바르후만이 강거도독으로 임명되기 이전, 곧 당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652년에 고구리가 사절을 파견했다고 주장했고, 이재성은 658년 이후 당의 기미지배가 유명무실했던 662년에 보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앞에서 정호섭과 이성제가 주장한 사행 부정설(否定說)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이 절에서 자세하게 보기로 한다.

1) 바르후만(Varkhuman, 拂呼纒) 강거도독 임명 시기에 대한 논의

먼저 바르후만의 대강거도독 임명 시기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여 확정하려고 한다. 이 시기가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시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자 논리전개의 중심연대가 되기 때문이다.

(1) 지배선의 658년 강거도독 임명설

1975년 알바움이 『아프라시압 벽화』라는 보고서를 낼 때 서문을 쓴 굴랴모프(Ya. G. Gulyamov)가 벽화 조성연대를 690년대로 보았지만, 다음 해인 1976년 아나자와가 『신당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바르후만이 강거도독으로 임명된 것은 영희 연간(650~655)이라고²⁰ 보았다. 바로 사료 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뒤 학계에서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한 논문이 많았고, 한국 국사학계에서는 앞에서 본 정호섭과 이성제를 포함하여 대부분 이 학설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1998년 가게야마가 『당회요』의 기록을 들어 강거도독을 임명한 것이 658년이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③의 내용이다.

20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앞의 글, 21쪽.

- ① 『신당서』: 고종 영휘(永徽) 연간(650~655)에 그 땅을 강거도독부(康居都督部)로 하고, 바로 왕 바르후만(Varkhuman, 拂呼縵)을 도독으로 삼았다.²¹
- ② 『당회요』: 영휘(永徽) 연간(650~655)에 그 나라[康國]는 자주 사신을 보내 대식(大食, 아라비아, 632~1258)이 쳐들어와 세금을 물린다고 아뢰었다.²²
- ③ 『당회요』: 현경(顯慶) 3년(658), 고종이 과의(果毅)²³ 동기생(董寄生)을 보내 (왕이) 살고 있는 성을 강거도독부로 하고, 나아가 그 왕 불호만을 도독으로 삼았다.²⁴

지배선은 위의 자료 가운데 ①과 ②에서 같은 연도에 전혀 다른 사건이 기록된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①과 ③의 자료는 같은 사건인데 연도가 다른 것을 보고 결국은 명확한 연도를 지정한 『당회요』의 ③번 기록을 선택하였다. 지배선이 이런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 강국과 당의 교섭사를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다.²⁵

③ 『당회요』에서 현경(顯慶) 3년(658)에 강거도독을 임명했다는 구체적인 연도와 파견한 관료의 이름까지 제시하여 신빙성이 있다. 『신당서』의 기록보다 적어도 3년 이상 차이가 난다.

(2) 이재성의 '658년 강거도독 임명설' 확정

지배선은 ③ 『당회요』에서 현경 3년(658)을 선택했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였다. 그 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밝힌 것이 이재성이다. 이재성은 치밀하게 여러 자료를 써서 『신당서』의 고종 영휘 연간(650~655) 설이 틀렸다

21 『新唐書』, 列傳 第146(下) 西域(下). 高宗永徽時, 以其地爲康居都督府, 卽授其王拂呼縵爲都督.

22 『唐會要』 卷99, 「康國」. 永徽中, 其國頻遣使告爲大食所攻, 兼徵賦稅.

23 과의도위(果毅都尉)로 당나라 때 군사 직관 명칭이다.

24 『唐會要』 卷99, 「康國」. 顯慶三年 高宗遣果毅董寄生 列其所居城爲康居都督部 仍以其王拂呼縵爲都督.

25 지배선, 2011, 앞의 글, 114~115쪽.

는 것을 증명하였다.

- ④ 『신당서』 「서역전」의 미국(米國), 석국(石國), 영원국(寧遠國), 『구당서』 「서역전」의 계빈국, 『당회요』의 사국(史國)이 모두 고종 현경 3년에 당의 기미부주로 편입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경 3년에 당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남방에 있던 미국(Maymurg)과 사국(Kesh, Kash, Kish), 동부 타슈켄트(Tashkent)에 있던 석국(Shash, Chach), 타슈켄트 동부의 페르가나(Fergana) 계곡에 있던 영원국 그리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남방, 즉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힌두쿠시산맥과 아무-다리아 사이의 지역에 있던 계빈국(Kapica)에 기미부주를 설치하여 당의 기미지배체제에 편입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마르칸트 역시 소그디아나의 다른 성방들과 함께 현경 3년(658)에 당의 기미지배 체제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⁶

이재성은 같은 기사가 나온 『책부원귀(冊府元龜)』를 비롯하여 여러 사료를 인용하여 658년설을 뒷받침하였다. 그는 “‘영휘연간(永徽年間)’은 ‘현경연간(顯慶年間)’을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당서』와 『구당서』에는 사건의 발생 연대가 잘못 기재된 기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다”²⁷고 하였다. 그 밖에 『구당서』나 『당회요』에 나오는 자료들을 발굴하여 주변의 나라들도 같은 해에 강국(康國)과 함께 당의 지배에 들어간 사실을 밝힘으로써 바르후만이 당의 책봉을 받은 해가 658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재성의 연대 확정 연구는 아프리카시압 벽화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연구 주제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

26 이재성, 2016, 앞의 글, 140쪽.

27 이재성, 2016, 위의 글, 141쪽, 주 50).

은 당의 세력 확장이 서돌궐의 멸망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하였다.²⁸

2) 동양사학자들의 고리[高麗] 사행 연도 비정 - 652년설과 662년설

(1) 지배선의 652년 고구려 사신 파견설

지배선은 고구려 사신이 간 것은 당나라가 658년 도독을 임명하기 전인 650~658년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사건은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그려진 조우관을 쓴 두 명의 고구려 사신이 강국을 방문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정좌한 인물이 拂呼纁(Varkhuman, 650~670)이라는 사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또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는 사마르칸트의 바흐르만 왕 재위 시에 제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그렇다면 당이 康居도독부를 설치하기 이전에 고구려 사신을 강국 방문 시기가 좁혀진다. 바꾸어 말해서 顯慶 3년(658)에 당이 강거도독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구려 사신이 강국을 방문한 시기는 650년에서 658년 사이라는 이야기다.²⁹

그러니까 658년 당이 강국을 강거도독부로 삼은 이후는 당의 세력 아래 놓이기 때문에 당과 적국인 고리[高麗]가 사신을 보낼 수 없고, 그 이전인 650~658년 사이 언제가 갔다고 상정한 뒤 다시 가능한 해를 찾아 좁혀간다.

당의 永徽 원년(650)에서 顯慶 3년(658)과 동시기는 고구려에서 보장왕 9년에서 17년 사이다. 이 시기를 주목하는 까닭은 康國王 拂呼(纁)왕 재위 시작부터 당에 의한 康居도독부 설치 시기(顯慶 3년)라 주목했다. 그런데 고구려는 652년

28 이재성, 2016, 위의 글, 141~142쪽.

29 지배선, 2011, 앞의 글, 122쪽.

에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으며, 654년 10월 고구려가 신성에서 松漠都督 李窟哥에 의해 크게 패퇴되었으며, 655년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33성을 빼앗자 김춘추가 당으로 사신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 654년부터 고구려는 북쪽 松漠都督 李窟哥에 의해 패퇴하는 상황이라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인지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는 고구려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던 시기의 조짐이 652년부터 감지되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성격이 다른 사신들을 당과 강국에 각각 보냈던 것 같다. …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시기는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냈던 652년 정월에 강국으로 사신을 보냈다고 본다. 이때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낸 이유가 당을 염탐할 의도로 사신을 보냈지만, 당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康國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낸 것은 당을 협공하기 위해 연합전선 형성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³⁰

지배선은 당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652년 당나라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신을 보낼 때 강국에도 사신을 보내 연합전선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보았다.

글쓴이도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고리[高麗]가 사신을 보낸 상대가 사마르칸드[康國]가 아니라 서돌궐이라고 본다. 651년 7월 서돌궐 사발라 칸[沙鉢羅可汗, Ishbara Khagan, 651~657, 阿史那賀魯·Ashina Helu]이 당나라 정주[庭州]를 쳐서 금령성[金嶺城]과 포류현[蒲類縣]을 함락시키고 수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³¹ 그러므로 연개소문으로서는 당시 당나라의 정세를 정탐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652년 당에 사신을 보냈을 것이고, 이즈음 서돌궐과의 연합을 시도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서돌궐이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30 지배선, 2011, 위의 글, 122~124쪽.

31 『資治通鑑』卷199, 「唐紀15-龍朔元年」, (永徽二年) 秋, 七月, 西突厥沙鉢羅可汗寇庭州, 攻陷金嶺城及蒲類縣, 殺略數千人, 詔左武候大將軍梁建方·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弓月道行軍總管, 右驍衛將軍高德逸·右武候將軍薛孤吳仁爲副, 發秦·成·岐·雍府兵三萬人及回紇五萬騎以討之.

있었을 것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645년 당 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설연타와의 연합을 통해 당 태종이 철군하게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 글의 핵심이므로 다음에 다시 찬찬히 보려고 한다.

(2) 이재성의 662년 고구리 사신 파견설

(가) 철록의 당나라에 대한 반란과 연개소문의 철록 연대 시도

이재성은 658년 이후의 기미정책 때문에 고리[高麗]가 사절을 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지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³² 이어서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다음 해인 661년 당이 고리[高麗]를 쳐들어오는 과정과 전쟁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한다. 그리고 육로군의 구성에서 “거필하력(契苾何力)³³이 요동도행군총관(遼東道行軍總管)이 되어 여러 번국(蕃國)의 35만 병력을 거느렸다.”³⁴는 기록을 통해 당이 대외정벌에서 이민족을 대거 동원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³⁵

이 부분은 앞에서 정호섭과 이성제가 동돌궐 지역이나 몽골초원 지역이 당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다. 더구나 당시 막북(漠北)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철록부나 회흘부 군사들이 당의 육로군 주력부대로 쳐들어와 적군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지역을 고리[高麗] 사신이 지나갈 수 있

32 이재성, 2016, 앞의 글, 142~143쪽.

33 거필하력(契苾何力)의 ‘契’자는 『자치통감』에 欺+訖의 반절로 읽으라는 주석이 세 번 나온다. 欺의 첫소리(初聲)는 [k]가 확실하고, 訖의 고대음은 [kiət]으로 끝소리[終聲]의 으뜸소리가 [ə]이기 때문에 [k+ə]는 [거]가 되는 것이다. 거란(契丹)도 해방 뒤 『廣韻』에 실린 居+乙의 반절에 따라 걸안이나 글안으로 읽다가 언제부터인가 정확한 소릿값에 따라 거란으로 읽고 있듯이 ‘契=거’인 것이다. 周法高, 『漢字古今音彙』(홍콩, 中文大學, 1979) 157쪽의 No. 4271 [欺]자와 319쪽의 No. 8579 [訖]자의 소릿값(音價) 참조.

34 『新唐書』 卷110, 「契苾何力」, 龍朔初, 復拜遼東道行軍大總管, 率諸蕃三十五萬軍.

35 이재성, 2016, 앞의 글, 149~150쪽.

겠는가 하는 논리다. 그런데 이재성은 육로군의 전투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한다.

평양성은 포위되었고, 압록강 전선도 뚫렸기 때문에 거필하력의 군대가 평양으로 진격하면 고리[高麗]로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거필하력의 군대가 돌아간 것이다.³⁶

이재성은 660년 8월부터 철록 여러 부에서 당나라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 반란이 진압되는 663년 정월까지 2년 5개월간의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쳤다.³⁷ 바로 이 기간 언젠가 고리[高麗] 사신이 파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660년(현경 5년) 8월 철록의 여러 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사결(思結)·발야고(拔也固)·복골(僕骨)·동라(同羅) 같은 4부가 당의 영주(靈州)를 침범하였고,³⁸ 그 도독인 좌무위대장군 정인태(鄭仁泰)가 격퇴하였다. 661년(용삭 원년) 10월부터 ‘반당’의 반란이 철록 제부 전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³⁹ 661년 9월에 고리[高麗] 정벌에 참전한 회홀부 부족장 파운(婆聞)은 전선을 떠나 막북으로 귀환하고 한 달 후인 10월에 사망하며, 그를 계승한 회홀부(回紇部) 부족장 비속독(比粟毒, 661~680)이 동라부, 복골부와 함께 당의 칙사를 죽이고 변경을 습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⁴⁰ 당(唐)·고리[高麗] 전쟁에 참여했던 파운의 군대도 그가 죽자 반당세력으로 바뀐 것이다. 철록의 여러 부의 반

36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0년. 秋八月 蘇定方破我軍於浪江 奪馬邑山 遂圍平壤城. 九月 蓋蘇文遣其子男生 以精兵數萬 守鴨綠 諸軍不得渡. 契苾何力至 值水大合 何力引衆乘水渡水 鼓噪而進. 我軍潰奔 何力追數十里 殺三萬人 餘衆悉降 男生僅以身免. 會 有詔班師 乃還.

37 이재성, 2016, 앞의 글, 155쪽.

38 『資治通鑑』卷200, 「唐紀16-高宗 顯慶5年」. 八月壬午, 左武衛大將軍鄭仁泰將兵討思結·拔也固·僕骨·同羅四部, 三戰皆捷, 追奔百餘里, 斬其酋而還.

39 『資治通鑑』卷200, 「唐紀16-龍朔 元年」. 十月, 回紇酋長婆聞卒, 姪比粟毒代領其衆, 與同羅·僕固犯邊, 詔左武衛大將軍鄭仁泰爲鐵勒道行軍大總管, 燕然都護劉審禮·左武衛將軍薛仁貴爲副, 鴻臚卿蕭嗣業爲仙峒道行軍總管, 右屯衛將軍孫仁師爲副, 將兵討之.

40 이재성, 2016, 앞의 글, 163~164쪽.

란을 완전히 진압한 것은 다음 해인 663년 정월이었다.⁴¹

(나) 연개소문이 철록에 사신을 보낸 시기

그렇다면 당시 고구리의 실권을 쥔 연개소문은 언제, 왜 사마르칸드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을까? 이재성은 당이 대규모 병력으로 쳐들어와 평양성이 661년 7월(또는 8월)부터 7~8개월이나 포위되고, 압록강이 뚫리는 위기를 맞았을 때 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을 찾았고, 그때 마침 막북(漠北)에서 철록이 당에 반란을 일으키자 연대를 꾀한 것으로 보았다. 연개소문이 이런 연합전선을 구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일본서기』에 고리[高麗]가 일본에 구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든다.

(원년 3월) 이달 당(唐) 사람과 신라 사람이 고리[高麗]를 치니 고리[高麗]가 나라를 구해달라고 구원하였다. 그래서 장군을 보내 소류성(疏留城)을 지켰다. 이 때문에 당나라 사람이 그 남쪽을 빼앗을 수 없었고, 신라는 그 서쪽 보루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⁴²

이재성은 당시 연개소문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당의 침입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에서 보았듯이 당나라에 반기를 든 막북 세력과의 연대를 생각한 것으로 보고, 바로 그 시기를 662년 2월 무렵으로 보았다.

연개소문이 왜(일본)에 이어 연합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세력은 몽골리아의 유목 세력인 철록이었을 것이다. ... 철록에 사자를 파견하여 그들과의 연합을 성사

41 『舊唐書』卷4, 「本紀」4, 高宗(上), (龍朔)三年春正月, 左武衛大將軍鄭仁泰等帥師討鐵勒餘種, 盡平之.

42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紀, (元年 三月) 是月, 唐人·新羅人伐高麗, 高麗乞救國家, 仍遣軍將據疏留城. 由是, 唐人不得略其南界·新羅不獲輸其西壘.

시켜서 당을 배후에서 강력하게 공격한다면, 당의 수로군 사령관 소정방의 평양성 포위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군을 고구려에서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연개소문은 당시 철록 제부가 그들을 기미지배하고 있는 당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말갈을 중매로 삼지 않고 고구려에서 직접 철록에 사자를 파견한다면 고구려와 철록의 연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파견된 사절이 바로 ‘조우관사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우관사절’은 언제 고구려를 출발하여 몽골 철록으로 갔을까? 연개소문이 가장 위기를 느꼈을 때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시기는 설필하력이 철수하여 고구려에서도 철록 제부의 반란이 인지되는 661년 9월 이후로 생각된다. 특히, 소정방의 수로군이 신라 김유신에게 군량을 전달받은 후 잠시 평양성의 포위를 푸는 662년 2월 무렵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따라서 ‘조우관사절’이 고구려를 출발하여 몽골의 철록으로 간 시기는 662년(보장왕 21) 2월 무렵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재성은 이러한 연개소문의 전략은 645년 설연타와의 연합을 시도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정호섭과 이성제가 설연타와의 연합은 이득이 없고 실패한 시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설연타와의 연대에 대한 평가는 Ⅲ장 3절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철록의 연합’을 목표로 662년 2월 무렵에 몽골의 철록으로 간 ‘조우관사절’은 언제 몽골을 떠나서 사마르칸드로 갔을까?

그 시기는 “몽골에 도착한 ‘조우관사절’이 철록 제부의 반란 경과를 관찰하면서 ‘고구려와 철록의 연합’이 절망적이라고 판단했을 시기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우관사절’이 몽골의 철록을 떠난 시기는 당의 토벌군이 항카이산맥에 진입한 662년 3월이나 정인태 등에 의해 철록의 반란이 완전히

43 이재성, 2016, 앞의 글, 158~159쪽.

진압되는 663년 정월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조우관사절’이 철륙을 떠나서 사마르칸트로 들어간 시기는 철륙을 떠난 지 늦어도 대략 3개월 정도 지난 662년 6월 혹은 663년 4월 무렵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재성의 주장이다.⁴⁴ 즉, 고리[高麗]는 수당의 침략을 맞아 끊임없이 서북 세력과 연합을 시도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철륙과 사마르칸드와의 연합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두 동양사학자가 주장한 고구리 사신 파견 시기를 보았다. 지배선은 바르후만이 강거도독으로 임명된 658년 이전인 652년이라고 했고, 이재성은 658년 이후 당이 고구리를 침략해 평양성을 포위한 때와 그 직후인 662년으로 보았다. 이 두 논문은 특히 한국사 연구자들이 소홀할 수 있고, 한계가 있는 중앙아시아나 막북의 역사를 치밀하게 연구하여 사건의 배경을 잘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시업 벽화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연구성과가 사행 부정론을 주장한 2019년 두 사람의 발표에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650년대 고리[高麗]의 사마르칸드 사행[使行] 가능성 검토

1. 유연(柔然)과의 교류를 통한 초원로 왕래 역량 확보

앞에서 소그드인들의 안내가 없으면 고리[高麗]가 초원길을 왕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리[高麗] 사절은 사마르칸드에 갈 수 없다는 이성제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리[高麗]는 소그드인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초원길을 오간 역사가 있고, 또 650년 당시도 그런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44 이재성, 2016, 위의 글, 171~172쪽.

증명하려고 한다.

1) 유연과의 외교와 연합을 위한 교섭과 왕래

(1) 주변국 사신 왕래 기록에 나타난 고리와 유연의 교류

중원의 강대국에는 여러 나라 사신들이 오기 때문에 사신들끼리 만나서 국제적인 교류를 할 기회가 된다. 사신들은 같은 숙소에 머물며 행사 때도 지정된 곳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어 서로 친분을 쌓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사신들은 통역관을 대동하거나,⁴⁵ 그렇지 않더라도 한문(漢文)이 국제어로 쓰였으므로 누구나 필담을 할 수 있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사신이 온 대부분의 나라에는 불교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심사도 일치했을 것이다.⁴⁶

〈표 2〉, 〈표 3〉에서 보듯이 이미 남북조시대부터인 5세기 때 고리[高麗]⁴⁷는 막북(漠北)의 강자인 유연(柔然)과 사신외교를 통해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다.

유연(柔然, Róurán)은 5~6세기 북위의 북쪽을 지배한 유목국가로 『위서(魏書)』, 『북사』, 『남사』에서는 연연(蠕蠕)⁴⁸이라 했고,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에서는 예예(芮芮), 『주서(周書)』, 『수서』에서는 여여(茹茹), 『진서(晉書)』에서는 유연(柔然)이라고 기록하였다. 결국 유연(柔然)·유연

45 정승혜, 2017, 「古代의 譯人-덕흥리 벽화고분 <太守來朝圖>의 여성 통역관의 발견과 관련하여-」, 한국목간학회, 『목간과 문자』 19.

46 서길수, 2019, 『장수왕이 바꾼 나라 이름 고리[高麗]』, 여유당, 182쪽.

47 송나라 건국 이후 장수왕은 이미 나라 이름을 고리[高麗]로 바꾸었기 때문에 『송서』 본기에는 첫해에 관례적으로 장수왕을 책봉하면서 고구리[高句麗]라는 나라 이름을 한 번 쓰고, 그 이후는 모두 고리[高麗]를 썼다.

48 『魏書』 卷103 列傳 第90, 蠕蠕, 뒤에 세조[太武帝]는 그들이 무지하고 생김새가 벌레 같다고 해서 연연(蠕蠕)이라고 하였다(後世祖以其無知 狀類於蟲 故改其號爲蠕蠕).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북위 황제가 벌레 충(蟲) 변을 붙여 낮추어 부른 것이다.

〈표 2〉 『송서(宋書)』 「본기」에 기록된 고리[高麗]와 유연[芮芮]의 조공외교

	송 연대	고리 연대(AD)	기사 내용
1	大明 7년	장수왕 51(463)	芮芮國·高麗國遣使獻方物
2	泰始 6년	장수왕 58(470)	芮芮國·高麗國遣使獻方物
3	後廢帝 泰豫 원년	장수왕 60(472)	芮芮國·高麗國遣使獻方物
4	元徽 3년	장수왕 63(475)	芮芮國·高麗國遣使獻方物

〈표 3〉 『위서(魏書)』 「본기」에 기록된 고리[高麗]와 유연[蠕蠕]의 조공외교

	북위 연대	고리 연대(AD)	기사 내용
1	皇興 3년 2월	장수왕 57(469)	蠕蠕·高麗·庫莫奚·契丹國各遣使朝獻
2	承明 원년 2월	장수왕 64(476)	蠕蠕·高麗·庫莫奚·波斯諸國竝遣使朝貢
3	中興 2년 6월	안원왕 2(532)	蠕蠕·嚙噠·高麗·契丹·庫莫奚國竝遣使朝貢

(蠕蠕)·예예(芮芮)·여여(如如)·연연(蠕蠕)은 모두 같은 나라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서의 기록에 나온 고리[高麗]와 유연의 교류와 연합

먼저 『위서(魏書)』에 나온 유연의 영토를 보면 유연과 고리[高麗]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나라의) 서쪽은 언기(焉耆) 땅이고, 동쪽은 조선(朝鮮)⁴⁹의 땅이며, 북쪽은 사막을 넘어 한해(瀚海, 바이칼호)에 이르고, 남쪽은 고비사막(大磧)에 이른다.⁵⁰

49 『위서(魏書)』에서 고리[高麗] 땅을 조선의 땅이라고 한 것은 고리가 조선의 땅을 이어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50 『魏書』 卷103 列傳 第90, 蠕蠕. 其西則焉耆之地, 東則朝鮮之地, 北則渡沙漠, 窮瀚海, 南則臨大磧.

유연이 동쪽으로 접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조선 땅이라고 하였다. 당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으니 당연히 고리[高麗]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두 나라는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리[高麗]와 유연[蠕蠕]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는 『위서(魏書)』 백제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고리[高麗]의 의리에 어긋나고 거슬러 속이는 것은 한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외효(隗囂)⁵¹처럼 번신(藩臣)이라고 낮추어 이야기하지만, 안으로는 흉악하게 해치려고 저돌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劉宋]씨와 통하고 북으로는 연연(蠕蠕)과 약속을 통해 서로 입술과 이의 사이가 되어 왕의 경략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⁵²

고리[高麗]는 남조의 송과 북위에 모두 사신을 보내 등거리외교를 하면서 초원을 지배하고 있던 유연과도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연과는 입술과 이의 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가 있다.

태화 3년(479) 고구리[高句麗]가 유유(蠕蠕=柔然)와 함께 지두우(地頭于)를 취하여 몰래 나누어 가지려고 꾀하였다.⁵³

51 외효(隗囂, ? ~ 33)는 신(新)~후한(後漢) 초기의 군인이었다. 당시 광무제(光武帝)와 공손술(公孫述)이 세력을 다툰 때 두 세력 사이에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처음에는 광무제에 충성하다가 뒤로는 공손술에게 손을 내미는 행보를 하였으나 결국은 이루지 못하였다.

52 『魏書』卷100 列傳 第88, 百濟, 且高麗不義, 逆詐非一, 外慕隗囂藩卑之辭, 內懷兇禍豕突之行.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脣齒, 謀徙王略.

53 『魏書』卷100, 열전 88, 契丹. 太和三年(479),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頭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 衆萬餘口 驅徙雜畜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이처럼 고리[高麗]와 유연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두우 경략까지 논의하였다는 것은 서로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고리 사람[高麗人]이 유연에 가고, 유연 사람 역시 고리[高麗]에 오는 왕래가 잦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고리[高麗]로 집단 이주한 유연 사람들의 활약

지금까지 유연과의 교류 관계를 보았지만, 유연 사람들이 고리[高麗]에 집단으로 이주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로마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인 613년(고리 영양왕 24년) 테오피락티 시모카타(Theophylacti Simocattae)가 쓴 『역사(Historiarum)』⁵⁴라는 책에 유연의 멸망과 고리[高麗]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아바르(Avars)가 패배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일부는 타우가스트(Taugast)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달아났다. 타우가스트는 투르크(Turk)라 불리는 곳에서 1,500마일 떨어진 유명한 도시고,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타우가스트 가까이 사는 그 야만인들은 매우 용감하고 많은 종족들이 있어 전 세계에서 같은 규모의 나라 가운데서는 맞설 나라가 없었다. 패배하여 비천한 운명으로 떨어진 다른 아바르들은 무크리(Mukri)라고 부르는 곳으로 갔다. 이 나라는 타우가스트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날마다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위험 속에서 견뎌내는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한다.⁵⁵

54 Theophylacti Simocattae, March 8, 2017, “Historiarum”: *Libri Octo* (Classic Reprint, Latin Edition).

55 Michaeland Mary Whitby(An English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 1986, “The History of Theophylact Simocatta”, *Oxford University Press*, Book seven, 7-10~12, (10) For it is by a misnomer that the barbarians on the Ister have assumed the appellation of Avars; the origin of their race will shortly be revealed. So, when the Avars had been defeated (for we are returning to the account), some of them made their

그리스말로 쓰인 원문은 1685년 처음으로 프랑스의 쿠싱(L. Cousin)이 주석을 달지 않고 프랑스말로 옮겼고,⁵⁶ 1834년 임마누엘 베케루스(Immanuel Bekkerus)가 라틴어로 옮겼는데⁵⁷ 여기 실린 그리스 원문을 그림으로 올리고, 우리말은 1986년판 영문 번역본에서 중역한 것이다.

여기서 아바르(Avars)는 유연(柔然)이고 무크리(Muxri)는 ‘맥(貊)+고리[高麗]’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나와 일반화되었다. 위의 내용을 간추리면 돌궐에 멸망한 아바르, 곧 유연(柔然, 蠕蠕) 가운데 한 무리는 ‘타우가스트(Taugast)=북제(北齊, 550~577)로 들어갔고, 일부는 무크리(Mukri)=고리[高麗]로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 유연이 돌궐에 멸망할 때 유연의 일부가 고리[高麗]로 집단 이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뒤 고리[高麗]에는 유연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5~7세기 고리[高麗]에는 동쪽 고리[高麗]에서 서쪽 알타이를 넘어 중가리아[準噶爾, Dzungaria, Zhungaria]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던 유연 사람들과의 교류를

-
- escape to those who inhabit Taugast. (11) Taugast is a famous city, which is a total of one thousand five hundred miles distant from those who are called Turks, and which borders on the Indians. The barbarians whose abode is near Taugast are a very brave and numerous nation, and without rival in size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12) Others of the Avars, who declined to humbler fortune because of their defeat, came to those who are called Mucuri; this nation is the closest neighbour to the men of Taugast; it has great might in battle both because of its daily practice of drill and because of endurance of spirit in danger.
- 56 George Coëdès, 1910, “BC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극동에 관해 쓴 그리스·라틴 저자들의 원문(Textes d’auteurs grecs et latins relatifs à l’Extrême Orient depuis le IVe siècle av. J. -C. jusqu’au XIVe siècle)”, *Topics Historical geography Publisher Paris*.
- 57 Immanuel Bekkerus, 1834, *Theophylacti Scimocattae Historiarum: Libri Octo*, Bonnae: Impensis ed. Weberi, VII-7, p. 283.

위해 유연을 갔던 고리[高麗] 사신 같은 초원길에 익숙한 인력과 통역관이 이미 존재했고, ② 아울러 유연에도 고리[高麗]를 잘 알고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존재했다고 본다. ③ 그리고 유연이 망했을 때 대규모 집단이 고리[高麗]로 망명 와서 집단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원길에 대해 전문적인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소그드인들의 안내로 갔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실제 천축으로 가는 승려들도 소그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외교체계를 갖춘 소그드인들의 안내가 없어도 고리[高麗]는 자체의 힘으로 초원길을 다닐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고리[高麗] 사절이 스스로 초원길을 통해 사마르칸드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 특히 고리[高麗]가 평시의 사신 형태가 아니고 밀사(密使)를 보낸다고 할 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당시 고리[高麗]가 오랫동안 축적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연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중원의 기록에 의존하여 연구한 결과 고구리(高句麗)·고리[高麗]의 국제적 교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2. 고리[高麗]와 돌궐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고리[高麗]는 유연과 가까웠기 때문에 고리[高麗]와 돌궐의 관계는 서로 적대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많았다. 돌궐이 고리[高麗]를 침략하고 당이 고리[高麗]를 칠 때 선봉에 선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궐과 고리[高麗]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시대나 정황에 따라 늘 가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사마르칸드가 서돌궐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점에서 사마르칸드 벽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1) 돌궐 초기의 고리[高麗]와 돌궐의 관계

돌궐·고리[高麗]·수당(隋唐)은 시대와 정황에 따라 수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가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돌궐과 고리의 교류사는 안원왕 7년인 551년 돌궐의 침입으로 시작된다.

① 7년(서기 551) 여름 5월, 북제(北齊)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가을 9월, 돌궐(突厥)이 신성을 포위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자, 군대를 이동하여 백암성을 공격하였다. 임금이 장군 고희(高紘)에게 병사 1만을 주어 그들을 물리치고, 1,000명 넘게 머리를 베었다.⁵⁸

이때는 막북에서는 돌궐이 새로 일어나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때였다. 546년 철륵이 유연을 공격하자 돌궐부를 이끌고 싸워 5만이 넘는 부락을 항복 시키면서 막강한 힘을 축적하였다. 토문은 이때를 이용하여 유연 기간에게 구혼을 했지만 거절하자 유연을 떠나 543년에 세워진 서위(西魏)에 사신을 보내 구혼하여 551년 6월 서위의 장락공주(長樂公主)와 결혼하게 된다.⁵⁹ 돌궐이 고리[高麗]를 친 것이 바로 이때다. 고리[高麗]는 550년 망한 동위(東魏)의 뒤를 이은 북제(北齊)와 가까웠기 때문에 서위(西魏)와 가까운 돌궐과는 서로 대결 상대였고, 오랫동안 교류하던 유연을 밀어내고 올라선 돌궐이기 때문에 서로 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58 『三國史記』卷19, 「고구려본기」 제7, 양원왕. 七年 夏五月 遣使入北齊朝貢.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紘 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59 『周書』卷50, 列傳 第42, 異域(下), 突厥. 十二年, 土門遂遣使獻方物. 時鐵勒將伐茹茹, 土門率所部邀擊, 破之, 盡降其衆五萬餘落, 恃其強盛, 乃求婚於茹茹. 茹茹主阿那瑰大怒, 使人罵辱之曰: 「爾是我鍛奴, 何敢發是言也?」土門亦怒, 殺其使者, 遂與之絕, 而求婚於我. 太祖許之. 十七年六月, 以魏長樂公主妻之.

② 켈 티긴과 빌게 카간 비문 bükli 관련 기록

[E 4] …… 승하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장례식에) 문상객(으로서) 앞(동)쪽에서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뷔클리(Bükli), 칠 백성, 중국, 티베트, 아바르(Apar), 비잔틴, 크르그즈, 위치 쿠르간, 오투즈 타타르, 거란, 타타르, 이 만큼의 백성이 와서 울었다고 하며, 애도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유명한 카간이었다고 한다.⁶⁰

553년 돌궐을 세운 토문 카간이 죽었을 때 고리[高麗]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보면 돌궐이 북방의 세력을 잡은 뒤 고리[高麗]는 빠르게 돌궐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나라 성립 이후의 고리와 돌궐의 관계

수나라에 들어와서 돌궐·수는 물론 고리[高麗]와의 관계도 수시로 변하고 때에 따라 원군 또는 적군이 되는 정세가 이어진다. 수 문제는 아직 남조의 진(陳)을 통일해야 하므로 서쪽의 토욕훈, 북쪽의 돌궐, 동쪽의 고리[高麗]를 안무할 필요가 있어, 584년 세 나라 사신을 위해 황제가 몸소 잔치를 베푼 기록이 있다.

③ 돌궐·고리[高麗]·토욕훈 사자들에게 대흥전(大興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⁶¹

돌궐과 고리[高麗]나 모두 격변하는 정세를 정탐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이에 대한 상호 의견교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돌궐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즈음 돌궐 서부지역은 건국 1세대인 실점밀 카간(室点蜜可汗, Istemi Qaghan, 562~576)이 죽고 아들 달두 카간(達頭可汗, Tartu Qaghan, 576~

60 논문자의 라틴문자화는 여러 학자가 했으나 여기서는 Talat Tekin 지음, 이용성 옮김, 2008, 『돌궐비문 연구』, 제이앤씨, 90쪽(빌게 카간 비문은 136쪽)을 그대로 옮긴다.

61 『隋書』 卷1, 「帝紀」 第1, 高祖(上), 宴突厥·高麗·吐谷渾使者於大興殿.

603)이 재위에 오른다. 달두 카간은 부왕과는 달리 돌궐제국 전체를 대표하는 카간으로 표현하면서 동돌궐의 카간직을 인정하지 않았다(582). 이 틈을 노린 수 양견이 두 돌궐을 이간질해서 세력을 약화하고, 582년 돌궐에 대한 대규모 반격을 하자, 동돌궐의 사발략(沙鉢略) 카간은 서쪽의 서돌궐, 남쪽의 수, 동쪽의 거란과 고리[高麗]와 대적해야 하는 사면초가가 된다. 이때 고리[高麗]도 돌궐을 쳐서 깨트린 기록이 나온다.

④ 사발략(沙鉢略, 이수바라) (카간이) 주반(周盤)에 이르렀을 때 그 부락에 살던 박고속홀라심(薄孤束紇羅尋)도 배반했다. 지난해 이계찰(利稽察)이 고리[高麗]·말갈에게 크게 깨지고 사비설(娑毗設)도 홀지 카간[紇支可汗]에게 죽는다.⁶²

이때 고리[高麗]는 동돌궐과 싸우는 적국이 된 것이다. 그 뒤 수나라는 9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589년 한나라 멸망 이후 거의 300년 동안 분열되었던 대륙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막북의 돌궐은 계속 위협이었다. 597년 이수바라 카간[沙鉢略可汗, 581~587]의 아들 염간(染干)이 돌리 카간[突利可汗]이라 일컫고 마음대로 수나라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대카간인 도감 카간[都藍可汗, 587~599]은 크게 화를 내고 수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수시로 변경을 쳐들어왔다.

이처럼 수의 북녘이 불안해지자 다음 해인 598년 동녘의 고리[高麗]도 영양왕이 말갈의 무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쳐들어간다. 이때는 돌궐과 이해가 맞아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리[高麗]는 막북의 돌궐과 수나라의 정세를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지만 결국 이런 수나라 침공은 1차 고·수전쟁의 원인이 된다. 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기회만 있으면 고리[高麗]를 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만 대군으로 고리[高麗]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홍수와 풍랑을 만나 군

62 『隋書』卷84, 列傳 第49, 突闕. 沙鉢略近趣周盤, 其部內薄孤束紇羅尋亦翻動. 往年利稽察大爲高麗, 靺鞨所破, 娑毗設又爲紇支可汗所殺.

사 10명 가운데 8~9명이 죽는 참담한 결과를 맞보았다.⁶³ 이 전쟁이 끝나자 고리[高麗]는 바로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화친을 맺었다. 598년 고리[高麗] 원정에 패한 수 양견은 다시 고리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돌궐 전선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돌궐은 고리[高麗]에게 힘을 축적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원군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에 고리[高麗]는 같은 입장에서 돌궐과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99년에 수나라가 동돌궐의 도감 카간을 치자, 도감 카간은 서돌궐의 달두 카간과 손을 잡고 수나라에 빌붙은 돌리 카간을 공격하여 가족들을 죽였다. 동돌궐은 수나라와 연합했던 서돌궐과 다시 연합하여 수나라가 내세운 돌리 카간을 쳤고, 돌리 카간은 장손 성(晟)과 함께 수나라로 도망갔다. 수 문제는 돌리 카간을 계민 카간[啓民可汗, 587~609]으로 삼고 의성공주(義成公主)를 아내로 주었다. 수 문제가 동돌궐을 이간질하여 둘로 나눈 것이다(결과적으로 서돌궐과 함께 3개의 돌궐 나라가 존재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 도감 카간이 부하에게 살해되자 달두 카간은 보가 카간[步迦可汗]이 되어 계민 카간과 대립했으나 수나라와 손잡은 계민 카간이 늘 우위에 있었다. 이처럼 돌궐·수는 물론 고리[高麗]와의 관계도 수시로 변하고 때에 따라 원군 또는 적군이 되는 정세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어느 한때의 정세를 가지고 고리와 돌궐의 관계를 파악하지 말고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1차 고·수전쟁이 일어난 2년 뒤인 영양왕 11년(600), 고리[高麗] 사신이 수(隋)에 갔을 때 다시 돌궐 사신과 함께한 기록이 나온다.⁶⁴ 이때 고리[高麗]는 공식적으로 돌궐과 다시 외교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만 해도 수나라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지만, 친수(親隋) 세력인 계민 카간이 완전히 돌궐을 지배하지 못하였다. 601년 계민 카간에게 속해 있던 곡설(斛薛) 같은 여러 부가 반란을 일으

63 『隋書』卷2, 「帝紀」第2, 高祖(下). (十八年 二月) 乙巳, 以漢王諒爲行軍元帥, 水陸三十萬伐高麗.

64 『隋書』卷2, 「帝紀」第2, 高祖(下). (二十年 春正月 辛酉朔) 突厥, 高麗, 契丹並遣使貢方物.

켜 문제가 양소(楊素)를 운주도행군원수(雲州道行軍元帥)로 임명하여 계민 카간과 함께 쳐들어갔다. 보섭 카간이 다시 계민 카간을 공격했으나 패배하여 토욕혼으로 달아났다.⁶⁵

3) 수 양제 때 발각된 고리[高麗]의 밀사(密使)에 대한 재평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민이 카간 자리에 오르자 이때쯤 고리[高麗]는 계민 카간과 교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돌궐과 고리[高麗]의 관계는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피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적군이 되기도 하고 같은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604년 수 문제의 둘째 양광(楊廣)은 아버지의 병이 중해지자 살해하고 제위에 올랐다. 수 양제의 고리[高麗]에 대한 압박은 양제가 즉위한 뒤 3년째인 607년에 시작된다. 양제가 돌궐에 갔을 때 마침 고리[高麗] 사신이 와 있었다. 그때 배구(裴矩)가 황제에게 올린 말을 보면 당시 수나라, 돌궐, 고리[高麗] 세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⑤ 황제를 모시고 색북(塞北)을 순행할 때 계민(카간)의 장막(帳幕)에 행차하였다. 이때 고리[高麗]가 사신을 보내 돌궐과 이미 통하고 있었는데(時高麗遣使先通於突厥) 계민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인도하여 황제를 알현하였다. (배)구(裴矩)가 아뢰었다. “고리[高麗] 땅은 본디 고죽국(孤竹國)입니다. 주나라 때 기자로 봉했고, 한나라 때 3군을 나누었으며, 진씨(晉氏)도 요동을 통일했습니다. 지금은 신하 노릇을 하지 않고 따로 이역(異域)이 되었으므로, 이전 황제께서는 괴로워하며 오랫동안 그들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양량(楊諒)이 못나고 어리석어 군대가 출동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하의 시대를 맞이하여 어찌 (고리를) 취하지 않아 예의 바른 땅이 오랑캐의 마을이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지금 그 (고리)

65 『隋書』卷84「列傳」第49, 北狄, 突厥. 仁壽元年, 代州總管韓洪爲虜所敗於恆安, 廢爲庶人. 詔楊素爲雲州道行軍元帥, 率啟民北征. 斛薛等諸姓初附於啟民, 至是而叛.

사신이 돌궐에 와서 계민이 나라를 합하여 교화에 따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황제의 원대하고 활달함을 두려워 항복하기 전에 미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위협하여 그들이 황제를 뵈러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⁶⁶

계민 카간 때인 607년에 고리[高麗]가 수나라 몰래 돌궐에 사신을 보냈다가 마침 그곳을 방문한 양제에게 들켜 문제가 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돌궐이나 서돌궐이 아니라 앞에서 본 제3의 돌궐이라는 것이다. 「배구전」에는 “이때 고리[高麗]가 사신을 보내 돌궐과 이미 통하고 있었다(時高麗遣使先通於突厥)”고 했는데 「돌궐열전」에서는 “이전에 고리[高麗]가 계민이 있는 곳에 사신을 보내 몰래 통하고 있었는데(先是, 高麗私通使啟民所)”⁶⁷라고 해서 ‘몰래 통했다[私通]’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북방사에서 고리[高麗]와 서녘의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계민 카간은 수나라가 동돌궐과 서돌궐의 공격을 받으면서 두 돌궐을 이간질하기 위해 키운 위성국이며, 공주까지 시집보낸 사위의 나라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찾아갈 정도로 가까운 정권으로 사실상 수나라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수나라와 큰 전쟁을 일으킨 고리[高麗]는 이런 돌궐과 교류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돌궐도 고리[高麗]와 몰래 사신을 주고받으며 통하고 있었다[私通]는 사실은 고리[高麗]의 사신이 수·당의 위성국이나 기미국가라 할지라도 수·당 몰래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다.

66 『隋書』卷67, 「列傳」第32, 襄矩, 從帝巡於塞北, 幸啟民帳, 時高麗遣使先通於突厥, 啟民不敢隱, 引之見帝, 矩因奏狀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於箕子, 漢世分爲三郡, 晉氏亦統遼東, 今乃不臣, 別爲外域, 故先帝疾焉, 欲征之久矣, 但以楊諒不肖, 師出無功, 當陛下之時, 安得不事, 使此冠帶之境, 仍爲蠻貊之鄉乎? 今其使者朝於突厥, 親見啟民, 合國從化, 必懼皇靈之遠暢, 慮後伏之先亡, 脅令入朝, 當可致也.”

67 『隋書』卷84, 列傳 第49, 突闕, 先是, 高麗私通使啟民所, 啟民推誠奉國, 不敢隱境外之交,

3. 고리[高麗]와 설연타(薛延陀)의 연합에 대한 재평가

1) 연개소문의 설연타 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

630년 동돌궐의 힐리 카간[頡利可汗]이 당나라에 잡혀 멸망하자 서돌궐에 속해 있던 설연타부의 이남(夷男, Inäl)이 7만 가(家)를 이끌고 동쪽 고국으로 돌아와 수도[牙帳]를 도위견산(都尉橐山=尉都橐山·烏德鍵山, 鬱督軍山, Ütükän yis) 북쪽의 독라하(獨邏河·獨洛水, Toyla, Tola, Tula) 남쪽에 세웠다. 그 영역은 동쪽은 실위(室韋), 서쪽은 알타이산맥[金山], 남은 돌궐, 북은 바이칼호수에 이르렀다. 20만 병력을 갖추고 남북 2부로 나누어 두 아들인 대도설(大度設, Tarduš Šad)과 돌리실(突利失, Töliš)에게 맡겼다. 이로써 현재의 막북초원은 동돌궐 대신 서돌궐에서 옮겨 온 철륵의 설연타부가 차지하게 되었다.⁶⁸

고리[高麗] 사신이 사마르칸드에 갈 수 있었는가를 논할 때 고리[高麗]가 설연타와 연합을 시도한 사실이 많이 논의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호섭과 이성제는 실제 성사되기도 않고 이득도 없었기 때문에 후대에 다시는 연합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썼고, 이재성은 연개소문이 바로 설연타와의 연합에서 힌트를 얻어 사마르칸드와의 연합을 기획했으리라고 보는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보였다. 이성제의 논리를 다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개소문이 후리를 내세워 설연타를 움직이려 했지만, 설연타의 진주 카간은 호응하지 않았다. 많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고구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진주 카간은 당에 적대하려 하지 않았다.
- ② 고구려의 외교가 북방 초원시대까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그 연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은 간과되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68 『新唐書』 권217(下), 列傳 第142(하), 回鶻(下), 薛延陀. 頡利可汗之滅, 塞隴空荒, 夷男率其部稍東, 保都尉橐山獨邏水之陰, 遠京師才三千里而羸, 東室韋, 西金山, 南突厥, 北瀚海, 蓋古匈奴地也. 勝兵二十萬, 以二子大度設, 突利失分將之, 號南, 北部.

③ 고구려가 설연타를 움직이려 했던 것은 성사의 가능성을 보고 시도된 전략이라
기보다는 위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 연개소문의 설연타 연합 시도 실현

(1) 설연타의 1차·2차 침공

이성제의 문제 제기는 설연타가 겁이 나서 서부변경을 침입할 수 없는 정황
을 연개소문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설연타의 카간 이
남(夷男)은 정말 당나라가 두려워 연개소문의 제안을 무시하였는가? 우선 부정
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인용한 『구당서』의 기록을 보자.

① [구당서] 그해 겨울 태종이 ① 요동의 여러 성을 쳐서 빼앗고 주필(駐蹕) 진을
깨트리니 ② 고리[高麗]의 말리지가 몰래 말갈에게 명하여 많은 이득을 제시해 이
남(夷男)을 호리려고 했으나 ③ 이남이 두려워 감히 군사를 동원하지 못하고 ④ 갑
자기 죽자 태종이 발상(發喪)을 했다.⁶⁹

이 문장에서 네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① 태종이 주필(駐蹕) 진을 깨트린다.
- ② 연개소문이 말갈을 시켜 설연타의 이남(夷男)에게 연합을 시도한다.
- ③ 그러나 설연타의 카간 이남(夷男)이 두려워 감히 군사를 동원하지 못한다.
연합이 실패한다.
- ④ 설연타의 카간 이남이 죽자 태종이 발상(發喪)을 한다.

69 『舊唐書』卷199(상) 列傳 第149(上). 其冬, 太宗拔遼東諸城, 破駐蹕陣, 而高麗
莫離支潛令靺鞨誑惑夷男, 啗以厚利, 夷男氣懾不敢動, 俄而夷男卒, 太宗爲之
舉哀.

여기서 ① 연개소문이 설연타와 연합을 시도한 것(②)이 안시성 주필진 전투 때(①)라는 사실과 ② 설연타의 군사 동원(③)이 설연타 이남이 죽은 때(④)라는 사실이 다음에 이 문제의 진실을 보는 열쇠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연구하며 검색해보니 아주 치밀하게 연구한 성과가 이미 존재하였다. 서영교는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8·12월조 『考異』의 「實錄」 자료와 관련하여-」라는 논문에서 당 태종이 고리[高麗]를 쳐들어온 정관 19년(645) 8월부터 12월까지의 짧은 기간을 아주 철저히 검증하여 당 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갑자기 철수한 것이 바로 설연타의 침공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⁷⁰

그러므로 글쓰이는 서영교 논문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논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서영교는 다음과 같은 『자치통감』의 기사부터 시작한다.

② 설연타(薛延陀) 다미 카간(多彌可汗)이 이미 즉위했고, 황상이 요동 출정(出征)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未還] 설연타가 군대를 이끌고 하남(河南)을 약탈했다.

③ 기미(己未, 645. 12. 25.) 다미 카간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 하주(夏州)를 노략질했다.⁷¹

『자치통감』의 기록에는 앞에서 본 두 당서의 기록과 달리 두 차례에 걸쳐 당나라 서북 전선을 침공한 것이다.

70 서영교, 2014, 6,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資治通鑑』 卷198, 貞觀 19년 8·12월조 『考異』의 「實錄」 자료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44.

71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 …… 薛延陀多彌可汗既立, 以上出征未還, 引兵寇河南, … 十二月多彌復發兵寇夏州,

② 1차 침공: 다미 카간이 즉위하고 태종이 아직 고리[高麗] 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③ 2차 침공: 645년 12월 25일,⁷² 다미 카간이 다시 하주(夏州)를 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침공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료 ②에 나온 힌트는 이남(夷男)의 아들 다미 카간이 즉위한 뒤이고, 태종이 아직 고리[高麗]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미 카간이 언제 즉위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2) 설연타의 왕 이남(夷男, 眞珠·毗伽可汗)의 죽음과 설연타의 1차 침입
이제부터 다미 카간이 언제 자리에 오르고 언제 1차 침입이 있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침입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① (645년) 9월 7일(壬申) 진주(眞珠, 夷男)가 죽었다. 황제가 그를 위해 발상(發喪)을 했다.

처음 진주가 첩의 큰아들[庶長子] 예망(曳莽)을 돌리실 카간(突利失可汗)으로 임명해 동녘에 살게 하여 여러 다른 종족을 다스리게 하고, 정실의 아들[嫡子] 발작(拔灼)을 엽호 카간(葉護可汗)으로 삼아 서녘에 살며 설연타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제가) 허락하여 모두 예에 따라 책봉하였다. 예망(曳莽)은 성질이 급하고 산만해 가벼이 군사를 움직였기 때문에 발작과 맞지 않았다.

② 진주(眞珠, 夷男)가 죽자 (두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만났다. 장례가 끝나자 예망은 발작이 일을 도모할까 봐 두려워 먼저 자기 부로 돌아왔는데, 발작이 쫓아가 죽이고 스스로 힐리구리설사다미 카간(頡利俱利薛沙+多彌可汗)이 되었다.⁷³

72 원문에는 날짜가 간지로 되어 있으나 정확히 날짜를 계산한 것은 서영교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73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 九月. 九月, 壬申, 眞珠卒, 上爲之發哀. 初, 眞珠請以其庶長子曳莽爲突利失可汗, 居東方, 統雜種; 嫡子拔灼爲肆葉護可汗, 居

②에서 이남이 죽은 때가 바로 다미 카간이 즉위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남이 죽은 때를 찾아내야 한다. 그 힌트는 바로 ①이다.

①에서 (645년) 9월 7일이라는 결정적인 날짜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은 진주(眞珠, 夷男)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가 그를 위해 발상(發喪)한 날이지 죽은 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남이 죽은 날은 9월 7일보다 훨씬 이전이어야 한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하주(夏州)에서 안시성까지 달려가는 날짜를 빼야 하므로 어렵잡아 8월 중순쯤에 죽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남이 죽고, 서북부 전선에서 그 사실을 알아 요동까지 달려가서 태종까지 알리는 시간을 22일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1차 침공은 8월 중순쯤 이남이 죽기 전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 당시 사정은 당 태종이 설연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배치한 돌궐군의 장수 질실사력(執失思力) 전에 자세하게 나온다.

질실사력(執失思力)은 돌궐 추장이다. ... ③ (당 태종이) 요동을 토벌할 때 (질실) 사력에게 금산도(金山道)에 머물며 설연타를 막도록 지시하였다. (설)연타 군사 10만이 하남을 쳐들어오자 (질실)사력이 약한 척하니, (사력의) 군대가 강해 보이지 않자 적은 하주(夏州) 깊이까지 이르렀다. 이에 진을 추슬러 치니 (적이) 패하여 (달아나므로) 600리를 따라 쫓아갔다. 비가 카간(毗伽可汗)의 죽음을 맞아 막북(漠北=犢北)에서 군사의 위용을 보여주고 돌아왔다.⁷⁴

여기서 비가 카간(毗伽可汗)은 이남(夷男, 眞珠·毗伽可汗)을 말한다. 이 기

西方, 統薛延陀; 詔許之, 皆以禮冊命, 曳莽性躁擾, 輕用兵, 與拔灼不協, 眞珠卒, 來會喪, 既葬, 曳莽恐拔灼圖己, 先選所部, 拔灼追襲殺之, 自立爲頡利俱利薛沙多彌可汗.

74 『新唐書』 卷123, 列傳第三十五 諸夷蕃將, 執失思力, 突厥酋長也, ... 及討遼東, 詔思力屯金山道, 領突厥扞薛延陀, 延陀兵十萬寇河南, 思力示羸, 不與確, 賊深入至夏州, 乃整陣擊敗之, 追躡六百里, 會毘伽可汗死, 耀兵犢北而歸.

록에서 이남이 죽기 전에 이미 1차 공격이 있었고, 1차 공격은 이남이 죽을 때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질실사력(執失思力)은 이때 이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태종에게 알렸을 것이다. 지금의 산시성 하주(夏州)에서 안시성까지의 거리는 그 당시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20일 이상 걸렸을 것이고 앞에서 보았듯이 8월 중순쯤으로 보았다.⁷⁵

그렇다면 설연타가 당나라 서북변경을 쳐들어간 것은 7월 중순쯤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① 645년 7월 중순쯤: 설연타가 당나라 서북변경을 1차 침입한다.
- ② 645년 8월 중순쯤: 이남(夷男, 眞珠·毗伽可汗)이 죽고, 그날 다미 카간 [多彌可汗]이 즉위하였다.
- ③ 645년 9월 7일(壬申), 안시성에서 진주(眞珠, 夷男)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가 그를 위해 발상(發喪)하였다.

75 서영교, 2014. 6. 앞의 글, 272~273쪽. 왕복한 1,200리이고, 약 500km 이상의 이동 거리를 상정할 수 있다. 설연타군이 남하한 夏州는 지금의 내몽골과 섬서의 경계 지역인 平夏, 陝西省 靖邊縣 북쪽 白城子로 榆林과 延安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서 설연타의 중심지 몽골리아에서 河南까지 행군 거리는 제외한 것이다. 기동성이 있다고 하지만 기병은 만사가 능통한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기병의 하루 정상 이동 거리는 26km였다고 한다. 쉬지 않고 꾸준히 행군할 수 있는 거리다. 그 이상 이동하면 다음 날 행군에 지장을 초래한다. 개인당 말을 세 마리 정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먹여야 하는 입이 늘어나 시간이 소요되고, 기동성 향상에 상대적인 도움은 될지라도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건강한 말을 골라 별동대를 편성하면 기동력은 빨라진다. 하지만 그것도 장기적인 작전은 쉽지 않다. 하루에 60km를 갈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 말은 3일 정도를 휴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말의 야간 행군은 쉽지 않다. 설연타가 본거지에서 河南을 침공하는 과정과 그곳에서 夏州까지의 진격, 그리고 질실사력의 반격을 받아 다시 하주에서 철수하여 하남을 거쳐 북상하는 전 과정은 30일 이상 소요되는 작전이었다고 생각된다. 500km 정도의 진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 시간을 계산하면 그러하다. 10만의 군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그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3) 연개소문의 연합제과의 설연타의 당나라 서북변경 침공

그렇다면 연개소문이 보낸 돌궐의 밀사는 언제 떠나 언제 설연타에 도착했을까?

앞에서 “태종이 요동의 여러 성을 쳐서 빼앗고 주필(駐蹕) 진을 깨트리니 고리[高麗]의 막리지가 몰래 말갈에게 명하여 많은 이득을 제시해 이남(夷男)을 호리려고 했다”는 기록에서 연개소문이 설연타에게 말갈을 통해 밀사를 보냈고, 그 시기가 주필진(駐蹕陣)이 함락된 뒤라는 것을 보았다. 각종 사서와 서영교가 정리한 날짜들을 모아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6월 23일: 안시성 밖 당의 주필진(駐蹕陣)에서 고연수 등 고구리군 15만 대파
이때 연개소문이 설연타에게 밀사를 보냈다.
- ② 7월 초순쯤: 연개소문 밀사 설연타 도착(서영교도 7월 초로 보았다).
- ③ 7월 중순쯤: 설연타의 1차 당의 서북 변경 침공. 하주(夏州)까지 진격
- ④ 8월 중순쯤: 침공 실패하고 후퇴하는 도중 이남 카간 죽음,⁷⁶ 다미 카간 이 즉위
- ⑤ 9월 7일: 당 태종이 이남 카간의 죽음을 알고 발상(發喪)
- ⑥ 9월 18일: 철수 결정
- ⑦ 10월 11일: 영주(營州) 도착⁷⁷

연개소문의 밀사가 7월 초순쯤 설연타에 도착하고, 7월 중순쯤 1차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연개소문이 밀사를 통해 보낸 정보가 설연타가 당의 서북변경을 침공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편 고리[高麗] 전선에서

76 『신당서』에서 이남이 허약해서 침공하지 못했다는 말은 맞다. 다만 그의 아들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였으나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 철군하였을 수도 있다. 또는 철군한 뒤 죽었을 수도 있다.

77 서영교, 2014. 6, 앞의 글, 257쪽 이하.

당나라 군대가 아직 1차 방어선도 뚫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던 설연타에게는 결정적인 첩보였다고 볼 수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고리[高麗]의 막리지가 몰래 말갈에게 명하여 많은 이득을 제시해 이남(夷男)을 호리려고 했다”고 했는데, 어찌 며칠 만에 10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두 나라 사이에 모두 목적과 시기가 맞아떨어졌고, 그 이전에도 서로 정보 교환이 있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연타의 침공이 고리[高麗] 침략을 중단하고 철군하는 원인이 되었을까? 서영교는 반드시 그렇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글쓴이는 그렇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리[高麗]에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까지의 수천 리지만 설연타가 쳐들어온 하주(陝西省 靖邊縣 紅墩界鎮 白城子村)까지는 불과 500km도 안 되기 때문이다. 옛날 북위를 비롯하여 북방민족들이 장안을 차지하여 중원을 통치했던 사실을 잘 아는 당 태종으로서는 위험한 서북변경을 그대로 두고 고리[高麗]에 매달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퇴각하여 장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치에서 고름이 나오지만, 수레에 실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서북 전장으로 간 사실이 증명한다.

- ① 10월 11일: 영주(營州) 도착. 당나라 땅으로 들어섰다.
- ② 12월 7일(辛酉): 황제가 종기가 나서 사람이 운반하는 수레(禦步輦)를 타고 갔다.
- ③ 12월 14일(戊申): 병주(并州)에 도착하니 태자가 황제의 종기를 빨았고, 수레를 부축하여 걸어서 며칠을 갔다.
- ④ 12월 25일(辛亥): 황제가 병이 나아 백관이 경하했고, 당군이 반격 준비를 하였다.
- ⑤ 12월 25일(辛亥): 설연타가 2차 침공하여 다음 해 2월 2일까지 전투를 독려하였다.

이처럼 설연타의 침공은 당군이 고리[高麗]에서 철수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뒤로도 설연타의 2차 침공으로 당이 총력을 다해 서북 전선에 전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고리[高麗]는 태종이 살아 있는 동안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⁷⁸

위와 같은 전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연개소문의 전략은 국제적인 정황에 대해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군의 침략을 맞아 아시아 대륙 전체의 세력 균형을 이용한 큰 전략을 세웠고, 치열한 첩보전⁷⁹은 아주 유효했으며, 실제로 당이 철수하도록 한 치밀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고리[高麗]·설연타의 연합작전이 성공한 사실은 그 뒤 당 고종이 다시 고리[高麗]를 칠 때 자연히 당의 서쪽에 있는 세력과 연합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4. 설연타의 멸망과 막북의 상황

1) 설연타의 멸망과 막북초원의 재편성

646년 초, 태종은 직접 지휘하여 설연타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 타격을 주고 태종이 3월이 되어서야 궁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8월 다시 태종은 도종(道宗)·아사나사이(阿史那社爾) 등을 보내 설연타를 쳤다.⁸⁰

78 『삼국사기』 신성(新城), 건안(建安), 주필(駐蹕)에서의 세 차례 큰 싸움에서 우리의 군대와 당나라의 병사 중에 사망자가 많았으며, 말도 많이 죽었다. 황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만일 위징(魏徵, 당나라 공신)이 있었다면 나에게 이번 원정을 못 하게 하였으리라”고 했으며, “8년(서기 649) 여름 4월, 당나라 태종이 죽었다. 태종의 유언으로 요동 정벌이 중지되었다”고 하였다. 당시의 국제전에서 태종의 전략적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79 치열한 첩보전은 안시성 싸움에서 연개소문의 첩자가 당군에 잡힌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資治通鑑』 卷198, 「唐紀」 14-太宗, 貞觀 19年, 八月, 甲辰, 候騎獲莫離支諜者高竹離, 反接詣軍門, 上召見, 解縛問曰: “何瘦之甚?” 對曰: “竅道間行, 不食數日矣.” 命賜之食, 謂曰: “爾爲諜, 宜速反命, 爲我寄語莫離支: 欲知軍中消息, 可遣人徑詣吾所, 何必間行辛苦也!” 竹離徒跣, 上賜屨而遣之.

설연타가 망하자 황제는 거필(契苾) 등을 항복시키기 위해 다시 도종을 시켜 아사나사이 등을 부로 나누어 토벌하도록 하고, 영주(靈州)까지 직접 가서 여러 장수를 지휘하였다. 이에 철륵 11부가 모두 천자에게 귀명(歸命)하여 (당에) 속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도종이 고비사막을 넘어 (설)연타의 나머지 무리인 아파달간(阿波達干)을 쳐서 1,000명 넘게 죽이고 200리를 쫓아갔다. (설)만철이 북쪽 길을 막고 회홀의 여러 추장에게 항복을 권하였다. 황제가 그 땅을 나누어 주현(州縣)으로 삼자 북쪽 사막이 마침내 평정되었다.⁸¹

646년 설연타가 멸망한 뒤 항복한 11부를 다음 해인 647년 기미지배 체제로 바꾼다.

- ① 회홀부(回紇部) → 한해도독부(瀚海都督府)
- ② 다람갈부(多覽葛部) → 연연도독부(燕然都督府)
- ③ 부골부(仆骨部) → 금미도독부(金微都督府)
- ④ 발야고부(拔野古部) → 유릉도독부(幽陵都督府)
- ⑤ 동라부(同羅部) → 구림도독부(龜林都督府)
- ⑥ 사결부(思結部) → 노산도독부(盧山都督府)

- ⑦ 혼(渾) → 고란주(皋蘭州), ⑧ 곡설(斛薛) → 고궐주(高闕州), ⑨ 아질(阿跌) → 계전주(雞田州), ⑩ 거필우(契苾羽) → 유계주(榆溪州), ⑪ 해결(奚結) → 계록주(雞鹿州), ⑫ 사결별부(思結別部) → 제림주(喈林州), ⑬ 백습(白誓) → 전안주(寘顔州)

80 『資治通鑑』卷198 貞觀 20年, 詔以江夏王道宗·左衛大將軍阿史那社爾爲瀚海安撫大使; 又遣右領衛大將軍執失思力將突厥兵, 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將涼州及胡兵, 代州都督薛萬徹·營州都督張儉各將所部兵, 分道並進, 以擊薛延陀.

81 『新唐書』列傳 第142(下) 回鶻(下). 帝以延陀滅, 欲並契苾等降之, 復遣道宗率阿史那社爾等分部窮討, 帝幸靈州, 節度諸將, 於是鐵勒十一部皆歸命天子, 請吏內屬. 道宗等徑磧擊延陀餘眾阿波達干, 斬首千餘級, 逐北二百裏, 萬徹抵北道, 諭降回紇諸酋. … 帝剖其地爲州縣, 北荒遂平.

- ⑭ 서북결골부(西北結骨部) → 견곤부(堅昆府), ⑮ 북골리간(北骨利幹) → 현궐주(玄闕州), ⑯ 동북구라발(東北俱羅勃) → 촉룡주(燭龍州)

막북의 초원지대가 유연 → 돌궐 → 설연타로 세력이 변하여 647년에 이르러 6도독 7주로 나누어 당이 기미지배를 시작한 것이다.

(각 부의) 우두머리[酋領]를 도독(都督)·자사(刺史)·장사(長史)·사마(司馬)로 삼고, 바로 옛날 선우대(單于臺)에 연연도호부(燕然都護府)를 두어 통제하자 6도독과 7주가 모두 그에 딸리게 되었으며, 이소립(李素立)을 연호 도호로 삼았다.⁸²

2) 당의 기미지배와 막북 초원길

일반인은 물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설연타가 멸망하고 당이 기미도독부를 설치한 막북 초원길은 당과 싸우고 있는 고리[高麗]의 사절이 통과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당의 기미지배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었는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북초원의 6도독과 7주를 다스리는 연연도호부(燕然都護府)는 선우대(單于臺)에 있다고 하였다. 고비사막을 가운데 두고 남쪽을 막남(漠南), 사막 북쪽 초원지대를 막북(漠北)⁸³이라고 한다. 당은 연연도호부를 막남에 설치하므로 해서 막북에 대한 실질적 지배는 한계가 있었다. 6도독과 7주를 발표하고 이런 조서를 보면 알 수 있다.

82 『新唐書』列傳 第142(下) 回鶻(下), 明年復入朝, 乃以回紇部爲瀚海, 多覽葛部爲燕然, 仆骨部爲金微, 拔野古部爲幽陵, 同羅部爲龜林, 思結部爲盧山, 皆號都督府; 以渾爲皋蘭州, 斛薛爲高闕州, 阿跌爲雞田州, 契苾羽爲榆溪州, 奚結爲雞鹿州, 思結別部爲嚙林州, 白靄爲賓顏州; 其西北結骨部爲堅昆府, 北骨利幹爲玄闕州, 東北俱羅勃爲燭龍州; 皆以酋領爲都督, 刺史, 長史, 司馬, 即故單於台置燕然都護府統之, 六都督, 七州皆隸屬, 以李素立爲燕然都護.

83 몽골초원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막북(漠北)이라고 쓴 것은 몽골은 12세기 이후에 나온 말이고 막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쓰던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고비(사막) 남쪽 벽제천(鷺鶻泉)의 남쪽 68곳에 우정(郵亭=역참)을 두고 말과 젖, 그리고 고기 같은 것을 갖춰 사신을 접대하고 (회홀에게) 해마다 담비가죽(貂皮)을 부(賦)로 내게 하였다.⁸⁴

일정한 역참을 중심으로 당은 사신을 대접하고, 철록에서는 해마다 담비가죽(貂皮)을 부세로 내는 정도의 관계였다. 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세력이 커진 한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합쳐 돌궐이나 설연타처럼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646년 당이 설연타를 칠 때, 그 기회를 이용해 회홀의 우두머리 토미도(吐迷度)가 설연타의 다미 카간을 치고 설연타의 영토를 차지하자 막북에 도독부를 세울 때 그 세력을 줄여버린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토미도를 회화(懷化)대장군 한해(瀚海)도독으로 삼았다. 그러나 (토미도가) 마음대로 카간[可汗]⁸⁵이라고 칭하고 돌궐과 같은 관계를 설치하자 황제가 다시 조치를 내려 일부 부락을 다른 도독으로 옮기는 조치를 내렸다.⁸⁶

또한 648년 토미도의 조카가 토미도를 죽였을 때도 연연도호부에서 반란을 꾀한 오홀(烏訖)을 숙여 벤 뒤, 바로 토미도 아들들이 우두머리 자리를 이어받게 한다. 당이 이렇게 조치한 사실을 『신당서』에서는 “황제가 (이 사건 때문에) 여러 부족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해서(帝恐諸部攜解)”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두머리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든 기미도독부와 기미주는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치를 허용하고, 당으로서는 그들이 연합하여 당을 쳐들어오지 않게 조정

84 『新唐書』列傳 第142(下) 回鶻(下). 乃詔磧南鷺鶻泉之陽置過郵六十八所, 具群馬, 湏, 肉待使客, 歲內貂皮爲賦.

85 카간(可汗): 고대 돌궐어의 ‘카간(qaghan)’을 한자로 옮긴 것이 가한(可汗)이다. 흉노가 왕을 선우(單于)라고 했는데, 선우의 권위가 약화되자 유연과 돌궐이 카간이라는 칭호를 쓴 것이다.

86 『新唐書』列傳 第142(下) 回鶻(下). 乃拜吐迷度爲懷化大將軍, 瀚海都督; 然私自號可汗, 署官吏, 壹似突厥, 有外宰相六, 內宰相三, 又有都督, 將軍, 司馬之號, 帝更詔時健俟斤它部爲祁連州, 隸靈州都督, 白靄它部爲居延州.

하는 정도의 지배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초원의 생활양식이 한곳에 정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이 자신의 힘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하므로 각 부의 우두머리에게 이익을 주어 움직이게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막강한 세력으로 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군사력이 약한 각 부족 세력들은 당이 대군을 일으켜 칠 때는 모두 예속을 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힘을 기르면 당의 변경을 약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막북의 각 세력은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황제에게 귀부하면 또 일정한 지역에 살게 하는 소극적인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도독을 설치한 다음 해인 648년에 아직도 남은 설연타를 추격해야 했고(遣左領軍大將軍執失思力 出金山道 擊薛延陀餘寇), 3년 뒤에는 남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後三年, 餘部叛, 以右領軍大將軍執失思力討平之) 등, 당이 막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할 수 없으며, 막북의 모든 부족이 다 당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의 사절이 막북의 초원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리[高麗]는 초원길에 익숙한 관리를 비롯하여 초원에서 살던 유연의 집단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 데다 이 지역에 이전에 연합을 맺어 당을 쳤던 설연타가 다시 돌아와 살게 되면서 초원길에는 가까운 부족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 ① 영희 연간(651~655)에 설연부에서 망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자 고종이 계탄주(峽彈州)를 설치해 편안히 살게 했다.⁸⁷
- ② 고종 영희 3년(652) 6월, 설연타의 남은 무리를 보내 기련주(祁連州)를 설치해 살게 했다.⁸⁸

87 『新唐書』列傳 第142(下) 回鶻(下). 至永徽時, 延陀部亡散者悉還, 高宗爲置峽彈州處安之.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고리[高麗] 스스로 초원길을 오갈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북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당나라 몰래 밀사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하여 초원길을 갔을 것이기 때문에 성공확률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이재성의 논문을 검토한 바와 같이 660년 막북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난 뒤, 이를 평정한 663년 치소를 막북의 회홀부로 옮겨 한해도 호부(瀚海都護府)라고 한 것을 보아도 647년 세운 도호부가 660년까지 13년 동안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고리[高麗]와 서돌궐(西突厥)의 연합 가능성 검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리[高麗]는 필요에 따라 당의 서쪽 전선인 강국·서돌궐과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당과 대립 관계에 있던 고리[高麗]로서는 막북의 여러 세력의 현황과 서돌궐의 형세를 파악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밀사를 파견했다고 본다. 먼저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서돌궐의 성격을 보고, 이어서 당시 국제적인 상황에서 고리[高麗]가 서돌궐에 밀사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1.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마르쿠스 모데의 『7세기 소그드 사마르칸드의 궁정 예술-몇 가지 오래된 문제점에 대한 소견』⁸⁹에서 아프라시압 벽화는 사마르칸드왕 바르후만과 함께 서돌

88 『資治通鑑』卷199, 永徽 3年, 六月, 發薛延陀餘衆渡河, 置祁連州以處之.

89 Markus Mode, 2002, *Court art of Sogdian Samarqand in the 7th century AD-Some remarks to an old problem-*, a web publication, <http://www.orientarch.uni-halle.de/ca/afra/index.htm>

꺠의 카간도 함께 그려졌으나 윗부분이 부서져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처음 『아프라시아 벽화』를 발표한 알바옴이나 그 뒤 많은 연구에 비해 아주 독특한 연구성과인데, 글쓴이가 끌어낸 결론을 잘 뒷받침해주는 논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로 한다. 마르쿠스 모데가 벽화의 주인공에 서둘꺠 카간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1) 벽화에 나타난 서둘꺠 카간의 의장(儀仗) 깃발과 서둘꺠 관리들

모데는 [그림 1]의 서벽 벽화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 ㉔㉕(高麗人)의 뒤에 있는 설치물에서 서둘꺠이라는 첫째 증거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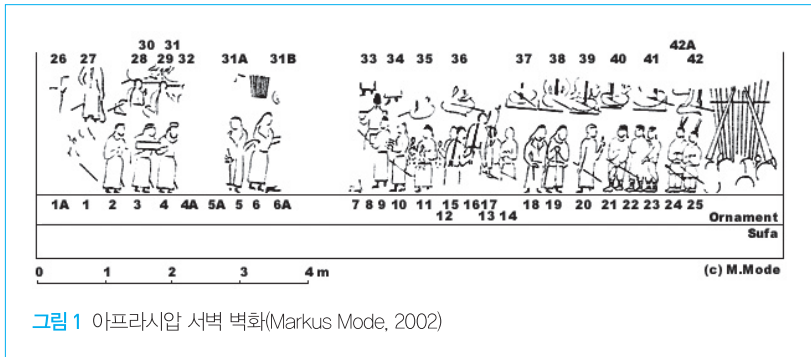


그림 1 아프라시아 서벽 벽화(Markus Mode, 2002)

하나의 중심 장대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5개의 장대 세트가 있다. 모든 장대를 가로로 댄 하나의 장대로 묶여 있고, 가운데 있는 긴 장대에는 2개의 깃발이 매달려 있으며, 북과 북채가 막대기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대초원 사람에게 군사 및 국가 리더십의 상징인 “깃발과 북”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⁹⁰

90 알바옴도 1975년 『아프라시아 벽화』에서 이미 이 설비가 돌꺠와 몽골 같은 유목민족의 깃발이라고 보았다.

모데는 이 깃발과 북이 서돌궐의 카간을 상징하는 의장(儀仗) 깃발이라고 주장하였다.

5+1+5의 깃발이란 표현이 서돌궐 최고의 국가적 상징,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 지도자의 상징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다섯 종족씩으로 구성된 두 그룹은 On Oq 연맹을 이루었다. 서돌궐인으로 알려진 10개의 종족은 5개의 돌루(Dulu)족과 5개의 누시비(Nushibi)족이다. 그들은 모두 압구 카간(Yabghu-Qaghan)의 통치권 아래 뭉친 것인데, 그의 상징은 깃발들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11번째 장대인 것이다.⁹¹



그림 2 돌궐의 의장(儀仗) 깃발

91 Markus Mode, 2002, 앞의 책.

11개의 장대를 서돌궐의 카간의 ‘1깃발 + 10부족의 깃발(10개의 장대)’로 해석한 것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다. 모데는 이런 주장을 『구당서』의 기록에서 찾았다.⁹²

이 의장 깃발 장대는 10성부락(十姓部落)과 정확한 배열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반드시 서돌궐 카간의 통치를 상징하는 의장 깃발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의장 깃발은 서돌궐 카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벽화의 연대 하한은 657년 이전이라고 주장한다. 657년 서돌궐은 멸망하고, 마지막 카간 Helu[阿史那 賀魯, 沙鉢羅可汗, 651~657]는 우스트루사나(Ustrûšana)에서 당과 위구르 군에게 잡혀 당(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⁹³ (Mode, 1993, p. 32, translated).

둘째 증거는 서벽 벽화에 나타나는 궁정 안내관리들이 모두 돌궐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림 1]의 위층에 나오는 인물 ㉘~㉚, ㉜~㉞의 길게 땅은 머리와 옷이 돌궐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초원에 많이 남아 있는 돌궐 사람에서 그 답을 찾았다. 30명이나 되는 이 인물들이 돌궐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림 3]에 나오는 인물은 서벽의 맨 왼쪽 인물 ㉑~㉓를 확대한 것이다. 모데는 뒤돌아 앉아 있는 인물의 땅은 머리와 아래 왼쪽에 있는 긴 일직선의 칼에 주목하였다. 잇시쿨(Issyk-Köl) 호수 북쪽 기슭 코룸디(Korumdy)에서 발견된 고대 돌궐의 돌조각상이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나온 인물과 같은 종족의 모습이라고 증명하였다.⁹⁴ 특히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끝은 나누어 땅을 들었다.

92 『舊唐書』卷194(下), 列傳 第144(下), 突厥(下). 沙鉢羅啞利失可汗以貞觀九年上表請婚, 獻馬五百疋, 朝廷唯厚加撫慰, 未許其婚. 俄而其國分爲十部, 每部令一人統之, 號爲十設. 每設賜以一箭, 故稱十箭焉. 又分十箭爲左右廂, 一廂各置五箭, 其左廂號五咄六部落, 置五大啜, 一啜管一箭; 其右廂號爲五弩失畢, 置五大俟斤, 一俟斤管一箭, 都號爲十箭. 其後或稱一箭爲一部落, 大箭頭爲大首領, 五咄六部落居於碎葉已東, 五弩失畢部落居於碎葉已西, 自是都號爲十姓部落.

93 Markus Mode, 1993, 앞의 글, p. 32, trans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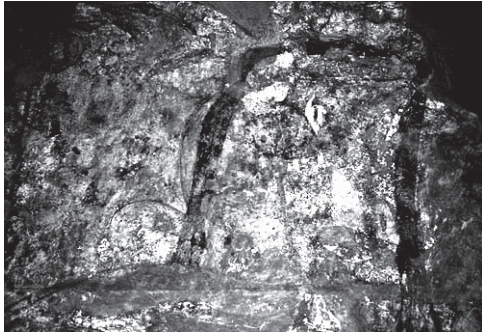


그림 3 서벽의 맨 왼쪽 인물 ②~④



그림 4 서벽의 맨 왼쪽 인물 ②~④의 베낀 그림



그림 5 고대 돌궐의 조각상

- 94 <원문 주> Left: Ancient Turk sculpture, from Korumdy, Northeastern shore of Issyk-Köl [after Ja. A. Šer, Kamennye izvajanija Semireč'ja, Moskva, Leningrad 1966, tabl. VIII]. This is the same ethnic type as on the Afrasiab paintings.

벽화에 나온 돌궐 사람들은 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사절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모데는 사절단을 맞이하는 관리들이 돌궐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절단들은 서돌궐의 압구 카간[葉護可汗, Yabghu-Qaghan]을 찾아온 것이고, 없어진 벽화 상단 어딘가에 카간의 초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앞에서 본 11개의 의장 깃발은 바로 서돌궐 카간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부서진 벽화 윗부분의 복원 - 서돌궐 카간의 초상도 있었다

모데는 서벽 벽화에 서돌궐 카간의 상징이었던 의장 깃발 말고 다른 두 번째 의장 깃발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같은 서벽의 남쪽 가운데서 약간 더 높은 곳에 있는데, 첫 번째 것보다 작은 9개의 장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9개의 장대(깃발)의 수는 소그드의 소무구성(昭武九姓)을 나타내고, 사마르칸드의 통치자 바르후만(Varxuman)의 의장 깃발이라고 하였다.

[그림 6]에는 서벽의 ⑤⑥ 인물상 바로 머리 위에 9개의 장대가 뚜렷하게 보



그림 6 ⑤⑥ 위의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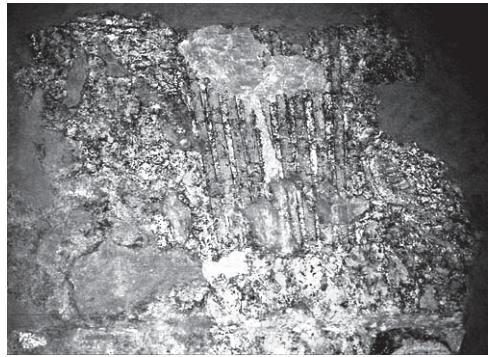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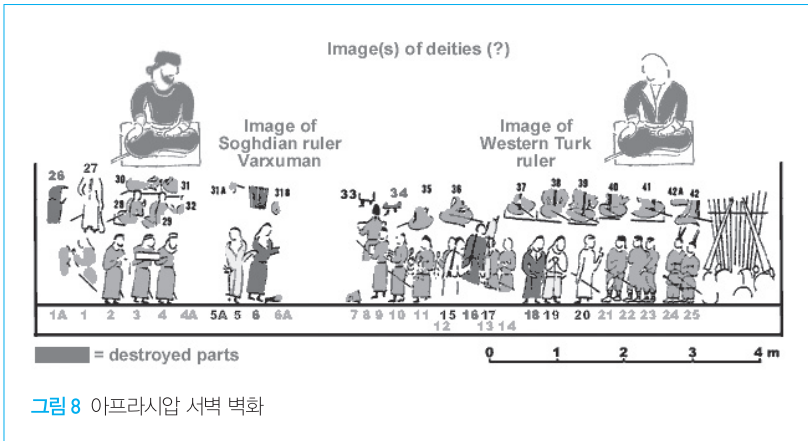


그림 7 바르후만의 의장 깃발 장대

이다. 앞에서 본 11개짜리와 비슷하다. [그림 7]에서 의장 깃발을 확대해보면 8성(姓)에 8개의 장대가 있고, 한가운데 있는 9번째는 사마르칸드왕 바르후만의 깃발이라고 본다(8+1=9). 따라서 바르후만왕의 초상이 멀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본다. 모데는 『신당서』의 기록에서 그 답을 찾았다.⁹⁵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모데는 [그림 8]을 복원하였다. 공식 국가 상징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 주인공이 참석해야 하므로, 서벽의 그림은 서둘궐 통치자와 사마르칸드 통치자인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그렸는데, 벽화의 윗부분은 파괴되면서 두 통치자의 초상이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



95 <원문 주> The Tang shu reports on Sogd: “Les principautés s’en sont détachées des rameaux s’appellent Ngan (Boukhârâ), Ts’ao (Kaboûdhan), Che (Taschkend), Mi (Maimurgh), Ho (Koushânidja), Ho-siun (Khâarizm), Meou-ti, Che (Kesch). On les nomme communément les neuf familles.” [Transl. Chavannes]. <옮긴이 주> 『新唐書』列傳 第146(下) 西域(下) 康國. 康者, 一曰薩末鞑, 亦曰颯秣建, 元魏所謂悉斤者. 其南距史百五十裏, 西北距西曹百餘裏, 東南屬米百裏, 北中曹五十裏. 在那密水南, 大城三十, 小堡三百. 君姓溫, 本月氏人. 始居祁連北昭武城, 爲突厥所破, 稍南依蔥嶺, 即有其地. 枝庶分王, 曰安, 曰曹, 曰石, 曰米, 曰何, 曰火尋, 曰戊地, 曰史, 世謂“九姓”, 皆氏昭武.

모데는 “벽화 전면의 구성이 바르후만의 궁정이 아니라 서돌궐의 궁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사절단들은 돌궐의 손님인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있다.

3) 벽화 주제의 연대는 640년대 후반~651년

다음은 서돌궐 카간이 누구인가에 대해 언급한다. 이것은 바로 이 벽화 내용의 연대를 연역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657년 서돌궐제국이 마지막으로 무너지기 전 이 동맹의 주요 지도자 두 명이 같은 무대에 있었다. 641년쯤, 친당(親唐)이고 당이 내세운 을비사궐 카간[乙毘射匱可汗, Irbis Shegui Qaghan, 641~651]⁹⁶이 다스렸다. 651년 사발라 카간[沙鉢羅可汗, 651년~657]이 그를 죽이고 카간이 되어 당나라의 맹렬한 적이 되었고, 마침내 당나라에게 권력과 카간 정통을 빼앗겨버렸다.

아프라시아 벽화의 서벽에는 당나라의 대규모 조공 사신 행렬이 통치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서돌궐과 ‘천자(天子)’와의 기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7세기 중반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는 친당(親唐)인 을비사궐 카간만 사마르칸드 바르후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아프리카시아 벽화는 640년대 후반에서 (을비사궐 카간이 죽은) 651년 사이의 언제인가 만들어졌다.

모데는 을비사궐 카간과 사발라 카간 가운데 을비사궐 카간 때의 일로 보았다. 그것은 벽화에 당나라 인물이 나타났고, 을비사궐 카간은 친당인 반면 사발라 카간의 당을 배반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고리[高麗] 사신이

96 모데는 Yabghu Shekui 카간이라고 썼다. Yabghu Shekui를 한자로 옮기면 葉護射匱이고, 『신당서』·『구당서』에서 651년에 죽은 서돌궐의 11대 카간은 을비사궐 카간[乙毗射匱可汗]인데, 유럽 학자들은 Irbis Shegui Qaghan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서』를 비롯한 한문 사서를 바탕으로 을비사궐 카간이라고 옮겼다.

언제 서돌궐에 갔는지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2. 641~649년 사이 고리[高麗]의 서돌궐에 대한 사절 파견 가능성 검토

앞에서 보았듯이 모데는 아프라시아 벽화와 관련된 서돌궐의 카간으로 다음 두 카간을 들고 있다.

- ① 11대 카간: 을비사궐 카간
- ② 12대 카간: 사발라 카간

그리고 결론에서는 벽화에 당나라 인물이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① 640년대 후반부터 을비사궐 카간이 죽은 651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고리[高麗]의 사절은 두 카간 가운데 어느 카간 때 서돌궐·사마르칸드를 방문하였는가? 글쓴이는 ② 12대 사발라 카간 때라고 보고 고리[高麗]·당·서돌궐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보려 한다. 이 문제는 고리[高麗] 사신이 서돌궐에 간 시기를 밝힘과 동시에 아프라시아 벽화 주제의 시대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연도별로 자세히 보려고 한다.

모데가 아프라시아 벽화의 배경이 640년대 후반~651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651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3국의 정국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과연 을비사궐 카간 때 고리[高麗] 사절이 돌궐에 갈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1) 을비사궐 카간의 친당 정책

서돌궐이 동서로 나뉘어 싸우다가 서쪽의 을비돌궐 카간[乙毗咄陸可汗, Irbis Dulu Qaghan, 638~642, 欲谷設, Yukuk Shad]이 세력을 키워 당 태종의 말을 듣지 않고 동쪽의 을비사발라엽호 카간[乙毗沙鉢羅葉護可汗, Irbis Ishbara Yabgu Qaghan, 640~641]을 죽이고 서돌궐을 다시 통일한다. 을비돌궐 카간은

여세를 몰아 토화라를 빼앗고 이주(伊州)를 공격하자 당나라 안서도호와 전쟁이 일어난다. 돌육 카간은 당나라에서 보낸 사신 원효우(元孝友)를 잡아두고 돌려 보내지 않았으며, 이때 사마르칸드[康國]를 점령해 차지한다. 사마르칸드가 을비돌육 카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리품 분배에 불만을 품은 장수 이숙철과 호록거(胡祿居, Qulugu)가 반란을 일으켜 전투에서 패한 돌육 카간은 백수호성(白水胡城, 지금의 Shymkent 동남)에 머물렀다.

노실필(弩失畢, Nushibi)족도 을비돌육 카간을 반대해 당 태종 정관 15년(641), 당 태종에게 새로운 카간을 세워달라고 청원한다. 이때 당 태종이 온무은(溫無隱)을 보내 죽은 을비사발라엽호 카간의 아들 을비사궤 카간을 새 카간으로 임명한다.⁹⁷ 이렇게 해서 서돌궐의 11번째 카간이고 당나라가 도와서 세운 친당 정권이 등장한다. 을비사궤 카간은 바로 잡혀 있던 당나라 사신을 장안으로 돌려보내고, 노실필부의 군사를 시켜 백수호성에 있던 을비돌육 카간을 친다. 이때 을비돌육 카간은 노실필을 물리치지만, 백성들이 따르지 않아 토화라(吐火羅)로 망명한다.

마르크스 모데는 바로 이 시기에 당나라 사절이 사마르칸드에 있던 을비사궤 카간을 찾아간 그림이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모데가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벽화에 당나라 사절이 나오는데,⁹⁸ 친당 정권일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글쓴이는 바로 이 시기가 친당 정권이기 때문에 고리[高麗] 사절은 그 그림에 나타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사발라 카간 때를 자세히 검토한다.

97 『新唐書』列傳 第140(下) 突厥(下). 弩失畢不欲咄陸爲可汗, 遣使者至闕下, 請所立. 帝遣通事舍人溫無隱持璽詔與國大臣擇突厥可汗子孫賢者授之, 乃立乙屈利失乙毗可汗之子, 是爲乙毗射匱可汗.

98 그렇기 때문에 만일 벽화에 나오는 인물이 당의 사절이 아니라면 모데의 가설이 무너진다.

2) 645~651년의 고리[高麗]의 서돌궐에 대한 사행 가능성 검토

앞에서 645년에 당 태종이 고리[高麗]를 침략하고 안시성 싸움에 불리하게 된 연개소문이 설연타와 연합에 성공함으로써 태종이 고리[高麗] 전선을 철수하여 연말에 서북전선의 설연타를 치러 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때까지는 고리[高麗]가 서돌궐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어서 646년부터 당 태종이 죽은 649년까지의 정세를 찬찬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태종이 죽은 뒤에는 서돌궐이 친당 세력에서 반당 세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1) 보장왕 5년(646): 1차 고·당전쟁 다음 해의 국제정세

646년 『자치통감』에 나온 고리[高麗]와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사가 이어서 나온다. ① 고리[高麗]의 연개소문이 대대적인 당군의 침략 예봉을 꺾기 위해 사신외교를 하는 장면, ② 태종이 도와 친당(親唐) 정권으로 세운 서돌궐의 을비사궐 카간이 당에 청혼을 한 기사, ③ 고리[高麗]와 연합하여 당의 서북 전선을 쳤던 설연타가 멸망하는 내용이다.⁹⁹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서 고리[高麗]가 서돌궐에 사절을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대적인 고리[高麗] 침략전투에서 이기지 못한 당 태종은 656년 고리[高麗]에서 보낸 사절과 공물을 거절하고 657년 다시 고리[高麗]를 치기 위해 조정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¹⁰⁰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하기 어려우니

99 『資治通鑑』卷198 貞觀 20年, ① 五月, 甲寅, 高麗王藏及莫離支蓋金遣使謝罪, 並獻二美女, 上還之. 金, 即蘇文也. ② 六月, 丁卯, 西突闐乙昆射匱可汗遣使入貢, 且請婚; 上許之, 且使割龜茲·於闐·疏勒·硃俱波·葱嶺五國以爲聘禮. ③ (六月, 乙亥) 李世勣至鬱督軍山, 其酋長梯眞達官帥衆來降, 薛延陀咄摩支南奔荒谷, 世勣遣通事舍人蕭嗣業往招慰, 咄摩支詣嗣業降, 其部落猶持兩端, 世勣縱兵追擊, 前後斬五千餘級, 虜男女三萬餘人.

100 『資治通鑑』卷198, 唐紀, 貞觀 21年. 上將復伐高麗, 朝議以爲: “高麗依山爲城, 攻之不可猝拔, 前大駕親征, 國人不得耕種, 所克之城, 悉收其穀, 繼以旱災, 民太半乏食. 今若數遣偏師, 更迭擾其疆場, 使彼疲於奔命, 釋耒入堡, 數年之間, 千里蕭條, 則人心自離, 鴨綠之北, 可不戰而取矣.” 『삼국사기』卷22,

대규모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말고 작은 군대로 자주 쳐서 지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 뒤 태종은 실제로 그 작전에 따라 치고 빠지는 전략을 이어간다. 이하 『자치통감』과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간단히 간추려본다.

(2) 보장왕 6년(647): 2차 고·당전쟁

① 여름 5월: 이세적(李世勣)·손이랑(孫貳朗)이 영주도독부(營州都督府)의 병사와 함께 신성에서 진격하게 하였다. 이세적의 군대가 남소성(南蘇城) 같은 몇 개의 성을 지나갔는데, 그 성이 모두 성곽을 등지고 싸웠다. 이세적이 이들을 공격하여 물리치고 외곽 성들을 불사르고 돌아갔다.

② 7월: 우진달(牛進達)·이해안(李海岸)이 1만여 병사를 이끌고 누선(樓船)을 타고 내주(萊州)로부터 해로로 진격하여 석성(石城)과 적리성(積利城)에 쳐들어왔다.

③ 12월: 태자이며 막리지인 임무(任武)가 당에 가서 사죄하니 태종이 받아들였다.

(3) 보장왕 7년(648): 3차 고·당전쟁과 서돌궐의 정황

① 봄 정월: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설만철(薛萬徹)에게 3만 병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공격하였다.

② 4월: 고신감(古神感)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와 역산(易山, 『신당서』 葛山)에서 싸웠다.

③ 6월: 다음 해에 30만 대군으로 고리[高麗]를 치기 위해 1년 군량을 싣고

「高句麗本紀」 11, 寶藏王 6년에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六年, 太宗將復行師 朝議以爲, 高句麗依山爲城 不可猝拔. …”라고 해서 앞부분만 약간 바꾸고 그다음은 모두 똑같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자치통감』에 고리[高麗]라고 한 것을 김부식이 고구리[高句麗]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고구리[高句麗]는 413년 장수왕이 즉위하면서 나라 이름을 고리[高麗]로 바꾸었기 때문에 『자치통감』에서 ‘고리[高麗]’라고 쓴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치통감』의 원문을 인용한다.

갈 배를 만들게 하였다.

④ 9월: 설만철이 압록강을 통해 쳐들어와 박작성(泊灼城)을 공격하여 성주 소부손(所夫孫)이 성을 지키고, 고문(高文)이 오골성(烏骨城)·안지성(安地城) 군사 등 여러 성의 군사 3만으로 구원했으나 패하였다.

이 해에 서돌궐에 관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 있다.

이전에 서돌궐의 을비돌육 카간이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를 엽호(葉護)¹⁰¹로 삼아 다라스수(多邏斯水)에 살면서 서주(西州) 북쪽 1,500리에 있는 처월(處月)·처밀(處密)·시소(始蘇)·가라녹(歌邏祿)·실필(失畢) 같은 5성(五姓)의 무리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을비돌육이 토화라로 도망가고, 을비사궐 카간이 군대를 보내 뒤쫓아와 부락이 망해 흩어지자 을해(乙亥)에 (아사나)하로(賀魯)가 나머지 무리 수천 장(帳)을 이끌고 (당나라에) 내속(內屬)하였다. 조서를 내려 정주(庭州) 막하성(莫賀城)에 살게 하고 좌효위장군 벼슬을 내렸다. (아사나)하로는 당나라 군사가 구자(龜茲)를 토벌한다는 것을 듣고 향도가 될 것을 청하며 수십 기를 이끌고 입조하였다. 황상은 비구도행군총관(昆丘道行軍總管)으로 삼고 도탑계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어 파견하였다.¹⁰²

서돌궐의 서녘을 맡았던 을비돌육 카간의 엽호인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가 당나라에 항복하여 들어오면서 당은 동부의 을비사궐 카간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당은 늘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 다른 세력을 다투게 만드

101 엽호(葉護): 고대 돌궐과 회홀의 벼슬 이름이다. 카간[可汗] 다음 가는 세력으로 카간의 자제나 종족 가운데 세력 있는 사람이 맡으며 세습한다.

102 『資治通鑑』卷199, 唐紀, 貞觀 22年. 初, 西突厥乙毘咄陸可汗以阿史那賀魯爲葉護, 居多邏斯水, 在西州北千五百里, 統處月·處密·始蘇·歌邏祿·失畢五姓之衆. 乙毘咄陸奔吐火羅, 乙毘射匱可汗遣兵迫逐之, 部落亡散. 乙亥, 賀魯帥其餘衆數千帳內屬, 詔處之於庭州莫賀城, 拜左驍衛將軍. 賀魯聞唐兵討龜茲, 請爲鄉導, 仍從數十騎入朝, 上以爲昆丘道行軍總管, 厚宴賜而遣之.

는 정책을 썼다.¹⁰³ 따라서 648년까지 고리[高麗]는 당이 침략 때문에 당 건너편 세력과 연합해야 할 필요는 컸지만 서돌궐과의 연합이나 교류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조공사를 기준으로 한 모데의 주장과 고리[高麗] 사절을 위주로 보는 글쓴이와 크게 충돌되는 부분이다.

3. 651~654년 사이 고리[高麗]의 서돌궐에 대한 사절 파견 가능성 검토

1) 649년, 당 태종의 죽음과 서돌궐의 반란

649년 태종이 죽으면서 중·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온다. 그때까지 당나라는 서쪽은 친당 정권을 세워 안심하고 북녘의 설연타와 동녘의 고리[高麗]에 대한 침략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북녘의 설연타를 굴복시키고 기미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태종이 죽으면서 서녘의 서돌궐이 떨어져 나가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는 서녘의 서돌궐과 동녘의 고리[高麗]라는 동서 세력과 맞닥뜨리는 형세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본 648년 당나라에 망명 와서 벼슬하고 있던 서돌궐의 아사나하로가 고종 영휘(永徽) 2년(651) 옛날 고향인 서돌궐로 도망가 카간이 되어 당나라와 적국이 된 것이다.

(651년 1월) 좌요위장군(左驍衛將軍)·요지도독(瑤池都督)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가 흩어진 무리를 모아 군사력이 점차 커졌는데, 태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서주(西州)와 정주(庭州)를 쳐서 얻으려고 꾀하였다. 정주자사 낙홍의(駱弘義)가 그 음모를 알고 표를 올리자, 고종이 통사사인(通事舍人) 교보명(橋寶明)을 급히 보내 위무하였다. (교)보명이 (아사나)하로에게 만아들(아사나)질운(咄運)이 궁정에 들어와 숙위(宿衛)하도록 하고, 우요위중랑장 벼슬을 주어 돌려보

103 여기서 을비사궐 카간이 서돌궐의 서부를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마르칸드는 이때까지도 을비돌궐 카간의 세력 아래 놓여 있을 가능성도 크다.

냈다.

(장안에서 돌아온 아사나)질운은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여 무리를 이끌고 서녘으로 달아나 (당나라가 세운) 을비사궤 카간을 처부수고 그 무리와 함께 쌍아(雙河)¹⁰⁴와 천천(千泉)¹⁰⁵에 야장(牙帳)을 세우고, 스스로 사발라 카간이라고 부르니, 돌육(咄陸) 부의 5철(噉)과 노실필(弩失畢) 5후근(侯斤)이 모두 귀순하여 뛰어난 군사가 수십만이 되었다. 을비돌육 카간과 더불어 군사연합을 하니 처월(處月)족·처밀(處密)족 같은 서녘 여러 나라가 많이 와서 붙었다. (아사나)질운이 막하 돌엽호(莫賀咄葉護)가 되었다.¹⁰⁶

이와 같은 서돌궐의 변화는 마르쿠스 모데가 이야기하는 친당(親唐) 서돌궐이 끝나고 반당(反唐) 서돌궐이 들어선 것을 뜻한다.¹⁰⁷ 모데는 서벽 벽화에 나

104 보로탈라(Boro-Tala) 서부 중가리아(Dzhungaria)에 있는 강. It is 250km long and flows between the Dzhungaria Alatau Range on the north and the Borokhoro Range and its spurs on the south. The river flows into Lake Ebi-Nur. The lower reaches of the river sometimes dry up. The river channel is extremely winding, and its width at the lower course is 100~150m. There are extended spring high waters and summer rain floods. The lower part of the river is used for irrigation and water supply. (The Free Dictionary).

105 천천(千泉): 현재 키르기스스탄 Tokmak에 있는 소엽성(素葉城) 서쪽 40리쯤 있는 설산 북쪽에 있다. 돌궐의 카간이 피서하는 곳이다(『대당서역기』). 현재 비슈케크 언저리 휴양지인 알라아르차 국립공원(Ala Archa National Park)으로 본다.

106 『資治通鑑』卷199, 唐紀, 永徽元年. 左驍衛將軍·瑤池都督阿史那賀魯招集離散, 廬帳漸盛, 聞太宗崩, 謀襲取西·庭二州. 庭州刺史駱弘義知其謀, 表言之, 上遣通事舍人橋寶明馳往慰撫. 寶明說賀魯, 令長子啞運入宿衛, 授右驍衛中郎將, 尋復遣歸. 啞運乃說其父擁衆西走, 擊破乙昆射匱可汗, 並其衆, 建牙於雙河及千泉, 自號沙鉢羅可汗, 咄陸五噉·努失畢五侯斤皆歸之, 勝兵數十萬, 與乙昆咄陸可汗連兵, 處月·處密及西域諸國多附之. 以啞運爲莫賀咄葉護.

107 여기서 사발라 카간이 을비돌육 카간과 연합했다고 한 것을 보면, 토화라로 도망간 을비돌육 카간이 돌아왔거나, 적어도 그 세력이 서쪽에 남아 있어 을비사궤 카간이 아우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마르칸드는 을비사궤 카간보다는 을비돌육 카간의 세력권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가설이 맞다면 모데가

오는 당나라 사신 그림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돌궐이 친당일 때만 가능한 사건이므로 651년을 하한선으로 보고 상한선은 640년대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 사서를 검토해보았지만, 기록상 640년대 말에서 651년 사이에 특별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만 한 사건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과연 서벽에 그려진 사신과 북벽에 배를 탄 여인의 그림이 당나라 사신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벽 벽화에 고리[高麗] 사절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한다면 651년 이전 친당 서돌궐 때는 사절을 보낼 수 없는 반면 651년 반당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는 오히려 적국인 당의 서쪽 전선에 있는 서돌궐과의 연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절부터는 그 부분을 찬찬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2) 651년 서돌궐의 1차 침입과 당의 반격

고종 2년(651) 서돌궐 아사나하로, 곧 사발라 카간이 정주(庭州)를 쳐들어가고, 당나라가 이에 대하여 반격을 가한다.

7월 서돌궐 사발라 카간이 정주(庭州)를 쳐들어와 금령성과 포류현을 쳐서 떨어 뜨리고 수천 명을 죽였다. 조서를 내려 좌무후대장군 양건방(梁建方)·우효위대장군 거필하력(契苾何力)을 궁월도행군총관, 우효위장군 고덕일(高德逸)·우무후장군 설고오인(薛孤吳仁)을 부(총관)으로 삼아 진부(秦府)·성부(成府)·기부(岐府)·옹부(雍府) 병력 3만 명과 회홀 5만 기병을 내서 토벌하였다.¹⁰⁸

말하는 것처럼 을비사궤 카간 때 당나라 사신이 갔다는 설에 설득력이 없어진다.

108 『資治通鑑』卷199, 唐紀, 永徽二年. 秋, 七月, 西突厥沙鉢羅可汗寇庭州, 攻陷金嶺城及蒲類縣, 殺略數千人. 詔左武侯大將軍梁建方·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弓月道行軍總管, 右驍衛將軍高德逸·右武侯將軍薛孤吳仁爲副, 發秦·成·岐·雍府兵三萬人及回紇五萬騎以討之. … 十二月, 壬子, 處月誅邪孤注殺招慰使單道惠, 與突厥賀魯相結.; 『新唐書』「列傳」第140(下) 突厥(下).

당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반격하였으나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652년 초에 첫 싸움은 일단락된다. 오히려 12월 처월(處月)의 우두머리 주야고주(殊邪孤注)가 초위사(招慰使) 단도혜(單道惠)를 죽이고 서돌궐의 사발라 카간 편으로 넘어가서 당은 처월도를 공격하였으나 당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돌궐과 당의 전쟁은 그 뒤 657년까지 계속된다. 곧 사발라 카간이 즉위한 뒤 657년 서돌궐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르칸드를 지배하던 서돌궐은 당과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이 이처럼 서쪽의 서돌궐을 치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동쪽의 고리[高麗]는 상대적으로 힘을 저축할 수 있었고, 서돌궐과의 연합을 통해 당의 침략을 막아보려는 전략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3) 652년(고종 영희 3), 당에 간 고리[高麗] 사신의 정세 파악

이해 봄 정월 초하루, 토욕혼·신라·고리[高麗]·백제가 함께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공물을 냈다¹⁰⁹는 기록이 있다. 백제는 이미 전년에 사신을 보냈지만, 고리[高麗]로서는 태종이 즉위한 뒤 처음 보내는 공물이다.

지배선은 바로 이때 당에 사신을 보내면서 동시에 사마르칸드에도 사신을 보냈다고 했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시기는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냈던 652년 정월에 강국으로 사신을 보냈다고 본다. 이때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낸 이유가 당을 연합할 의도로 사신을 보냈지만, 당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康國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낸 것은 당을 협공하기 위해 연합전선 형성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¹¹⁰

109 『資治通鑑』卷199, 唐紀, 永徽三年, 春, 正月, 己未朔, 吐蕃渾·新羅·高麗·百濟並遣使入貢.

110 지배선, 2011,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고구려 사신의 康國 방문 이유-」, 『백산학보』 89, 122~124쪽.

서돌궐이 이미 651년 당을 치고, 당이 이에 대응해 군사를 보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초에 서쪽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마르칸드(글쓴이의 입장에서 서돌궐)에 사절을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사신이 정월에 당에 갔다가 돌아온 뒤, 서쪽 전선의 전황을 파악하고 나서 보냈을 것으로 본다. 사신이 떠날 때만 해도 당의 서부 전선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부족했을 것이고, 당에 사신을 보낸 것도 이런 정세를 염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신이 갔을 때 아주 정확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이 조정에서 일어났다. 앞에서 서돌궐을 토벌하는 군사를 내보냈는데, 1월 1일 조공을 바치고 난 4일 뒤인 1월 5일에 서돌궐을 토벌하고 돌아온 군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월 5일¹¹¹) 양건방(梁建方)·거필하력(契苾何力)이 처월(處月) 부족의 주야고주(硃邪孤注)를 뇌산(牢山)에서 크게 깨트리자 (주야)고주가 밤에 달아났으므로 (양)건방이 부총관 고덕일을 시켜 기병 몇 명을 데리고 500리 넘게 쫓아가서 (주야)고주를 사로잡고 9,000명은 목을 베었다. 군대가 돌아왔을 때 어사가 “양건방이 충분한 병력을 가지고 쫓아가 토벌하러 갔지만, 머무르고 나아가지 않았고, 고덕일(高德逸)은 말을 거래하도록 했는데 좋은 말을 스스로 취했다”고 죄상을 아뢰었다. 황제가 (양)건방은 공이 있으나 (죄를) 묻지 않고 석방했다.¹¹²

위에서 든 전공들을 보면 서돌궐과의 전쟁 성과보다는 서돌궐에 귀순한 처월족에 대한 토벌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고리[高麗] 사신은 이

111 정월 초하루 간지가 기미(己未)일이고, 이어서 계해(癸亥)일이기 때문에 5일이 된다.

112 『資治通鑑』 卷199, 唐紀, 永徽三年, (正月) 癸亥, 梁建方·契苾何力等大破處月硃邪孤注於牢山, 孤注夜遁, 建方使副總管高德逸輕騎追之, 行五百餘裏, 生擒孤注, 斬首九千級, 軍還, 禦史劾奏梁建方兵力足以追討, 而逗留不進; 高德逸敕令市馬, 自取駿者, 上以建方等有功, 釋不問.

때 서돌궐과 당의 전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돌아가 연개소문에게 자세히 보고했을 것이고, 연개소문은 이때부터 서돌궐과의 연대를 위해 준비했다고 본다. 따라서 고리[高麗]와 서돌궐의 연합 시도는 651년 초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4) 653~654년(영희 4~5)

653년에는 당이 서쪽 서돌궐과 동쪽 고리[高麗]와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없다. 다만 서돌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다.

이해에 서돌궐 을비독육 카간이 죽자, 그의 아들 힐필달도(頡苾達度)가 진주엽호(眞珠葉護)가 되었다. 처음 사발라 카간과 틈이 생겨 다섯 노실필(弩失畢)과 더불어 사발라(카간)을 쳐서 껌트리고 1,000명 남짓한 머리를 베었다.¹¹³

을비독육 카간의 세력은 아들까지 이어져 사발라 카간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볼 수 있다.

고리[高麗]에서는 (당) 태종이 유언으로 ‘고리[高麗] 침공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당)고종이 어느 정도 나라를 추스르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였다. 그 가운데 한 단계가 거란을 치는 것이다. 당나라가 고리[高麗]를 칠 때 자주 거란을 동원했기 때문에 미리 후환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¹¹⁴

113 『資治通鑑』卷199, 唐紀, 永徽四年, 十二月, 是歲, 西突厥乙毘咄陸可汗卒, 其子頡苾達度設號眞珠葉護, 始與沙鉢羅可汗有隙, 與五弩失畢共擊沙鉢羅, 破之, 斬首千餘級.

114 『資治通鑑』卷199, 唐紀, 永徽四年, 高麗遣其將安固將高麗·靺鞨兵擊契丹; 松漠都督李窟哥禦之, 大敗高麗於新城.

4. 655~657년의 고리[高麗]·당·서돌궐의 정황 검토

1) 655년, 당의 고리[高麗]·서돌궐 동시 침입과 두 나라의 연합

655년에 들어서면서 중·동아시아 전체가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봄 정월, 고리[高麗]와 백제·말갈 연합군이 신라 북쪽 국경을 쳐서 33성을 빼앗았다. 신라왕(김춘추가(당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2월 을유일, 영주도독 정명진(程名振)·좌위중랑장 소정방을 보내 군사를 내어 고리[高麗]를 쳤다. 여름 5월, 임오일, (정)명진 등이 요수를 넘자, 고리[高麗]가 병력이 작은 것을 보고 문을 열고 귀단수(貴端水)¹¹⁵를 건너 맞아 싸웠다. (정)명진 등이 떨쳐 일어나 냇다 치니 크게 깨졌다. 수천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바깥 성벽과 마을을 불 지르고 돌아왔다.¹¹⁶

고종은 즉위한 뒤 서북쪽에 신경을 쓰면서 고리[高麗]를 칠 기회를 엿보다가 신라의 요청이 있자 즉각적으로 군사를 보내 요하를 건너 1차 방어선을 공격한 뒤 바로 물러났다. 이는 고리[高麗]의 후방이며 앞으로 연합할 신라를 구하기 위한 단발적인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동아시아가 고리[高麗]·백제·말갈과 당·신라가 연합을 통해서 각기 자국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연개소문은 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설연타와의 연대를 통해 당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했던 작전을 다시 쓰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서쪽 전선인 서돌궐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이며,

115 현재 심양을 가로질러 요하로 들어가는 혼하(渾河)로 보고 있다.

116 『資治通鑑』卷199, 唐紀, 永徽六年. 春, 正月, 高麗與百濟·靺鞨連兵,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春秋遣使求援. 二月, 乙酉, 遣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發兵擊高麗. 夏, 五月, 壬午, 名振等渡遼水, 高麗見其兵少, 開門渡貴端水逆戰. 名振等奮擊, 大破之, 殺獲千餘人, 焚其外郭及村落而還.

이미 수년간 정세를 파악하고 준비해온 서돌궐과의 연합을 실천에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당이 고리[高麗]에 군대를 파견한 5월 임오(壬午)일의 다음 날인 계미(癸未)일에 서돌궐에도 군사를 보냈다.

(655년 5월) 계미일, 우둔위대장군(右屯衛大將軍) 정지절(程知節)을 충산도행군대총관(蔥山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서돌궐 사발라 카간(沙鉢羅可汗)을 쳤다.¹¹⁷

이 해에는 당이 서돌궐과 고리[高麗] 양쪽을 쳤기 때문에 군사력이 분산되어 양쪽 모두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바로 이런 3국의 정세가 고리[高麗]에서 서돌궐에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당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고리[高麗]와 서돌궐이 연합함으로써 당의 군사력을 분산시켜 유리한 전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바로 655년이 고리[高麗]의 연계소문이 사절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해라고 본다.

2) 656~657년 당의 집중적인 서돌궐 공략과 서돌궐의 멸망

655년 당이 고리[高麗]를 친 것은 첫째 신라의 원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시에 서돌궐을 칠 때 동쪽에서 고리[高麗]가 협공하지 못하도록 기세를 꺾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655년 서돌궐과 고리[高麗] 양쪽을 동시에 공격하여 실패한 경험을 살려 656년에는 서쪽 돌궐을 치는 데 집중하게 된다.

8월, 신유일, 충산도행군대총관(蔥山道行軍大總管) 정지절(程知節)이 서돌궐과 부딪쳐 가라(歌邏)부·처월(處月)과 함께 유모곡(榆慕谷)에서 싸워 크게 깨트

117 『資治通鑑』 卷199, 唐紀, 永徽 六年, (五月) 癸未, 以右屯衛大將軍程知節爲蔥山道行軍大總管, 以討西突厥沙鉢羅可汗.

리고 1,000명 남짓 목을 베었다. 부총관 주지도(周智度)가 인성(咽城)에서 돌기시(突騎施)·처목곤(處木昆) 같은 부(部)를 공격하여 (성을) 빼앗고 3만 명의 목을 베었다. …

12월, 정지절이 군대를 이끌고 응파천(鷹娑川)에 이르러 서돌궐 2만 기병과 맞닥뜨렸는데 (서돌궐 측에서는 또) 별부(別部)·서니시부(鼠尼施部) 같은 2만 남짓한 기병이 잇달아 도착하였다. 전군총관(前軍總管) 소정방(蘇定方)이 500기병을 이끌고 달려가자 서돌궐은 크게 패하였다. 20리를 쫓아가 1,500명 남짓을 죽이거나 잡고, 말과 기계를 얻었으니 산야에 이어지는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¹¹⁸

일단 시간을 번 고리[高麗]는 12월에 황태자의 책봉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사신을 보내(遣使入唐 賀冊皇太子) 정세를 파악하면서 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657년이 되면 당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돌궐 침략에 나선다.

① 우두위장군 소정방을 이려도행군대총관(伊麗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연연도호(燕然都護) 임야상(任雅相)·부도호 숙사업(肅嗣業)을 거느리고, 회홍(回紇)을 비롯한 군사를 내어 북쪽 길로부터 서돌궐 사발라 카간을 쳤다. (숙)사업은 거(鉅)의 아들이다.

② 이전에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 아사나미사(阿史那彌射)와 족형인 좌둔위대장군(左屯衛大將軍) (아사나)보진(步眞)은 모두 서돌궐의 우두머리(酋長)들이는데, 태종 때 무리를 이끌고 항복해왔다. 지금에 이르러 소를 내려 (아사나) 미사·보진을 유사안무대사(流沙安撫大使)로 삼아 남쪽 길에서 옛 무리들을 불러모으

118 『資治通鑑』 卷200, 唐紀, 顯慶 一年. 八月, 辛酉, 蔥山道行軍總管程知節擊西突厥, 與歌邏·處月二部戰於榆慕谷, 大破之, 斬首千餘級. 副總管周智度攻突騎施·處木昆等部於咽城, 拔之, 斬首三萬級. … 十二月, 程知節引軍至鷹娑川, 遇西突厥二萬騎, 別部鼠尼施等二萬餘騎繼至, 前軍總管蘇定方帥五百騎馳往擊之, 西突厥大敗, 追奔二十里, 殺獲千五百餘人, 獲馬及器械, 綿亙山野, 不可勝計.

도록 하였다.¹¹⁹

북쪽 길로 쳐들어가는 ①은 당나라 군사와 파운(婆聞)이 이끄는 회홀의 군대이고, 남쪽 길은 모두 서돌궐 사람들이다. 당나라는 전쟁할 때 늘 이렇게 자국 주변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적국을 정복한다. 특히 돌궐의 우두머리인 아사나미사나 아사나보진이 한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고리[高麗] 남생이 당군의 앞잡이가 되었을 때 조정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발라 카간이 십성(十姓)의 병사 10만 기병을 동원하여 맞섰으나 소정방에게 쇄엽수(碎葉水,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Tokmak)를 빼앗기고 패하였다. 아들 아사나질운과 함께 서누설(鼠耨設)에게 도망가다가 석국(石國, 현재 타슈켄트) 소돌성(蘇咄城)에 도착했는데, 성주 이열달간(伊涅達干)에게 잡혀 장안으로 이송된 뒤 장안에서 죽었다.¹²⁰ 이로써 서돌궐은 망하고 당의 기미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

위에서 연도별로 고리[高麗]·당·서돌궐의 관계와 정황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리[高麗]가 서돌궐과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는 당이 고리[高麗]와 서돌궐을 동시에 친 655년이라고 본다. 물론 사절이 간 목적이 반드시 연합만이 아닌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651년부터 654년까지, 그리고 656년에도 가능하지만 657년은 이미 연초부터 이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고리[高麗]가 서돌궐의 지배 아래 있던 사마르칸드에 사절을 보낸 것은 651~656년 사이인데, 특히 655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19 『資治通鑑』卷200, 唐紀, 顯慶一年, 春, 閏月 庚戌, 以右屯衛將軍蘇定方爲伊麗道行軍總管, 帥燕然都護渭南任雅相·副都護蕭嗣業發回紇等兵, 自北道討西突厥沙鉢羅可汗, 嗣業, 鉅之子也. 初, 右衛大將軍阿史那彌射及族兄左屯衛大將軍步眞, 皆西突厥酋長, 太宗之世, 帥衆來降; 至是, 詔以彌射·步眞爲流沙安撫大使, 自南道招集舊衆.

120 『新唐書』「列傳」第140(下) 突厥(下). 賀魯, 啞運將奔鼠耨設, 至石國蘇咄城, 馬不進, 衆饑, 齋寶入城, 且市馬, 城主伊涅達幹迎之, 既入, 拘送石國.

5. 이재성의 662~663년 설에 대한 검토

서돌궐을 멸한 당 고종은 동쪽으로 고리[高麗]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매년 공격을 이어간다.

- ① 658년: 고종의 2차 고리[高麗] 침략
- ② 659년: 고종의 3차 고리[高麗] 침략
- ③ 660년: 고종의 4차 고리[高麗] 침략
- ④ 661년: 고종의 5차 고리[高麗] 침략
- ⑤ 662년: 고종의 6차 고리[高麗] 침략

『신당서』에 보면 이후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사발라 카간이 빼앗은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어 서역이 평정되었다고 하며, 이어서 그 지역에 도독을 두고 당 위주의 통치체계를 확립하는데, 바로 658년 바르후만을 강저도독으로 임명한 것도 이때다. 가게야마를 비롯하여 몇몇 학자가 고리[高麗] 사신이 바르후만 도독 임명 때 참석하였다고 했지만, 당의 2차 침략을 받은 고리[高麗]가 당나라 사신과 함께 당의 강저도독 임명식에 참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게야마는 고리[高麗] 사절은 실제 온 적이 없다고 보고, 그림은 당의 그림본을 베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서돌궐이 당의 세력권에 들어왔지만, 당의 국내처럼 당이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다. 바르후만이 강저도독을 임명한 다음 해인 659년 서돌궐을 다시 친 기록이 나온다. 서돌궐을 멸할 때 동돌궐 출신 아사나미사¹²¹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사나보진과 함께 카간으로 임명되어 서돌궐 지역을 다스렸다. 그런데 659년에 아사나미사가 진주엽호을 쳐서 물리친 기록이 나온다.

121 고리[高麗] 원정에서 공을 세워 평양현백(平壤縣伯)으로 봉해지기도 하였다.

현경 4년(659) 3월 곤릉도호(昆陵都護) 아사나미사(阿史那彌射)가 서돌궐 진주엽호(眞珠葉護)와 쌍하(雙河)에서 싸워 물리쳤다.¹²²

앞에서 보았듯이 진주엽호는 서돌궐 을비돌궐 카간의 아들이고 사발라 카간에 반기를 들었던 세력이다. 이는 당이 아직 서돌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 뒤로도 677년 서돌궐과 토번(土蕃)이 안서(安西)도호부를 쳐들어가고,¹²³ 679년 배행검(裴行儉)이 서돌궐을 쳐들어가는 기록¹²⁴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682년 후돌궐(後突厥)이 일어나 당나라를 크게 위협한다. 이처럼 서돌궐이 평정되었다고 했지만, 당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것이 『신당서』 「본기」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재성이 662년 사신 파견을 주장하면서 “비록 소그디아나, 페르가나, 토하라 지역이 658년부터 당의 기미지배 체제하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한 것은 이처럼 당의 기미지배는 현지 왕(可汗)들에게 관직 이름만 주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바르후만이 (당의) 강거도독이 된 뒤에도 고리(高麗)가 밀사를 보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돌궐이 아니고 서돌궐 아래 있다가 당의 기미지배를 받고 있는 사마르칸드의 군사력이나 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662~663년 설은 655년 전후인 651~656년에 비해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122 『新唐書』 卷3, 「本紀」 第3, 高宗. (顯慶) 四年(659)三月壬午, 昆陵都護阿史那彌射及西突厥眞珠葉護戰於雙河, 敗之. 『新唐書』 「列傳」 第140(下) 突厥(下).

123 『新唐書』 卷3, 「本紀」 第3, 高宗. (儀鳳二年) 是歲, 西突厥及吐蕃寇安西.

124 『新唐書』 卷3, 「本紀」 第3, 高宗. (調露元年) 六月辛亥, 吏部侍郎裴行儉伐西突厥. 九月壬午, 行儉敗西突厥, 執其可汗都支. 十月, 突厥溫傳, 奉職二部寇邊, 單於大都護府長史蕭嗣業伐之.

V. 맺음말

고리[高麗]의 사마르칸드 사행(使行) 부정론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리[高麗]와 유연(柔然)의 교류를 통한 초원로 왕래 역량 확보

소그드인의 안내가 없으면 고리[高麗] 사절이 초원길을 왕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사료 검토를 통해 고리[高麗]와 유연(柔然, Avar)은 서로 이와 잇몸처럼 가까이 왕래했고, 함께 연합하여 지두우를 경략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돌궐에게 망한 유연의 일부가 집단으로 고리[高麗]로 이주했다는 기록을 통해, 고리[高麗]에 유연의 집단거주지가 있었다는 것도 밝혔다.

유연은 5~7세기 동쪽 고리[高麗]에서 서쪽 알타이를 넘어 중가리아(準噶爾, Dzungaria, Zhungaria)까지 자유롭게 넘나들었기 때문에 초원길을 훤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고리[高麗]는 자체의 힘으로 초원길을 다닐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고리[高麗] 사신이 스스로 사마르칸드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 특히 고리[高麗]가 평시의 사신 형태가 아니고 밀사(密使)를 보낸다고 할 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당시 고리[高麗]가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과 인력을 최대한 동원했을 것이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2. 고리[高麗]와 돌궐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고리[高麗]가 서돌궐과의 연합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보강 논리다. 일반적으로 고리[高麗]와 돌궐의 관계는 서로 적대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많았다. 그러나 돌궐과 고리[高麗]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해보면 시대나 정황에

따라 늘 가변적이고, 필요에 따라 서로 연합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계민 카간 때인 607년에 고리[高麗]가 수나라 몰래 돌궐에 사신을 보냈다가 마침 그곳을 방문한 양제에게 들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당의 위성국이나 기미국가라 할지라도 수·당 몰래 얼마든지 찾아가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보기다.

이런 관점에서 고리[高麗]는 필요에 따라 당의 서쪽 전선인 서돌궐과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리[高麗]와 설연타의 연합에 대한 재평가

고리[高麗]의 설연타와 연합이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645년 당 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고리[高麗]가 돌궐을 멸하고 들어선 설연타와의 연합을 시도해 크게 성공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연개소문의 전략은 국제적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밀한 연합전략으로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작전의 성공은 그 뒤 당 고종이 쳐들어왔을 때 연개소문이 서북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서돌궐과 연합을 시도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4. 고리[高麗]와 서돌궐의 연합 시도 가능성 검토

① 마르쿠스 모데는 서벽 벽화에 나온 의전 깃발이 돌궐 카간의 것이고, 의전을 안내하는 관리들이 모두 돌궐인이라는 점을 밝혀 “벽화 전면의 구성이 바르후만의 궁정이 아니라 서돌궐의 궁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사절단들은 돌궐의 손님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림의 배경은 을비사궐 카간 때의 일로 보았다. 을비사궐 카간은 친당인 정권인 반면, 651년 당나라에 반란을 일켜 서돌궐을 통일한 사발라 카간은 당나라와 계속 전쟁을 벌인 반당 정권이기 때문이다.

② 글쓴이는 화면의 구성에 서돌궐이 카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마르쿠스 모데와는 달리 사발라 카간 때라고 보았다. 당시 고리[高麗]는 당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당(親唐) 정권인 을비사궐 카간 때는 사절을 보낼 수 없는 반면, 당과 전쟁을 하고 있던 사발라 카간과의 연합을 모색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고리[高麗]가 서돌궐의 지배 아래 있던 사마르칸드에 사절을 보낸 것은 651~656년 사이인데, 특히 655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한문 자료

- 『舊唐書』.
『唐會要』.
『三國史記』.
『隋書』.
『新唐書』.
『魏書』.
『日本書紀』.
『資治通鑑』.
『周書』.

기본자료

- 알바움 L. I. (Альбаум, Л. И.), 1975, 『아프라시아 벽화(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타슈켄트(Tashkent) 판(Фан).
アリバウム L. I. 著, 加藤九祚 翻訳, 1980, 古代サマルカンド壁畫, 文化出版局.

단행본

- 高柄翊, 1984, 『東아시아 傳統과 近代史』, 三知院.
권영필, 1997, 『실크로드의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서길수, 2019a, 『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高句麗)』, 여유당.
_____, 2019b, 『장수왕이 바꾼 나라이름 고리(高麗)』, 여유당.
정수일, 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Talat Tekin 지음, 이용성 옮김, 2008, 『돌궐비문 연구』, 제이앤씨.
Bekkerus, Immanuel, 1834, *Theophylacti Scimocattae Historiarum: Libri Octo*,

Bonnae: Impensis ed, Weberi, VII-7.

Cœdès, George, 1910, *Textes d'auteurs grecs et latins relatifs à l'Extrême Orient depuis le IVe siècle av. J.-C. jusqu'au XIVe siècle*, Topics Historical geography Publisher Paris.

논문

- 고광의, 2019,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디지털 복원 모사」,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칸드 시 역사박물관 주최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 권영필, 2002, 「신라문화 속에 남아 있는 서역 요소」, 『신라인의 실크로드』, 백산자료원.
- _____,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 김용문, 2010,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 『服飾』 60-7.
- 金元龍, 1976,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宮殿壁畫의 使節圖」, 한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129·130 号 崔淳雨先生 華甲紀念論文集).
- 盧泰敦,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23.
- 文明大, 1990a, 「실크로드上의 新羅使節像 考察」, 『(李載樂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한울.
- _____, 1990b, 「실크로드의 新羅使節像」, 『中國大陸의 文化』, (1) 故都長安, 한·언.
- 박아림, 2019, 「고대 미술 자료로 본 고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교류」,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칸드시 역사박물관 주최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라시압 궁전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 박진옥, 1988,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 방상현, 1997, 「소그드 壁畫와 高句麗人 考察」, 『東西文化論叢』(II).
- 서길수, 2015, 「외국 高句麗 인물화에 나타난 닭깃털관(鷄羽冠)과 高句麗의 위상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1.
- 서영교, 2014, 6, 「연개소문의 對鮮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資治通鑑』 권 198, 貞觀 19년 8·12월조 『考異』의 「實錄」 자료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44.

- 신경섭, 2000, 「한국의 鳥羽冠과 중국의 鷩冠 연구」, 『복식』 50-4.
- 우덕찬, 2003,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4-2.
- 이상은·김예련, 2018,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업궁전 벽화에 나타난 삼국시대 복식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8-2.
- 이성제, 2019a, 「고구려와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관계-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업 궁정 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칸트시 역사박물관 주최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 _____, 2019b,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업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65.
- 李殷昌, 1991, 「新羅文化和 伽耶文化的 比較研究-考古學的인 측면에서 본 新羅·伽耶 兩國文化的 同質性和 異質性을 중심으로-」, 新羅文化宣揚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9.
- 이재성, 2013, 「아프리카시업 宮殿址 壁畫의 ‘鳥羽冠使節’에 관 고찰-高句麗에서 사마르칸트(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8-2.
- _____, 2016, 「아프리카시업 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과정 및 시기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 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68.
- 鄭守一, 2002, 「高句麗의 西域 關係 試考」, 『高句麗研究』 14.
- 정승혜, 2017, 「古代의 譯人-덕흥리 벽화고분 <太守來朝圖>의 여성 통역관의 발견과 관련하여-」, 한국목간학회, 『목간과 문자』 19.
- 정호섭, 2013,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외국 자료에 나타난 古代 韓國인 의 모습을 중심으로-」, 『영남학』 24.
- _____, 2019,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의 고대 한국인」, 동북아역사재단·사마르칸트시 역사박물관 주최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국제학술회의-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 조윤재, 2012, 「古代 韓國의 鳥羽冠과 실크로드-鳥羽冠 관련 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교육연구단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해외 전파조사 및 DB구축’사업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지배선, 2011,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고구려 사신의 康國 방문 이유-」, 『백산학보』 89.

최광식, 2008,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 『중앙아시아축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深津行徳, 1999, 「臺灣古宮博物院所藏‘梁職貢圖’模本について」,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 No. 44, 『朝鮮半島に流入した諸文化要素の研究』,

影山悦子, 1998, 「サマルカンド壁画に見られる中國絵画の要素について: 朝鮮人使節はワルフマーン王のもとを訪れたか」, 『西南アジア研究』 49.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ミヤブ都城址 出土壁画に見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

Etsuko, Kageyama, 2002, “A Chinese Way of Depicting Foreign Delegates Discerned in the Paintings of Afrasiab”, in: *Philip Huyse, éd., Iran. “Questions et Connaissances”. Actes du IVe congrès européen des études iraniennes, organisé par la Societas Iranologica Europaea, Paris, 6-10 septembre 1999, vol. I: La période ancienne, Paris: Association pour l’avancement des études iraniennes(AAEI).*

Fong, Mary H., 1984, “Tang Tomb Murals Reviewed in the Light of Tang Texts on Painting”, *Artibus Asiae*, Vol. 45, No. 1.

Marshak, Boris Ilyich, 1994, “Le programme iconographique des peintures de la «Salle des ambassadeurs» à Afrasiab (Samarkand)”, *Arts asiatiques*, tome 49.

Mode, Markus, 1993, “Sogdien und die Herrscher der Welt: Türken, Sasaniden und Chinesen in Historien gemälden des 7. Jahrhunderts n. Chr. aus Alt-Samarqand”,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Internationaler Verlag der Wissenschaften*.

_____, 2002, “Court art of Sogdian Samarqand in the 7th century AD -

Some remarks to an old problem -”, a web publication.
Simocattae, Theophylacti, March 8, 2017, “Historiarum”: *Libri Octo* (Classic Reprint, Latin Edition).
Whitby, Michaeland Mary(An English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 1986, “The History of Theophylact Simocatta”, *Oxford University Press*, Book seven, 7-10~12.

기타 자료

『연합통신』, 2019년 4월 20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1001100001?input=1195m>
중앙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식」. <http://www.jungang.re.kr/index.php?mc=06&md=read1&idx=197&bn=1343>

아프라시아 고구리[高句麗] 사절에 대한 새 논란 검토

- 고구리[高句麗] 사신 사행(使行) 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Ⅱ) -

서길수

이 논문은 ‘고리[高麗] 사신이 사마르칸드에 간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이다. 고리[高麗]가 사마르칸드에 사절을 파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 ① 중앙아시아와 몽골초원이 당의 지배 아래 있어 사행(使行)이 불가능하였다.
- ② 고리[高麗]에서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 - 설연타(薛延陀)와의 연합에 대한 비판
- ③ 소그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갈 수 없었다.

1. 위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서돌궐과의 연합 시도론 제기

지배선은 바르후만이 강겨도독으로 임명되기 이전, 곧 당의 영향력이 사마르칸드에 미치지 못했던 652년에 고리[高麗]가 당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당 나라에 사절을 파견했는데, 바로 그해 정월에 사마르칸드에도 사신을 보냈다고 보았다. 한편 이재성은 660년 8월부터 철록(鐵勒) 여러 부에서 당나라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은 663년 정월까지 계속되어 2년 5개월간 당의 세력권을 벗어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기간에 연개소문이 철륵과 연대를 꾀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2. 고리[高麗]와 설연타(薛延陀)의 연합 시도에 대한 재평가

사행부정론자들은 설연타와의 연합은 실제 성사되지도 않고 이득도 없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다시 연합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645년 고리[高麗]와 설연타의 연합은 크게 성공하였다는 것을 밝혔고,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설연타의 북서 전선 침입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3. 650년대 고리[高麗]의 사마르칸드 사행(使行) 가능성 검토

일반적으로 고리[高麗]와 돌궐의 관계는 서로 적대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많았다. 돌궐이 고리[高麗]를 침략하고 당이 고리[高麗]를 칠 때 선봉에 선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궐과 고리[高麗]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해보면 시대나 정황에 따라 늘 가변적이고, 필요에 따라 서로 연합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리[高麗]는 스스로 초원길을 왕래할 경험과 인적 자원 보유

끝으로 소그드인의 안내가 없으면 고리[高麗] 사절이 초원길을 왕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사료 검토를 통해 고리[高麗]와 유연은 서로 이와 잇몸처럼 가까이 왕래했고, 함께 연합하여 지두우를 경략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돌궐에게 망한 유연의 일부가 집단으로 고리[高麗]로 이주했다는 기록을 통해, 고리[高麗]에 유연의 집단거주지가 있었다는 것도 밝혔다.

유연은 5~7세기 동쪽 고리[高麗]에서 서쪽 알타이를 넘어 중가리아(準噶爾, Dzungaria, Zhungaria)까지 자유롭게 넘나들었기 때문에 초원길을 훤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고리[高麗]는 자체의 힘으로 초원길을 다닐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주제어: 고리[高麗], 사마르칸드, 강거도독, 서돌궐, 유연

Consideration on the New Dispute on the
Koguri (高句麗) envoy at the Afrasiab wall
painting – Critical View on the Denial Theory of
the Dispatch of a Koguri envoy(II)

SO Gilsu

The present paper is the second counterargument against the argument that ‘a Koguri (高句麗, Koguryo is an erroneous pronunciation of Koguri) envoy has never been to Samarkand.’

1. Three major points in the Denial argument that Kori (高麗, new name of Koguri after AD 413) has never dispatched an envoy to Samarkand (康國) are as following. ① The envoy dispatch was impossible because the Central Asian and the Mongolian steppe were under the control of the Tang China. ② Kori has not sent an envoy – critical view on the alliance with Xueyantuo (薛延陀). ③ It was not made because Kori could not have received an assistance of the Sogdians.

2. By examining the historical records, the Kori and the Avars (柔然) were interacted closely, some Avars after they were destroyed by the Turk moved to the Kori which tells us that in Kori was the group residence of the Avars. These historical facts certainly support the argument that a Kori envoy could have reached to Samarkand.

3. Author accepts the fact that in the Western wall scene may be the portrait of the Qaghan of Western Turk, and thinks that he should be Ishbara Khagan (651~657). Because at that time Kori had long fought for Tang, which is why Kori could not send an envoy to Irbis Shegui Qaghan (641~651), who was supportive of Tang. But Kori had to connect with Ishbara Khagan (651~657), who fought against Tang as well as Kori.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hat Kori could have contacted the Western Turk depending on the needs. Thus, the envoy sent to the Western Turk was dispatched to alliance and gather information in Samarkand under the control of the Western Turk.

In conclusion Kori sent an envoy to Samarkand ruled by Western Turk in the course of 651~656, most likely in AD 655.

Keywords: Kori, Samarkand, Western Turk, Avars.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原典)과 편찬 방식

전상우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I. 머리말
- II.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과 인용
- III.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 방식과 저술 의도
- IV. 맺음말



I. 머리말

『양서』는 당 태종 정관 10년(636)에 완성된 남조 양(梁)의 역사서로, 현전하는 『양서』는 본기 6권, 열전 50권 총 5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국 정사처럼 『양서』 열전에는 양의 주변에 존재했던 국가들에 관한 제이전(諸夷傳)이 기술되었다. 제이전은 크게 해남(海南), 동이(東夷), 서북제유(西北諸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이 부분에는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신라가 최초로 포함되었다. 아울러 『양서』 제이전의 삼국 기사는 앞선 남조계 정사인 『송서』와 『남제서』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던 지리·습속 등을 전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양서』 제이전의 삼국 기사가 교섭 기사만이 아닌 지리·습속 등의 내용을 전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전 사서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정보는 백제와 신라에 한정되어 있고, 고구려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교섭 기사에서만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다. 『양서』 제이전에서 고구려전이 차지하는 분량이 세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의아스러운 부분이며,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에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¹

『양서』 고구려전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원전 검토를 위주로 다루어졌다. 초기 연구에서는 중국 정사 외국열전을 검토하면서 『양서』 고구려전의 주요 원전

* 투고: 2020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20년 5월 25일

** 이 논문은 2019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양서』 제이전의 해남에 배치된 국가들의 기록이 실제 활발한 교역 속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특한 사례이다. 송정수, 2016,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이해」,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사기」부터 「명사」까지』, 역사공간, 24~25쪽.

으로 『삼국지』 동이전을 지목하였다.² 또한 연구 범위를 고구려전으로 한정시켜 『양서』 고구려전은 『삼국지』 및 『후한서』의 체제와 유사하며, 민족지적인 전반부는 『삼국지』를 전록(轉錄)했다는 주장도 발표되었다.³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중국정사조선전 역주』도 앞의 견해를 따라 『양서』 고구려전이 『후한서』와 『삼국지』를 포함한 전대의 사서를 전재(轉載)했다고 기술하였다.⁴ 이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원전을 지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서』 고구려전의 기사를 전대의 사서와 대조하여 구체적인 원전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서』 고구려전의 교섭 기사를 제외한 전반부는 『삼국지』 고구려전을 원전으로 하면서 이 외에 『삼국지』 부여전⁵ 혹은 『후한서』 고구려전과 『위략』도 참고하였다는 논고가 제기되었다.⁶ 한편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살피는 과정에서 『양서』의 찬자가 『삼국지』 고구려전의 생략된 기사를 복원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이를 위해 『위략』을 직접 참조하여 고구려전을 작성했다는 견해도 발표되었다.⁷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 따라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이 무엇인지는 구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서』 고구려전의 구체적인 편찬 방식과 『양직공

-
- 2 高柄翊,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9쪽.
 - 3 朴成鳳, 1981, 『東夷傳高句麗關係記事의 整理』,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4~15쪽.
 - 4 國史編纂委員會 編, 2007a,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신서원, 463쪽. 이 외에 『한서』 지리지와 『삼국지』 부여전의 내용이 첨가되었다고 서술하였다. 俞元載, 1995,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 學研文化社, 35쪽에서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 5 李成市, 1998,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傳說』,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68~71쪽.
 - 6 金鍾完, 1981, 「梁書 東夷傳의 文獻的: 檢討 高句麗·百濟·新羅傳을 中心으로」, 『論文集』 3, 170쪽; 全海宗, 2000, 「梁書東夷傳의 研究 - 正史東夷傳比較 檢討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39, 13~16쪽; 鄭春穎, 2009, 「『梁書·高句麗傳』史源學研究」, 『圖書館理論與實踐』 2009-11, 55쪽.
 - 7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52~60쪽.

도』를 포함한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을 지목하는 단계를 넘어 『양서』의 찬자가 고구려전의 원전을 채택한 이유, 인용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서』 고구려전 각 문장의 원전을 분석하고, 『양직공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그 편찬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서』 고구려전의 사료적 가치는 물론 편찬 의도를 조금이나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과 인용

1. 『후한서』·『삼국지』·『위략』과 『양서』 고구려전

『양서』 제이전에서 고구려전이 차지하는 분량은 전체에서 세 번째이며, 동이 안에서는 가장 많다. 이러한 분량 배분은 양의 관심이나 중요도에 따른 다량의 신규 기사 기술로도 볼 여지가 있으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양서』 고구려전은 『후한서』·『삼국지』·『위략』 등이 주된 원전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한원』 번이부 고려전에서 인용한 양 원제의 『직공도』와 『양직공도』 장경모본에 고구려의 제기(題記)가 전하는데도 당대의 자료가 아닌 이전의 사서를 원전으로 채택한 것이다. 다만 교섭 기사는 이전 사서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있다. 즉, 『양서』 고구려전에서 지리·습속 등의 내용은 『후한서』·『삼국지』·『위략』 등을, 교섭 기사는 현전하지 않는 사서 및 『남제서』·『양서』 등을 원전으로 삼은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고구려전에 신규 사료가 활용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하였다. 이에 『양서』 고구려전에 『양직공도』와 같은 당대의 자료가 활용되지 않은 이유를 양이 고구려를 의례적으로 대한 것에서 찾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양과 고구려의 교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고구려 관련

정보가 적었다는 것이다.⁸ 『양서』의 편찬을 명령한 당 태종이 고구려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⁹ 아울러 『양서』 고구려전이 『삼국지』의 문장을 개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양서』의 찬자가 양 시기에 만들어진 배자야(裴子野)의 『방국사도』 혹은 이와 유사한 사료를 원전으로 삼은 데에 있다고도 기술하였다.¹⁰

실제로 『양서』 본기 등에 양과 고구려의 교섭 기사가 다수 확인됨에도 『양직공도』 장경모본이나 『한원』에 인용된 『양직공도』의 일문(逸文)이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에 활용되지 않았다.¹¹ 그렇다면 『양서』의 찬자가 고구려전을 찬술할 때 양 시기의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편찬된 『삼국지』·『위략』 등을 원전으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는 전대의 사서를 그대로 옮겼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표 1〉은 『양서』 고구려전에서 기원 부분의 원전을 대조한 것이다.¹² 『후한서』가 주원전으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양서』는 고구려의 기원을 동명과 연결하고 있다. 『양서』가 양 시기의 인식을 토대로 편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고구려가 동명을 시조로 하는 설화를 만들고, 그 내용이 교섭을 통해 양에 전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8 林起煥, 1998, 「4~6세기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169~170쪽.

9 尹龍九, 2012b, 「현존《梁職貢圖》百濟國記 三例」, 『百濟文化』 46, 246~247쪽.

10 李成市, 2014, 「『梁職貢圖』高句麗·百濟·新羅의 題記について」,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 勉誠出版, 447~448쪽.

11 『양직공도』 장경모본은 최근에 발견된 자료이다. 해당 자료와 『양직공도』 북송모본 간의 상관성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2 후·부=『후한서』 부여전, 장경모본=『양직공도』 장경모본, 한·지=『한서』 지리지, 삼·부=『삼국지』 부여전, 위략(태)=『태평어람』 인용 위략, 위략(집)=『위략집주』, 위략(원)=『한원』 인용 위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이 원전으로 추정되는 사료이며, 표의 구분은 필자가 임의로 하였다.

〈표 1〉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 분석 1(기원)¹³

번호	『양서』 고구려전	원전	
		서명	기사
1-①	高句驪者, 其先出自東明, 東明本北夷囊離王之子.	×	×
1-②	離王出行, 其侍兒於後任娠. 離王還, 欲殺之.	후·부	初, 北夷索行, 其侍兒於後妊身, 王還, 欲殺之.
1-③	侍兒曰, 前見天上有氣如大雞子, 來降我, 因以有娠.	후·부	侍兒曰, 前見天上有氣, 大如雞子, 來降我, 因以有身.
1-④	王囚之, 後遂生男, 王置之豕牢.	후·부	王囚之, 後遂生男, 王令置於豕牢,
1-⑤	豕以口氣嘘之, 不死. 王以爲神, 乃聽收養.	후·부	豕以口氣嘘之, 不死. 復徙於馬蘭, 馬亦如之. 王以爲神, 乃聽母收養, 名曰, 東明.
1-⑥	長而善射. 王忌其猛, 復欲殺之. 東明乃奔走, 南至淹滯水. 以弓擊水, 魚鼈皆浮爲橋, 東明乘之得渡. 至夫餘而王焉.	후·부	東明長而善射, 王忌其猛, 復欲殺之. 東明奔走, 南至淹滯水, 以弓擊水, 魚鼈皆聚浮水上, 東明乘之得度, 因至夫餘而王之焉.
1-⑦	其後支別爲句驪種也.	삼국지 후한서 장경모본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在晉東夷夫餘之別種也.

그렇다면 『양서』 고구려전에 동명 설화가 고구려의 기원으로 서술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양과 고구려의 교섭에 따라 유입된 정보에서 찾기도 한다.¹⁴ 그러나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양서』 고구려전의 기원 부분은 『후한서』 부여전의 기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일부 고유명사가 다르고 채택되지 않은 문장이 있지만, 그 이외의 구절은 거의 일치한다. 『양서』의 찬자는 고구려

13 표의 양식은 송영대, 2020, 「『通典』 「邊防門」 東夷目的 구성과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것을 따랐다. 아울러 각종 고구려전의 교감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編, 2018b, 『中國 正史 東夷傳 校勘』, 동북아역사재단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14 朴成鳳, 1981, 앞의 책, 14쪽; 李成市, 1998, 앞의 글, 73쪽.

전을 기술하기 위해 제반 자료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삼국지』의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혹은 『후한서』의 “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故言語法則多同.”을 토대로 고구려와 부여의 기원이 같다고 여겼고, 이에 따라 『후한서』 부여전의 설화를 고구려 부분에 옮겨 실은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양서』 고구려전의 동명 설화는 실제로 6세기 단계의 고구려가 동명을 고구려의 시조로 인식하여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가 고구려에 관한 제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얻은 지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미이다. 또한 당시 고구려가 동명을 중심으로 하는 시조 설화를 만들었다면, 그 내용을 굳이 『후한서』 부

〈표 2〉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 분석 2 (지리)

번호	『양서』 고구려전	원전	
		서명	기사
2-①	其國，漢之玄菟郡也.	×	×
2-②	在遼東之東，去遼東千里.	후한서 삼국지	高句驪，在遼東之東千里，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2-③	漢·魏世，南與朝鮮穢貊，東與沃沮，北與夫餘接.	후한서 삼국지	南與朝鮮·穢貊，東與沃沮，北與夫餘接。 南與朝鮮·穢貊，東與沃沮，北與夫餘接.
2-④	漢武帝元封四年，滅朝鮮，置玄菟郡，以高句驪爲縣以屬之.	한·지 후한서	玄菟郡，武帝元封四年開，… 縣三，高句驪。 武帝滅朝鮮，以高句驪爲縣，使屬玄菟，賜鼓吹伎人.
2-⑤	句驪地方可二千里.	후한서 삼국지	地方二千里。 方可二千里.
2-⑥	中有遼山，遼水所出.	한·지	高句驪，遼山，遼水所出.
2-⑦	其王都於丸都之下.	삼국지	都於丸都之下，方可二千里.
2-⑧	×	삼국지 위략(태·집)	戶三萬。 戶三萬.
2-⑨	多大山深谷，無原澤.	삼국지	多大山深谷，無原澤.
2-⑩	百姓依之以居，食澗水.	삼국지	隨山谷以爲居，食澗水.

여전의 기사와 유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표 2〉는 『양서』 고구려전에서 지리 부분의 원전을 대조한 것이다. 서두의 2-①은 비슷한 내용이 제반 사서에 다수 보이지만, 문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양서』의 찬자가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②는 『후한서』 혹은 『삼국지』의 “高句麗(驪)在遼東之東千里.”를 원전으로 삼았는데, 고구려를 빼고 ‘千里’를 ‘去遼東千里’로 바꾸어 문장을 변경하였다. 원전의 문장을 자신이 이해한 바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2-③은 『후한서』 혹은 『삼국지』의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을 원전으로 삼았다. 穢가 『후한서』·『삼국지』의 濊가 아니라 『한원』 인용 『위략』의 穢와 같다는 차이가 있지만, 문장의 구조와 나머지 구절은 전자와 일치한다. 그런데 ‘漢·魏世’는 어떤 사료에도 확인되지 않는 『양서』만의 구절이다. 이 역시 『양서』의 찬자가 기존 사서를 토대로 구절을 보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漢과 魏를 지목한 이유는 해당 구절의 원전이 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와 위를 정통으로 역사를 서술한 『삼국지』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2-④~⑥은 『후한서』 혹은 『삼국지』에서 관련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한 무제가 조선을 멸한 시점이 다르고, 이후의 구절도 『양서』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2-④, ⑥은 『한서』 지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¹⁵ 이 구절은 『한서』 지리지의 현도군 항목에서 고구려와 관련한 부분을 추출하여 요약한 것으로, 한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시기와 요산에 관한 내용이 모두 『양서』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양서』의 찬자가 고구려전을 기록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두루 살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 여러 사서에서 확인되는 ‘戶三萬’은 『양서』에서 보이지 않는데, 삭제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기 어렵다. 2-⑦, ⑨, ⑩은 『삼국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5 鄭春穎, 2009, 앞의 글, 54쪽에서도 해당 구절의 원전으로 『한서』 지리지를 지목하였다. 반면 金鍾完, 1981, 앞의 논문, 159쪽에서는 『삼국지』와 『후한서』를, 全海宗, 2000, 앞의 글, 9쪽에서는 『삼국지』 옥저전을 원전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 분석 3 (속속 1)

번호	『양서』 고구려전	원전	
		서명	기사
3-①	雖土著, 無良田, 故其俗節食.	삼국지 위략(태) 위략(집)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其俗節食. 其國貧儉王著. 其國貧儉王著.
3-②	好治宮室.	삼국지	好治宮室.
3-③	於所居之左立大屋, 祭鬼神. 又祠零星·社稷.	삼국지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
3-④	人性凶急, 喜寇抄.	삼국지 위략(집) 장경모본	其人性凶急, 喜寇抄. 其俗凶急 喜寇抄. 其俗人性凶急惡.
3-⑤	其官, 有相加·對盧·沛者·古鄒加·主簿·優台·使者·阜衣·先人. 尊卑各有等級.	후한서 삼국지 위략(태)	其置官, 有相加·對盧·沛者·古鄒大加·主簿優台·使者·帛衣·先人.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雜加·主簿·優台·丞·使者·阜衣·先人, 尊卑各有等級. 其國置官, 有相加·對盧·沛者·古雜加, 尊卑各有等級.
3-⑥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삼국지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3-⑦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慎奴部·藺奴部·桂婁部.	삼국지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3-⑧	本涓奴部爲王, 微弱, 桂婁部代之.	삼국지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3-⑨	漢時賜衣幘·朝服·鼓吹, 常從玄菟郡受之.	삼국지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3-⑩	後稍驕, 不復詣郡, 但於東界築小城以受之, 至今猶名此城爲幘溝婁.	삼국지	後稍驕恣, 不復詣郡, 於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婁.
3-⑪	溝婁者, 句驪名城也.	삼국지	溝婁者, 句驪名城也.
3-⑫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삼국지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3-⑬	×	삼국지	王之宗族，其大加皆稱古雛加，涓奴部本國主，今雖不爲王，適統大人，得稱古雛加，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絕奴部世與王婚，加古雛之號。諸大加亦自置使者·阜衣·先人，名皆達於王，如卿大夫之家臣，會同坐起，不得與王家使者·阜衣·先人同列。
3-⑭	×	삼국지 위략(태·집)	其國中大家不佃作，坐食者萬餘口，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大家不田作，下戶給賦稅如奴。

〈표 3〉은 『양서』 고구려전에서 습속 부분의 원전을 대조한 것이다. 이 부분부터 『양서』의 찬자가 『위략』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등장한다. 3-①과 3-④가 그러하다. 두 구절 모두 『삼국지』를 원전으로 했으나, 3-①의 ‘土著’이라는 글자가 주목된다. 『삼국지』에는 보이지 않고, 『위략』에 기록된 글자이기 때문이다. 『양서』의 찬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삼국지』의 ‘雖力佃作’을 ‘土著’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략』의 ‘其國貧儉土著’을 보고 수정했을 수도 있다. 3-④ 역시 『삼국지』의 구절과 유사하나 『위략』의 ‘喜寇抄’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결국 두 구절은 『삼국지』를 원전으로 삼으면서 『위략』이라는 참고자료를 활용한 흔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涓奴部’와 ‘古雛加·優台’는 『삼국지』에 ‘涓奴部’, ‘古雛加·優台丞’으로, 『후한서』에 ‘涓奴部’, ‘古雛大加’, 『위략』에 ‘涓奴部’, ‘古雛加’로 전한다. 소노부는 『후한서』·『위략』과 같으나, 고추가는 『삼국지』·『위략』을 따랐다. ‘涓奴部’와 ‘古雛加’는 두 종류의 사서에서 채택했다는 점에서 『양서』에서도 이에 따라 옮겨 적었을 수 있으나, ‘優台丞’은 『위략』에 전하지 않아 전모를 추측하기 어렵다. 다만 위의 사례와 같이 『양서』의 찬자가 여러 사서를 대조한 증거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판본에 따른 문제일 여지도 있다. 이 외의 구절은 『삼국지』의 기사를 요약했으며, 소노부와 절노부, 대가(大加), 대가(大家) 관련 내용은 『양서』에서 생략되었다.

〈표 4〉는 『양서』 고구려전에서 습속 부분의 원전을 대조한 두 번째 부분이

〈표 4〉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 분석 4 (속속 2)

번호	『양서』 고구려전	원전	
		서명	기사
4-①	其俗喜歌舞。國中邑落男女，每夜羣聚歌戲。	삼국지	其民喜歌舞，國中邑落，暮夜男女羣聚，相就歌戲。
4-②	×	삼국지	無大倉庫，家家自有小倉，名之爲桴京。
4-③	其人潔清自喜，善藏釀。跪拜申一脚，行步皆走。	삼국지	其人潔清自喜，善藏釀。跪拜申一脚，與夫餘異，行步皆走。
4-④	以十月祭天大會，名曰東明。	후한서 삼국지	以十月祭天大會，名曰，東盟。 以十月祭天，國中大會，名曰，東盟。
4-⑤	×	삼·부 위략 (원·태·집)	有軍事亦祭天，殺牛觀蹄以占吉凶，蹄解者爲凶，合者爲吉。 有軍事亦祭天，殺牛觀蹄，以占吉凶。
4-⑥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후한서 삼국지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4-⑦	大加·主簿頭所著似幘而無後，其小加著折風，形如弁。	후한서 삼국지	大加·主簿皆著幘，如冠幘而無後，其小加著折風，形如弁。 大加主簿頭著幘，如幘而無後，其小加著折風，形如弁。
4-⑧	×	후한서 삼국지 위략(원)	其國東有大穴，號稔神，亦以十月迎而祭之。 其國東有大穴，名陰穴，十月國中大會，迎陰神還於國東上祭之，置木陰於神坐，稔穴神於國東水上祭之。
4-⑨	其國無牢獄，有罪者，則會諸加評議殺之，沒入妻子。	후한서 삼국지 위략(원)	無牢獄，有罪，諸加評議便殺之，沒入妻子爲奴婢。 無牢獄，有罪諸加評議，便殺之，沒入妻子爲奴婢。 無牢獄，有罪則會諸加評議，便殺之，沒妻子爲奴婢。

다. 이 부분 역시 대체로 『삼국지』를 원전으로 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4-①은 『삼국지』의 “其民喜歌舞，國中邑落，暮夜男女羣聚，相就歌戲.”를 “其俗喜歌舞，國中邑落男女，每夜羣聚歌戲.”로 재편한 것인데, 『양서』의 찬자가 원

전을 인용하면서 문장을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주부·소가가 착용했다는 책과 질풍에 관한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지』의 ‘沒入妻子爲奴婢’라는 구절은 『양서』에 ‘沒入妻子’로만 기록되었는데, 아마 ‘沒入妻子’라는 구절 안에 노비로 삼는다는 뜻이 포함되었기에 생략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4-⑨는 원전이 『삼국지』인지 『위략』인지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서』에는 ‘有罪者，則會諸加評議’로 기록된 것에 반해 『삼국지』에는 者와 則이 빠져 있고, 『위략』에는 者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서』 찬자의 판단에 따른 문장의 변경인지, 『위략』을 참조한 결과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존 흐름에 따라 『삼국지』 문장의 변경으로 보려 한다.

이 밖에 『양서』에는 『위략』과 『삼국지』 부여전에 실린 “有軍事亦祭天，殺牛觀蹄以占吉凶，蹄解者爲凶，合者爲吉.”과 『삼국지』 등에 보이는 국동대혈 관련 내용이 탈락되었다. 결국 위의 두 기사는 『양서』 고구려전이 『삼국지』의 기사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 분석 5 (습속 3)

번호	『양서』 고구려전	원전	
		서명	기사
5-①	×	삼·부 위략(태)	竊盜一責十二。 盜一責十二。
5-②	×	후한서 삼국지 위략(집)	其婚姻皆就婦家，生子長大，然後將還，其俗作婚姻，言語已定，女家作小屋於大屋後，名婿屋，婿暮至女家戶外，自名跪拜，乞得就女宿，如是者再三，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傍頓錢帛，至生子已長大，乃將婦歸家。 婚姻之法，女家作小屋於大屋後，名爲婿屋，暮至女家戶外，自名跪拜，乞得就女宿，女家聽之，至生子，乃將婦歸。
5-③	其俗好淫，男女多相奔誘。	후한서 삼국지 위략(원) 위략(태)	其俗淫。 其俗淫。 其俗淫侈，相奔誘。 其俗淫侈，相奔誘。

5-④	已嫁聚, 便稍作送終之衣.	삼국지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5-⑤	其死葬, 有無棺.	삼·부 위략(원) 위략(태·집)	厚葬, 有槨無棺. 其死葬, 有槨無棺之. 其死葬, 有槨無棺.
5-⑥	×	위략	停喪百日.
5-⑦	好厚葬, 金銀財幣盡於送死.	삼국지 위략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好厚葬.
5-⑧	積石爲封, 列植松栢.	삼국지 위략	積石爲封, 列植松栢. 積石爲封, 列植松栢.
5-⑨	兄死妻嫂.	후·부 삼·부 위략	兄死妻嫂. 兄死妻嫂, 與匈奴同俗. 兄死亦殺嫂.
5-⑩	其馬皆小, 便登山.	삼국지	其馬皆小, 便登山.
5-⑪	國人尙氣力, 便弓矢刀矛.	위략(태·집)	俗有氣力, 便弓矢刀矛.
5-⑫	有鎧甲, 習戰鬪. 沃沮·東穢皆屬焉.	후한서 삼국지 위략(태)	習戰鬪, 好寇鈔, 沃沮·東穢皆屬焉. 習戰鬪, 沃沮·東穢皆屬焉. 有鎧 習戰人 … 沃沮穢皆屬之.
5-⑬	×	위략(태·집)	夫餘不能臣也.
5-⑭	×	후한서 삼국지 위략(태)	句驪一名貂耳, 又有小水貂. 有小貂.
5-⑮	×	후한서 삼국지 위략(태) 위략(집)	有別種, 依小水爲居, 因名曰, 小水貂. 出好弓, 所謂貂弓是也.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貂, 出好弓, 所謂貂弓是也. 俗出好弓, 其國都依大水而居. 俗好彎弓出, 好弓所謂貂弓也. 其國都依大水而居.

〈표 5〉는 『양서』 고구려전에서 습속 부분의 원전을 대조한 세 번째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삼국지』와 더불어 『위략』이 원전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비교적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⁶ 먼저 5-③은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其俗淫.”으로만 전하지만, 『위략』에는 “其俗淫侈(汚), 相奔

誘.”라 하여 『위략』과의 유사도가 높다. ‘男女多’라는 구절은 『양서』의 찬자가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토대로 보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5-⑤는 『삼국지』 부여전에 “厚葬, 有槨無棺.”이라 하여 유사도가 높지만, 『위략』에 “其死葬, 有槨無棺(之).”이라 하여 완전히 일치한다. 이 밖에 5-⑦~⑧ 및 5-⑩~⑫는 『삼국지』와 『위략』의 가사가 모두 반영된 구절로 판단된다.

한편 5-⑨는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보이지 않고 부여전에 “兄死妻嫂, 與匈奴同俗.”으로 전하며, “與匈奴同俗.”은 찬자의 추가 설명으로 판단된다. 5-⑨와 관련하여 『후한서』 부여전은 “兄死妻嫂.”로, 『위략』은 “兄死亦殺嫂.”로 기술하였다. 자구만 보면 『삼국지』 부여전 혹은 『후한서』 부여전이 원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구려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위략』에 유사한 구절이 있지만, 그 내용은 형이 죽으면 형수도 죽인다는 것으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 현재로서는 『양서』의 ‘兄死妻嫂.’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록되었는지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그 원전 역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5-①, ⑥, ⑬의 『위략』 기사와 『후한서』·『삼국지』·『위략』의 서옥제 및 소수맥 관련 기사는 『양서』에 채택되지 않았다. 우선 『위략』의 기사가 『양서』에 인용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형벌, 장례 등의 내용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소수맥의 경우는 고구려 차체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정보라 제외된 듯하다.¹⁷

이상에서 『양서』 고구려전의 습속 기사의 원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서』 고구려전의 습속 기사는 구절과 전개 순서를 고려하면, 『삼국지』 고구려전

16 『양서』 고구려전의 내용 중에서 『위략』을 원전으로 한 기사가 포함되었다는 분석은 鄭春穎, 2009, 앞의 글, 55쪽 및 여호규, 2014, 앞의 책, 55~60쪽에서도 진행되었다.

17 『양직공도』 북송모본 백제국사 제기에 기록된 방소국(旁小國) 기사가 『양서』 백제전에 채택되지 않은 이유와도 상통할 가능성이 있다.

이 주 원전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¹⁸ 이 밖에 『후한서』 부여전 및 고구려전, 『위략』 등도 참조되었다. 비록 『양서』 고구려전의 습속 기사가 새로운 사실을 전하지는 않지만, 현전하지 않는 『위략』을 일부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기사의 원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서』 고구려전의 관계 기사는 원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양서』 고구려전의 관계 기사는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고구려와 중국의 상쟁 기사(왕망~관구검), 2기는 고구려와 모용씨의 전투와 책봉, 3기는 송~남제 시기 고구려의 조공·책봉, 4기는 양대의 조공·책봉 기사이다. 특히 1기와 2기 사이에 있는 “其後, 復通中夏.”는 기존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양서』의 찬자가 이후 기록될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를 압축한 구절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가 상쟁(相爭)에서 조공책봉관계로 변모해 갔음을 알려주는 기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1기의 원전은 『삼국지』 고구려전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 일부 글자를 제외하고 자구가 거의 일치하며 전개 순서도 동일하다. 『후한서』 고구려전에만 보이는 건무 23년, 28년 기사는 『양서』에 채택되지 않았으며, 고구려와 관구검(管丘儉)의 전투 기사 역시 『삼국지』 고구려전을 참조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정시 5년에 고구려가 관구검에게 패배한 일은 관구검의 열전에 있다고 했는데(語在儉傳), 『양서』 고구려전이 이 지문에 따라 정시 5년 이후의 사건은 관구검전을 원전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1기는 『삼국지』 고구려전이 단독 원전으로 활용되었다.

2기는 고구려와 모용씨 간의 전투와 책봉 기사로 구성되었다. 2기의 기사는 전대의 사료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는 원전이 무엇인지 알 수

18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一潮閣, 59쪽에서는 『삼국지』 고구려전의 서술 순서가 『위략집본』의 서술 순서와 일치하므로 『삼국지』 고구려전이 『위략』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이럴 경우, 『양서』 고구려전 역시 『위략』이 원전일 가능성이 있으나, 『위략』이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없다. 『진서』나 『자치통감』 등에 관련 기사가 존재하지만, 두 사서 모두 『양서』보다 후대에 완성되었으므로 『양서』의 원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전하지 않지만, 남북조 시기에 편찬된 다양한 진사(晉史)를 원전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은 『양서』에서만 전하는 기사이다. 여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인데, 『양서』 고구려전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기는 송(宋), 남제(南齊)와의 관계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고구려 장수왕 시기의 교섭은 ‘歷宋·齊並授爵位’라는 구절로 대신하였고, 문자왕의 책봉호를 전한다. 『송서』, 『남제서』와 같은 당대의 사료를 참고하였다고 판단된다.

4기는 양과의 교섭이 주 내용이다. 대체로 『양서』 본기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나, “十七年, 雲死, 子安立.”과 같이 그렇지 않은 구절도 존재한다. 한편 『양서』 고구려전에서는 중대통 6년에 고구려가 표를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고 기술하였지만, 『양서』 본기의 중대통 6년에는 백제의 사신 파견만 확인된다. 『양서』 고구려전에만 전하는 교섭 기사로도 볼 수 있으나, 찬자가 잘못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결국 『양서』 고구려전의 교섭 기사는 1기가 『삼국지』 고구려전만 원전으로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 시대와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사서를 인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양직공도』와의 관계

『양직공도』는 형주자사였던 소역(蕭繹)이 그린 두루마리 그림으로, 양에 조공한 국가들의 사신도와 각 나라에 대한 약간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양직공도』는 1960년을 전후로 남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직공도』가 당 시기의 작품이 아니라 소역이 만들었다는 양 시기의 『직공도』를 원도(原圖)로 하여 북송 시기에 모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기 시작

하였다.¹⁹

『양직공도』 복송모본이라 불리는 이 자료에는 백제와 왜에서 온 사신의 그림과 제기가 있어 한국학계와 일본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선행 연구에서 『양직공도』 복송모본 백제국사와 『양서』 백제전을 비교하여 상호 일치하는 구절을 다수 발견하였고, 이와 함께 두 자료의 편찬 시기를 고려하여 『양서』 백제전이 『양직공도』 백제국사를 원전으로 했다는 이해가 주류를 이루었다.²⁰ 아울러 『양서』 왜전 역시 『양직공도』 왜국사의 제기와 유사하며, 『양서』 제이전이 『양직공도』를 원전으로 했다는 견해도 발표되었다.²¹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한다면, 『양서』 제이전의 기사가 『양직공도』 제기를 원전으로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직공도』 복송모본에는 고구려와 신라 사신의 모습과 제기가 전하지 않는다. 『양서』 제이전이 『양직공도』를 원전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래 『양직공도』에는 고구려 및 신라 사신의 모습과 당대의 정보가 기술된 제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서』 고구려전의 내용은 『후한서』·『삼국지』·『위략』 등의 전대 사서를 참고하여 편찬되었고, 『양

19 金維諾, 1960, 「職貢圖의時代與作者」, 『文物』 1960-7. 이보다 앞선 1959년에 남경박물관 소장 『직공도』에 있는 백제국사와 왜국사에 관한 논고가 북한학계에서 발표되었다. 김용준, 1959, 「백제 복식에 관한 자료」, 『문화유산』 1959-6.

20 李弘植, 1987, 「梁 職貢圖 論考-특히 百濟國 使臣 圖經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408쪽; 金鍾完, 2000, 「《양직공도》百濟國記의 文獻的 檢討」,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 全海宗博士 八旬紀念論叢』, 지식산업사, 27쪽; 이용현, 2007, 「梁職貢圖·百濟國使條의 ‘旁小國」, 『가야제국과 동아시아』, 통천문화사, 180~182쪽; 尹龍九, 2012b, 앞의 글, 250~251쪽. 반면 全海宗, 2000, 앞의 글, 27~29쪽에서는 『양직공도』 백제국사와 『양서』 백제전이 이전 에 편찬된 어떠한 기록을 같이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1 榎一雄, 1963, 「梁職貢圖について」, 『東方學』 26(1992, 「梁職貢圖について」, 『榎一雄著作集』 7, 汲古書院 재수록); 西嶋定生, 1963, 「職貢圖卷·倭國使」, 『世界美術大系』 8(中國美術 1), 講談社; 上田正昭, 1964, 「職貢圖倭人の風俗」, 『風俗』 3-4(1968, 「職貢圖の倭國使について」, 『日本古代國家論究』, 塙書房 재수록).

『직공도』 백제국사 제기가 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구려와 양의 교섭이 적지 않았고 『양서』 백제전이 『양직공도』 백제국사 제기를 인용하여 새로운 내용을 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서』 고구려전에 『양직공도』 고구려국사 제기에 실렸을 당대의 정보가 원전으로 활용되지 않은 점은 의아스럽다.

현재 『양직공도』의 원본과 완전한 형태의 모본은 전하지 않지만, 『위략』과 같이 『한원』에 그 일문(逸文)이 전한다.

- A. 양 원제의 직공도에서 이르길 고려의 부인은 흰옷을 입고, 남자는 붉은 비단옷을 입으며 금은으로 장식한다. 귀한 자는 책을 쓰는데 뒷부분에 금은을 시슴의 귀처럼 만들어 책의 윗부분에 더한다. 천한 자는 절풍을 쓰는데 그 형태가 옛 고깔과 같고 귀를 뚫어 금고리를 한다. 상의는 衫이라 하고 하의는 長袴라고 한다. 허리에는 은으로 만든 대를 갖추었고 왼쪽에는 숫돌을 차며 오른쪽에는 오자도를 차고 발에는 두예타를 신는다.²²

『한원』 변이부 고려전은 고구려 복식의 전반적인 상황을 양 원제가 편찬한 『직공도』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양 원제의 이름이 소역이므로, 『한원』에서 설명하는 『직공도』는 현재 『양직공도』라고 불리는 자료와 같은 것이다. 실제로 『구당서』 경적지와²³ 『신당서』 예문지에²⁴ 각각 양 원제의 『직공도』 1권이 기록되어 있어²⁵ 적어도 당과 『신당서』가 편찬된 북송대 무렵까지는 『양직공

22 『한원』 변이부, 고려. “梁元帝職貢圖云, 高驪婦人衣白, 男子衣紅錦, 飾以金銀, 貴者冠幘, 而後以金銀爲鹿耳, 加之幘上. 賤者冠折風, 其形如古之弁, 穿耳以金環. 上衣曰衫, 下曰長袴. 腰有銀帶, 左佩礪, 右佩五子刀, 足履豆禮鞮.” 해당 구절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編, 2018,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의 교감을 따랐다.

23 『구당서』 권46, 지26, 경적상. “職貢圖一卷梁元帝撰.”

24 『신당서』 권58, 지48, 예문2. “梁元帝職貢圖一卷.”

25 『한원』에서 ‘양 원제’의 『직공도』임을 밝힌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유통되고 있던 배

도』의 원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원』에 전하는 『양직공도』 인용 기사가 원본의 제기에서 비롯되었다면, 『양서』 고구려전에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한원』에 전하는 양 원제의 『직공도』 기사는 복식에 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비교가 어렵고, 현전하는 기사 역시 『양서』 고구려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에 『양직공도』가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후 2011년에 중국의 조찬봉(趙燦鵬)이 『양직공도』의 새로운 일문의 존재를 발표하였다.²⁶ 18세기 청의 장경(張庚)이란 인물이 시기를 알 수 없는 흑백 [白描]의 『직공도』에 기록된 18국의 사신도와 제기를 모사하였고, 이를 중화민국의 갈사동(葛嗣澎)이 제기만 전제한 자료를 발견한 것이다. 『양직공도』 장경 모본의 발견으로 『양직공도』 북송모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고구려와 신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제기가 파악되었다. 『양직공도』 장경모본에 전하는 고구려의 제기는 아래와 같다.

- B. 고구려는 진대 동이 부여의 별종이다. 한 시기에 현도의 고려현에 거하였으므로 이름으로 하였다. 광무 연간(32)에 고구려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니 비로소 왕을 칭했다.²⁷ 그 습속에 인성은 흉악하고 포악해 나쁘나, 품위를 지켜 스스로를 선하게 여긴다.²⁸ 부인은 흰 옷을 입으며, 남자는 소매가 비단인 옷을

자야(裴子野)의 『방국사도(方國使圖)』나 강승보(江僧寶)의 『직공도』 등 여러 종류의 『직공도』와 구분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각종 『직공도』의 종류와 전승에 관해서는 尹龍九, 2012a, 「『梁職貢圖』의 傳統과 摹本」, 『木簡과 文字』 9, 132쪽 참고.

26 趙燦鵬, 2011, 「南朝梁元帝《職貢圖》題記佚文的新發現」, 『文史』 94.

27 『후한서』 권1 하, 광무제기1 하. “(建武 8年, 32) 十二月 高句麗王遣使奉貢.”;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30. “當此時爲侯國, 漢光武帝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 『양서』 권54, 열전48, 高句麗. “光武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稱王.”

28 조우연, 201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보이는 修辭의 표현과 사료 구성」, 『韓國古代史探究』 32, 372~373쪽. 『삼국지』 고구려전의 ‘淸淸自喜’에 대해 위

입고 금으로 장식했다. 귀인은 책을 쓰는데 뒤가 없고, 금으로 사슴의 귀를 만들었으며 깃털을 책 위에 더했다. 천인은 절품을 쓰는데 그 형태는 옛 고깔과 같으며, 귀를 뚫어 금고리를 했다. 상의는 표라고 했고, 하의는 장고라고 했으며, 허리에는 은색 띠를 갖추었다. 자못 글을 익혀 그 사신이 중국에 이르면 경서와 사서를 구함이 많았다.²⁹ 건무 연간(후한 25~56, 동진 317)에³⁰ 표를 올리고 공물을 바쳤다.³¹

사료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직공도』 장경모본은 『한원』에서 인용한 양원제의 『직공도』 기사보다 많은 내용을 전한다. 사료 A와 B의 대조를 통해 『양직공도』 장경모본과 양원제의 『직공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양직공도』 장경모본의 기사는 기원 → 조공 → 성격 → 의복 → 서적 → 조공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복과 서적을 제외하면 모두 『후한서』, 『삼국지』,

생상의 청결함을 뜻하기보다는 기풍 혹은 성품에 대한 수사적 표현임을 지적하며 『맹자』의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양직공도』 장경모본 고구려 제기의 ‘人性凶急惡’의 뒤에 이어지는 ‘而’가 역접(逆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기풍 혹은 성품에 대한 수사적 표현일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 29 『양직공도』 장경모본에서만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제서』 고구려전에 “知讀五經.”이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 30 『후한서』 권1 하, 광무제기1 하. “(建武 8年, 32) 十二月 高句麗王遣使奉貢.”; 『후한서』 권1 하, 광무제기1 하. “(建武 23年 冬10月, 47) 高句麗率種人詣樂浪內屬.”;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30. “當此時爲侯國, 漢光武帝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
건무를 연호로 쓴 시기는 후한 광무제(25~56), 동진 원제(317~318) 연간이다. 그러나 『진서』 권6, 제기 6, 원제에는 건무 연간에 고구려가 조공했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 31 『에일올려서화속록(愛日吟廬書畫續錄)』 권5. “高句驪晉東夷夫餘之別種也. 漢世居玄菟之高驪縣, 故以號焉. 光武初 高句驪王遣使朝貢, 則始稱王. 其俗, 人性凶急惡, 而潔淨自善. 婦人衣白, 男子衣袷錦, 飾以金銀. 貴者冠幘而無後, 以金銀爲鹿耳, 羽加之幘上. 賤者冠折風, 其形如古之弁, 穿耳以金環. 上衣曰表, 下衣曰長袴, 腰有銀帶. 頗習書, 其使至中國則多求經史. 建武中, 奉表貢獻.”
『양직공도』 장경모본에 관해서는尹龍九, 2012a, 앞의 글, 155~167쪽 참고.

『위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고구려의 의복 내용을 전하는 기사는 양 원제 『직공도』와 『양직공도』 장경모본이 유사성을 보인다.³²

C-1. 직(한): 梁元帝職貢圖云, 高驪婦人衣白, 男子衣紅錦, 飾以金銀.

직(장): 婦人衣白, 男子衣紅錦, 飾以金銀.

C-2. 직(한): 貴者冠幘, 而後以金銀爲鹿耳, 加之幘上.

직(장): 貴者冠幘而無後, 以金銀爲鹿耳, 羽加之幘上.

C-3. 직(한): 賤者冠折風, 其形如古之弁, 穿耳以金銀.

직(장): 賤者冠折風, 其形如古之弁, 穿耳以金環.

C-4. 직(한): 上衣曰衫, 下曰長袴, 腰有銀帶, 左佩礪, 右佩五子刀, 足履豆禮鞞.

직(장): 上衣曰表, 下衣曰長袴, 腰有銀帶.

사료 C는 양 원제 『직공도』와 『양직공도』 장경모본의 의복 관련 기사만 대조한 것이다. 양 원제 『직공도』가 더 많은 정보를 전하면서도, 『양직공도』 장경모본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의복 기사에 한해서는 양자 간 같은 원본을 공유하며, 『양직공도』 장경모본의 고구려 제기는 원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래의 『양직공도』에는 『양서』 고구려전과 다른 고구려의 의복 기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억측하자면 『양직공도』 원본에는 『양직공도』 복송모본 백제국사 제기와 같이 당대의 정보들로 구성된 고구려의 제기가 존재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에 백제와 달리 당대의 정보가 포함된 『양직공도』가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양서』의 찬자가 편집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양서』 제이전 동이의 각 국가별 기사를 살펴

32 사료 C에서 직(한)은 『한원』 인용 양 원제 『직공도』, 직(장)은 『양직공도』 장경모본을 의미한다.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이 직(한)과 직(장)이 일치하는 구절이다.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상정된다.

『양서』 제이전 동이에서 지리·습속 등의 기사에 한정하면 고구려와 왜는 『삼국지』·『위략』·『후한서』를, 백제와 신라는 『삼국지』·『후한서』에 『양직공도』를 활용하여 기사가 작성되었다. 고구려-왜, 백제-신라의 원전이 구분되는 이유는 백제와 신라가 『삼국지』 한전에 포함되어 단독으로는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가 『삼국지』에 단독으로 입전되어 많은 정보를 전하는 반면, 『양서』의 찬자가 백제전과 신라전을 편찬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전대의 사서가 없어 『양직공도』의 제기로 보완하였던 것이다. 이는 『양서』 왜전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³³ 결국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자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 열전 등에 고구려 관련 정보가 충분히 존재해 『양직공도』를 인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³⁴

3. 후대 사서의 『양서』 고구려전 인용

앞에서는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을 검토했다면, 이 절에서는 『양서』보다 후대에 편찬된 사서들의 『양서』 고구려전의 인용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관 10년(636)에 『양서』와 『진서(陳書)』가 『북제서』, 『주서』, 『수서』와 함께 완성되었다. 이 5개의 사서는 모두 정관 연간에 편찬되었다고 하여 정관오사(貞觀五史)로도 불린다. 이후 현경 4년(659)에 이연수(李延壽)가 남조의 역사를 다룬 『남사』와 북조의 역사를 기술한 『북사』를 완성하였는데, 이 두 사서에서 『양서』 고구려전의 인용이 확인된다.

33 다만 『양서』 왜전은 양과 왜의 직접적인 교섭이 없다는 점에서 『삼국지』 왜전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상상의 결과물로 보기도 한다. 西嶋定生, 1963, 앞의 책; 上田正昭, 1964, 앞의 글.

34 민족지적 기록을 채택할 때, 이전 사서(前史)의 수록 여부가 주요한 기준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윤용구, 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 15쪽.

먼저 『남사』 고구려전은 권79 열전 69의 이맥(夷貊)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시 동이의 분류에 배치되었다. 고구려전의 서술에 앞서 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서문이 등장한다. 이는 『양서』 제이전(諸夷傳)의 동이 서문과 한 글자를 빼고 일치하며, 『남사』 이맥전의 동이 서문이 『양서』 제이전의 동이 서문을 원전으로 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어지는 『남사』 고구려전의 서술에서는 기원 부분이 생략되었고, 대신에 “其先所出, 事詳北史.”라는 구절이 확인된다. 즉, 고구려의 기원에 관한 내용은 『북사』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후 『남사』 고구려전은 고구려의 지리와 주변 세력에 대해서는 서술하면서도(地方可二千里, 中有遼山, 遼水所出. 漢·魏世, 南與朝鮮獬貊·東與沃沮·北與夫餘接),³⁵ 한 무제의 현도군 설치와 고구려현을 속하게 했다는 내용은 채택하지 않았다(漢武帝元封四年, 滅朝鮮, 置玄菟郡, 以高句驪爲縣以屬之).³⁶ 그러면서 다시 고구려의 습속은 『양서』 고구려전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사』 고구려전은 『양서』 고구려전을 원전으로 활용하면서도 기원 및 한과의 관계 기사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³⁷

위와 같은 인용 양상은 이후에도 이어진다. 인용 흐름대로라면 습속 다음에 『양서』 고구려전에 전하는 왕망과의 관계 기사와 한대(漢代)의 교섭 기사가 등장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관구검의 고구려 공격과 모용씨와의 관계 기사도 『남사』 고구려전에 부재한다. 한~위, 모용씨와의 관계 기사가 생략된 것이다. 이후 동진 시기의 기사에 이르러서야 다시 『양서』 고구려전이 인용된다.

그렇다면 『남사』 고구려전은 왜 『양서』 고구려전에 전하는 한~위, 모용씨

35 『남사』 권79, 열전 69, 이맥하 고구려.

36 『양서』 권54, 열전 48, 제이 고구려.

37 『양서』 고구려전에 전하는 고구려의 기원 설화는 『북사』 백제전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북사』 백제전은 『양서』 고구려전과 『후한서』 부여전의 기사를 동시에 인용한 듯한 양상을 보인다.

관계 기사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북사』 고구려전에서 찾을 수 있다. 『북사』 고구려전에 『양서』 고구려전에 전하는 한~위, 모용씨 관계 기사가 인용된 것이다. 자구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과 전개 순서를 고려하면 『양서』 고구려전을 원전으로 채택했다고 판단된다. 즉, 『남사』와 『북사』의 찬자는 『양서』 고구려전의 기사를 남조-고구려의 역사를 정리한 『남사』 고구려전이 아닌 북조의 사서인 『북사』 고구려전에 전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남사』의 편찬 방식을 기존 연구에서는 전대의 사서를 편집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였다.³⁸ 실제로 『남사』 고구려전은 새로운 내용을 전하지 않고, 기존 사서에 기술된 구절들을 재정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용 방식을 고려하면 『남사』 찬자의 편집 의도를 일부나마 간취할 수 있다. 한~위, 모용씨에 이르는 고구려 관계 기사를 굳이 『북사』 고구려전에 편입한 까닭은 당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한다.³⁹ 한-위-5호 16국-북위-서위-북주-수를 거쳐 결국에는 당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남사』와 『북사』 고구려전에서 『양서』 고구려전을 인용하면서 남조의 고구려 표기 방식인 고구려(高句驪), 고려(高驪), 구려(句驪)를 따르지 않은 점, 북위의 멸칭인 색로(索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⁴⁰ 등도 당의 정통성 확립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결국 『양서』 고구려전은 『남사』 고구려전의 습속 및 관계 기사가 거의 그대로 인용되면서도 일부는 『북사』 고구려전으로 옮겨져 당의 정통성 확립에 활용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당 중기인 800년을 전후로 하여 재상이었던 두우(杜佑)가 중국 역대의

38 劉節 著, 辛太甲 譯, 2000, 『中國史學史 講義』, 신서원, 231쪽; 중국사학사 편집위원회 著, 김동애 譯, 2006, 『중국사학사-선진 한 당 편』, 간디서원, 256쪽; 國史編纂委員會 編, 2007b,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2』, 신서원, 11쪽.

39 신승하, 2011,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35쪽에서는 『남사』와 『북사』의 편찬 배경으로 분열기를 통일한 당의 통사적인 역사 파악 필요와 이전 단대사들의 편찬 표준의 불일치를 거론하였다.

40 전상우, 2019, 앞의 글, 289쪽. 해당 연구에서는 『양서』가 호족(胡族) 출신인 당에서 편찬되었기에 색로 등의 멸칭을 피했다고 이해하였다.

전장(典章)을 정리한 『통전』을 편찬하였다. 『통전』은 총 9문(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홉 번째 문에 한~당 시기에 존재했던 주변 민족에 대한 기술인 변방문(邊防門)이 배치되었다. 최근 『통전』의 변방문에 포함된 동이목(東夷目)을 분석한 학위논문이 제출되어 『통전』의 고구려 기사가 어떠한 원전을 활용했는지 규명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통전』 고구려절의 습속 기사는 『후한서』를 주 원전으로 채택하였고, 『삼국지』, 『주서』, 『수서』 등도 참조되었다고 한다. 『양서』 고구려전은 『통전』 고구려절의 습속 기사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관계 기사에서 『양서』 고구려전이 활용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기사가 그러하다.⁴¹ 『삼국지』 고구려전은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을 ‘語在儉傳’이라 하며 마무리하였다.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는 해당 내용을 『삼국지』 고구려전을 원전으로 삼아 기술하였는데, 원전의 지시에 따라 『삼국지』 관구검전의 고구려 공격 기사를 정리하였다. 즉, 『통전』 고구려절의 관구검 관련 기사가 『양서』 고구려전을 원전으로 채택한 이유는 『양서』 고구려전이 『삼국지』 고구려전과 관구검전을 모두 아울러 가장 많은 정보를 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송대에 편찬된 『태평환우기』, 『책부원귀』, 『태평어람』의 고구려 습속 기사 역시 『양서』 고구려전보다 『후한서』 고구려전 혹은 『남사』 고구려전 등이 활용되었다. 반면 관계 기사에서는 『양서』 고구려전을 참조한 양상이 보이는데, 이는 『통전』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사가들이 『양서』 고구려전의 가치를 습속 기사보다는 관계 기사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결국 『양서』 고구려전이 가진 사료적 가치는 후대 사서의 인용 양상을 보진대, 기존 사서를 충실히 인용하면서 전대 정사류에 전하지 않는 관계 기사를 채택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1 송영대, 2020, 앞의 글, 1쪽, 131~181쪽. 이 밖에 『통전』 고구려절에서 『양서』 고구려전을 인용한 기사로는 모용황의 고구려 공격이 있지만, 『위서』 고구려전의 내용과 함께 인용한 차이가 있다.

III.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 방식과 저술 의도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서』 고구려전의 주 원전은 『삼국지』 고구려전이며, 『후한서』 고구려전·『위략』·『한서』 지리지 등의 참고 자료가 활용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삼국지』 고구려전이 주 원전인 부분은 처음부터 관구검의 고구려 공격까지이다. 그렇다면 『양서』 고구려전은 원전 자료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편집했는지 궁금해진다. 이번 장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 방식과 저술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 방식 중 첫째는 원전 기사의 축소 편집을 들 수 있다. 원전 기사의 축소 편집의 사례는 『양서』 고구려전에서 기원을 설명하는 문장인 “王置之豕牢，豕以口氣嘘之，不死，王以爲神，乃聽收養。”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후한서』 부여전의 서두에 등장하는 동명 설화를 원전으로 삼았는데, 본래 문장은 “王令置於豕牢，豕以口氣嘘之，不死，復徙於馬蘭，馬亦如之。王以爲神，乃聽母收養，名曰東明。”이다. 여기서 밑줄 친 구절이 『양서』 고구려전에는 삭제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량을 적절히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동명이란 이름을 삭제한 이유는 『양서』 고구려전의 서두에 “高句驪者，其先出自東明。”이라 하며 그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양서』 고구려전의 “公孫度之雄海東也，伯固與之通好.”는 『삼국지』 고구려전의 “公孫度之雄海東也，伯固遣犬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破之.”을 원전으로 삼았다. 앞의 사례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원전 기사를 축소한 후 나머지 부분을 재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遣犬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破之.”가 “與之通好.”라는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다음으로 찬자의 의도 혹은 주관적 이해에 따른 문장의 변개가 있다.⁴² 관계

42 『양서』 백제전과 신라전도 『양서』의 찬자가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문구를 추가하거나 변개했다는 연구가 있다(위가야, 2019, 「백제 무령왕대 ‘更爲強國’설의 재

기사에 등장하는 『양서』 고구려전의 “順·和之間，復數犯遼東寇抄，靈帝建寧二年，玄菟太守耿臨討之，斬首虜數百級，伯固乃降屬遼東.”은 원전의 축소 편집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그 의도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는 『삼국지』 고구려전의 “順·桓之間，復犯遼東，寇新安·居鄉，又攻西安平，於道上殺帶方令，略得樂浪太守妻子，靈帝建寧二年，玄菟太守耿臨討之，斬首虜數百級，伯固降，屬遼東，嘉平中，伯固乞屬玄菟.”에서 寇을 寇抄로 바꾸고 밑줄 친 문장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삭제된 부분은 분량에 따른 조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삭제된 구절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대방령이 죽고 낙랑태수의 처자가 사로잡힌 내용이다. 중국이 패배한 기록을 ‘寇抄’ 두 글자로 정리하고 고구려가 내속한 기사는 그대로 남긴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양서』 고구려전의 “至殤·安之間，其王名宮，數寇遼東，玄菟太守蔡風討之不能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전인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至殤·安之間，句麗王宮數寇遼東，更屬玄菟，遼東太守蔡風·玄菟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興師伐之，宮詐降請和，二郡不進，宮密遣軍攻玄菟，焚燒候城，入遼隧，殺吏民，後宮復犯遼東，蔡風輕將吏士追討之，軍敗沒.”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삭제된 밑줄 친 부분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현도성이 불타는 등 후한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내용이다. 이 역시 “不能禁.”이라는 세 글자로 처리되었다.

앞서 축소 및 재정리 사례로 언급한 『양서』 고구려전의 “公孫度之雄海東也，伯固與之通好.” 역시 『삼국지』 고구려전의 “公孫度之雄海東也，伯固遣犬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破之.”에서 공손도와 고구려의 부산적 격파 내용을 삭제하였다. 중국이 패배한 사례는 아니지만, 고구려의 성과도 삭제한 사례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서』 고구려전은 중국이 고구려에게 큰 피해를 입거나 고구려가 성과를 거둔 사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김토, 『韓國古代史研究』 95, 94~97쪽). 이 글은 이 연구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반면 중국이 고구려를 크게 이긴 일들은 대체로 세세하게 옮겨 적었다.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삼국지』 고구려전뿐만 아니라 『삼국지』 관구검전의 기사까지 인용하여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그 결과, 『양서』 고구려전은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신게 되었고, 『통전』 고구려절에서 이를 인용하였다.

한편 왕망과 고구려후의 죽음에 관한 기사도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전하는 『양서』 고구려전의 기사는 『삼국지』 고구려전이 원전인데, 요서 대운 전담의 사망 및 엄우가 고구려를 두둔한 발언은 제외한 반면 고구려후가 죽임을 당하고 고구려가 하구려로 불린 일은 남겨두었다. 즉, 고구려후의 죽음에 관한 일련의 사건을 고구려의 일방적 잘못과 그에 따른 중국의 정당한 토벌로 변개한 것이다. 이 밖에 광무 8년 고구려의 조공 기사는 몇몇 자구를 제외하고 인용한 점도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를 종합하면 『양서』 고구려전은 중국에 유리한 일은 전하면서도 불리한 일은 적절한 단어로 얼버무렸다고 할 수 있다.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는 자신이 이해한 바를 토대로 새로운 문장을 보입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문장은 “其後，復通中夏.”이다. 원전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니라 이후 전개될 일을 찬자가 정리한 것이다. 기원 부분의 “高句驪者，其先出自東明。東明本北夷囊離王之子.”，“其後支別爲句驪種也.”，지리의 “其國，漢之玄菟郡也.”도 그러하다. 이 문장들은 기존 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문장의 위치와 내용을 고려하면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가 보입한 구절로 추정된다. <표 1>을 서술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는 고구려의 기원에 관한 제반 사료를 조사하면서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別種)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그 결과 고구려와 부여가 같은 시조를 공유한다고 이해한 듯하다. 이 때문에 『후한서』 부여전에 실린 동명 설화가 고구려의 기원 부분에 배치된 것이다.⁴³

43 한편 부여의 동명 설화가 『양서』 고구려전의 기원 부분에 실린 이유를 찬자가 『위

새로운 문장의 보입은 언뜻 기존 문장의 단순한 정리로도 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서』 고구려전은 물론 이외의 국가들에 관한 사료를 확인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양서』 제이전에 실린 모든 문장이 역사적 사실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⁴

이 밖에 “其俗好淫，男女多相奔誘.”，“雖土著，無良田，故其俗節食.”은 완전히 새로 보입한 문장이 아니라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가 원전의 기사를 읽고 이해한 대로 글자를 고치거나 더한 구절로 판단된다. “其俗好淫，男女多相奔誘.”는 『삼국지』 고구려전에 “其俗淫.”으로, 『위략』에는 “其俗淫侈(汚)，相奔誘.”로 전한다. 아마 『위략』을 보고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好”와 “男女多”를 추가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기사인 듯하다. “雖土著，無良田，故其俗節食.”는 본래 『삼국지』 고구려전에 “無良田，雖力佃作，不足以實口腹，其

략』을 참고한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여호규, 2013, 「『삼국지』 「동이전」 부여전과 고구려전의 비교 검토」,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68~170쪽). 『삼국지』 부여전의 말미에는 ‘魏略曰 舊志又言’을 인용하여 『후한서』 부여전과 내용이 다른 동명 설화가 전한다. 이럴 경우, 『삼국지』 부여전에 실린 내용은 ‘舊志’를 인용한 동명 설화이고, 『후한서』 부여전의 동명 설화는 『위략』에 전하는 동명 설화로 이해할 수 있다. 동명 설화의 종류가 최소 두 가지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양서』 고구려전은 『후한서』 부여전의 동명 설화를 원전으로 활용했으므로, 『위략』을 참조한 결과가 된다.

44 최근 『양서』 백제전의 ‘更爲強國’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양서』 찬자의 평가로 이해한 견해가 발표되었다(백길남, 2018, 「중국왕조의 ‘百濟略有遼西’記事 서술과 인식-百濟郡 설치를 중심으로-」, 『百濟學報』 25, 199쪽; 위가야, 2019, 앞의 글, 96쪽). 『양서』 임읍전의 “爾後頻年遣使貢獻，而寇盜不已.”，하남전의 “其使或歲再三至，或再歲一至.”도 『양서』 찬자의 정리 부분으로 보기도 한다(전상우, 2019, 앞의 글, 292쪽, 299쪽). 이 밖에 『양서』 예예국전(芮芮國傳)에도 백제전의 “更爲強國”과 유사한 구절이 보인다. “齊建元元年，洪軌始至其國，國王率三十萬騎出燕然山東南三千餘里，魏人閉關不敢戰，後稍侵弱，永明中，爲丁零所破，更爲小國而南移其居.”가 그것이다. 『양서』 제이전 내에서 ‘衰弱者累年’-‘後稍侵弱’과 ‘更爲強國’-‘更爲小國’라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보인다는 것은 『양서』 제이전의 전반적인 편찬 방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해당 내용은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의 2019년 10월 분과총회 토론 과정에서 언급된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俗節食.”, 『후한서』 고구려전에 “少田業, 力作不足以自資, 故其俗節於飲食.”, 『위략』에 “其國貧儉土着(著).”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문장은 『삼국지』·『후한서』·『위략』 세 기사를 모두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雖土著’는 보이지 않는다. 『위략』에 ‘土着(著)’이 보이긴 하지만, 『삼국지』 고구려전의 ‘雖力佃作’을 풀어 쓴 듯하다. ‘力佃作’을 ‘土著’으로 바꾼 이유에는 『위략』의 문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처럼 위의 두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양서』 고구려전에는 원전의 기사를 찬자의 주관에 따라 고친 구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전의 의도가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가 생각한 바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료로 활용할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漢武帝元封四年, 滅朝鮮, 置玄菟郡, 以高句驪爲縣以屬之.”, “中有遼山, 遼水所出.”은 『삼국지』·『후한서』·『위략』에 보이지 않는다. 『한서』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서』 고구려전의 기원~관구검과의 전투 기사는 문장뿐만 아니라 배치 순서도 『삼국지』 고구려전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외이다. 『양서』의 찬자가 고구려와 관련한 사료를 조사하면서 보이는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보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지』 등의 사료를 살펴보면 고구려가 현도군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정작 그 연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마 『양서』의 찬자가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규명하고자 보입한 구절일 것이다. “中有遼山, 遼水所出.”은 『한서』 지리지의 고구려 기사를 확인하면서 추가한 문장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양서』 고구려전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서』 고구려전은 습속 기사→고구려와 중국의 상쟁 기사(왕망~관구검)→고구려와 모용씨의 전투와 책봉→송~남제 시기 고구려의 조공·책봉→양대의 조공·책봉 기사로 나눌 수 있다. 본래 고구려는 한의 현도군에 속했으나 누차 한에 반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한~위에 걸쳐 토벌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움직임은 원전의 기록보다 축소된 것처럼 서술된 반면, 한과 위의 토벌은 분량만 줄어들고 그대로 인용되었다. 이후 “元帝授平州刺史.”로 표현한 것처럼 모용씨가 동진으로부터 평주자사에 책봉되어 주변을 제어할 임

무를 받았지만, 고구려를 제어할 수 없었음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송에 들어서 부터는 고구려가 중국을 공격한 기사가 보이지 않고, 조공·책봉의 활동만 기록 되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변화는 양 고조가 즉위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양 고조의 치세에 고구려가 조공한 연도를 모두 기록한 점이 그러하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전개를 통해 『양서』의 찬자가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추측건대, 한·위는 고구려를 무력으로 다스렸고 모용씨는 고구려의 제어에 실패했지만, 송·남제에 들어서부터 무력이 아닌 덕으로 교화하여 조공·책봉이 시작되었고, 양 고조의 치세에 이르러 덕화(德化)에 따른 조공이 절정에 달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즉, 양대에 비로소 주변 이민족을 덕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양서』 권64 열전 48 제이의 찬자가 사론(史論)을 통해 “고조가 덕으로써 품었으므로 조공이 해마다 이르렀으니 아름답다(高祖以德懷之, 故朝貢歲至, 美矣).”라고 한 것과도 통한다. 아울러 『양서』 고구려전이 당 시기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어졌다고보다는 중화주의에 입각한 양대의 시각을 밑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양서』 제이전의 동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왜(주유국·혹치국·나국), 부상국, 여국, 문신국, 대한민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백제전은 『삼국지』·『후한서』·『송서』·『남제서』 등과 『양직공도』로 대표되는 양 시기의 자료, 신라전은 『삼국지』·『후한서』·『위략』 등과 양을 방문한 백제 사신의 전언 등을 토대로 편찬되었다. 반면 『양서』 고구려전과 왜전은 『삼국지』를 원전으로 삼았다. 고구려전과 왜전의 분량이 더 많음에도 백제전, 신라전과 달리 새로운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양서』 제이전에서 분량이 가지는 의미가 해당 국가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도와 항상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양서』 고구려전은 기존 연구처럼 『삼국지』 고구려전이 주 원전으로 활용되

었다. 그러나 『삼국지』 고구려전만 활용된 것은 아니고, 『후한서』 고구려전, 『위략』, 『한서』 지리지, 『남제서』 등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 채택 상황을 살펴보면, 최신 정보는 사용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자료를 원전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직공도』와 같이 양대에 작성된 사료를 바탕으로 서술된 『양서』 백제전 및 신라전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양직공도』는 양 원제 소역이 만든 두루마리 그림으로, 양에 조공한 국가들의 사신도와 각 나라에 대한 약간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직공도』의 원본은 현전하지 않지만, 『한원』 고려기에 인용된 일문과 최근 발견된 『양직공도』 장경모본의 고구려 제기를 비교한 결과 『양직공도』 원본에는 고구려에 관한 당대의 모습이 기록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양서』의 찬자는 『삼국지』 고구려전의 민족지적 내용을 가치 있게 평가하여 이를 고구려전의 원전으로 삼았다. 백제와 신라는 『삼국지』에 단독으로 전하지 않기에 『양직공도』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대의 사서에서는 『양서』 고구려전이 『삼국지』를 거의 전재했기 때문에 당대의 사료를 전거로 한 관계 기사를 위주로 인용하게 되었다.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는 원전을 활용하면서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전의 기사를 옮기면서도 분량이 길거나 중국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기사 등을 축소하거나 문장을 바꾸어 실었다. 또한 제반 사서를 토대로 찬자 자신이 이해하거나 정리한 구절을 새로이 보입하였다. 여기에는 일부 단어의 수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원전의 재편집은 양 고조의 덕화로 고구려와 중국이 조공·책봉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결국 『양서』 고구려전은 단순히 『삼국지』 고구려전 등의 원전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역사관에 입각하여 변개된 역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비록 양 시기의 고구려의 습속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사료적 한계가 있지만, 현전하지 않는 『위략』이 참조되었다는 점, 관계 기사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서에 전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는 점, 양대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양서』 고구려전이 가지는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선행 연구와 같이 사서 간의 자구 대조라는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은 방법론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양서』 고구려전의 각 구절을 해체하여 검토하거나 『양서』 찬자의 역사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글의 한계점은 숙고하여 추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사료

『위략』, 『삼국지』, 『후한서』, 『양서』, 『구당서』, 『신당서』, 『남사』, 『북사』, 『한원』, 『양직공도』, 북송모본 『애일음려서화속록』

단행본

- 高柄翊,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國史編纂委員會 編, 2007a,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신서원.
- _____, 2007b,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2』, 신서원.
- 金鍾完, 2000, 「《양직공도》百濟國記의 文獻의 檢討」,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 全海宗博士八旬紀念論叢』, 지식산업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6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編, 2018a,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8b, 『中國 正史 東夷傳 校勘』, 동북아역사재단.
- 朴成鳳, 1981, 『東夷傳高句麗關係記事의 整理』,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송정수, 2016,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이해」,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사기'부터 '명사'까지』, 역사공간.
- 신승하, 2011,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여호규, 2013, 「『삼국지』 「동이전」 부여전과 고구려전의 비교 검토」,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俞元載, 1995,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 學研文化社.
- 劉節 著, 辛太甲 譯, 2000, 『中國史學史 講義』, 신서원.
- 이용현, 2007, 『가야제국과 동아시아』, 통천문화사.
- 李弘植, 1987,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一潮閣.
- 중국사학사 편집위원회 著, 김동에 譯, 2006, 『중국사학사-선진 한 당 편』, 간디서원.
- 榎一雄, 1992, 『榎一雄著作集』 7, 汲古書院.
- 井上秀雄 外, 1974, 『東アジア民族史1-正史東夷傳』, 平凡社.

논문

- 高柄翔, 1976, 「中國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 『大東文化研究』 2.
- 김용준, 1959, 「백제 복식에 관한 자료」, 『문화유산』 1959-6. (북한 논문)
- 金鍾完, 1981, 「梁書 東夷傳의 文獻的: 檢討 高句麗·百濟·新羅傳을 中心으로」, 『論文集』 3.
- 백길남, 2018, 「중국왕조의 ‘百濟略有遼西’ 記事 서술과 인식-百濟郡 설치를 중심으로-」, 『百濟學報』 25.
- 송영대, 2020, 「『通典』 「邊防門」 東夷目的 구성과 한국고대사 인식 研究」,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위기야, 2019, 「백제 무령왕대 ‘更爲強國’ 설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 95.
- 尹龍九, 2012a, 「『梁職貢圖』의 傳統과 摹本」, 『木簡과 文字』 9.
- _____, 2012b, 「현존『梁職貢圖』百濟國記 三例」, 『百濟文化』 46.
- _____, 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
- 李鎔賢, 2006, 「『梁書』·『隋書』·『南史』·『北史』의 新羅傳 비교 검토: 통일이전 신라 서술 중국 사료의 성격」, 『新羅史學報』 8.
- 林起煥, 1998, 「4~6세기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 전상우, 2019, 「『梁書』 諸夷傳의 기초적 분석」, 『木簡과 文字』 22.
- 全海宗, 2000, 「梁書東夷傳의 研究-正史東夷傳比較檢討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39.
- 조우연, 201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보이는 修辭의 표현과 史料 구성」, 『韓國古代史探究』 32.

- 金維諾, 1960, 「職貢圖の時代與作者」, 『文物』 1960-7.
- 鄭春穎, 2009, 「《梁書·高句麗傳》史源學研究」, 『圖書館理論與實踐』 2009-11.
- 趙燦鵬, 2011, 「南朝梁元帝《職貢圖》題記佚文的新發現」, 『文史』 94.
- 上田正昭, 1964, 「職貢圖倭人の風俗」, 『風俗』 3-4.
- 西嶋定生, 1963, 「職貢圖卷·倭國使」, 『世界美術大系』 8(中國美術1), 講談社.
- 李成市, 1998,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傳説」,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 2014, 「『梁職貢図』高句麗·百濟·新羅の題記について」, 『梁職貢図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 勉誠出版.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原典)과 편찬 방식

전상우

이 글에서는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原典)과 후대 사서의 인용, 그리고 편찬 방식에 대해 논하였다. 『양서』 고구려전은 『양서』 제이전에서 세 번째, 동이(東夷) 안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양서』 고구려전 기사의 원전을 검토한 결과, 습속 부분은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 고구려전을 필두로 『후한서』, 『위략』, 『한서』 등 전대의 사서가 인용되었다. 관계 기사는 한~위의 시기는 『삼국지』, 이후의 내용은 당대(當代)의 사료가 활용되었다. 이는 후대의 사서에서 『양서』 고구려전을 인용할 때, 관계 기사만 취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양서』 고구려전의 편찬에는 백제전과 달리 『양직공도』가 활용되지 않았다. 고구려가 『삼국지』 동이전에 별도 항목으로 입전된 반면, 백제는 그렇지 않아 『양직공도』를 활용하여 백제전을 편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양서』 고구려전의 찬자는 원전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분량이 길다고 생각하면 축소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이해한 바를 토대로 새로운 문장을 보입하거나 더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양 고조의 덕화(德化)로 고구려와 중국이 조공·책봉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양서』 고구려전은 단순히 『삼국지』 고구려전 등의 원전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찬자의 주관적 판단 혹은 역사관에 입각하여 변개된 역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비록 양 시기의 고구려의 습속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사료적 한계가 있지만, 현전하지 않는 『위략』이 참조되었다는 점, 관계 기사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서에 전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는 점, 양대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양서』 고구려전의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양서(梁書), 고구려전(高句驪傳), 원전(原典), 편찬 방식, 요찰(姚察), 요사렴(姚思廉), 양직공도(梁職貢圖), 제이전(諸夷傳)

The Original Text and the Compilation Method of the Records of Koguryo (高句麗傳) of *Liangshu* (梁書)

Jeon Sangwoo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al text, quotations in the later history books and the compilation method of the “Records of Koguryo (高句麗傳)” of *Liangshu* (梁書). The Records of Koguryo accounts for the third largest part in the Records of Various Barbarians (諸夷傳) and takes up the largest proportion of texts in the section on Eastern Yi (東夷). However, a review of the original text of articles in the Records of Koguryo reveals that the past where folkways are discussed do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period. Instead, it quotes history books from the previous era such as the Records of Koguryo of the *Sanguozhi* (三國志), *Huhanshu* (後漢書), *Weilue* (魏略) and *Hanshu* (漢書). In the related articles that cover from the Han to Wei period, *Sanguozhi* is referenced and historical records on the respective period are used in the subsequent parts of the articles. This is why only later history books

chose to quote the related articles only when referencing Records of Koguryo of *Liangshu*. On the other hand, contrary to the Records of Baekje (百濟傳), the Records of Koguryo of *Liangshu* did not use *Liang zhigong tu* (梁職貢圖) for its compilation. It was because Koguryo was inserted as a separate article in the Records of Eastern Yi (東夷傳) of *Sanguozhi* as opposed to the case of Baekje. It was inevitable to use *Liang zhigong tu* when the Records of Baekje was compiled.

Keywords: *Liangshu* (梁書), the Records of Koguryo (高句驪傳), original text, compilation method, Yao Cha (姚察), Yao Silian (姚思廉), *Liang Zhigong Tu* (梁職貢圖), the Records of Various Barbarians (諸夷傳).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 [大槻修二]의 『일본지지요략(日本 地誌要略)』 편찬과 독도 인식

한철호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 II. 『일본지지요략』(1875) 편찬과 독도≠일본 영토 인식
- III. 『제각일본지지요략』(1878) 편찬과 독도≠일본 영토 인식의 계승
- IV. 『개정일본지지요략』(1882/1886, 1889) 편찬과 독도=조선 영토 인식의 확립
- V. 맺음말



I. 머리말

오쓰키 슈지[大槻修二, 본명 淸修, 1845~1931]는 메이지[明治] 시기 초반 『일본 지지략(日本地誌略)』과 『일본지지도요략(日本地誌要略)』을 비롯해 수많은 지리 교과서·부도(附圖)를 편찬한 대표적인 지리·지문학자이다. 『일본지지략』은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최초로 발행한 소학교 일본지리교과서로 그 이후 편찬된 교과서의 기준이 되었으며, 『일본지지도요략』은 소학교 상등교과서이자 사범학교 참고서로 장기간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다. 이들 지리교과서에는 松島(독도)와 竹島(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실림으로써 이후 발행된 교과서에 두 섬이 서술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일본지지도요략』은 두 차례 개정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속도(屬島)’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서술되었으며, 문부성의 검정도 받았다. 따라서 오쓰키가 『일본지지도요략』에서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모순 및 그 허구성을 밝힐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일본지지도요략』을 비롯한 오쓰키의 지리교과서에 관해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왔다.¹ 일본에서는 『일본지지도요략』 등

* 투고: 2020년 4월 14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20년 5월 15일

1 倉澤剛, 1963, 『小學校の歴史』, ジャパンライブラリービューロー; 海後宗臣 編纂, 1965, 「所收教科書解題」,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15, 地理(1), 講談社; 海後宗臣 編纂, 1966, 「地理教科書總解説」,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17, 地理(3), 講談社[海後宗臣·仲新, 『近代日本教科書總説 解説篇』, 講談社, 1969]; 仲新, 1967, 『明治の教育』, 至文堂; 文部省, 1972, 『學制百年史』, 帝國地方行政學會; 中川浩一, 1978, 『近代地理教育の源流』, 古今書院;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近代教科書の變遷-東京書籍七十年史-』, 東京書籍株式會社; 川村博忠, 2003, 「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 『總合人間科學』 3; 岡田俊裕, 1992, 『近現代日本地理學思想史-個人史の研究-』, 古今書院; 岡田俊裕, 2000, 『日本地理學史論-個人史的研究-』, 古今

이 메이지 시기 일본지리교과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서술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지지도요략』에 나타난 독도 인식과 그 특징을 분석한 글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竹島와 松島를 일본 영토로 보았던 인식이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는 전제 아래, 두 섬을 일본의 서북한계로 삼았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의 영향을 받아 1875년 간행된 오쓰키의 『재각일본지지도요략(再刻日本地誌要略)』이 이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재각일본지지도요략』 5의 ‘오키[隱岐]’ 항목에서 “무릇 이 [오키]국(國)은 일본해 중 서변(西邊)의 절도(絶島)로, 그 서북 양중(洋中)에 松島·竹島の 두 섬이 있다. 모두 조선 지방에 접근해 있지만, 역시 거주민도 없고 통속도 없어(“居民統屬なく”) 각 방면의 사람이 때때로 와서 해렵(海獵)의 장으로 삼았다고 한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다.²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역시 시모조의 주장을 바탕으로 『은주시청합기』의 “두 섬(竹島·松島)은 무인(無人)의 지(地)”라는 기록을 이어받아 “사람이 거주하는 일본의 땅이 오키슈[隱岐州]까지”라는 논의도 있다면서, 그 근거로 오쓰키의 『일본지지도요략』(1879)과 『개정일본지지도요략자인(改正日本地誌要略字引)』을 꼽았다. 『일본지지도요략』의 “居民統屬なく”에 대해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어느 國에 속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해설한 『개정일본지지도요략자인』의 내용이 『은주시청합기』에 부합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은 ‘차주(此州)’의 의미 여하에 관계없이 竹島·松島가 조선 영토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어쨌든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書院; 岡田俊裕, 2002, 『地理學史-人物と論争-』, 古今書院; 岡田俊裕,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 近代編 1』, 原書房; 中山修一, 1997, 『近・現代日本における地誌と地理教育の展開』, 廣島大學總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島津俊之, 2002, 「明治政府の地誌編纂事業と國民國家形成」, 『地理學評論』 75-2.

2 下條正男, 2009, 實事求是~日韓のトゲ, 竹島問題を考える~第22回「朴炳涉氏の「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號)を駁す」, Web竹島問題研究所, 40쪽.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³

그러나 시모조와 쓰카모토는 모두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 서북의 경계로 언급한 ‘차주’가 바로 ‘오키’라고 확실히 밝혀진 사실⁴을 애써 도외시한 채, 『일본지지요략』과 『개정일본지지요략자인』의 내용을 단순히 『은주시청합기』와 부합한다는 점만 부각하는 우를 범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개정일본지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1886)에서 오쓰키 스스로 竹島·松島가 조선 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서술한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사소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竹島·松島 관련 내용은 1875년에 간행된 『일본지지요략』에 이어 1877년에 출판된 『재각일본지지요략』에 동일하게 실려 있음에도 『재각일본지지요략』이 1875년에 간행되었다거나 『일본지지요략』이 1879년에 간행되었다고 하고, 심지어 오쓰키의 이름을 ‘大槻修平’이라고 적는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지지략』과 『일본지지요략』에 나타난 松島와 竹島가 일본이나 오키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먼저 김병렬과 나이토 세이주[内藤正中]는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1877)과 『개정일본지지요략』(1886) 등을 바탕으로 무주지선점론에 의거한 일본의 독도 편입을 비판하였다. 오쓰키가 태정관지령을 근거로 『개정일본지지요략』에서 “그(오키)의 서북 해상에 松嶋·竹嶋 兩島가 있다. 서로 100리 떨어져 있는데, 조선에서는 울릉도라 칭한다. 근래 정해져 그 나라의 속도가 되었다고 한다”고 서술했으며, 내무성의 이노우에[井上] 서기관과 내무대신이 『개정일본지지요략』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3 塚本孝, 2014, 「Q76 江戸時代の文獻では竹島が日本の範圍から除外されているのか.」, 第3期竹島問題研究會 編,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 3月増刊號, ワック株式会社, 176~177쪽.

4 池内敏, 2007, 「近世日本の西北境界」, 『史林』 90-1; 池内敏, 2012, 「『隱州視聽合記』の解釋をめぐって」,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79~106쪽.

편입을 승낙하지 않았다가 공개적이 아니라 비밀공문으로 편입을 청원했다고 파악했던 것이다.⁵

유미림·최은석 역시 오키의 서북 해상에 있는 ‘松嶋’·‘竹嶋’를 조선에서는 울릉도라 칭하는데 근래 그 나라의 속도로 정했다는 오쓰키의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1889)의 내용에 대해, 두 섬 중 어느 것이 울릉도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松嶋는 독도를 가리키며 두 섬을 함께 거론함으로써 모두 조선의 속도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⁶

윤소영은 일본지리교과서 전반에 걸쳐 松島·竹島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면서 태정관 정원(正院) 지지도(地誌課)의 『일본지지도요(日本地誌提要)』와 관련 지어 『일본지지도요』·『일본지지도요략』·『개정일본지지도요략』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지지도요』에서 松島와 竹島가 오키의 부속도서와 별도로 기술된 것은 오키의 해양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적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일본지지도요략』에서는 ‘隱岐의 小島’가 도젠[島前]의 동쪽 바다에 있는 섬들이고, 오키가 일본 영토의 서쪽 경계였으며, “居民統屬なく”를 “거류민을 통속하지 않아”로 해석하면서 일본인이 松島·竹島를 어로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본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정일본지지도요략』에서는 오쓰키가 1883년 일본 정부의 울릉도 입도 금지조치를 반영해 松島·竹島를 근래 조선의 속도로 정했다고 서술했으며, 두 섬의 명칭을 지명상의 혼동으로 울릉도만 언급했음에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고 파악하였다. 아울러 그는 『개정일본지지도요략』에 첨부된 산인도[山陰道] 지방도와 일본전도에서 오키까지를 일본 영토로 색칠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요컨대, 『일본지지도요』와 이를 근거로 편찬된 『일본지지도요』와 『일본지지도요략』은 태정관지령 전후 일본 정부의 지리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당

5 內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檢證竹島·獨島』, 岩波書店, 181~182쪽.

6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6쪽.

시 일본 정부가 松島와 竹島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⁷

심정보는 윤소영과 마찬가지로 『일본지리지』와 그 계통인 『일본지지략』과 『일본지지요략』·『개정일본지지요략』의 松島·竹島 내용을 살펴면서 『일본지지략』 본문의 「은기도(隱岐圖)」를 보완했으며, 『개정일본지지요략』의 내용에 관해서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울릉도만 조선 영토가 되었다는 기술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세토’로 보아야 하며, 오쓰키가 태정관지령을 근거로 松島·竹島가 최근에 조선의 속도로 결정되었다고 서술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그는 오쓰키가 일본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결정을 명심해 두 섬을 “일본과 무관하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섬이 되었다”고 기술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지지략』과 『일본지지요략』·『개정일본지지요략』의 수록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기재 여부를 도표로 정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⁸

송희영은 쓰카모토의 글에 대해,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이 松島가 일본 영역임을 나타낸다는 처음의 주장에서 상당 부분 퇴각한 듯하지만, 『일본지지요략』을 인용해 일본에 부속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속이 없는 조선에 부속되는 섬도 아니라는 점은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조선이 태종조에 쇠환·쇄출 정책을 실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거주민을 쇠환한 이후에도 부단히 울릉도로 입도했던 주민들을 순무해왔던 사실을 근거로, ‘통속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으므로 “어떤 나라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본지지요략』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통속지역에 포함되므로 『은주시청합기』의 기록 역시 두 섬이 조선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⁹ 하지만 그는 쓰카모토와 마찬가지로 『개정일

7 윤소영, 2013, 「근대 일본 관찬 지지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370~379쪽, 386~387쪽; 윤소영, 2014,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 17, 173~174쪽, 187~188쪽.

8 심정보, 2017,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 『독도연구』 23, 439~441쪽, 445~450쪽.

본지지도요략』에서 두 섬이 조선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일본지지도요략』에 나타난 오쓰키의 독도 인식을 치밀하고도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일본지지도요략』은 1875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래 1886년까지 두 차례 개정되고 1889년에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의 정정재판이 출판되었음에도 그 전모를 토대로 독도 인식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일본지지도요략』이 재각과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영토의 범위를 명료하게 표시한 지도들도 바뀌었던 사실은 간과되거나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듯하다. 또한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이 “明治22年(1889) 8月 7日 文部省檢定濟 尋常師範學校 尋常中學校教科書用書”로 검정을 받은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일본지지도요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일본전도암사지남보(日本全圖暗射指南譜)』(1875)·『표주일본지지도요략(標註日本地誌略)』(1880)·『일본암사합부(日本暗射合符)』(1882)·『지학계제(地學階梯)』(1887)·『소학지지도요략내국지(小學地誌要略內國誌)』(1887)·『소학지지도요략부도내국지부(小學地誌要略附圖內國之部)』(1887) 등 오쓰키의 다른 저작물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오쓰키의 지리교과서·부도 등에는 독도의 소속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내용과 지도가 다수 들어 있음에도 이를 『일본지지도요략』과 연관해 소개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지지도요략』과 그 외의 저작물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오쓰키의 독도 인식을 유기적·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필자는 오쓰키의 『일본지지도요략』에 나타난 독도 인식을 고찰해보았다.¹⁰ 그 연장으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되 새로 발굴한 자료를 근거로, 『일본지지도요략』에서 오쓰키의 독도 인식이 어떻게 변

9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독도연구』 16, 211쪽, 214~216쪽.

10 한철호, 2020,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日本地誌略』 편찬과 독도 인식」, 『민족문화연구』 87.

화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지지도략』·『재각일본지지도략』·『개정일본지지도략』의 본문에서 오키와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교과서의 수록 지도에서 오키를 포함한 일본 영토와 독도를 어떻게 표시·인식했는가를 밝혀보겠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일본지지도략』 등과 오쓰키의 다른 지리교과서·부도를 비교하면서 그의 독도 인식이 어떻게 계승되거나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일본지지도략』(1875) 편찬과 독도≠일본 영토 인식

1. 『일본지지도략』(日本地誌要略)(1875)

오쓰키는 1872년부터 『일본지지도략』 초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 소속 정원 지지도과의 『일본지지도요』 원고본 등을 전체적으로 두루 자세하게 읽을[流覽·熟讀] 수 있었다. 이후 그는 각지의 사람들을 만나 지리 관련 지식을 상세하게 묻고 탐구[問尋·推究]했으며, 지지도와 지도를 조사해 찾고 빌려 보는[講求·借覽] 데 진력함으로써 견문을 크게 넓혔다. 이러한 견문-특히 『일본지지도요』-을 근거로 그는 1874년 봄 『일본지지도략』 초고를 마무리하고 문부성을 사직하면서 『일본지지도략』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원고에 오류가 적지 않음을 깨닫고 정정과정을 거쳐 그해 6월경 완성한 뒤, 그 다음 해인 1875년 10월 『일본지지도략』(상·하, 5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일본지지도략』은 『일본지지도략』과 더불어 당시 상등소학교 지리교과서이자 교사용 참고서로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 수입으로 도쿄[東京] 아사쿠사[淺草]에 택지 500평을 매입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¹¹

11 大槻修二, 1875. 10. 18, 판권면허, 『日本地誌要略』 1, 大槻修二, 「自叙」,

이처럼 『일본지지도요략』은 『일본지지도요』와 『일본지지도략』을 토대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서술체제와 내용 역시 비슷하다. 또한 오쓰키가 일본지리교과서를 저술한 목적 중 하나는 메이지유신 이래 획정된 일본 영토의 위치와 경계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 상황이 『일본지지도략』¹²에 이어 『일본지지도요략』에도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일본지지도요략』에는 “북의 1대도(大島)를 홋카이도[北海道]라고 부른다”로 서술함으로써, 1875년 5월 러·일 양국의 가라후토[樺太]·치시마[千島]교환조약으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가라후토’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¹³

『일본지지도요략』에는 『일본지지도략』과 마찬가지로 松島(독도)와 竹島(울릉도)가 서술되어 있다. 『일본지지도요략』은 『일본지지도략』보다 분량이 늘어난 탓에 『일본지지도요략』 4의 ‘오키’는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松島와 竹島에 관련해서도 “두 섬의 거리는 겨우 6여 리로, 그 연해에 있는 대소 도서가 약 183(개)이다. 또한 서북의 양중(洋中)에 松島·竹島가 있다”¹⁴는 『일본지지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 1~2쪽; 大槻修二, 1886, 『改正日本地誌要略』 1, 柳原喜兵衛, 「例言三則」, 1~2쪽; 海後宗臣 編纂, 1965, 앞의 글, 627~628쪽; 石田龍次郎, 1966, 「皇國地誌の編纂—その経緯と思想—」, 『一橋大學研究年報 社會學研究』 8, 9쪽; 石井研堂, 1966, 「小學讀本の編輯者」, 『増補改訂 明治事物起源』 上, 春陽堂書店, 527쪽;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131~132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144쪽; 島津俊之, 2002, 앞의 글, 90~91쪽; 岡田俊裕, 2011, 앞의 책, 53쪽. 나카가와[中川浩一]는 『일본지지도요략』 1권이 먼저 간행되고, 3~5권은 1876년 6월경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오카다[岡田俊裕]는 1875년에 『일본지지도요략』 6권을 집필했다고 서술했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 12 師範學校 編輯, 1874, 8. 개정, 『日本地誌略』 1, 文部省, 1쪽; 師範學校 編輯, 1874, 8. 개정, 『日本地誌略』 4, 文部省, 1~10쪽; 師範學校 編輯, 1877, 1. 개정, 『日本地誌略』 1, 文部省, 1쪽; 師範學校 編輯, 1877, 1. 개정, 『日本地誌略』 4, 文部省; 윤소영, 2013, 앞의 글, 375쪽; 한철호, 2020, 앞의 글, 236~237쪽, 240쪽.
- 13 大槻修二, 1875, 앞의 책 1, 1쪽; 윤소영, 2013, 위의 글, 376쪽.
- 14 師範學校 編輯, 1874, 8. 개정, 앞의 책 3, 文部省, 14쪽.

오키는 … 모두 4군(郡)이며, 1국(國) 4도(島)로 … 도젠(島前)과 도고(島後)의 거리는 4리(里)이며, 군도(群島)가 그 사이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데, 松島는 특히 커서 둘레가 1리이다. 그 외는 오모리[大森]·오토베[音部]·후타마타[二股]·호시가미[星上]의 제도(諸島)로, 그 동해상(東海上)에 소도(小島)가 산포해 있는 것을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 … 서안(西岸)에 후쿠우라[福浦]가 있다. 무릇 이(오키)국(國)은 일본해 중 서변(西邊)의 절도(絶島)로, 그 서북 양중(洋中)에 松島·竹島 두 섬이 있다. 모두 조선 지방에 접근해 있지만, 역시 거주민도 없고 통속도 없어(居民統屬なく) 각 방면의 사람이 때때로 와서 해렵(海獵)의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¹⁵

요컨대, 첫째, 도젠과 도고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섬은 松島이고 도젠의 동쪽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는 점, 둘째, 오키국은 일본의 서쪽 끝[西邊]에 있는 절도라는 점, 셋째, 오키의 서북 바다에 松島와 竹島가 위치한다는 점, 넷째, 두 섬은 조선에 가깝지만 거주민도 없고 어디에 속하지 않아 통제도 없어서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때때로 와서 어업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각 사항에 관해서 ‘오키의 소도’는 도젠의 동쪽에 있는 섬들을 총칭하므로 松島(독도)와 竹島(울릉도)가 포함되지 않고, 사이토 도요노부[齋藤豊宣]의 『은주시청합기』(1667)에 서술된 내용-“이 두 섬(松島·竹島)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에서 인슈[隱州, 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州를 한계로 한다.”-과 부합하므로¹⁶ 오키가 일본 영토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섬임을 알 수 있으며, “居民統屬なく”를 “거주민을 통속하지 않아”로 해석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松島와 竹島에서 일본

15 大槻修二, 1875, 앞의 책 4, 大槻修二, 21~23쪽; 大槻修二, 1878, 『再刻日本地誌要略』 5, 山中市兵衛, 21~23쪽; 大槻修二, 1878, 『改正日本地誌要略』 5, 稻田佐兵衛, 21~23쪽.

16 池内敏, 2012, 앞의 책, 79~106쪽.

인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松島와 竹島는 거주민을 통속하지 않아 일본인의 어업 장소가 되었다는 내용은 막부 시기에 이른바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와 그 이후의 상황을 서술한 듯한데, 조선의 쇄환·수토정책과 일본 막부의 竹島渡海禁止令(1696)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居民統屬なく”를 “거주민을 통속하지 않아”로 해석하지 않고, 나가다 호세이[永田方正]가 『개정일본지지도요략자인』에서 “사는 사람(거주민)도 없고, 또 어떤 國에 속하는지도 알 수 없다”¹⁸고 ‘주해(註解)’한 것을 근거로 松島와 竹島가 일본 영토였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 서북의 경계를 ‘오키’로 서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서북한계로 삼았다고 전제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오쓰키가 두 섬이 무인도이자 소속이 없다고 서술했다는 주장이다.¹⁹ 즉, 『은주시청합기』에 부합하는 『일본지지도요략』의 “두 섬이 무인도”라는 내용은 “사람이 거주하는 일본의 땅이 오키슈[隱岐州]”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주장에는 『일본지지도요략』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이나 조선에 모두 부속하지 않는 ‘무주지’임을 부각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그렇지만 조선 정부가 쇄환·수토 정책을 실시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두 섬이 어디에도 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¹

“居民統屬なく”는 “거주민을 통속하지 않아”라기보다 무인도이자 소속이 없다는 의미에서 “거주민도 없고 통속도 없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

17 윤소영, 2013, 앞의 글, 377~378쪽; 심정보, 2017, 앞의 글, 447~448쪽.

18 大槻修二 訂正, 永田方正 註解, 1879, 『改正日本地誌要略字引』, 柳原喜兵衛, 권4, 44쪽, 판권사항.

19 下條正男, 2009, 앞의 글, 40쪽.

20 塚本孝, 2014, 앞의 글, 176~177쪽.

21 송휘영, 2014, 앞의 글, 211쪽, 214~2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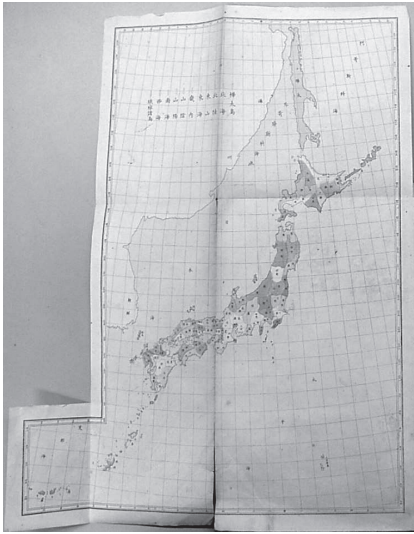
겨진다. 그렇더라도 “어떤 國”에서 ‘國’이 과연 ‘조선’과 같은 국가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키국[隱岐國]’과 같은 일본 내 행정단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전자보다는 후자, 즉 두 섬이 막부 시대 이래 그 위치와 거리상 관계가 있는 시마네현[島根縣]의 ‘隱岐國’ 혹은 돗토리현[鳥取縣]의 ‘이나바국[因幡國]’·‘호키국[伯耆國]’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사는 사람(거주민)도 없고, 또 어떤 國에 속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내용은 1695년 12월 울릉도쟁계 당시 울릉도 등의 소속을 묻는 막부의 질의서에 대해 돗토리번이 竹島와 松島는 돗토리번의 인슈[因州·因幡]·하쿠슈[伯州·伯耆] ‘양국(兩國)’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상황을 반영한 셈이 된다.²² 따라서 이 내용은 두 섬이 막부 이래 일본 영토의 관할에 속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밝힌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지지도요략』의 본문에서 자칫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도록 서술된 松島와 竹島의 소속 여부는 이 내용과 관련해 실린 지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판명된다(〈표〉 참조). 우선 『일본지지도요략』 1에 실린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지도 2)에는 오키를 비롯해 치시마열도[千島列島]·오가사와라도[小笠原島]·류큐[琉球]·쓰시마[對馬] 등 일본의 전 영토가 도별(道別)로 구별하여 색칠되어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지도는 『일본지지도요략』 1(1874)의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지도 1)와 비교하면, 일본 영토가 국별이 아니라 도별로 채색된 점만 다를 뿐 그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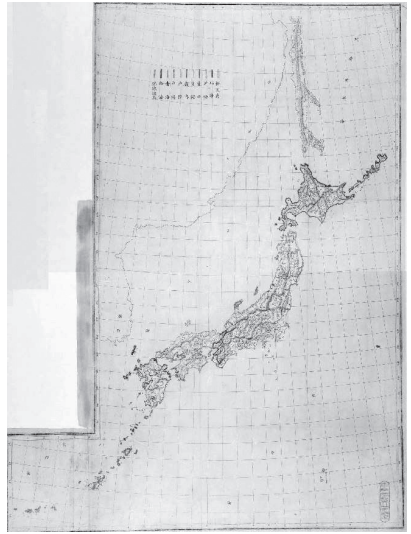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지지도요략』이 1875년 10월에 간행되었음에도 「일본국전도」(지도 2)에는 그해 5월에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樺太가 여전히 일본 영토로 채색되어 있다. 이는 『일본지지도요략』 1의 ‘총론(總論)’에서 “북에 1도(島)”가 있다면서

22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66~68쪽.

23 師範學校 編輯, 1874. 8. 개정, 앞의 책 1, 뒷부분. 이 지도에는 이름이 없지만, 『일본지지도요략』 1의 「일본국전도」와 거의 동일하므로 ‘일본국전도’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지도 1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
(『일본지지략』 1, 1874)



지도 2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
(『일본지지략』 1, 1875)

가라후토를 제외한 내용과도 어긋난다.²⁴ 그 반면 『일본지지요략』 3에 수록된 「북해도전도(北海道全圖)」에는 '北海道'와 마찬가지로 '千島'가 채색되었지만, 일부분만 그려진 '樺太島'는 무채색이다.²⁵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가라후토를 일본 영토로 채색한 것은 오류임이 확실하다.²⁶ 그럼에도 「일본국전도」(지도 2)에 『일본지지략』 1의 '일본국전도'(지도 1)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가 아예 그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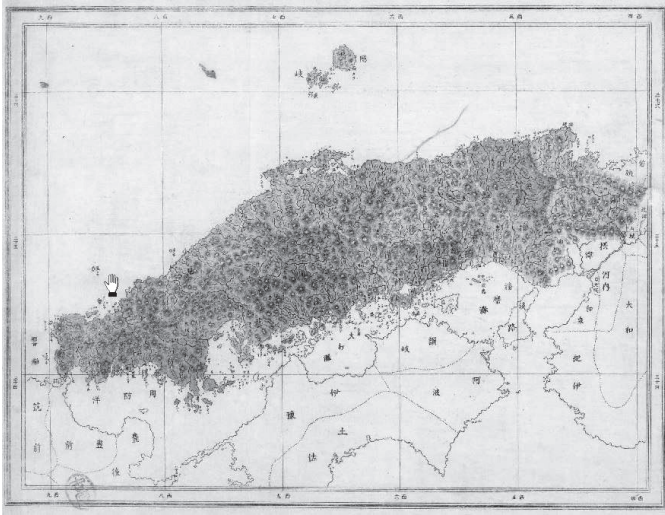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본지지요략』 4에 수록된 「중국전도(中國全圖)」(지도 3)에는 오

24 大槻修二, 1875, 앞의 책 1, 앞부분,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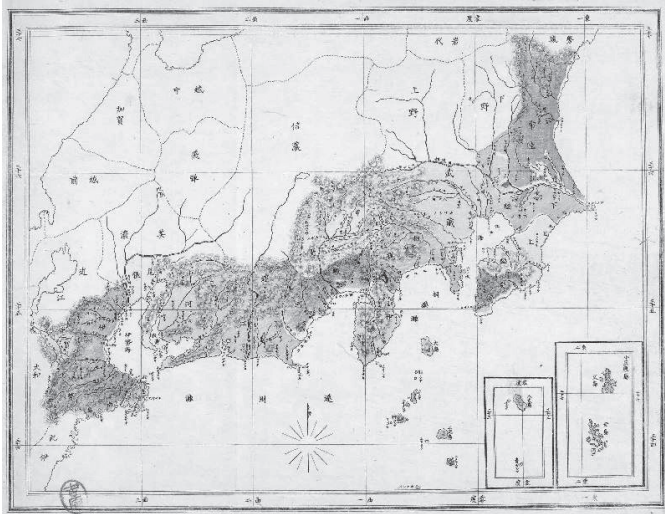
25 大槻修二, 1875, 위의 책 3, 大槻修二, 26쪽과 27쪽 사이.

26 아마도 그 이유는 가라후토·치시마교환조약이 맺어지기 이전인 1874년 6월경에 원고가 완성된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탓이라고 판단된다.

27 한철호, 2020, 앞의 글, 240~242쪽.



지도 3 「중국전도(中國全圖)」(『일본지지도략』 4, 1875)



지도 4 「동해도전도(東海道全圖)」(『일본지지도략』 1, 1875)

키를 비롯해 산인도와 산요도[山陽道]를 포함한 ‘中國’ 지역 전체가 그려져 있다. 『일본지지략』의 「산음도지도(山陰道之圖)」와 「산양도지도(山陽道之圖)」를 합쳐놓은 형태이다.²⁸ 「중국전도」는 「산음도지도」 등과 동일하게 국별로 채색되었는데, 「산음도지도」와 마찬가지로 지도의 경위도 밖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²⁹ 이러한 사실은 『일본지지요략』 1의 「동해도전도(東海道全圖)」(지도 4)에 경위도에서 제외된 「팔장도(八丈嶋)」와 「소림원도(小笠原島)」가 삽도로 그려진 것과 비교하면,³⁰ 울릉도와 독도가 ‘中國’이나 ‘山陰道’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요컨대, 『일본지지요략』의 수록된 「일본국전도」나 「중국전도」에서 모두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두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 『일본전도암사지남보(日本全圖暗射指南譜)』(1875)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은 『일본지지요략』의 수록 지도와 관련해 오쓰키가 편찬한 『일본전도암사지남보』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³¹ 『일본전도암사지남보』와 『일본지지요략』의 판권면허일은 각각 1875년 10월 14일과 10월 18일로 불과 4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 만큼, 일본 영토에 대한 오쓰키의 동일한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전도암사지남보』는 오쓰키가 동생 후미히코[大槻文彦] 제작의 ‘암사일본도(暗射日本圖)’를 위해 입문서[指南譜] 형식으로 ‘부현명(府縣名)’·‘내해(內海)’·‘도서주회(島嶼周回)’·‘명읍(名邑)’ 등의 항목별로 전국의 중요한 지명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³²

28 師範學校 編輯, 1874. 8. 개정, 앞의 책 3, 뒷부분.

29 大槻修二, 1875, 앞의 책 4, 앞부분.

30 大槻修二, 1875, 위의 책 1, 12쪽과 13쪽 사이.

31 『일본전도암사지남보』에 관해서는 한철호, 2020, 앞의 글, 245~250쪽 참조.

『일본전도암사지남보』에서 ‘도서주회’ 항목의 ‘오키’에는 그 주요 섬인 ‘島前’과 ‘島後’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竹島와 松島의 소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그는 『일본전도암사지남보』를 편수하면서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실측록(大日本沿海實測錄)』을 참고로 삼았다고 적어 두었다. 『대일본연해실측록』은 당대 최고의 지리학자였던 이노의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1821년에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등이 225매의 측척 지도를 편찬해 막부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부속자료였다. 이 지도들은 「이능도(伊能圖)」 또는 「이능대도(伊能大圖)」로 불리지만, 『대일본연해실측록』을 본떠 「대일본연해실측도(大日本沿海實測圖)」 혹은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867년 막부 가이세이조[開成所]는 「이능소도(伊能小圖)」를 근거로 「관판실측일본지도(官板實測日本地圖)」를 발행했고, 1870년 가이세이조의 후신인 다이가쿠난코[大學南校]는 「관판실측일본지도」를 재판하면서 『대일본연해실측록』도 간행하였다.³²

『대일본연해실측록』 5에는 ‘오키국도젠[隱岐國島前]’과 ‘오키국도고[隱岐國島後]’로 나누어, 각 군·촌 순서로 포(浦)·갯(岬) 등 중요 지명의 경위도·거리·면적 등이 기록되었는데, 松島와 竹島는 등장하지 않는다.³⁴ 『대일본연해실측록』 10의 ‘각국도서(各國嶋嶼)’에서도 오키국에 속한 4군별로 ‘실측(實測)’·‘원측(遠測)’된 섬들이 나열되었지만, 역시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키는 松島와 竹島는 기술되지 않았다.³⁵ 또한 『대일본연해실측록』의 내용을 반영해 당시 일본 영토를 가장 정확하게 표시했다고 알려진 「대일본연해여지전도」·「관판실측일본지도」에도 두 섬은 표시되지 않았다.³⁶ 따라서 오쓰키가 『대일본연해실측록』을

32 大槻修二, 1875. 10. 14. 판권면허, 『日本全圖暗射指南譜』, 森屋治兵衛(版主 大槻修二).

33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 1870, 『大日本沿海實測錄』, 大學南校.

34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 1870, 위의 책 5, 29~33쪽.

35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 1870, 위의 책 9, 1쪽, 24~26쪽.

36 伊能忠敬研究會 編, 1998, 『忠敬伊能圖』, アワ・プランニング, 31쪽, 36~37쪽.

근거로 두 섬을 일본 영토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그의 독도 인식은 『일본전도암사지남보』에 실린 후미히코의 ‘암사일본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형 못지않게 일본 영토의 변동에 관심이 있던 후미히코³⁷가 제작한 ‘암사일본도’는 일본 영토 전체를 ‘北海道’·‘北陸道’·‘本州中央’·‘九州’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도별로 채색된 지도이다. 이 지도에 당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가라후토’가 제외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영토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³⁸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표시될 공간이 있음에도 그려지지 않았다.³⁹

요컨대, 『일본지지략』의 「일본국전도」·「중국전도」, 『대일본연해실측록』, 『일본전도암사지남보』와 ‘암사일본도’ 등에는 모두 당시 일본 영토가 정확히 그려지거나 기록되었음에도 松島와 竹島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쓰키는 『일본지지요략』에서 松島와 竹島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오키의 해양상 위치나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82~83쪽.

37 大槻文彦, 1873, 『琉球新誌』上·下, 煙雨樓; 大槻文彦, 1873, 「琉球諸島全圖」, 大槻文彦; 1873, 『琉球諸島全圖 圖解二卷附』, 煙雨樓;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87~88쪽. 그는 일본어사전인 『言海』(1889~1891)와 『廣日本文典』(1897)을 비롯해 각종 문법책을 저술하여 국어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형인 오쓰키에 못지않게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38 大槻修二, 1875. 10. 14. 판권면허, 앞의 책, 「暗射日本圖(日本全圖暗射)」.

39 후미히코는 일본 영토의 확장에 커다란 관심과 집착을 보였는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878년 일본에서 울릉도 개척 논의가 벌어졌을 때, 그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면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방치되어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개척에 적극 나서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大槻文彦, 1878, 「竹島松島の記事」, 『洋洋社談』45[大槻文彦, 1902, 『復軒雜纂』, 慶文堂書店]; 윤소영, 2005, 「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독도연구』1, 129~132쪽.

III. 『재각일본지지도요략』(1878) 편찬과 독도≠일본 영토 인식의 계승

1. 『재각일본지지도요략』(再刻日本地誌要略)(1878)

오쓰키의 독도 인식은 1877년 6월에 판권면허를 받았다가 다시 최근의 사정을 일부 보완해 1878년 3월에 발행한 『재각일본지지도요략』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⁴⁰ 그는 『일본지지도요략』에서 지리의 상세함이 결여된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일본지지도요』에 근거해 오류와 빠진 곳을 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권1과 권2를 개정해서 3권으로 늘렸는데, 나머지 3권을 개정하지 못했으나 판목(板木)이 마멸되어 재각했다고 한다. 앞의 3권만 ‘증정(增訂)’하고 뒤의 3권은 ‘재각’해서 전부 6권을 ‘재판’한 셈이다.⁴¹ 이로 말미암아 1878년판 『일본지지도요략』은 발행처에 따라 그 이름에 ‘재각’ 혹은 ‘개정’으로 달리 붙었지만, 오기 항목이 포함된 권5는 개정되지 않고 ‘재각’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1886년에 발행된 『개정일본지지도요략』과 구별하기 위해 『재각일본지지도요략』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은 당시 많은 현에서 소학교 교과서로 채택되었는

40 오쓰키는 『개정일본지지도요략』 1(1886)에서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을 ‘1878년 3월’에 증정해서 재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의 「例言三則」에서 ‘本年’이 1877년을 가리키며, 1878년의 사실도 추가했다고 썼다. 또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의 판권면허는 ‘1877년 6월 19일’에 받았고 「例言三則」은 ‘1878년 9월’자로 작성되었는데, ‘1878년 4월 改正’판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의 원고는 1877년 6월경 완성되었으며, 「예언삼칙」은 발행한 뒤인 1878년 9월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大槻修二, 1878, 『再刻日本地誌要略』 1, 大槻修二[靑山紅樹書樓藏版], 「例言三則」, 1쪽; 大槻修二, 1878, 『改正日本地誌要略』 1[靑山紅樹書樓藏版], 柳原喜兵衛; 大槻修二, 1886, 『改正日本地誌要略』 1, 柳原喜兵衛, 「例言三則」, 1쪽.

41 大槻修二, 1878, 위의 책 1, 「例言三則」, 1쪽; 大槻修二, 1886, 위의 책 1, 「例言三則」, 1쪽. 아마도 이는 오쓰키가 가장 중요한 전거로 삼았던 『일본지지도요』가 1877년 6월 판권면허 혹은 1878년 3월 발행 당시 4권까지만 출판된 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데, 그 발행부수는 거의 5만 부에 달했다고 한다.⁴²

이처럼 증정과정에서 오키에 대한 서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일본지지도요략』 4(1875)와 같으며, 단지 권수만 바뀌어 『재각일본지지도요략』 5에 편제되었다. 그러나 지도는 『일본지지도요략』에서 각 권마다 해당되는 도별로 실렸던 것과 달리, 『재각일본지지도요략』 1에 ‘통괄’해서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 등 4개만 실렸다.⁴³ 이 지도들은 『일본지지도요략』의 수록 지도와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소개조차 되지 않았다.⁴⁴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지도를 『일본지지도요략』의 수록 지도와 비교하면서 松島와 竹島에 관한 오쓰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일본국전도」(지도 5)는 일본의 위치를 주변국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일본지지도요략』 1의 「일본국전도」(지도 2)보다 수록 범위가 넓어졌는데, 일본 영토 전체와 더불어 그 왼쪽에 ‘朝鮮’과 ‘臺灣’을 비롯해 ‘淸國’의 일부까지 그려져 있다. 「대일본국전도」는 「일본국전도」(지도 2)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가 도별로 채색되었다. 러시아 영토인 ‘가라후토’는 오류를 범했던 「일본국전

42 大槻修二, 1886. 위의 책 1, 「例言三則」, 1쪽.

43 大槻修二, 1878. 앞의 책 1, 「例言三則」, 1쪽.

44 윤소영은 1878년 발행된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의 ‘일본지도’와 ‘시마네현 부분과 오키 지도’를 제시한 다음, “이 책에는 산인도 지방도와 일본전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오키까지를 일본의 영토로 색칠하고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 ‘일본지도’에는 ‘樺太’가 일본 영토로 채색되었고, ‘松島’와 ‘竹島’가 표시되지 않았다. 또한 ‘시마네현 부분과 오키 지도’에는 산인도와 산요도가 모두 채색되었으며, 지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일본지도’와 ‘시마네현 부분과 오키 지도’는 1878년 발행된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이 아니라 앞에서 분석한 『일본지지도요략』(1875)의 ‘日本國全圖’와 「中國全圖」라고 판단된다. 이는 곧 살펴볼 『개정일본지지도요략』(1878), 즉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의 「대일본국전도」에는 『일본지지도요략』의 지도들과 전혀 다른 지도들이 수록된 사실로도 확인된다. 또한 심정보는 『일본지지도요략』과 『개정일본지지도요략』(1886)에 수록된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현한 특질을 도표로 제시했지만,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의 지도들이 『개정일본지지도요략』(1886)의 지도들과 동일한 사실은 지적하지 않았다. 윤소영, 2013, 앞의 글, 378~380쪽; 심정보, 2017, 앞의 글, 440쪽.

도」(지도 2)와 달리 ‘朝鮮’처럼 채색되지 않았다. 이는 ‘총론’에서 가라후토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내용과도 부합된다.⁴⁵ 따라서 오쓰키가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을 「대일본국전도」에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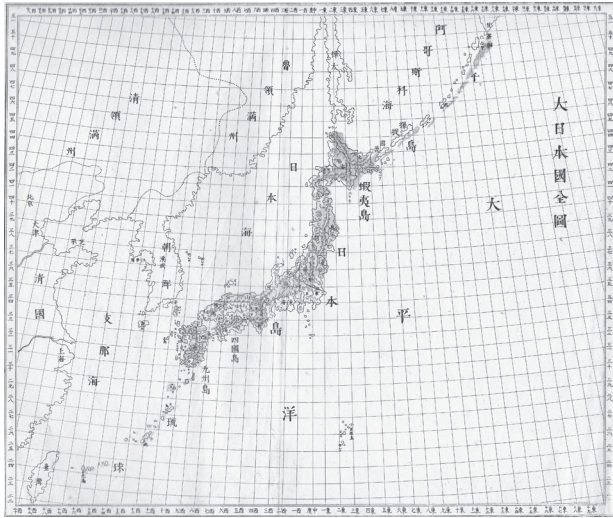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일본국전도」에는 「일본국전도」(지도 2)에 그리지 않았던 ‘竹シマ(竹島)’와 ‘松シマ(松島)’가 조선에 가까운 곳에 표시되었다는 점이다. 두 섬은 위치상으로는 가공의 섬인 아르고노트섬과 울릉도인 듯한데, 두 섬 ‘모두 조선 지방에 접근’해 있다는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조선과 경계를 이루는 ‘對馬’와 오키가 각각 소속된 사이카이도[西海道]·산인도와 같이 보라색·빨간색으로 칠해진 반면, ‘竹シマ’와 ‘松シマ’는 채색되지 않았다. ‘濟州’ 역시 이름은 적혀 있지만 색깔은 칠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두 섬은 오키가 속한 산인도의 관할 범주 혹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일본 본주에서 멀리 떨어져 태평양 방면에 있는 오가사와라도 역시 채색되지 않은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색만으로 ‘竹シマ’와 ‘松シマ’를 조선 영토라고 전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오가사와라도가 위치한 태평양 방면에는 그 소속 여부에 의심을 자아낼 만한 이웃한 국가들이 없으므로, 채색되지 않았더라도 일본 영토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재각 일본지지도요략』의 본문에도 “정남의 오가사와라도는 태평양 중에 서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 만큼,⁴⁶ 그 소속을 판별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 오가사와라도와 달리 ‘竹シマ’와 ‘松シマ’는 조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의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채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색된 오키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조선의 영역에 속한 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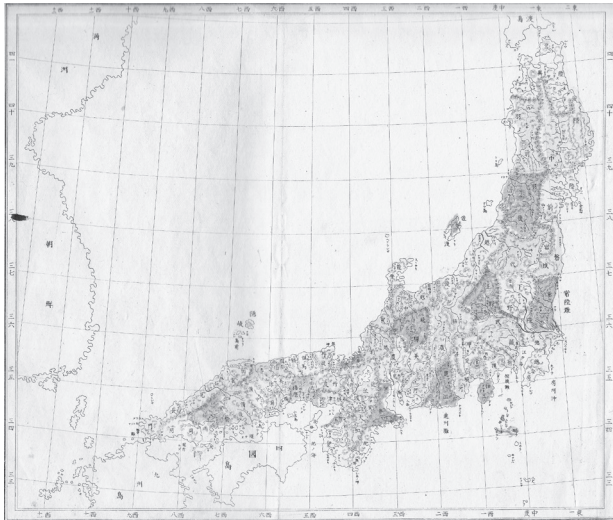
竹島와 松島의 소속 여부에 관한 오쓰키의 인식은 「대일본국전도」에 근거해서 일본 전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린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지도

45 大槻修二, 1878, 앞의 책 1, 1쪽, 앞부분.

46 大槻修二, 1878, 위의 책 1, 1쪽.



지도 5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재각일본지지요략』 1, 1878)



지도 6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재각일본지지요략』 1, 1878)

6)⁴⁷·「하이도전도(蝦夷島全圖)」·「사국도구주도전도(四國島九州島全圖)」에서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비록 이들 지도에는 경위도 밖에 있는 범주의 섬들이 제외되었지만, 해당 지역의 일본 영토만 국별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이도전도」에는 ‘千島’와 ‘北海道’가 채색된 반면 러시아 영토인 ‘樺太島’는 「대일본국전도」와 마찬가지로 채색되지 않았다. ‘일본본주전도’ 역시 국별로 채색되었는데, 오키는 그려져 있는 반면 竹島와 松島는 ‘朝鮮’과 ‘隱岐’ 사이에 경위도상으로 공간이 있음에도 아예 표시되지 않았다.⁴⁸

이와 같이 「대일본국전도」와 ‘일본본주전도’ 등을 종합하면, 「대일본국전도」에 채색되지 않은 ‘竹シマ’와 ‘松シマ’는 ‘일본본주전도’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오쓰키는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의 본문에서 오키를 일본 서북쪽의 경계로 파악하면서 松島와 竹島의 위치와 상황을 서술했지만, 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쓰키는 『재각일본지지도요략』에서 ‘竹島’와 ‘松島’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기보다 오키의 위치와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시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표주일본지지도략(標註日本地誌略)』(1880)·『일본암사합부(日本暗射合符)』(1882)

『재각일본지지도요략』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은 오쓰키의 인식은 1880년 5월에 판권면허를 얻어 그해 7월에 발행한 『표주일본지지도략』에도 견지되고 있다. 오쓰키가 스스로 밝혔듯이, “표주는 본문 중에 설명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보충한 것”으로 본문 위쪽에 별도로 칸을 마련해 서술했으

47 이 지도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데, 『개정일본지지도요략』(1889)에 「日本本州全圖」라는 지도명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

48 大槻修二, 1878, 앞의 책 1, 앞부분.

며, 그중 일부에는 참고해서 근거로 삼았던 ‘고거(考據)’를 표시한 것도 있다. 아마 당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일본지지략』과 『일본지지요략』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표주’로 보완한 『표주일본지지략』을 저술했다고 생각된다. 그가 『표주일본지지략』에서 전적으로 ‘고거’로 삼았던 자료는 『일본지지제요』이며, 이 외에 ‘연해실측록(沿海實測錄)’-이노의 『대일본연해실측록』-을 비롯해 한두 지리서였다고 한다.⁴⁹ 이 교과서 역시 문부성이 1883년 7월 각 지방에 교과서사용 인가제를 실시한다고 통보하면서 『일본지지략』 등과 함께 소학교 지리교과서로 “채용해서 난처하지 않은 것”으로 선정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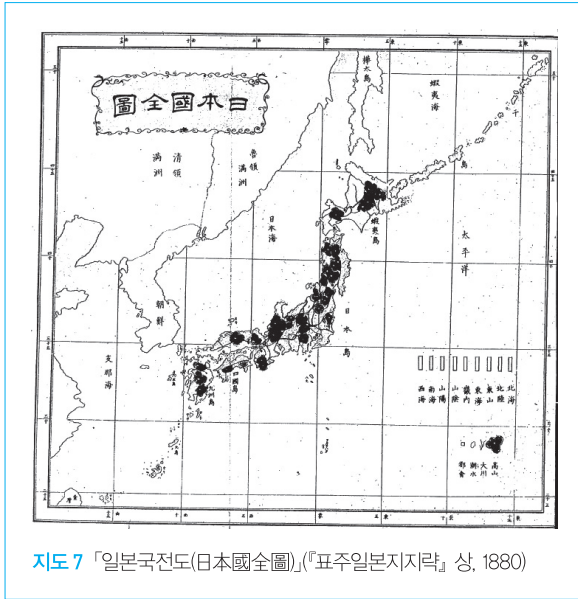
『표주일본지지략』 상(上)의 ‘총설’에는 “대일본국은 아세아주 중의 독립제국”임을 강조한 다음, 본도(本島) 등 4대도(大島) 외에 각 방면의 극단인 치시마·오가사와라도·오키나와도(沖繩島)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청국·조선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였다. 이 내용이 반영된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지도 7)에는 일본 영토가 모두 도별로 채색되었는데, ‘朝鮮’을 비롯해 ‘淸領滿洲’·‘魯領滿洲’·‘樺太島’는 무채색이며 오키만 그려져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표시되지 않았다.⁵¹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표주일본지지략』 하(下)의 ‘山陰道’에서는 “본도(本島)의 서북안에 걸쳐 있다. … 오키는 도국(島國)이다”라고 지리 상황이 기록되었다. ‘隱岐4郡’에 관해서는 “4도(島)가 서로 나란히 서 있으며 이즈모[出雲]의 해상 10여 리에 있다. 남의 3도를 도젠이라고 부르며, 북의 대도를 도고라고 한다. … 후쿠우라 등이 있다. 이 국(國)의 속도(屬島)는 대소 200(개), 隱岐의 小島라고 총칭한다”고 서술되었다.⁵² 즉, 松島와 竹島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일본지지략』과

49 大槻修二, 1880, 『標註日本地誌略』上, 山中市兵衛, 「例言五則」.

50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113~114쪽.

51 大槻修二, 1880, 앞의 책 上, 앞부분, 1~2쪽.



지도 7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표주일본지지략』 상, 1880)

『일본지지요략』 등 그때까지 오쓰키가 저술한 지리교과서와 달리 처음으로 松島와 竹島를 서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 ‘오키의 소도’가 ‘200’개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혹시 ‘200’개 속에 松島와 竹島가 포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와 관련해서 1882년 8월에 오쓰키가 편찬한 『일본암사합부(日本暗射合符)』는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일본암사합부』는 “원래 『일본지지략』에 부속하는” ‘암사도(暗射圖)’인데, 이 책을 읽기에 편리하도록 ‘합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책의 ‘오키’ 항목에는 ‘隱岐ノ小島(오키노코시마)’는 들어 있지만 松島와 竹島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도젠의 속도 61, 도고는 118, 합계 대소 179島, 본문에 200이라고 한 것은 그 대수(大數)를 말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⁵³ 여

52 大槻修二, 1880, 『標註日本地誌略』下, 山中市兵衛, 5~6쪽.

53 大槻修二, 1882, 『日本暗射合符』, 山中市兵衛, 32~33쪽; 大槻修二, 1889,

기에서 ‘隱岐ノ小島’ 179개는 『일본지리지제요』의 그것과 일치한다.⁵⁴

따라서 오쓰키는 『표주일본지리지략』에서 ‘隱岐ノ小島’ 개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대강의 수자[大數]로 ‘200’을 적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隱岐ノ小島’ 200개에는 松島와 竹島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오쓰키가 『표주일본지리지략』의 ‘고거’로 삼았던 이노의 『대일본연해 실측록』에도 松島와 竹島가 서술되지 않은 사실로 확인된다. 즉, 오쓰키는 ‘오키의 소도’에 松島·竹島가 포함되지 않는 인식을 견지하면서 『표주일본지리지략』에서 처음으로 두 섬을 서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독도 인식은 곧 후술할 『개정일본지리지요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개정일본지리지요략』(1882/1886, 1889) 편찬과 독도=조선 영토 인식의 확립

1. 『개정일본지리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1882/1886)

오쓰키는 『재각일본지리지요략』에서 미처 수정·보완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 6권 “전부를 개정”해서 1882년 11월에 판권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개정 원고를 곧바로 간행하지 않다가 4년 가까이 지난 1886년 5월경 비로소 『개정일본지리지요략』을 발행하였다. 그가 판권면허 획득 당시의 원고를 수정·보완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단, ‘1882년 11월’ 전부를 개정해 출판한 책이 바로 『개정일본지리지요략』이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판권면허 획득 당시의 원고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개정일

『日本暗射合符』, 目黒書店, 「例言三則」, 1쪽, 32~33쪽.

54 『일본지리지략』에는 『일본지리지제요』 출판교정본 이전의 ‘초고’를 참고로 ‘隱岐의 小島’를 183개로 적은 사실로 보아, 오쓰키는 1878년에 간행된 『일본지리지제요』를 근거로 179개로 파악했다고 판단된다. 한철호, 2020, 앞의 글, 231~235쪽.

본지지요략』을 출판했다고 판단된다. 그가 전부를 개정한 시기가 판권면허를 받은 날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개정일본지지요략』은 발행 직후인 1886년 7월 문부성이 다시 사범학교 교과서로 선정해 그 과목 속에 들어갔는데, 오쓰키는 이를 “실로 자신의 영광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자평하였다.⁵⁵

『개정일본지지요략』 5의 ‘隱岐4郡’ 항목은 『재각일본지지요략』 5의 서술 구조를 유지하되 문장이 다듬어지고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서술이 바뀌었다.

1국 4도로 ... 도젠과 도고의 거리는 4리이며, 군도(群島)가 그 사이에 나란히 늘어졌는데, 松島가 다소 크다. 그 외는 오모리·오토베·후타마타·호시가미의 제도(諸島)로, 그 수는 대소 180도가 있다. 합해서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

... 서안에 후쿠우라가 있다.

이 (오키)국은 일본해 중의 서변의 절도(絶島)로, 그 서북 해상에 松嶋·竹嶋 두 섬이 있다. 서로 떨어지기를 거의 100리로, 조선에서는 울릉도(蔚陵嶋)라고 칭한다. 근래 결정해 그 (조선)국의 속도(屬島)가 되었다고 한다.⁵⁶

위 내용을 『재각일본지지요략』 5와 비교해보면, 첫째, 오키의 소도에서는 동해상에 소도가 산포해 있다는 내용이 없어지고 그 수가 180개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아마도 오키의 소도는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이 빠진 듯하다. 단, 그 수를 『일본지지요략』과 『표주일본지지요략』에 서술된 179개나 200개가 아니라 180개라고 적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표주일본지지요략』의 200개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게 그 대강의 숫자를 거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180개 섬 가운데 松島와 竹島가 포함되지 않은 사

55 大槻修二, 1886, 앞의 책 1, 「例言三則」, 1~2쪽 및 뒷면; 大槻修二, 1889, 『改正日本地誌要略』 1, 柳原喜兵衛;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216~217쪽.

56 大槻修二, 1886, 위의 책 5, 柳原喜兵衛, 15~16쪽.

실만은 더욱 확실해졌다.

둘째, “오키국은 일본해 중의 서변의 절도로, 그 서북 양중에 松嶋·竹嶋의 두 섬이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양중’이 ‘해상’으로 바뀌었을 뿐이며, 조선에 접근해 있다는 松嶋·竹嶋의 위치에 대한 내용 대신에 두 섬 사이의 거리가 새로 들어갔다. 『재각일본지지도요략』과 동일하게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해 오키를 일본 영토의 서쪽 경계로 파악하면서 松嶋·竹嶋의 위치에 관해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섬 사이의 거리가 거의 100리라고 서술되었는데, 그 근거가 확실치 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지지도요』와 『개정일본지지도요략자인』에는 오키와 松嶋·竹嶋의 거리를 각각 69리 35정과 약 100리 4정여, 148리와 212리로 달리 적혀 있다. 이에 의하면 松嶋와 竹嶋의 거리는 각각 30리 69정과 64리인데, 두 책의 리 길이가 서로 다르더라도 약 100리와는 맞지 않는다. 또 이를 오키와 松嶋·竹嶋의 거리라고 해석할 경우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셋째, 조선 지방에 접근해 있는 松島와 竹島에 대해 거주민을 통속하지 않아 해협의 장소가 되었다는 내용은 삭제되면서 조선에서 울릉도라고 부르는 섬이 근래 조선의 속도로 정해졌다고 완전히 바뀐 부분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즉, 거주민을 통속하지 않았거나 혹은 통속도 없던 ‘松島’와 ‘竹島’가 근래에 ‘조선의 속도’로 정해졌다고 개정한 것이다. 단, 두 섬을 거론했음에도 조선의 명칭으로 울릉도만 기술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울릉도가 ‘竹島’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松嶋·竹嶋의 두 섬’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주어진 ‘松嶋·竹嶋의 두 섬’, 즉 독도와 울릉도가 분명하다. 이는 오히려 오쓰키가 두 섬을 서로 부속섬 혹은 하나의 세트로 파악하면서 모두 조선 영토로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⁵⁷

그렇다면 오쓰키가 근래에 松島와 竹島를 조선의 속도로 정했다고 서술한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竹島 외 1도[松島]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

57 윤소영, 2013, 앞의 글, 386~387쪽; 심정보, 2017, 앞의 글, 440쪽, 448~4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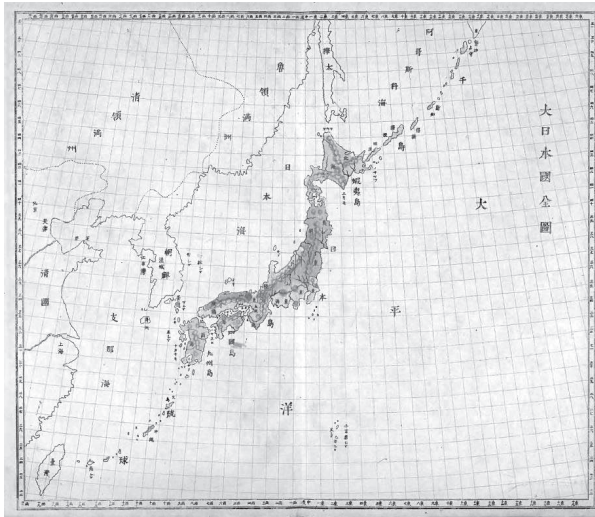
라고 천명한 태정관지령(1877)을 꼽을 수 있다. 오쓰키가 ‘松島’와 ‘竹島’에 대한 태정관지령을 명심해 두 섬이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속도가 되었다고 명확하게 기술했다는 것이다.⁵⁸ 그는 일본 영토의 변동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만큼, 국가 최고행정기관의 결정인 태정관지령을 토대로 “통속이 없다”고 여겨졌던 두 섬을 ‘조선의 속도’로 결정되었다고 개정했을 가능성은 나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오쓰키가 태정관지령이 결정된 지 무려 만 9년이 지난 1886년에 『개정지지도요략』을 편찬하면서 ‘근래’라고 적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오쓰키는 태정관지령이 아니라 1883년 5월 일본 외무성이 조선의 항의를 받아들여 불법으로 벌목했던 일본인의 울릉도 입도를 금지한 조치에 관심을 갖고 두 섬이 조선의 속도로 결정되었다고 서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유명한 지리학자 요시다 도고[吉田東伍]가 1900년에 저술한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에서 松島와 竹島에 관해 “1883년 다시 한일 양 정부가 담판해서 우리 왕래하는 어선을 돌아오도록 하고 다시 건너가지 못하게 해서 분명히 조선의 소속이 되어버렸다”고 서술한 내용으로 뒷받침된다.⁵⁹ 이 경우, 두 섬이 조선의 속도로 정해진 시기는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을 발행하기 3년 전에 해당되므로, 오쓰키가 언급한 ‘근래’에 부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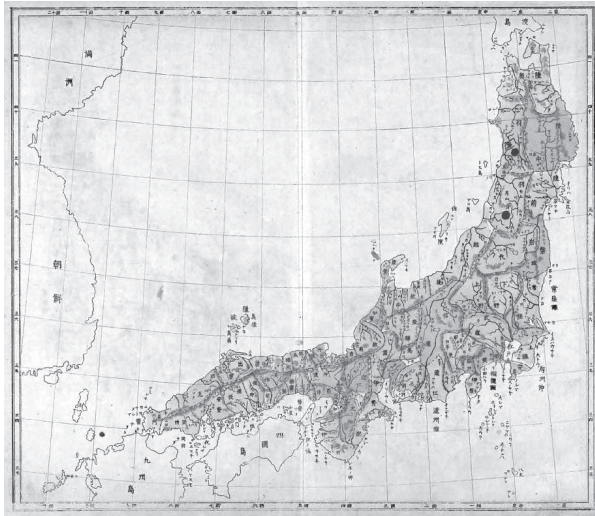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쓰키가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을 1886년 5월에 출판하기 앞서 그보다 약 3년 6개월 이전인 1882년 11월에 판권면허를 받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그는 판권면허를 받은 원고를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을 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완성된 판권면허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근래’는 그 이후에 해당되는 1883년보다는 1877년 태정관지령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58 內藤正中·金柄烈, 2007, 앞의 책, 181~182쪽; 심정보, 2017, 위의 글, 449쪽.

59 윤소영, 2013, 앞의 글, 386쪽; 윤소영, 2014, 앞의 글, 172~173쪽, 184~185쪽.



지도 8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개정일본지지요략』 1, 1882/1886)



지도 9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개정일본지지요략』 1, 1882/1886)

어쨌든 ‘근래’가 언제인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쓰키가 松島와 竹島를 부속섬 관계로 파악해서 조선 영토로 공식 결정되었다고 정확히 서술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개정일본지지도요략』 1에 수록된 「대일본국전도」(지도 8)는 『재각일본지지도요략』의 그것과 섬의 이름을 써넣은 위치가 부분적으로 달라졌을 뿐 거의 동일하지만, 竹島와 松島에 관한 한 의미는 매우 명확해졌다. 「대일본국전도」에 그려진 ‘竹シマ’와 ‘松シマ’는 더 이상 소속이 불분명한 섬들이나 일본 영토 혹은 오키의 부속섬이 아니라 ‘釜山’·‘濟州’와 더불어 조선 영토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따라서 두 섬은 일본 영토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양상의 위치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본본주전도」(지도 9)에도 여전히 두 섬이 표시되지 않아 더 이상 일본 영토라고 오해할 소지도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松島와 竹島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이 지도와 본문에서 비로소 일치된 것이다.

2. 『지학계제(地學階梯)』(1887)

『개정일본지지도요략』에서 松島와 竹島를 조선 영토로 확인한 오쓰키의 인식은 1887년 2월에 간행된 『지학계제』에도 계승되었다. 『지학계제』는 「소학교령(小學校令)」(1886. 4.)과 「교과용도서검정조례(教科用圖書檢定條例)」(1886. 5.)에 근거해 문부대신의 검정을 받는다는 소학교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판·사용된 대표적인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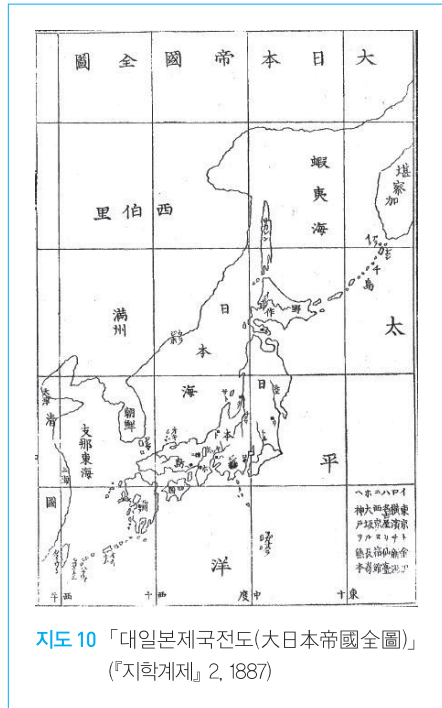
『지학계제』는 당시 일본지리와 외국지리를 합쳐 편집하는 경향에 맞춰 총 5책으로 구상되었는데, 실제로는 지리학총설(1권)·일본지리(2·3권) 등 3책만 간행되었다. 여기에서 오쓰키는 『개정일본지지도요략』과 달리 기도별(畿道別)이

60 海後宗臣 等編, 1965, 앞의 글, 605~606쪽; 中村浩一, 1978, 앞의 책, 188~192쪽.

아니라 산야하호(山野河湖)가 연결하고 흐르는 대로 그 대세를 보여주는 독자적인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수천 개의 군도는 도국(道國) 아래 편제하지 않고 별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⁶¹

『지학계제』 2에서는 “일본국은 아세아주 중의 독립제국으로 주의 동방에 있다. 태평양의 서북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수천의 도서(島嶼)이다”라고 그 위치를 설명하면서 중앙의 일본도(日本島)를 중심으로 동북옥(東北隅)·서남단(西南端)·정남양중(正南洋中)에 각각 위치한 치시마·오키나와도·오가사와라도, 그리고 주변국인 조선·러시아·중국 등과의 경계를 서술하였다. 이를 지도로 표시한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國全圖)」(지도 10)에는 ‘千島·오키·쓰시마·오가사와라·오키나와’ 등을 비롯해 일본의 모든 영토가 이름과 함께 그려져 있지만, 조선의 섬들은 하나도 표시되지 않고 이름 역시 적혀 있지 않다.⁶² 즉,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中國은 山陰·山陽兩島를 충칭한다”면서 그에 속한 이즈모·이와미[石見] 등 13국을 나열했는데, “단, 단바[丹



지도 10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國全圖)」
(『지학계제』 2, 1887)

61 大槻修二, 1887, 『地學階梯』 1, 松下治三郎·北澤伊八, 「例言」, 1~2쪽; 海後宗臣 編纂, 1966, 『日本地理教科書總目錄』, 『日本教科書大系』 17, 近代編 地理(3), 517쪽.

62 大槻修二, 1887, 위의 책 2, 松下治三郎·北澤伊八, 1~3쪽.

波]·단고[丹後] 및 오키도[隱岐島]는 이를 제외한다”고 밝혀두었다⁶³ 『예언』에서 밝혔듯이, 도서는 치시마·오가사와라도·일본해군도(日本海群島)·오키나와군도 등 10부분으로 나누어 아래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본해군도는 1국(國)으로 하는 것이 2도(島)이고, 1군으로 세워진 것이 4도가 있다”고 설명한 다음, 이에 속한 “오키는 4도로 나뉘며, 이즈모의 해상 10여 리에 있다. 치부지마[知夫島]·나카노시마[中島]·니시노시마[西島]는 남에 늘어서 있는데, 이를 도젠이라고 총칭한다. 도고도[島後島] 1도는 북에 있는데 매우 크다[동서 4리, 남북 5리]. … 남안에 사이고항[西郷港]이 있다. 또 도젠에 치부리[知夫里](知夫島)·우라고[浦郷(西島)·지지이[知知井(中島)의 제항(諸港)이 있다. 속도(屬島)는 松島 및 오모리·호시카미[星神] 등 매우 많다”⁶⁴고 서술되었다. 여기에서 오키의 속도로 거론된 ‘松島’는 아마군[海士郡]에 소속된 도젠과 도고 사이에 있는 섬으로, 독도가 아니다. 오쓰키는 이미 『개정일본지지요략』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라고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섬을 오키와 연관지어 서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쓰키가 『지학계제』 3의 마지막에서 일본 영토에 관해 “1875년 동북의 경계를 정해서 가라후토도[樺太島]를 러시아국에 주고 치시마는 모두 우리에게 소속하였다. 또 류큐국을 오키나와현으로 하고, 오가사와라도 역시 전부 우리 소유가 되었다. 1878년 군구(郡區)의 제도를 세워 85국 805군 36구가 되었다. 이에 내외의 경계가 비로소 정해졌다”⁶⁵고 서술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메이지 시대에 변동되었던 일본 영토의 변동과 군구제의 확립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외의 경계’가 정해졌다고 밝혔음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다.

63 大槻修二, 1887, 위의 책 2, 27쪽.

64 大槻修二, 1887, 위의 책 3, 松下治三郎·北澤伊八, 12쪽, 19~20쪽.

65 大槻修二, 1887, 위의 책 3, 33쪽.

3. 『소학지지도략내국지(小學地誌要略內國誌)』·『소학지지도략부도내국지부(小學地誌要略附圖內國之部)』(1887)

오쓰키는 『지학계제』를 간행한 지 녀 달 뒤인 1887년 6월에 『소학지지도략내국지』와 『소학지지도략부도내국지부』를 발행하였다. 두 교과서는 『지학계제』와 마찬가지로 소학교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판되었지만, 1887년 12월 1일과 1888년 12월 14일에 각각 문부성의 검정을 획득하였다. 특히 『소학지지도략부도내국지부』는 오쓰키가 처음으로 편찬한 지리부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소학지지도략내국지』는 『지학계제』와 달리 주로 기내·8도의 순서로 편제되었지만,⁶⁶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학지지도략내국지』 상(上)을 보면, “대일본제국은 아세아주의 동방에 위치한다. 태평양의 서북에 늘어서 있는 도국(島國)이다. 중앙에 4대도가 있다”면서 일본의 위치와 형세를 서술하였다.⁶⁷ 단, ‘일본국’을 ‘대일본제국’으로 바꾼 것은 눈길을 끈다.

『소학지지도략내국지』 하(下)의 ‘中國’에서는 “산인·산요 두 도(道)를 총칭한다”고 서술되어 있고, ‘지세(地勢)’에서는 “산인도는 단바(7군) … 오키(4군) 등 8국이다. … 오키는 정북 해상의 군도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⁶⁸ 이어 ‘도(島)’에서는 “오키는 4도, 이를 도젠·도고로 나누며, 이즈모의 정북 해상 12리에 있다. 치부지마·나카노시마·니시노시마는 남에 늘어서 있는데, 이를 도젠이라고 한다. 도고도는 그 동북 3리에 서 있으며, 도봉(島峯)을 다이만사봉[大満寺峯]이라고 부른다. 남안에 사이고항이 있다. (도)젠·고의 사이에 수십의 도기(鳥岐)가 있다. 이를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⁶⁹고 기술되었다.

66 大槻修二, 1887, 『小學地誌要略內國誌』上, 文榮堂, 「例言」, 1쪽.

67 大槻修二, 1887, 위의 책 上, 1~3쪽.

68 大槻修二, 1887, 『小學地誌要略內國誌』下, 文榮堂, 11~12쪽.

69 大槻修二, 1887, 위의 책 下, 15쪽.

이를 『지학계제』와 비교하면, 문장이 조금 다듬어지고 자세해지면서 도젠과 도고의 사이에 있는 수십 개의 섬을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거론되지 않은 점은 동일하다. 이로써 松島와 竹島에 해당되는 독도와 울릉도가 ‘오키의 소도’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 영토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따라서 오쓰키는 지리교과서에서 더 이상 松島와 竹島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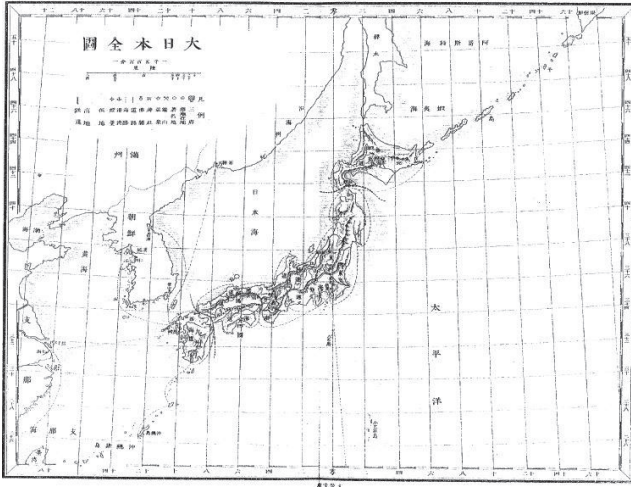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학지지도요략부도내국지부』는 『소학지지도요략내국지』의 독자에 게 일본의 위치와 형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편찬된 것으로, 지구도(地球圖)와 산천·도서 등 지목(地目)의 화도(畫圖)가 수록되어 있다.⁷⁰ 당시 지리교육에서 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지리교과서부도가 출판되었는데, 이에 호응해 오쓰키가 『소학지지도요략내국지』의 내용에 맞게 편찬한 부도가 바로 『소학지지도요략부도내국지부』였다.⁷¹

이 부도의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지도 11)에는 일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千島’에서부터 ‘小笠原島’와 ‘沖繩諸島’까지 일본 영토 전체와 ‘樺太’·‘滿洲’·‘朝鮮’을 비롯해 ‘支那’ 일부와 ‘臺灣’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영토는 모두 도별로 빨간색으로 채색된 반면 ‘朝鮮’과 ‘樺太’ 등 외국 영토는 무채색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⁷² 또 「산음산양남해서해도지도(山陰山陽南海西海道之圖)」(지도 12)에는 ‘隱岐’까지 그려지고 채색되었지만, 경위도 밖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역시 표시되지 않았다. 「기내동해도급관동동산도북록도지도(畿内東海道及關東東山道北陸道之圖)」에서 경위도 밖에 있는 「이두칠도급소림원도지도(伊豆七島及小笠原島之圖)」가 별도의 삽도로 수록된 사실과 비교해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경위도 밖에 위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영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소학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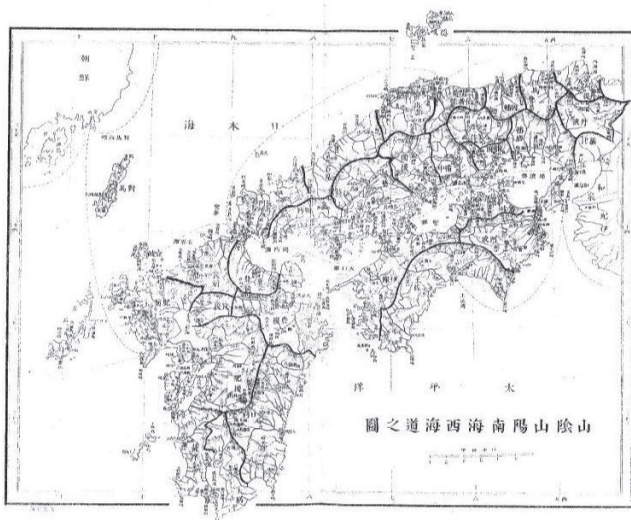
70 大槻修二, 1887, 앞의 책 上, 「例言」 2쪽.

71 海後宗臣 等編, 1966, 앞의 글, 606쪽.

72 大槻修二, 1887, 『小學地誌要略附圖內國之部』, 文榮堂.



지도 11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소학지리지요략부도내국지부』, 1887)



지도 12 「산음산양남해서해도지도(山陰山陽南海西海道之圖)」(『소학지리지요략부도내국지부』, 1887)

략내국지』와 마찬가지로 『소학지리지요략부도내국지부』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오쓰키의 인식이 반영되었던 것이다.⁷³

4. 『개정일본지리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 정정재판(1889)

오쓰키는 1886년 『개정일본지리지요략』을 출판할 당시 “무릇 고금의 개화(開化)를 통람(通覽)하려면 토지경역(土地境域)의 천전(遷轉)에 주의(注意)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역사상 ‘국토의 연혁’을 등한시할 수 없으므로 ‘근일’에 다시 개정판을 간행해 ‘국군지요(國郡志要)’를 세상에 내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⁷⁴ 이로부터 3년 뒤인 1889년 6월 그는 『개정일본지리지요략』 정정재판(訂正再版)을 출판하였다. 하지만 그의 계획과 달리 『개정일본지리지요략』 정정재판은 『개정일본지리지요략』을 정정하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 재판하는 데 머물고 말았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개정일본지리지요략』 정정재판이 출판된 지 두 달 후인 1889년 8월 7일 ‘심상사범학교(尋常師範學校) 심상중학교교과서용서(尋常中學校教科書用書)’로 ‘문부성검정제(文部省檢定濟)’를 받았는데, ‘문부성검정제’를 받지 않은 것과 받은 것에 서로 다른 지도가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문부성검정제’ 『개정일본지리지요략』 정정재판의 지도(지도 14, 16)는 『개정일본지리지요략』의 지도와는 동일하지만, ‘문부성검정제’를 받지 않은 『개정일본지리지요략』 정정재판의 지도와는 몇 가지가 달라졌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지도 13)에서는 ‘오키’의 이름이 삭제된 반면 이즈반도

73 당시 『小學地誌要略附圖內國之部』와 함께 대표적인 부도로 알려진 오무라[大邨芳樹]의 『小學地理教本附圖 日本之部』 내 ‘日本全圖’와 ‘本島之圖’, 구라치[倉知新吾]의 『小學地誌附圖』 내 「日本全圖」와 「山陰道地圖」에도 모두 울릉도와 독도는 표시되지 않았다. 大邨芳樹, 1887, 『小學地理教本附圖 日本之部』, 原田庄左衛門; 倉知新吾, 1889, 『小學地誌附圖』 1, 益智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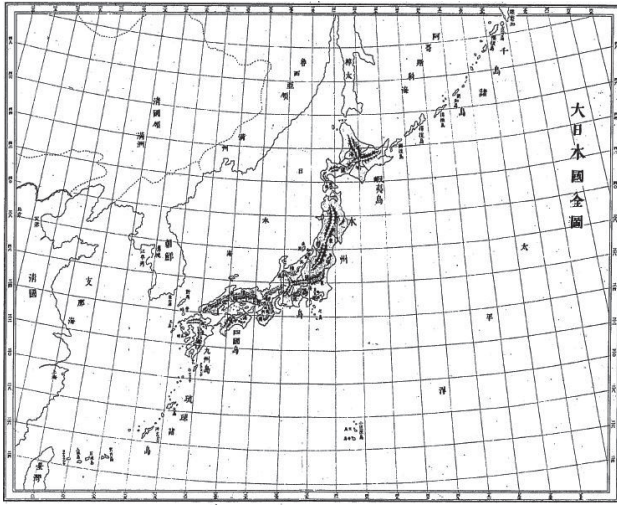
74 大槻修二, 1886, 앞의 책 1, 「例言三則」, 1~2쪽; 大槻修二, 1889, 앞의 책 1, 「例言三則」, 1~2쪽.

[伊豆半島] 쪽의 ‘七島’ 이름 등이 추가되었고, ‘쓰시마’·‘琉球’·‘千島’·‘日本島’ 등은 각각 ‘對馬’·‘琉球諸島’·‘千島諸島’·‘本州島’ 등으로 달리 표기되었다. 또 「하이도전도(蝦夷島全圖)」는 지도명이 「북해도지도」로 바뀌었고, ‘오쿠시리’는 ‘奧尻島’로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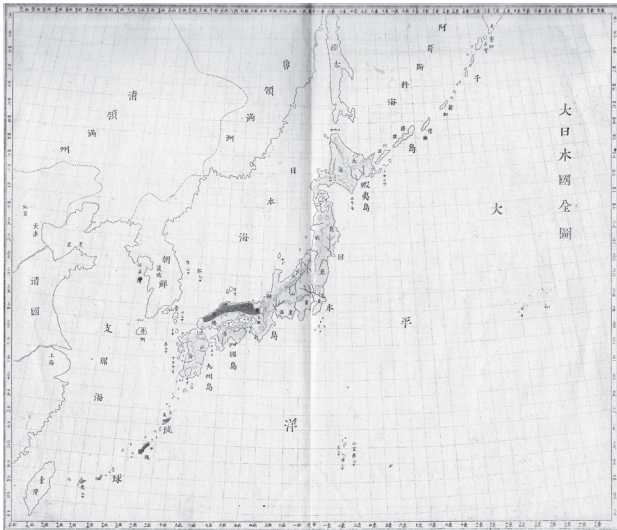
특히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일본국전도」의 ‘松島’와 ‘竹島’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문부성검정제’를 받지 않은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의 「대일본국전도」에는 ‘松島’와 ‘竹島’가 아예 그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濟州’를 비롯한 조선의 섬들도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松島’와 ‘竹島’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쓰키가 두 섬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의도로 두 섬을 삭제했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반면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지도 15)에서는 독도와 울릉도였던 ‘松島’와 ‘竹島’는 각각 ‘오리우츠뢰(瀨)·메네라이뢰(瀨)’와 ‘松島’로 표기되면서 추가되었다. 「일본본주전도」가 해당 지역의 일본 영토만 그린 지도라는 점, 또 일본본주에 속하지 않은 섬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볼 때 ‘松島’와 ‘오리우츠뢰·메네라이뢰’는 자칫 일본 영토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일본본주전도」에는 일본본주에 속하지 않은 홋카이도의 ‘大島’ 등도 이름과 함께 표시되었는데, ‘오리우츠뢰·메네라이뢰’와 ‘松島’ 등과 마찬가지로 채색되지 않았다. 더욱이 본문에는 여전히 두 섬이 조선의 속도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오리우츠뢰·메네라이뢰’와 ‘松島’가 「일본본주전도」에 그려져 있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본주에 속한 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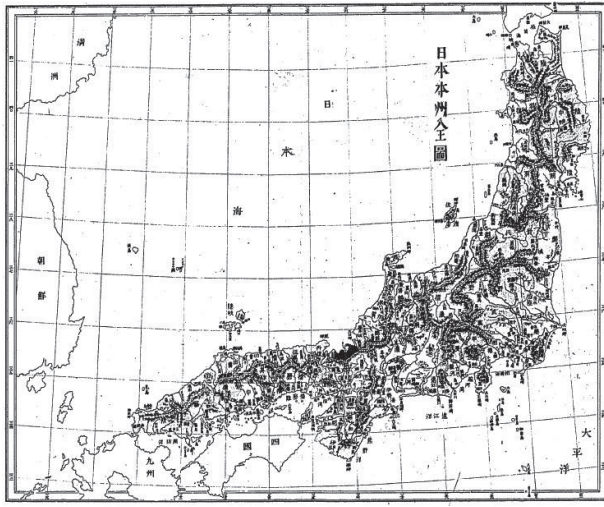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오쓰키는 『일본지지도요략』뿐만 아니라 『개정일본지지도요략』과 그 정정재판에서도 서술한 ‘松島’와 ‘竹島’ 대신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오리우츠뢰·메네라이뢰’와 ‘松島’를 지도에 표시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오리우츠뢰·메네라이뢰’는 독도의 서도와 동도에 대한 러시아 이름이다.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이 발행된 1889년 6월 이전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지도들 가운데 ‘오리우츠(올리부차, Olivutsa)’와 ‘메네라이(Menelai)’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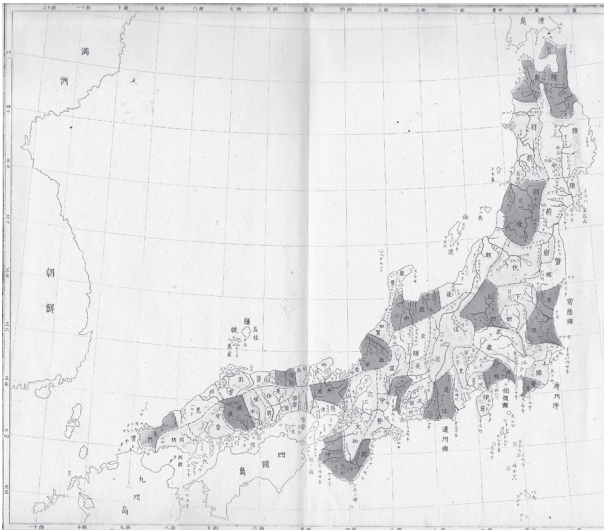
지도 13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개정일본지지도요략』 1 정정재판, 1889)



지도 14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개정일본지지도요략』 1 정정재판, 1889, 문부성검정제)



지도 15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개정일본지지도략』 1 정정재판, 1889)



지도 16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개정일본지지도략』 1 정정재판, 1889, 문부성검정제)

해군성 수로료(水路寮)-훗날 수로국(水路局)·수로부(水路部)-의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와 일본 농상무성 지질국(地質局)-훗날 지질조사소(地質調査所)-의 「일본제국전도(日本帝國全圖)」이다.

먼저 일본 해군성 수로료가 러시아와 영국의 해도(海圖)를 바탕으로 1875년 2월에 간행한 「조선동해안도」에는 ‘오리우츠초(礁)·메네라이초(礁)’가 처음 등장한다. 이 해도에서 울릉도는 ‘다제레타島(Dagelet island)’로 표기되었다가 1889년 2월판에서 ‘松島’로 이름이 바뀌었다. 1878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친 아마기함(天城艦)의 측량 성과를 반영해 울릉도를 ‘다제레타도’에서 ‘松島’로 표기한 것인데, 여전히 독도는 ‘오리우츠초’·‘메네라이초’로 적혀 있다. 「조선동해안도」는 1893년 10월에 대개정되면서 「조선동안부백덕대제만(朝鮮東岸附伯德大帝灣)」으로 명칭도 바뀌고 수록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松島’는 ‘鬱陵島(松島)’로, 독도는 울리부차초와 메닐라이초 대신에 ‘리양코루도암(リアンコルド岩)’으로 각각 표기되었다.⁷⁵

다음으로 일본 농상무성 지질국이 일본 전국을 실측한 뒤 육군 참모본부와 내무성 지리국 및 해군성 수로국 등의 지도·해도를 참고로 1888년 9월에 발행한 「일본제국전도(日本帝國全圖)」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이 ‘松島’와 ‘오리우츠퇴·메네라이퇴’로 각각 적혀 있다. ‘실측일본전도(實測日本全圖)의 효시’라고 평가받는 「일본제국전도」는 수로국의 해도를 참고했음에도 ‘오리우츠초’·‘메네라이초’가 아니라 ‘오리우츠퇴·메네라이퇴’로 표기했던 것이다.

「일본제국전도」는 1892년에 개정판이 제작되고, 1897년에 전면 개정을 거쳐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國全圖)」로 간행되었음에도 모두 울릉도와 독도

75 한철호, 2014, 「일본 수로부의 「조선동해안도」(1875)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9~13쪽; HAN Cheol-Ho, 2017,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s Publication, Revision, and Utilization of the *Chosen higashikaiganzu* (Chart of East Coast of Korea) and Its Recognition of Dokdo,” *Korean Journal* 57-1, pp. 44~53.

는 ‘松島’와 ‘오리우츠히·메네라이퇴’로 표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지질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탓에, 지명은 지방에서 널리 부르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는 표기 방침에 구애받거나 신경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데 있었다. 또한 「일본제국전도」에는 독도만큼 작은 일본의 섬들에 산의 형태가 표시된 것도 있는 반면, 성인봉이 있는 울릉도[松島]와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독도(오리우츠히·메네라이퇴)에는 산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다. 즉, 지질국은 울릉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측량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산 표시나 채색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⁷⁶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오쓰키는 수로료의 「조선동해안도」보다 지질국의 「일본제국전도」를 참고로 「일본본주전도」에 독도와 울릉도에 해당하는 ‘松島’와 ‘竹島’를 ‘오리우츠히·메네라이퇴’와 ‘松島’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지질국의 「일본제국전도」는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의 「일본본주전도」와 ‘오리우츠히·메네라이퇴’, ‘松島’ 명칭이 동일할 뿐 아니라, 조선의 동해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영토 전체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질국의 「일본제국전도」는 물론 「조선동해안도」에는 모두 ‘오리우츠히·메네라이퇴’와 ‘松島’가 조선 영토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쓰키는 ‘문부성검정제’를 받지 않은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의 「일본본주전도」에 ‘오리우츠히·메네라이퇴’와 ‘松島’로 표기했지만, 두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의 본문에는 여전히 ‘松島’와 ‘竹島’가 근래에 조선의 속도가 되었다고 서술된 사실로 미루어, 두 섬은 오키의 해양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그려졌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그는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을 출판하면서 바로 그 직전에 간행된 지질국의 「일본제국전도」를 근거로 「일본본주전도」에 ‘오리우츠히·메네

76 한철호, 2016, 「일본 농상무성의 「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79, 22~30쪽.

라이륙'와 '松島'를 추가했지만, 그 명칭이 낯설고 본문의 내용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부성검정제'를 받지 않은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보다 뒤늦게 간행된 '문부성검정제'를 받은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에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의 「대일본국전도」·'일본본주전도'·「하이도전도」 등이 다시 수록된 사실로도 확인된다. 나아가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이 공식적으로 문부성의 검정을 획득한 사실은 오쓰키 개인뿐만 아니라 문부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차원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오쓰키의 지리교과서·부도·지도 내 울릉도와 독도 표시

간행연도	저술명	수록지도	울릉도·독도 표시	일본 영토 표시
1874. 8. 개정	日本地誌略 1	日本國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채색, 樺太 채색
	日本地誌略 3	山陰道之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채색
		隱岐圖	울릉도·독도 없음	
1877. 1. 개정	日本地誌略 1	日本國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채색, 樺太 무채색
	日本地誌略 3	山陰道之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채색
		隱岐圖	울릉도·독도 없음	
1875. 10.	日本全圖暗射指南譜	暗射日本圖	울릉도·독도 없음	道別 채색, 樺太 없음
1875. 10.	日本地誌要略 1	日本國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道別 채색, 樺太 채색
	日本地誌要略 4	中國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채색
1878. 3.	再刻日本地誌要略 1	大日本國全圖	'竹シマ'·'松シマ' 무채색	道別 채색, 樺太 무채색
		日本本州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채색
1880. 7.	標註日本地誌略 上	日本國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道別 채색
1882. 11. 판권 면허 1886. 5.	改正日本地誌要略 1	大日本國全圖	'竹シマ'·'松シマ' 무채색	道別 채색, 樺太 무채색
		日本本州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채색

1887. 2.	地學階梯 2	大日本帝國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1887. 6.	小學地誌要略 附圖 內國之部	大日本國全圖	울릉도·독도 없음	道別 채색, 樺太 무채색
		山陰山陽南海 西海道之圖	울릉도·독도 없음	國別 경계 표시, 채색
1889. 6. 정정 재판	改正日本地誌 要略 1	大日本國全圖	'竹シマ'·'松シマ' 없음	道別 채색, 樺太 무채색
		日本本州全圖	'松島'·'오리우쓰 瀨, 메네라이瀨' 무채색	國別 채색
1889. 6. 정정 재판 1889. 8. 문부 성검경제	改正日本地誌 要略 1	大日本國全圖	'竹シマ'·'松シマ' 무채색	道別 채색, 樺太 무채색
		日本本州全圖	'松島'·'오리우쓰 瀨, 메네라이瀨' 없음	國別 채색

V. 맺음말

오쓰키는 일본 메이지 시기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이자 교과서 집필자로서 『일본 지지도략』을 비롯해 수많은 지리교과서와 부도를 편찬하였다. 특히 그는 일본 영토의 확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변동 상황을 『일본지지도략』에 정확히 반영해두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쓰키가 『일본지지도략』에서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그의 다른 저작물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새롭게 밝힌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오쓰키는 『일본지지도요』와 『일본지지도략』을 토대로 1875년 『일본지지도략』을 편찬하면서 松島와 竹島의 소속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두 섬을 여전히 부속섬 관계로 파악하면서 오키의 소도에 포함하지 않았고, “居民統屬なく”를 “거주민을 통속하지 않아” 혹은

“거주민도 없고, 또 어떤 國에 속하는지도 알 수 없다”로 해석하거나 관계없이 그 근거가 되는 『은주시청합기』에는 오키를 일본 서북의 경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지지도요략』의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와 「중국전도(中國全圖)」에는 당시 일본 영토가 정확히 반영되었음에도 松島와 竹島는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지지도요략』의 본문과 지도를 종합해 살펴보면, 오키가 두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키가 『일본전도암사지남보』를 편찬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암사일본도’와 『대일본연해실측록』에도 모두 두 섬이 그려지거나 서술되지 않은 사실로도 확인된다.

둘째, 『일본지지도요략』에 나타난 오키의 독도 인식은 『재각일본지지도요략』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대일본국전도」에는 ‘竹シマ’와 ‘松シマ’가 추가로 그려졌지만 일본 영토와 달리 채색되지 않았으며, 이와 짝하는 ‘일본본주전도’에는 해당 지역의 일본 영토만 국별로 채색되었으나 ‘竹シマ’와 ‘松シマ’는 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竹シマ’와 ‘松シマ’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오키의 해양상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려졌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오키의 松島와 竹島 인식은 『표주일본지지도요략』과 『일본암사합부』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표주일본지지도요략』의 본문과 「일본국전도」에는 모두 松島와 竹島가 서술되거나 그려지지 않았다. 또 『표주일본지지도요략』에서 ‘오키의 소도’ 200개에 松島와 竹島가 포함되지 않았음은 『일본암사합부』로도 입증된다.

셋째, 오키는 1882년에 집필하고 1886년에 출판한 『개정일본지지도요략』에서 태정관지령(1877)을 근거로 松島와 竹島가 조선의 속도로 결정되었다고 확실하게 서술해두었다. 두 섬을 부속섬 관계로 파악하면서 모두 조선 영토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재각일본지지도요략』과 동일하게 수록된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의 「대일본국전도」와 ‘일본본주전도’에서 더 이상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오해할 소지는 없어졌다. 이처럼 松島와 竹島를 조선 영토라고 밝힌 오키의 인식은 『지학계제』와 『소학지지도요략내국지』·『소학지지도요략부도내국지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들 교과서의 본문이나 수록 지도에는 모두 松島와 竹島가 서술되거나 그려지지 않아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할 수 있는 근

거를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 오쓰키는 1889년에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을 발행했으며, 그로부터 2달 뒤 ‘문부성검정제’를 받았다. ‘문부성검정제’를 받지 않은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의 「대일본국전도」에는 松島와 竹島가 그려지지 않고 일본 영토와 달리 채색되지 않았으며, 「일본본주전도」에는 松島와 竹島가 각각 ‘오리우츠뢰·메네라이뢰’와 ‘松島’로 표기되었다. 이는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 재판 발행 직전에 간행된 농상공부 지질국의 「일본제국전도」를 근거로 삼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지도에도 두 섬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았다. 「일본본주전도」에서 두 섬은 일본 영토와 달리 채색되지 않았으며, 본문에 여전히 두 섬이 조선의 속도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었기 때문에, 오쓰키가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는 ‘오리우츠뢰·메네라이뢰’와 ‘松島’라는 명칭이 본문의 내용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문부성검정제’에서 원래의 지도를 다시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일본지지도요략』 정정재판이 ‘심상사범학교와 심상중학교 교과서용서’로 ‘문부성검정제’를 획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은 사범학교의 예비교사들뿐 아니라 심상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문부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차원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개정일본지지도요략』은 현재 무주지선점론과 모순되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大槻修二, 1875, 『日本全圖暗射指南譜』, 森屋治兵衛.
_____, 1875, 『日本地誌要略』, 大槻修二.
_____, 1878, 『再刻日本地誌要略』, 柳原喜兵衛.
_____, 1880, 『標註日本地誌略』, 山中市兵衛.
_____, 1882, 『日本暗射合符』, 山中市兵衛.
_____, 1886, 『改正日本地誌要略』, 柳原喜兵衛.
_____, 1887, 『地學階梯』, 松下治三郎·北澤伊八.
_____, 1887, 『小學地誌要略內國誌』, 文榮堂.
_____, 1887, 『小學地誌要略附圖內國之部』, 文榮堂.
_____, 1889, 『改正日本地誌要略』訂正再版, 柳原喜兵衛.
大槻修二 訂正, 永田方正 註解, 1879, 『改正日本地誌要略字引』, 柳原喜兵衛.
師範學校 編輯, 1874, 『日本地誌略』, 文部省.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 1870, 『大日本沿海實測錄』, 大學南校.
正院 地誌課 編, 1878, 『日本地誌提要』5, 日報社.

단행본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岡田俊裕, 1992, 『近現代日本地理學思想史-個人史の研究-』, 古今書院.
_____, 2000, 『日本地理學史論-個人史の研究-』, 古今書院.
_____, 2002, 『地理學史-人物と論争-』, 古今書院.
_____,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 近代編 1』, 原書房.
內藤正中·金炳烈, 2007, 『史的檢證竹島·獨島』, 岩波書店.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近代教科書の變遷-東京書籍七十年史-』, 東京書籍株式會社.
文部省, 1972, 『學制百年史』, 帝國地方行政學會.

- 伊能忠敬研究會 編, 1998, 『忠敬伊能圖』, アワ・プランニング.
- 中山修一, 1997, 『近・現代日本における地誌と地理教育の展開』, 廣島大學總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 仲新, 1967, 『明治の教育』, 至文堂.
- 中川浩一, 1978, 『近代地理教育の源流』, 古今書院.
- 池內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 倉澤剛, 1963, 『小學校の歴史』, ジャパン ライブラリー ビューロー.
- 海後宗臣 編纂, 1965,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15, 地理(1), 講談社.
- _____, 1966,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17, 地理(3), 講談社.
- 海後宗臣·仲新, 1969, 『近代日本教科書總說 解説篇』, 講談社.

논문

- 박병섭, 2007,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다케시마=독도 인식」, 『독도연구』 3.
- 朴炳涉, 2008, 「明治政府의 竹島=獨島 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8.
-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독도연구』 16.
- 심정보, 2017,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 『독도연구』 23.
-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소영, 2005, 「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독도연구』 1.
- _____, 2013, 「근대 일본 관찬 지지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 _____, 2014,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 17.
- 한철호, 2014, 「일본 수로부의 「조선동해안도」(1875)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_____, 2016, 「일본 농상무성의 「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79.
- _____, 2018,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小學校) 지리교과서의 현

- (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61.
- HAN Cheol-Ho, 2017,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s Publication, Revision, and Utilization of the *Chosen higashikaiganzu* (Chart of East Coast of Korea) and Its Recognition of Dokdo," *Korean Journal* 57-1.
- _____, 2020,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日本地誌略』 편찬과 독도 인식」, 『민족문화연구』 87.
- 島津俊之, 2002, 「明治政府の地誌編纂事業と國民國家形成」, 『地理學評論』 75-2, 日本地理學會.
- 藤岡謙二郎, 1982, 「『日本地誌提要』의 價値」, 『日本地誌提要』 全一冊, 臨川書店.
- 石田龍次郎, 1966, 「皇國地誌の編纂-その經緯と思想-」, 『一橋大學研究年報 社會學研究』 8.
- 石井研堂, 1966, 「小學讀本の編輯者」, 『増補改訂 明治事物起源』 上, 春陽堂書店.
- 池内敏, 2007, 「近世日本の西北境界」, 『史林』 90-1.
- 川村博忠, 2003, 「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 『總合人間科學』 3.
- 塚本孝, 2014, 「Q76 江戸時代の文獻では竹島が日本の範圍から除外されているのか」, 第3期竹島問題研究會編,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 3月増刊號, ワック株式會社.
- 下條正男, 2009, 實事求是~日韓のトゲ, 竹島問題を考える~第22回 「朴炳涉氏の「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號)を駁す」, Web竹島問題研究所.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攪修二]의 『일본지지도요략(日本地誌要略)』 편찬과 독도 인식

한철호

오쓰키는 일본 메이지 시기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이자 교과서 집필자로서 『일본지지도요략』을 비롯해 수많은 지리교과서와 부도를 편찬하였다. 특히 그는 일본 영토의 확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변동 상황을 『일본지지도요략』에 정확히 반영해두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쓰키가 『일본지지도요략』에서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그의 다른 저작물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쓰키는 『일본지지도요략』에서 松島와 竹島를 부속섬 관계로 파악하고 오키의 소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국전도(日本國全圖)」와 「중국전도(中國全圖)」에도 당시 일본 영토가 정확히 반영되었지만 松島와 竹島는 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오쓰키가 두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은 사실은 『일본전도암사지남보(日本全圖暗射指南譜)』의 근거로 삼았던 ‘암사일본도(暗射日本圖)’와 『대일본연해실측록(大日本沿海實測録)』으로도 확인된다.

『일본지지도요략』에 나타난 오쓰키의 독도 인식은 『재각일본지지도요략(再刻日本地誌要略)』에서도 견지되었다.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에는 ‘竹シマ’와 ‘松シマ’가 추가로 그려졌지만 일본 영토와 달리 채색되지 않았으며, ‘일본

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에는 두 섬이 표시되지 않아 오키의 해양상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쓰키의 松島와 竹島 인식은 『표주일본지리지략(標註日本地誌略)』과 『일본암사합부(日本暗射合符)』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오쓰키는 『개정일본지리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에서 태정관지령을 근거로 松島와 竹島가 조선의 속도로 결정되었다고 확실하게 서술해두었다. 그 결과 『재각일본지리지요략(再刻日本地誌要略)』과 동일하게 수록된 『개정일본지리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의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와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에서 더 이상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오해할 소지는 없어졌다. 松島와 竹島가 조선 영토라는 그의 인식은 『지학계제(地學階梯)』와 『소학지리지요략 내국지(小學地誌要略內國誌)』·『소학지리지요략부도내국지부(小學地誌要略附圖內國之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오쓰키는 1889년에 『개정일본지리지요략』 정정재판을 발행했으며, ‘문부성검정제(文部省檢定濟)’를 받았다. ‘문부성검정제’를 받지 않은 이 교과서의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에는 松島와 竹島가 그려지지 않았고, 일본 영토와 달리 채색되지 않았으며, 「일본본주전도(日本本州全圖)」에는 농상무성 지질국의 「일본제국전도(日本帝國全圖)」를 근거로 두 섬이 ‘오리우츠히(瀨)·메네라이(瀨)와 ‘松島’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들 명칭이 본문의 내용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문부성검정제’에서 원래의 지도를 다시 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일본지리지요략』 정정재판이 ‘심상사범학교(尋常師範學校)와 심상중학교 교과서용서(尋常中學校教科書用書)’로 ‘문부성검정제’를 획득한 사실은 사범학교의 예비교사들뿐 아니라 심상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문부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차원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독도[松島], 울릉도[竹島], 오키[隱岐], 오쓰키 슈지[大槻修二], 『일본지리지요략(日本地誌要略)』, 『재각일본지리지요략(再刻日本地誌要略)』, 『개정일본지리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 『일본지리지요(日本地誌提要)』, 문부성(文部省)

Meiji Geographer Otsuki Shuji's *Nihon-chishi-yoryaku* (日本地誌要略) and His Recognition of Dokdo

Han Cheolho

Otsuki Shuji (大槻修二), a renowned Meiji geographer and textbook writer, published various geography textbooks and student atlases. Since he attached much importance to Japan's territorial gains, his *Nihon-chishi-yoryaku* (日本地誌要略) faithfully registered all the territorial changes. This paper analyzes Otsuki's overall attitude toward Dokdo by examining the way Dokdo was treated in the *Nihon-chishi-yoryaku* and comparing it with those in his other geographical works.

Otsuki did not describe Dokdo and Ulleungdo as belonging to the Oki Islands, for he thought that Dokdo was a dependency of Ulleungdo. The maps such as *Nihonkoku-zenzu* (日本國全圖) and *Tsyukoku-zenzu* (中國全圖) marked all the Japanese territories but Dokdo and Ulleungdo did not appear on these maps. In the *Saikoku-*

Nihon-chishi-yoryaku (再刻日本地誌要略) and *Dai-Nihonkoku-zenzu* (大日本國全圖), ‘Takeshima (竹シマ)’ and ‘Matsushima (松シマ)’ were added but not colored unlike the colored Japanese possessions. On the map of *Nihon-honshu-zenzu* (日本本州全圖), the two islands are not marked. All these suggest that Otsuki used Dokdo and Ulleungdo only to mark the boundaries of the Oki Islands. Otsuki’s recognition of Dokdo and Ulleungdo remained unchanged, continuing to the *Hyotsyu-Nihon-chishi-ryaku* (標註日本地誌略) and *Nihon-anshya-aihu* (日本暗射合符).

In the *Kaisei-Nihon-chishi-yoryaku* (改正日本地誌要略), Otsuki unequivocally stated that Dokdo and Ulleungdo were determined to be possessions of Joseon by the Dajokan Order of 1877 (太政官指令). Thus, there was little chance for him mistaking them for Japanese possessions in the *Saikoku-Nihon-chishi-yoryaku* and *Dai-Nihonkoku-zenzu*. His perception of Dokdo and Ulleungdo as belonging to Joseon reflected in the *Chigaku-kaitei* (地學階梯), *Shogaku-chishi-yoryaku-naikokushi* (小學地誌要略內國誌), and *Shogaku-chishi-yoryaku-huzunaikokunobu* (小學地誌要略附圖內國之部).

In 1889, Otsuki published a new edition of the *Kaisei-Nihon-chishi-yoryaku*, which was officiall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the *Kaisei-Nihon-chishi-yoryaku* was used as the standard geography textbook for the teachers colleges and middle schools suggest that the students were generally taught to treat Dokdo and Ulleungdo as Korean possessions. This also support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considered Dokdo as Korea’s territory.

Keywords: Dokdo (Matsushima), Ulleungdo (Takeshima), Oki (隱岐), Otsuki Shuji (大槻修二), *Nihon-chishi-yoryaku* (日本地誌要略), *Saikoku-Nihon-chishi-yoryaku* (再刻日本地誌要略), *Kaisei-Nihon-chishi-yoryaku* (改正日本地誌要略), *Nihon-chishi-teiyo* (日本地誌提要), the Ministry of Education (文部省)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샌프란시스코조약 전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

김영수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전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 III. 샌프란시스코조약 전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 IV. 맺음말



I. 머리말

명칭은 그 대상의 인식에서 출발하므로 그동안 영토해양 관련 재판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섬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 언어전문가에 의한 설명, 당시 정부문서에 나타난 지도, 현재 사용하는 영국의 해도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섬인가에 대해서 판단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1928년 팔마스(Palmas)섬의 다양한 명칭을 정리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섬의 명칭에 관한 철자의 차이, 도서명의 변종 등이 언어 전문가에 의한 해명으로 동일한 섬이라는 입증도 중요하게 판단했다.

“팔마스섬은 서로 다른 이름, 즉 멜랑기스, 미앙가스, 미앙구스, 미앙귀스라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팔마스섬이) 12가지 이상의 도서명 변종이 나타나지만 모두 동일한 섬과 관련되었고 언어 전문가들의 진솔로 충분히 설명했다. 도서의 명칭이 원주민 언어로부터 차용되었으며, 언어의 발음을 서양 알파벳으로 옮기는 것이 곤란한 점으로 보아 서로 다른 철자의 존재는 이해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철자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섬들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상설중재재판소는 1885년 및 1899년 계약상의 ‘팔마스’과 ‘미앙가스’의 명칭의 동일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것은 1886년 1월 메나도 지사가 네덜란드 동인도와 서인도의 총독에게 송부한 대축척 지도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신뢰할 만한 상세한 현대의 지도인 영국 해군성 해도는 탈라우어 혹은 나누사제도와 민다나오 사이에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외에 다른 섬이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

* 투고: 2020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재심사 완료: 2020년 5월 20일, 게재 확정: 2020년 5월 25일

상설중재재판소는 1928년 팔마스섬을 둘러싼 재판에서 명칭과 관련된 내용의 판결을 제시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름이 다르더라도 명칭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정이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과거 정부 문서의 지도 및 현재 영국 해군성의 해도 등을 함께 참고하여 팔마스섬의 명칭과 위치를 확인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이것은 동해에서 뚜렷한 섬으로 울릉도와 독도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다. 동해의 독도는 17세기 안용복의 ‘자산도(우산도)’ 방문, 19세기 태정관문서의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 20세기 대한제국의 ‘석도’ 규정 등의 명칭을 갖고 있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독도를 발견하여 자연히 평화적으로 점령의 정당한 권리를 받았고, 울릉도의 속도로서 도서상의 주권의 취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독도를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²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서양 이름을 기록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서양은 1849년 리앙쿠르호에 의하여 죽도가 발견되었고, ‘리앙쿠르 암초’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1854년 러시아 군함 팔라다호는 실측으로 죽도를 해도상에 정확한 위치로 기록하고, ‘메넬라이(Menelai)’ 및 ‘올리브차(Olivutsu)’ 열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1855년 영국의 중국함대 소속 군함 호네트호는 함장 찰스 콜링턴 포사이스(C. C. Forsyth) 중좌가 실측하여 ‘호네트’섬으로 불렀다.³

근대 시기 한국에서는 현재의 독도(석도) 명칭이 사용되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명칭이 서로 바뀌게 되었으며, 서구에서는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Liancourt), 올리부차(Оливуца)와 메넬라이(Менелай), 호네트(Hornet)로 불렀다. 서구의 명칭 중 ‘리앙쿠르’와 ‘양코’의 연관성을 해명하는 것

1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4 April 1928, PCA(U.S.A v. The Netherlands), V Conclusions, pp. 859~860.
 2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 외교문제총서 11호(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편, 2012 재발행, 『독도문제개론』, 97쪽).
 3 日本外務省, 昭和27年(1952)2月 2日, 「(極秘) 日本海の竹島について」,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1877년 태정관 문서 작성 이후 1880~1990년대 일본에서의 송도와 죽도에 대한 인식도 일본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즉 죽도와 송도를 규정한 태정관 문서가 일본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문제였다. 호리[堀和生]는 일본이 1892년부터 순차로 발간한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를 검토했다.⁴ 호리는 일본이 1890년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파악했고,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인식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시마네현[島根縣] 어업사료 등의 일본 자료에 기초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이었다.

허영란에 따르면 1882년 이후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는 송도가 울릉도의 정식 명칭으로 정착해 있었다. 이 시점에서 외무성은 울릉도=죽도=송도를 전제하고 있는 데 반해, 시마네현과 내무성은 지적편찬 당시와 마찬가지로 죽도와 송도라는 두 섬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었다. 1900년 초 독도의 일본 측 명칭이 랑코도로 정착했다. 명칭표기가 울릉도-랑코도로 바뀌었다. 오키도사[隱岐島司]는 1904년 11월 독도를 일본의 신영토로 편입한 다음 오키섬[隱岐島] 소관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그 이름으로는 ‘죽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⁵

유미림에 따르면 지리지에서 독도 호칭은 1890년대 초까지도 송도, 즉 마쓰시마로 호칭된 경우가 많았고, 양코도(ヤンコ島) 호칭은 『일본수로지』보다 훨씬 늦은 1903년에 등장한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양코도’ 호칭이 잔존해 있었다.

4 堀和生, 1985,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堀和生, 2008,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편입」,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101~102쪽).

5 허영란, 2013,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정부기록물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15~19쪽. 송휘영에 따르면 일본 해군은 1883~1899년 사이 울릉도=송도, 독도=리앙코르트라고 인식하였고, 『일본수로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세트르 간주하여 울릉도 항목에 함께 취급했다(송휘영, 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28쪽).

서양의 호칭 ‘리양쿠르 락스’가 유입된 뒤로는 여러 호칭이 병존하면서 혼동을 반복하다가 ‘양코도’는 점차 사라지고 ‘다케시마’가 독도의 호칭으로 명명되는 어느 순간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로 도치(倒置)되었다.⁶

최근 이태우는 『일본수로지』,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 등의 일부 자료를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독도에 대한 명칭은 송도, 죽도, 리양코도, 리양쿠르 락스 등으로 불리며 특정한 명칭 없이 혼란만 가중되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명칭 혼란만 보더라도 1905년까지 여전히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했다.⁷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전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의 추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1905년 독도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실행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⁸ 또한 일본 외무성은 샌프란시스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 전후 ‘죽도’와 ‘송도’에 대한 명칭 혼란을 또다시 겪으면서 독도의 명칭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필자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샌프란시스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와 울릉도 명칭 변화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명칭 변화와 관련된 일본의 논리와 의도를 파악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근현대 일본의 공문서를 분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독도 명칭이

6 유미립,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64~267쪽.

7 이태우, 2019, 「1905년 독도편입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인식」, 『독도연구』 26, 184쪽.

8 그동안 한일 양국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국의 고유한 명칭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유권으로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규정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자국의 영토라는 의식에서 오랜 명칭규정의 일관성이 있었지만 일본은 자국의 영토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명칭을 일부로 바꿨다는 점이다(김영수, 2019,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 242, 128~129쪽). 필자는 2019년 논문을 통해서 석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 명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명칭 변화를 주목했다.

1900년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II.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전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1. 일본군함 '니이타카호[新高號]'와 '쓰시마호[對馬號]'의 독도 조사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 밤 뤼순에 대한 일본군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9일 제물포에 정박 중인 러시아 순양함 '바라크'와 포함 '까레예즈'를 격침한 후, 10일 대러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뤼순 봉쇄에 성공한 도고[東郷平八郎] 함대는 5월 5일 요동반도에 상륙했고, 4월 말 한국을 거쳐 북진한 일본군 제1부대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진입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유럽의 발틱 함대를 제2태평양 함대로 구성하고 극동의 전장에 투입하여 뤼순 함대와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이후 1905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쓰시마해전[對馬海戰,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이 발발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동해에서 러시아군함을 감시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와 죽변에 망루를 설치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죽변, 울릉도, 독도의 망루를 상호 연결하여 해군 정보망을 가동했다.

일본 해군은 1904년 6월 울릉도 망루를 운영하고, 8월 울릉도와 죽변과의 해저전선 부설작업 등을 위해서 해군함정을 동해에 파견했다. 니이타카호[新高號]는 울릉도 망루와 죽변 사이의 해저전선 부설작업을 수행한 오키나와마루[沖繩丸]를 호위하는 임무를 띠고 울릉도 해역에서 활동했다. 니이타카호와 오키나와마루는 1904년 9월 24일 전선부설작업을 대부분 마무리 짓고 25일 부산항에 기항했다.⁹

일본군함 니이타카호는 1904년 9월 25일 오전 11시 부산항(釜山港)에서 출

9 예영준, 2012, 『독도실록 1905』, 책발, 239쪽.

발하여 오후 3시 쓰시마섬의 다케시키향[竹敷港]에 도착하면서 그날의 일지(日誌)를 작성했다. 니이타카호는 9월 26일에도 다케시키향에 정박했다.

1904년 9월 25일 니이타카호의 일지에는 송도(松島, 울릉도)에서 ‘리양코루도암(岩)’을 실견자(實見者)로 청취(聽取)한 정보(情報)가 수록되었다. 니이타카호의 일지에 따르면 한자표기인 ‘독도(獨島)’로 기록했다. 한국인은 ‘독도’라고 쓰고[書], 일본 어부는 ‘리양코섬[リヤンコ島]’으로 했다. 일본은 ‘리양코루도암(岩)(リアンコルド岩)’과 ‘리양코섬[リヤンコ島]’을 혼용했다. 일지에 따르면 서서(西嶼)는 평온한 땅이 있어서 작은 숙소를 건설할 수 있고, 동서(東嶼)는 샘솟는 용천(湧泉)이 있었다. 울릉도에서 출발한 선박은 대체로 10일간 체류하며 해마(海馬) 사냥에 종사했다.

“송도(松島)에서 ‘리양코루도암(岩)’을 실견자(實見者)로 청취(聽取)한 정보(情報), ‘리양코루도암’을 한인은 독도(獨島)라고 쓰며[書], 일본 어부는 약하여 ‘리양코섬[島]’이라고 한다.”¹⁰

그 후 1904년 12월 15일 니이타카호 해군대좌(海軍大佐) 쇼지 요시모토[莊司義基]는 니이타카호의 남청방면(南淸方面) 행동보고(行動報告)를 해군성에 제출했다.¹¹

일본 해군은 1904년 11월 13일 리양코루도섬(リアンコルド島)의 전신소 설치의 적합성을 조사할 것을 쓰시마호[對馬號] 함장 센도 다케히데[仙頭武英]에게 지시했다. 쓰시마호는 1904년 11월 20일 오전 7시 20분 ‘리양코루도섬[リヤン

10 “松島ニ於テ‘リアンコルド’岩 實見者ヨリ聽取リタル情報‘リアンコルド’岩 韓人之ヲ獨島ト書シ本邦漁夫等略シテ‘リヤンコ’島ト呼稱セリ.” 『軍艦新高行動日誌』 5, 明治三十七(1904)年九月二十五日, 2737쪽(防衛省防衛研究所, 海軍省-日露-M37-181).

11 『軍艦新高行動日誌』 5, 明治三十七(1904)年十二月十五日, 2796쪽(防衛省防衛研究所, 海軍省-日露-M37-181). 쇼지 요시모토[莊司義基]는 1905년 5월 이른바 ‘일본해해전(日本海海戰)’ 관련 전투보고(戰鬪報告)를 해군성에 제출했다 [『新高艦長海軍大佐莊司義其』, 『第二十一號 極秘 明治37-38年海戰史』, 第2部 戰紀 卷2備考文書 第1(防衛省防衛研究所)].

コールド島』에 도착해 상륙조사를 실시했다. 센도 다케히데 함장은 1905년 1월 5일 동도와 서도에 각각 1개소의 망루 설치 후보지가 있으며, 식수가 부족해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군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게 보고했다.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 지시서는 ‘리양코루도섬[リアンコルド島]’을 사용하였고, 보고서는 ‘리양코루도섬[リヤンコールド島]’을 사용했다. 쓰시마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도(東島)에는 가소옥(假小屋)의 흔적이 있었는데, 어민이 여름에 강치[海豹]를 사냥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쓰시마호는 전신소 설치를 위한 적합한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동도(東島)의 남단(南端)에 있는 평탄지(平坦地)는 3~4평(坪)의 넓이가 있으며, 서북(西北)의 일방(一方)은 차폐(遮蔽)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¹²

니이타카호와 쓰시마호는 독도 명칭을 ‘리양코루도암(リアンコルド岩)’, ‘리양코섬[リヤンコ島]’, ‘리양코루도섬[リヤンコールド島]’, ‘리양코루도섬[リアンコルド島]’ 등을 사용했다. 이것은 프랑스 명칭인 리양쿠르(Liancourt)를 유사하게 표기한 것이다.

2. 『일본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일본지리지』에는 대체로 울릉도를 ‘죽도(竹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독도를 ‘양코島’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다.

일본 수산업 전문가이자 흥룡회 회원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는 1903년 조선연안의 어업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을 발간했다. 『한해통어지침』에 따르면 “울릉도(鬱陵島). 평해군 월송포 남쪽 40여 리 바다에 있는 고도로서 한인은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 적는다. 지나인은 ‘마쓰

12 海軍中佐 仙頭武英→水路部長 肝付兼行, 明治38年(1905) 1月 5日, 「第六十七號 大馬艦長 リヤンコールド島概要」; 신용하, 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194~199쪽; 김병렬, 1998,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374쪽.

시마[松島]’라고 부른다.”

구즈우 슈스케는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에 ‘양코島’에 대해서 기술했다. 그는 울릉도에서 맑은 날 양코가 보인다는 지리적 개념도 기록했다. 구즈우 슈스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양코島.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 일본 오키도에서 서북으로 거의 같은 거리의 바다 가운데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있다. 맑은 날에 울릉도 산봉우리의 높은 곳에서 이를 볼 수 있다. 한인 및 본방 어민은 이를 양코도라고 부른다. 길이는 거의 10여 정(町)이며 연안의 굴곡이 매우 많아 어선을 정박시켜 풍랑을 피하기에 알맞다.¹³

일본 지리학자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의 1905년 『한국신지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본도(本島)에서 동남방 약 30리(里), 오키도[隱岐島]와 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곳에 무인의 섬이 하나 있다. 속칭 ‘양코도’라고 한다. 길이는 10정(町) 남짓이다. 연안 굴곡이 매우 많아 어선을 정박시키기에 알맞다고는 하나 빨간과 음료를 얻기가 매우 곤란하다. 땅을 파더라도 수 척 사이에 쉽게 물을 얻지 못한다. 이 섬에는 해마(海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산도 풍부하다고 한다.¹⁴

러시아 동방학자 꾸네르는 울릉도 주변 섬으로 독도(Liancourt)와 죽서(竹嶼, ЧЮКсѐ)를 기술했다. 꾸네르는 다부치 도모히코의 1905년 『한국신지리』를 참고하여 독도 부분을 기술했다. 꾸네르는 독도의 명칭을 ‘얀코(Янко) 또는 리양쿠르(Liancourt)’라고 기술했다.¹⁵

13 葛生修亮, 1903, 『韓海通漁指針』, 黑龍會出版部, 123~124쪽.

14 田淵友彦, 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456쪽.

일본 시마네현 진조고등소학교[尋常高等小學校] 교장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1906년 3월 27일 「죽도도항일지(竹島渡航日誌)」에서 일본 연합함대가 죽도의 남쪽 약 1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사령관 네보가토프(Н.И. Небогатов) 장군을 항복시켰다고 기록했다.¹⁵ 오쿠하라는 죽도 근처에서 ‘일본해 해전’의 주요 전투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1906년 6월 오쿠하라 헤키운은 「죽도연혁고(竹島沿革考)」라는 논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정리했다.

오쿠하라에 따르면 “죽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본의 옛 기록에 보이는 죽도는 모두 오늘날의 울릉도를 말한다. 이즈모[出雲], 이와미[石見], 호키[伯耆], 오키[隱岐] 지방 사람들이 도항했던 죽도는 바로 울릉도이다.”

오쿠하라에 따르면 “원래 운파쿠[雲伯] 지방의 어부들이 죽도라고 칭한 것은 모두 울릉도였다.” 오쿠하라는 시마네[島根]와 돗토리[鳥取] 지방에서 칭해오던 ‘죽도’는 울릉도라고 확정했다.

오쿠하라에 따르면 “작년 2월 시마네현의 영토에 편입되었고, 일본해 대해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신죽도(新竹島, 독도)’는 옛 기록에 보이는 송도로, 오키국 사람들이 랑코島라고 불렀던, 나무 하나 없는 무인의 작은 암서이다.” 오쿠하라는 ‘신죽도’는 송도, 랑코島, 리양코루 열암으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오쿠하라는 지리에 어두운 일본인이 ‘신죽도’를 수목이 울창한 ‘죽도’인 울릉도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오쿠하라에 따르면 “해군수로부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는 이를 뒤바꿔 울릉도를 일명 송도(松島), ‘신죽도’를 리양쿠르 열암으로 했으며, 프랑스 배가

15 Н. В. Кюнер, 1912, Очеркъ Кореи(한국개관). Ч.1. Владивосток(블라디보스톡). С.50; 김영수, 2014, 「꺄네르의 한국개관에 나타난 한국 영토와 자료」, 『이화사학연구』 48.

16 奥原碧雲, 1907, 「附錄 竹島渡航日誌 1906. 3. 2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8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쿠하라의 일본 해군수로부가 울릉도를 ‘송도’, ‘신 죽도’를 프랑스 선박의 발견에서 따온 ‘리앙쿠르 열암’으로 규정했다.

오쿠하라의 죽도를 죽도라는 명칭으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다. 오쿠하라에 따르면 “죽도로 명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조선수리지』와 해도(海圖)에 이미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명명한 이상, 죽도에 해당되는 섬은 리앙코섬[リアンコ島] 이외에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도(竹島)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오쿠하라의 일본 해군수로부가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명명하여, ‘리앙코섬[リアンコ島=독도]’을 ‘죽도’라고 명명했다고 주장했다.

오쿠하라에 따르면 “1883년(명치 16년) 한일 양국 정부 간에 담판이 있어, 일본에서 가 있던 어선을 돌아오게 하고 또다시 도항을 금지하여 명백하게 죽도를 조선 소속으로 했다.” “죽도는 이미 겐로쿠[元祿] 때부터 조선 판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리앙코루암도 조선 판도로 인정받게 되었다.”¹⁷ 오쿠하라의 도쿠가와 막부의 외교정책과 맞물려 죽도, 즉 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귀속되었고, 죽도와 함께 ‘리앙코루암(岩)’도 조선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판단했다.

1907년 발간된 오쿠하라 헤키운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는 1906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神西由太郎]의 서문이 실려 있다. 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죽도(竹島)는 장중한 북해(北海)상에 멀리 떨어져 있는 천애일수(天涯一洑)의 암서(巖嶼)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해해전’을 계기로 전 세계에 소개되어 영구히 전사(戰史)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이보다 수개월 앞서 죽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되면서 동시에 시마네현에 소속되었으므로 이 역시 명예로운 기념이라 할 수 있다.”¹⁸

17 奥原碧雲, 1906.6, 「竹島沿革考」, 『歴史地理』 8-6, 7~24쪽.

18 神西由太郎, 1907, 「序文」,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진자이는 독도를 ‘죽도’라고 표기하면서 ‘일본해 해진’에서 전 세계에 소개 되었다고 기록했다. 진자이는 1905년 5월 ‘일본해 해진’ 수개월 전에 “죽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되면서 동시에 시마네현에 소속되었다”고 기록했다. 결국 일본은 러일전쟁의 산물로서 ‘죽도’를 편입한 것이다.

『일본지리지』는 독도를 ‘양코島’, ‘량코島’, ‘리양코루암(岩)’, ‘리양코루 열암’, ‘신죽도(新竹島)’ 등으로 표기했다. ‘신죽도(新竹島)’는 기존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독도를 송도(松島)로 불렀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3. 일본 정부 문서의 울릉도와 독도

1902년 4월 28일 울릉도 경찰관주재소에 최초로 부임한 니시무라[西村] 경부는 한 달가량의 조사를 거쳐 외무대신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서 울릉도의 어업 상황을 설명하면서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도의 정동쪽 약 50해리에 세기의 작은 섬이 있는데 속칭 ‘량코도’라고 한다. 일본 사람은 송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다소의 전복이 나므로 울릉도에서 출어하기도 하는데, 이 섬은 음료수가 부족하여 장기간 출어할 수 없으므로 4~5일가량 경과 하면 본도로 귀선한다.¹⁹

울릉도 주재 니시무라 경부는 1902년 독도의 명칭을 량코도와 송도라고 기록했다.

1902년 10월 일본 외무성통상국에서 발간한 『통상회찬』에는 독도 명칭을 ‘리양코島’와 ‘송도(松島)’라고 기록했다.

19 釜山領事館報告書, 「明治三十五年 鬱陵島狀況」(外務省外交史料館 6.1.6.10); 허영란,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245쪽.

울릉도의 정동쪽 약 50해리에 3소가 있다. 이를 ‘리양코島’라 하며 본방인은 ‘송도(松島)’라 칭한다. 그곳에 전복을 산출하므로 본도에서 출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동섬에 음료수도 없으므로, 오랫동안 출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4~5일간 지나 본도에 귀항한다.²⁰

1905년 9월 일본 외무성통상국에서 발간한 『통상회찬』에는 독도 명칭을 ‘랑코島’라고 기록했다. “강치[海獸]는 울릉도 동남쪽 약 25리(里)에 위치한 랑코(ランコ, Langko)섬에 서식했다.”²¹

1904년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독도의 명칭 유래와 인식을 추정하면서 일본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카이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마쓰시마(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라고 구별하여 불렀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나카이는 기존 일본에서 불렀던 ‘다케(울릉도)’와 ‘마쓰(독도)’라는 명칭을 반대로 불렀다.

이른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두 섬은 일본인이 이름을 붙인 곳이며, 울릉도와 이 섬을 함께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키열도를 거쳐서 울릉도로 여러 차례 왕복한 사람은 이 섬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인은 일찍이 이 섬을 발견하였지만 애석하게 기록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없을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²²

오키도사[隱岐島司] 하가시 분스케[東文輔]는 ‘시마네현 제40호 고시’ 이전 1904년 11월 30일 서(庶) 1073호의 조회 내용에 대한 회답을 시마네현(島根縣) 내무부장(內務部長) 서기관(書記官) 호리 신지[堀信次]에게 보냈다.

20 外務省通商局, 1902.10, 「韓國鬱陵島事情」, 『通商彙纂』 234號, 46쪽.

21 外務省通商局, 1905.9.3, 「鬱陵島現況 明治38年7月31日附釜山帝國領事館報告」, 『通商彙纂』 50號, 50쪽.

22 中井養三郎, 明治37年(1904) 9月 29日, 「庶1073號 別紙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貸下願説明書」,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과 독도 명칭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영토에 편입한 뒤 오키섬 소관으로 정해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명칭은 죽도(竹島)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독도의 불법 영토 편입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문서를 주고받았다. 특히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 결국 ‘죽도’ 명칭 사용은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히가시 분스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동쪽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본디 조선의 동쪽 해상[朝鮮의 東方海上]에 송도와 죽도 두 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의해 구비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곳 지방에서 나무꾼들이 왕래하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통칭했지만, 그 실상은 송도입니다. 그것은 해도를 보더라도 분명한 것입니다. 새 섬[新島]을 두고 달리 ‘竹島’로 해당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래 잘못 불려온 명칭을 전용하여 竹島의 통칭을 새 섬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²³

히가시 분스케는 송도와 죽도라는 이전 명칭이 있으므로 울릉도가 ‘송도’라면 독도를 ‘죽도’라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울릉도’를 ‘송도’라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러일전쟁 이후 독도를 편입하려 했다는 일본의 의도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조선의 동방해상’은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식 문서이다.

나카이와 함께 독도 어업에 종사한 가토 주조(加藤重造)는 1905년 4월

23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 明治37年(1904) 11月 30日, 「乙庶152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일본은 편입 후에도 ‘다케시마’와 ‘리앙코島’를 병칭한 경우가 많았다(유미림, 2013, 앞의 책, 272쪽).

13일 죽도대여(竹島貸與) 청원서를 시마네현지사[島根縣知事]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에게 보냈다.

“죽도는 본래 리양코섬으로 속칭되었습니다.”

가토 주조도 ‘리양코’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⁴

시마네현은 1905년 6월 1일 오사카[大阪]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자료에 근거하여 독도의 명칭을 “리양코르도암(일명 죽도)”이라고 기록했다. 오사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독도가 “한날 무인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강치가 많이 살고 있어서 시마네현 주민이 여러 차례 건너가서 포획했다. 내무성은 1905년 2월 처음으로 이곳을 시마네현 소속과 관할로 칭하고, ‘죽도’라고 이름을 붙였다.”²⁵

일본은 ‘리양쿠르섬’을 안코도, 양코도, 량코도, 리양코도, 리양코루, 리양코루도, 리양코르도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했다. 일본은 1906년까지 독도를 대체로 송도, 량코島, 리양코루 열암 등으로 불렀다. 일본 공문서는 대체로 독도를 한자로 송도(松島)라고 부르다가 1907년부터 죽도(竹島)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조선의 동쪽 해상에 있는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라는 이전 명칭이 있으므로, 울릉도가 ‘송도’라면 독도를 ‘죽도’라고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무엇보다도 ‘죽도’ 명칭 사용은 나카이의 독도 편입 요청에 따른 오키도사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4. 일본 『지학잡지』와 수로지의 울릉도와 독도

일본 『지학잡지』와 수로지에서도 독도 명칭을 ‘리양코’와 ‘양코’로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일본 『지학잡지』는 독도를 ‘양코(ヤンコ)’, ‘리양코島(リアンコ)’라고

24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 4月 13日, 「竹島貸與請願」,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25 明治38年(1905) 6月 1日, 「大阪 朝日新聞 8358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불렀는데, 『제국신문』은 일본 신문을 인용하여 ‘양고’의 발견을 보도했다. 일본 해군수로부(海軍水路部)는 1907년부터 한인은 ‘독도(獨島)’라고 쓰고 일본인은 ‘리양코島(リアンコ)’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죽도’와 ‘리양쿠르(Liancourt rocks)’가 동일한 섬이라고 표기했다. 일본 해군수로부는 1907년부터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을 기록했다. 일본 해군수로부는 1907년 수로지에 기초하면서 1908년 해군부의 실측을 보강하여 수로지의 ‘죽도’ 부분을 완성했다.

1901년 5월 도쿄지학협회는 「일본해중 일도서(一島嶼)」라는 논문에서 독도를 ‘양코(ヤンコ)’라고 부르면서 새롭게 발견된 섬이라고 기록했다. 『지학잡지』에 따르면 1901년 4월 일본 신문에서 독도의 발견을 보도했다. 『지학잡지』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지리적인 개념도 소개했다. 『지학잡지』는 ‘양코’라는 새로운 섬을 발견했지만 실제 ‘리양쿠르’와 일치한다고 기록했다.²⁶

그런데 1901년 4월 1일 『제국신문』은 일본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독도의 명칭을 ‘양고’라고 기록했다. 당시 한국인은 울릉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해상의 새로운 섬의 발견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제국신문』에 따르면 ‘양고’는 울릉도 동남쪽 30리 바다에 위치하였고, ‘어물’이 주요 산물이고, ‘바다 말’, 즉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²⁷ 『지학잡지』와 『제국신문』의 내용은 “울릉도에서 동남으로 30리”라는 대목이 일치한다. 『제국신문』은 일본의 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양고’의 발견을 보도했다. 이것은 일본이 ‘양코’라는 새로운 섬을 발견한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제 ‘리양쿠르’를 재발견한 것에 불과했다.

지리학자 다나카 아키마로[田中阿歌麻呂]는 1906년 6월 「오키국 죽도에 관한 지리학상의 지식」이라는 논문에서 독도에 대한 명칭을 정리했다.

26 東京地學協會, 1901.5, 「日本海中 一島嶼」, 『地學雜誌』 13輯 148卷, 301~302쪽; 정태만, 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86쪽; 송휘영, 2016, 「근대 일본의 지학잡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영토해양연구』 12, 81쪽.

27 『帝國新聞』, 1901년 4월 1일.

죽도(竹島)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며, 해도상에는 3점으로 표시된다. 오키에서 85리(哩), 하마다에서 150리(哩), 또 울릉도에서 50리(哩) 해상 멀리서 볼 수 있다. 일본인은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칭하는 데 대하여, 이에 죽도(竹島)라고 명명했다. 외국인은 1849년 처음 발견하여,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리앙코르트島라고 한다. 한인은 이를 독도(獨島)라 쓰고, 일본 어부 등은 일반적으로 리양코島(リアンコ)라고 칭한다.²⁸

다나카는 일본 해군이 독도의 목격자로부터 들은 이후, 일본 군함이 그 섬을 조사하였고, 1905년 8월 시마네현 지사의 섬 시찰 등의 여러 보고를 종합하여 작성했다. 일본인은 독도를 ‘죽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외국인 ‘리양코르트섬’이라고 불렀고, 일본 어부는 ‘리양코島(リアンコ)’라고 칭했으며, 한국인은 ‘독도(獨島)’라고 썼다.

1901년 5월 도쿄지학협회는 「일본해중 일도서」에서 『조선수로지』 제2판(1899년 일본수로부 간행) 263항 ‘리양코루토 열암(列岩)’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기록했다.

리양코루토 열암(リアンコールト 列岩). 이 열암(列岩)은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Liancourt)가 처음 발견하여 칭호를 그 선박의 이름으로 붙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프리깃함 팔라다는 이 열암을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 열암이라고 명명하고, 1855년 영국 함선 호네트는 이 열암을 조사하여 호네트 열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호네트호 함장 포사이스(Forsyth)에 따르면 이 열암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는 두 개의 불모의 바위섬으로서 새똥[鳥糞]이 항상 섬 위에 쌓여 있어, 섬의 색이 하얗다. 북서서로부터 남동동에 이르는 길이

28 田中阿歌麻呂, 1906.6, 「隱岐國 竹島に關する 地理學上の 智識」, 『地學雜誌』 210卷, 415~419쪽; 정태만, 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97쪽; 송휘영, 2016, 위의 글, 89쪽.

약 1리(里)이고, 두 섬 간의 거리는 1/4리로서 보이는 곳에 암초가 있다. 서도(西嶼)는 해명으로부터 높이가 약 410척(呎)으로서 형상은 봉당(棒糖)과 비슷하다. 동도(東嶼)는 비교적 낮고 평평한 정상으로 되어 있다. 이 열암 부근의 수심은 상당히 깊을지라도 그 위치는 하코다테[函館]를 향하여 일본해를 항행하는 선박의 직도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위험하다.²⁹

1899년 『조선수로지』는 ‘리양코루토 열암’이라는 서양 명칭의 유래과정을 비롯하여, 호네트 함장 포사이스의 독도 관측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1907년 3월 일본 해군수로부(海軍水路部)는 『조선수로지』에 ‘죽도(竹島, Liancourt rocks)’를 기록했다.

죽도(竹島, Liancourt rocks). 한인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고 일본 어부는 리양코(リアンコ)島라고 한다. 이 섬은 일본해상의 일소군도(一小群島)로서 오키도 앞으로부터 약 80해리[浬], 울릉도로부터 약 50해리에 위치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바다사자잡이를 위해 울릉도에서 도래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기도 하며, 그들은 섬에 소옥(小屋)을 짓고 매회 약 10일간 가(假)거주한다. 울릉도 일명 송도(松島, Dagelet island).³⁰

1907년 해군수로부에 따르면 한인은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부는 ‘리양코島’라고 했다. 일본 해군수로부는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07년 이후부터 ‘죽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해군수로부는 ‘죽도’의 위치와 어업을 간략히 기록하면서, 1907년부터 ‘죽도’와 리양쿠르(Liancourt rocks)가 동일한 섬이라고 표기했다.

29 日本水路部, 1899, 『朝鮮水路誌』第二改版, 東京: 水路部, 263쪽; 東京地學協會, 1901.5, 「日本海中一島嶼」, 『地學雜誌』13輯 148卷, 301~302쪽.

30 日本水路部, 1907.3, 『朝鮮水路誌』第二改版, 水路部, 454쪽.

1907년 6월 일본 해군수로부는 『일본수로지』에 ‘죽도’를 기록했다. 일본 해군수로부는 ‘죽도’의 어업과 위치를 다루면서, 1905년 ‘죽도’의 사마네현 편입을 기록했다.

죽도(竹島, Liancourt rocks), 오키열도(列島)의 북서 약 80해리[浬]에 위치하는 군서(群嶼)로서 … 차군서(此群嶼)는 매년 6~7월경 바다사자잡이를 위해 본방 어부가 도래하는 곳으로서 1905년 사마네현의 소관(所管)에 편입되었다.³¹

통감부(統監府)가 1908년 간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는 독도를 ‘죽도(竹島, Liancourt rocks)’라고 표기했다.

명치 41년(1908) 미나미베[南部]의 측정에 의하면 오키열도의 북서 약 80해리에 있는 죽도(竹島, 2섬과 여러 바위로 되어 있음)의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 위치 해당 두 섬 중 동쪽 섬[女嶼],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³²

통감부는 ‘죽도’와 리앙쿠르가 동일한 섬이라는 표기했다.

1911년 12월 일본 해군수로부는 『일본수로지』에 ‘죽도(竹島, Liancourt rocks)’를 기록하면서 일본의 독도 관련 내용을 완성했다.

죽도(竹島, Liancourt rocks), 조선인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고 내지 어부는 리앙코(リアンコ)島라고 한다. 차도(此島)는 일본 해상의 일소군도(一小群島)로서 오키도 도젠[島前]으로부터 약 86해리[浬], 울릉도로부터 동남동방 50해리에 위치한다. … 매년 여름이 되면 바다사자잡이를 위해 울릉도에서 도래하는 자

31 日本水路部, 1907.6, 『日本水路誌』四卷 第一改版, 水路部, 372쪽.

32 農商工部 水産局, 1908, 『韓國水産誌』, 日韓印刷, 100쪽;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2010, 『한국해양사자료총서』 1권, 새미, 118쪽.

수십 명에 이르기도 하며, 그들은 섬에 소옥(小屋)을 짓고 매회 약 10일간 가(假) 거주한다. … 죽도(竹島)의 동남도의 남단은 1908년의 측정에 의하면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에 있다.³³

1911년 일본 해군수로부는 조선인은 독도(獨島)라고 쓰고 일본 어부는 ‘리앙코島(リアンコ)’라고 한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일본 해군수로부는 1907년 판본 『조선수로지』와 『일본수로지』의 내용에 기초하여 1908년 일본 해군부의 실측을 보강한 것이다.

일본은 동해에서 죽도의 발견, 송도의 발견, 양코의 발견 등을 통해서 자국의 해양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일본은 20세기 초반 울릉도와 독도가 17세기 이후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독도를 ‘양코(ヤンコ) 섬[島]’이라는 명칭으로 변용시킨 다음, 1905년 일본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양코’라는 서양의 명칭을 차용하여 독도를 마치 새로운 무주지의 섬처럼 만들었다.

Ⅲ. 샌프란시스코조약 전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1951년 샌프란시스코회담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을 이용해서 독도영유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³⁴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오키도[隱岐島] 청장(廳長)은 1951년 9월 10일자로 작성한 독도 조사 관련 자료를 시마네현 총무부장(總務部長)에게 전달했다.

33 日本水路部, 1911.12, 『日本水路誌』六卷, 水路部, 49~50쪽.

34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60쪽.

죽도(竹島)는 300여 년 전 오키의 어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마쓰시마[松島]’라는 이름으로 오키섬의 어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은 이 섬을 ‘리안코루토’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1904년 사이고정[西郷町] 나카이 요자부로는 이 섬에서 강치 포획 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나카이는 이 섬의 일본 영토 편입과 대여를 내무대신, 외무대신, 농상공부대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각의는 승인하였고, 1905년 2월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죽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오키도 청장은 독도를 일본인은 ‘마쓰시마’, 서양인은 ‘리안코루토’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1905년 2월 영토 편입 이후 ‘죽도’라고 명명했다고 주장했다.

오키도 청장은 죽도(신죽도)의 위치와 명칭의 유래를 기록했다.

수로부에서 편찬한 수로지는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鬱陵島 一名松島]’라고 적고 松島(新竹島)를 리안코루섬이라고 했다. 松島(리안코루토 列岩) 신죽도(新竹島)의 위치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0분이었다. 이미 수로지 및 해도 중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른 이상, 죽도(竹島)에 해당하는 섬은 ‘리안코루섬’을 제외하고 달리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 영토로 편입될 때 죽도(竹島)라고 명명되었다.³⁵

오키도 청장은 『일본수로지』에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울릉도 일명 송도(鬱陵島 一名松島)’, ‘리안코루섬’으로 기록한 것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장은 『일본수로지』가 松島(新竹島)를 ‘리안코루섬’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죽도(竹島)’라는 명칭이 탄생했다고 기록했다. 청장도 울릉도와 독도 명칭에 관한 일본의 혼란과 오해를 인정했다.

35 隠岐島 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昭和26年(1951) 9月 10日, 「總第號外號 別添 總厚1478號」,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시마네현 총무과장(總務課長) 이마오카 다케오[今岡武雄]는 1951년 9월 30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한 준비과정을 시마네현 지사(知事) 쓰네마쓰 야스오[榎松安夫]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에초 울릉도는 이전 죽도라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울릉도 주위 죽서라는 암초가 있습니다. (울릉도는) 죽도와 혼동되어 여러 억측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³⁶

이마오카 다케오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독도와 혼동되었다고 주장했다. 1951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죽도’와 ‘리안코루’의 명칭을 설명하는 데 분주했다.

일본외무성은 1952년 2월 2일 「일본해 죽도에 대하여(日本海の竹島について)」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변화에 대해서 기록했다.

울릉도, 죽도(竹島), 송도(松島)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혹은 이것을 별개의 섬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이것을 하나의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섬이 귀속하는 곳을 알지 못했다. 메이지[明治] 초기 송도의 개척을 신청한 자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송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시급했기 때문에 메이지 13년(1880) 군함 아마기[天城]를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송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리안쿠르섬을 죽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던 송도, 죽도, 울릉도의 관계도 겨우 가라앉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볼트(Siebold)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일본으로서는 오해도 혼란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³⁷

36 島根縣總務課長 今岡武雄→島根縣知事 榎松安夫, 昭和41年(1951)9月30日, 「復命書記」,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일본 외무성은 메이지 시기 울릉도, 송도, 죽도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1880년 일본 군함 아마기[天城]함의 파견으로 울릉도와 송도의 동일성을 판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리앙쿠르섬’을 ‘죽도’로 확정했다고 기록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의 혼란을 독일인 지볼트의 잘못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명칭 혼란을 『일본수로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은 독도 명칭에 관한 혼란의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 죽도, 송도의 명칭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부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시마네현 지사 쓰네마쓰 야스오는 1952년 5월 12일 지방자치청(地方自治廳) 차장(次長)에게 보낸 동일한 문서를 동시에 외무성 정보문화국 특별자료과(特別資料課)로 송부했다. 쓰네마쓰 야스오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상의 혼란에 대해 기록했다.

오늘날 ‘죽도’라고 불리는 섬은 에도시대 초기 발견되었고, 1905년 2월 일본 영토로 정식 편입되기 이전까지 ‘송도(마쓰시마)’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토 선언 이후 비로소 ‘죽도’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³⁸

쓰네마쓰 야스오는 독도가 1905년 2월까지 ‘송도’로 불렸다가 영토선언 이후 ‘죽도’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쓰네마쓰 야스오는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 『조선죽도도항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를 근거로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가 독도로 불렸다고 기록했다. 또한 쓰네마쓰는

37 日本外務省, 昭和27年(1952) 2月 2日, 「(極秘) 日本海の竹島について」,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8 島根縣知事 恒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27年(1952) 5月 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1897년 『조선수로지』를 근거로, 울릉도를 ‘송도’로, 독도를 ‘리안코루토’라고 불렀다고 기록했다.

메이지 이전 옛 기록에서 죽도(竹島)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북변경영(北邊經營)으로 유명한 곤도 모리시게(近藤守重)는 분카[文化] 1년(1804)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의 고정분계도(考定分界圖)에 분명히 죽도와 송도 두 섬을 기록하고,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 지금의 신죽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했습니다.

『조선죽도도항시말기』는 덴포[天保] 7년(1836) 하마다[浜田]번에서 일어난 죽도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책의 해도에는 분명 죽도와 송도 두 섬을 기록했습니다. 해군수로부는 메이지 30년(1897) 『조선수로지』와 해도를 편찬했습니다. 『조선수로지』는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鬱陵島 一名松島]’라고 잘못 기록했고, 마쓰시마(신죽도)를 1849년 이 섬을 발견한 프랑스 리안코루토호의 이름을 따라 리안코루토(リアンコールト)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죽도(울릉도)가 겐로쿠[元祿] 이래 사실상 조선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송도도 조선의 판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해 해도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³⁹

쓰네마쓰 야스오는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시초라고 기술했다. 쓰네마쓰는 1897년 일본 해군수로부의 『조선수로지』에 ‘마쓰시마, 리안코루토’라고 잘못 기록되었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했다. 시마네현 지사 쓰네마쓰는 일본의 죽도와 송도의 명칭 혼동이 일본 해군수로부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더구나 쓰네마쓰는 일본이 1688년 이

39 島根縣知事 恒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27年(1952) 5月 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후 죽도(울릉도)가 조선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송도(독도)도 조선의 영역으로 인정했다고 기록했다. 이 사실은 첫째, 시마네현 지사 쓰네마쓰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하였고, 둘째, 일본 해군수로부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정하여 해도에 함께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 정부는 1953년 자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서 독도 주변 어업에 종사한 일본인에 대한 구술을 채록했다.

1953년 7월 11일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는 일제 강점기 독도에서의 어업을 구술했다. “당시 조선인은 랑코섬을 독도라고 했다[當時, 朝鮮人は, ランコ島(竹島)を獨島(トクソン)].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섬’이라고 했다.”

일본어 ‘토쿠손(독손, トクソン)’의 한국어 발음은 ‘독섬(돌섬)’이다. 주목할 점은 ‘독도(獨島)’와 ‘독섬(トクソン)’을 동일하게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인은 ‘독도(獨島)’ 한자를 ‘독섬(돌섬)’으로 불렀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는 ‘돌섬’에서 유래한 것이었다.⁴⁰ 결국 석도는 돌섬과 독섬으로 불렸고 독도로 표기되었다.

1953년 7월 10일 나카이 요자부로의 장남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 55세]

40 김영수, 2019,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 242, 116~117쪽 참조. “어선의 감독자 2명은 ‘랑코섬’으로 출립했다. 울릉도 저동의 金基守는 ‘랑코섬’의 미역 채취를 했다.”[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 8月, 「(秘)竹島漁業の變遷, 奥村亮 口述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3쪽(鳥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오쿠무라가 독섬이라고 말할 것을 기록자가 독도라고 문서 표기를 바꾼 듯하다. 이로써 일제 강점기 한인들은 독도보다 독섬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유미림, 2013, 앞의 책, 297~298쪽). “당시 조선인은 랑코섬을 독도(독섬)라 했지만, 내지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섬이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도저히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라 생각되어왔던 ‘돌섬[石島]-독섬[石島/獨島]-독도(獨島)’라고 하는 음운변화설에 객관적이고 문헌적인 방증을 주는 것이다(池內敏, 2017.6.23, 「竹島の活用實態と領有權」,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대적 전환과 영토 인식』,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64쪽). “조선인은 랑코도를 ‘도쿠손’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내지인과 회화할 때는 ‘랑코도’라고 말하고 있었다.”(박병섭, 2017.6.23, 「일본의 고유영토론 및 무주지선점론의 타당성 검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대적 전환과 영토 인식』,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100쪽).

는 마쓰에[松江市] 기타호리초[北堀町] 93번지 자신의 집에서 독도 명칭에 대해서 구술했다. 일본 오키섬 사람은 개명 이후에도 ‘죽도(竹島)’보다는 ‘랑코섬’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그 이유는 ‘죽도’가 과거에 울릉도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죽도’라는 명칭은 인위적이고 혼란스러운 용어였다.⁴¹ 1953년 7월 9일 하시오카 다다시케[橋岡忠重]는 강치 어업을 구술하면서 “랑코섬의 강치가 우수한 강치로서 재주를 잘 부렸다”고 진술했다.⁴² 하시오카 다다시케는 여전히 독도를 ‘랑코섬’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일본인의 구술에 따르면 일본인은 ‘죽도’보다는 ‘랑코섬’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조선인은 독도(獨島)를 ‘독섬(トクソン, 돌섬)’으로 불렀으며, 일본인도 독도를 ‘독섬(トクソン)’으로까지 표기했다.

시마네현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는 하야미 야스타카시[速水保孝]는 1953년 8월 독도 어업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⁴³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는 겐로쿠 시기 울릉도 도해금지를 실시한 이후 자연히 어업활동도 중단되었다. 메이지 시기 지볼트의 지도를 참고한 일본 해도와 『일본수로지』에는 “울릉도=죽도(竹島)=한국령(韓國領)”이라고 기록되었다.

하야미에 따르면 나카이 요자부로는 일본 해도에 기초하여 독도가 “조선의

41 “죽도(竹島) 명칭은 메이지 38년에 개명되어 붙여졌다. 오키섬 사람은 현재 이 섬을 ‘랑코섬[ランコ島]’이라고 부른다. 당시 ‘죽도(竹島)’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였다. 오래된 해도에는 다른 이름인 ‘마쓰시마[松島]’라고 되어 있다.” 아시아局2課,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中井養一口述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 44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42 아시아局2課,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橋岡忠重 口述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9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43 “序. 본 조서는 시마네현 도쿄 사무소 하야미 야스타카시[速水保孝]가 현지로 가거나, 혹은 직접 고문서를 찾아다니고, 또한 널리 관계자의 의견을 묻는 등 고심 끝에 정리한 것으로서 집무상 귀중한 참고자료로 인정된다.” 아시아局2課長, 「(秘) 竹島漁業の變遷」, 昭和28年(1953) 8月,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영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갖고 있었다.” 나카이는 1904년 9월 29일 “리양코르섬 영토편입을 내무·외무·농상무 대신에게 제출하고, 독도의 강치잡이의 독점을 기도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리양코르섬을 죽도(竹島)로 개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가 관할하기로 정했다.

하야미는 도쿠가와 막부가 겐로쿠 시기 울릉도 도해금지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어업활동이 중단되었고,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의심하고 있었고,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리양코르섬’을 ‘죽도’로 개명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2과(アジア局2課)는 1953년 8월 오쿠하라 헤키운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 근거하여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예로부터 조선 동쪽 해상에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리양코르섬)의 2개 섬이 있다고 알려졌다. 해군수로부는 지볼트가 오기한 해도를 답습하여 『조선수로지』와 해도에 울릉도 일명 松島(송도)라고 기재했다. 리양코르섬은 자연히 옛 기록인 다케시마[竹島]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기되었다.

죽도(竹島)가 겐로쿠[元祿] 연간부터 한국령으로 막부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양코르섬은 한국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오키도사는 리양코르섬을 ‘죽도’로 명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회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⁴⁴

일본 외무성의 ‘죽도’ 명칭 관련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해군수로부가 지볼트의 오기한 해도를 답습했다. 둘째, 『조선수로지』에 울릉도를 송도(松島)

44 奥原碧雲, 明治39年(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27쪽; 아시아국2課,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0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라고 기재했다. 셋째, 리앙코르섬이 ‘죽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기였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죽도’가 겐로쿠 연간부터 한국령으로 막부가 인정하여 리앙코르섬이 한국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IV. 맺음말

일본 외무성은 메이지(明治) 시기 울릉도, 송도(松島), 죽도(竹島)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인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1880년 일본 군함 아마기[天城]함의 파견으로 울릉도와 송도의 동일성을 판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리앙쿠르섬’을 ‘죽도’로 확정했다고 기록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혼란을 독일인 지볼트의 잘못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명칭 혼란을 『일본수로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은 독도 명칭에 관한 혼란의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 죽도, 송도의 명칭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부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군수로부가 지볼트의 오기에 근거하여 울릉도를 ‘송도’로, 리앙쿠르섬을 ‘죽도’로 표기했다고 기록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겐로쿠[元祿] 시기부터 죽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리앙코르섬(독도)을 한국령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명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키도사는 리앙코르섬을 ‘죽도’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자국의 명칭 혼란을 인정했고, 리앙코르섬이 한국 영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일본은 독도에 ‘죽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막부의 한국 영토 인정을 부정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로 불렀던 사실을 통해 전근대 울릉도의 조선 영토 부정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결국 일본은 ‘리앙코르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도를 ‘죽도’로 명명하여 향후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하려는 의

도를 갖고 있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죽도’ 탄생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막부는 ‘죽도(울릉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지만 시마네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둘째, 해군 『일본수로지』가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시마네현은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1905년 전후 명칭의 혼란을 일부러 유도하여 죽도(竹島, 독도)에 대한 한국 고유영토설을 부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시마네현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고착되자, 독도를 일부러 ‘죽도’라고 명칭했다.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 ‘죽도’ 명칭의 유래였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였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칭의 혼란을 유발하는 착시 효과를 이용했고, 독도를 ‘죽도’로 만드는 궤변의 논리를 적용했다.

일본 외무성은 ‘죽도’와 ‘송도’의 변경된 명칭을 해명하기 위해서 궤변의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한국침략 과정에서의 독도 불법 편입 및 독도와 러일전쟁과의 연관성도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1905년 5월 일본 해군은 독도 부근에서 전개된 러일해전 관련 내용을 기록했다. 동향연합함대(東鄉聯合艦隊) 사령장관(司令長官)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는 1905년 5월 28일 독도 부근에서 러시아 함대의 주력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진격을 멈추게 했다고 보고했다. 일본 해군은 항복을 권고한 러시아 장갑함 아드미랄 우샤코프(Адмирал Ушаков)가 북쪽으로 도피하자 격침시키면서 생존자 300명을 구조했다고 보고했다.⁴⁵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松永武吉]는 1905년 6월 러일해전의 결과 독도가 “도고 대장에 의해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기뻐할 정도였다.⁴⁶

45 東郷聯合艦隊司令長官, 明治38年(1905) 5月 30日, 「海軍省午後着電」, 『(秘)竹島』(鳥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일본 사세보[佐世保]향 진수부(鎭守府) 사령관 사메지마[鮫島]는 1905년 7월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에게 정부의 훈령에 따라 독도에 영조물(망루)을 건설하고 필요한 인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라는 비밀 문서를 보냈다.⁴⁷ 1905년 8월 완성된 해군 망루는 콘크리트와 벽돌을 기초로 한 목조 건물이었다고 무전대가 부속되었다.⁴⁸ 군함 하시다테호[橋立號]는 독도에 정박하여 가설망루(假設望樓)를 건설했다.⁴⁹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1905년 8월 19일 군사 우편 엽서 한 통을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에게 다음과 같이 보냈다.

“죽도(竹島) 바다 배 안에서. 1905년 8월 19일. 새 영토 죽도를 순시함. 일행은 마쓰나가(松永) 지사, 사토(佐藤) 경무관 등 총 4인.”⁵⁰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군용선을 타고 독도를 방문하여 군사우편을 이용했다. 그는 독도를 ‘새 영토’라고 주장했다. 엽서 그림에서 죽도와 오키[隱岐]는 시마네현과 동일한 검은색으로 색칠되고, 울릉도(鬱陵島, Utsuryoto)는 흰색으로 색칠되었다. 이 엽서는 독도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새로운 영토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쓰나가는 ‘러일해전’과 독도, 군사 우편엽서 등을 통해서 러일전쟁과 독도의 연관성을 기록했다.

그 후 시마네현 제1부장(第1部長) 사무관 후지모토[藤本]는 1906년 7월 죽

46 明治38年(1905) 6月 1日, 「大阪 朝日新聞 8358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47 鮫島 佐世保鎭守府司令長官→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 7月 4日, 「佐鎭機密7號49」,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48 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浜田正太郎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3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49 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50 松永武吉-隱岐島廳 東文輔, 明治38年(1905) 8月 19日, 「軍事郵便 Carte Postale 日本海大海戰場(1905.5.27.~28.)」,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도어렵합자회사 대표자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가설 망루 건조물 불하(拂下) 요청에 대해 기록했다. 후지모토는 “공식 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취지를 진수부에서 전달했다”며 나카이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문서를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에게 보냈다.⁵¹ 후지모토는 독도 망루의 매각 결정 사실을 사전에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전달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6년 해군의 독도 망루 불하 등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상세히 기록했다. “죽도 망루는 본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의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마이즈루 진수부로부터 불하를 받았다.”⁵² 나카이는 시마네현 지사 덕분에 독도 망루에 대한 불하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나카이가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결국 독도는 1904년 2월 발발한 러일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러일전쟁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1905년 5월 ‘러일해전’ 최후 격전지도 바로 독도 부근이었다. 일본은 1905년 8월 독도에 망루 설치를 완료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독도 망루를 넘겨주는 특혜까지 주었다.

51 島根縣 第1部長 事務官 藤本→隠岐島司 東文輔, 明治39年(1906) 7月 12日, 「庶529號」,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52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39年(1906)度業務執行顛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참고문헌

- 김병렬, 1998,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 김영수, 2019,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 242.
- 송휘영, 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 _____, 2016, 「근대 일본의 지학잡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영토해양연구』 12.
- 신용하, 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예영준, 2012, 『독도실록 1905』, 책밭.
-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 외교문제총서 11호.
-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 이태우, 2019, 「1905년 독도편입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인식」, 『독도연구』 26.
-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 정태만, 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허영란,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 堀和生, 1985,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 Кюнер, Н. В., 1912, Очеркъ Кореи(한국개관). Ч.1. Владивосток(블라디보스톡).
- Han Cheol-Ho, 2017,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s publication, revision, and Chart of East Coast of Korea and Recognition of Dokdo, *Korea Journal*, Vol.57-1,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葛生修亮, 1903, 『韓海通漁指針』, 黑龍會出版部.
- 田淵友彦, 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 東京地學協會, 1901.5, 「日本海中 一島嶼」, 『地學雜誌』13輯 148卷.
- 農商工部 水產局, 1908, 『韓國水產誌』, 日韓印刷.
- 奧原碧雲, 1906.6, 「竹島沿革考」『歷史地理』8-6.
- _____, 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 田中阿歌麻呂, 1906.6, 「隱岐國 竹島に關する 地理學上の智識」, 『地學雜誌』210卷.
- 中井養三郎, 明治37年(1904) 9月 29日, 「庶1073號 別紙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貸
下願說明書」,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 「新高艦長海軍大佐莊司義其」, 『第二十一號 極秘 明治37-38年海戰史』, 第2部 戰
紀 卷2備考文書 第1(防衛省防衛研究所).
- 「軍艦新高行動日誌」5, 明治三十七(1904)年十二月十五日(防衛省防衛研究所, 海
軍省-日露-M37-181).
- 日本水路部, 1899, 『朝鮮水路誌』第二改版, 東京, 水路部.
- _____, 1907.3, 『朝鮮水路誌』第二改版, 水路部.
- _____, 1907.6, 『日本水路誌』, 四卷 第一改版, 水路部.
- _____, 1911.12, 『日本水路誌』六卷, 水路部.
-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 明治37年(1904)11月30日, 「乙
庶152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 4月 13日, 「竹島貸與請願」, 『竹
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 隱岐島 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昭和26年(1951)9月10日, 「總第號外號 別添 總厚
1478號」,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 島根縣總務課張 今岡武雄→島根縣知事 桓松安夫, 昭和41年(1951) 9月 30日, 「復
命書記」,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 島根縣知事 桓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
27年(1952) 5月 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
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 奧原碧雲, 明治39年(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島根縣總
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 東郷聯合艦隊司令長官, 明治38年(1905) 5月 30日, 「海軍省午後着電」, 『(秘)竹島』

(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明治38年(1905) 6月 1日, 「大阪 朝日新聞 8358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鮫島 佐世保鎮守府司令長官→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 7月 4日, 「佐鎮機密7號49」,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日本外務省, 昭和27年(1952) 2月 2日, 「(極秘) 日本海の竹島について」,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外務省通商局, 1905.9.3, 「鬱陵島現況 明治38年7月31日附釜山帝國領事館報告」, 『通商彙纂』 50號.

_____, 1902.10, 「韓國鬱陵島事情」, 『通商彙纂』 234號.

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 8月, 「(秘)竹島漁業の變遷, 奥村亮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_____,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橋岡忠重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_____, 昭和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松永武吉-隱岐島廳 東文輔, 明治38年(1905) 8月 19日, 「軍事郵便 Carte Postale 日本海大海戰場(1905.5.27. - 28.)」,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 第1部長 事務官 藤本一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9年(1906) 7月 12日, 「庶529號」,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39年(1906)度業務執行顛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샌프란시스코조약 전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

김영수

일본 외무성은 메이지[明治] 시기 울릉도, 송도(松島), 죽도(竹島)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인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1880년 일본 군함 아마기[天城]함의 파견으로 울릉도와 송도의 동일성을 판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리앙쿠르섬’을 ‘죽도’로 확정했다고 기록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혼란을 독일인 지볼트의 잘못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명칭 혼란을 『일본수로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은 독도 명칭에 관한 혼란의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 죽도(竹島), 송도(松島)의 명칭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부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군수로부가 지볼트의 오기에 근거하여 울릉도를 ‘송도’로, 리앙쿠르섬을 ‘죽도’로 표기했다고 기록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겐로쿠[元祿] 시기부터 죽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리앙코루섬(독도)을 한국령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명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키도사는 리앙코르섬을 ‘죽도’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

도에 대한 자국의 명칭 혼란을 인정했는데, 리앙코르섬이 한국 영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일본은 독도에 ‘죽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막부의 한국 영토 인정을 부정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로 불렀던 사실을 통해 전근대 울릉도의 조선 영토 부정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결국 일본은 ‘리앙코르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도를 ‘죽도’로 명명하여 향후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죽도’ 탄생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막부는 ‘죽도(울릉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지만 시마네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둘째, 해군 『일본수로지』가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시마네현은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1905년 전후 명칭의 혼란을 일부러 유도하여 죽도(竹島, 독도)에 대한 한국 고유영토설을 부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시마네현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고착되자, 독도에 일부러 ‘죽도’라고 명칭을 붙였다.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 ‘죽도’ 명칭의 유래였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였다.

주제어: 독도, 울릉도, 돌섬, 석도, 일본수로부, 리앙쿠르

ABSTRACT

Naming Issues on Ulleungdo and Dokdo in Japan before and after the Declaration of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and Treaty of San Francisco

Kim Youngsoo

This article analyzes the secret behind the creation of the geographical name, Takeshima. Shimane Prefecture Office intended to claim Japan's dominion over Ulleungdo. As hydrographic maps published by the Japanese Navy marked Matsushima on the location of Ulleungdo,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could not name Ulleungdo as Takeshima.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purportedly gave Dokdo a Japanese name, Takeshima, as Ulleungdo had been confirmed as Korean territory.

In this context, the chaos surrounding the geographical names was fundamentally attributable to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which attempted to register two Korean islands in the East Sea, Dokdo and Ulleungdo, as Japanese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However, when historical facts confirmed that Ulleungdo had been Korean territory,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started to try incorporating Dokdo under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 very chaotic situation was made on purpose by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in regards to the names of Dokdo and Ulleungdo around 1905.

To conclude, Japanese occupation of Dokdo was closely related to the Russo-Japanese War that broke out in February 1904. The Japanese government illegally incorporated Dokdo into its territory in February 1905, before the end of the war. The last naval sea fight, the Battle of Tsushima, broke out in the waters near Dokdo. The Japanese Nav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watchtower in Dokdo in August 1905. Further, the Japanese government granted Nakai the watchtower as a special treatment.

Keywords: Dokdo, Ulleungdo, Dolseom, Seokdo, Hydrographic Bureau of the Japanese Navy, Ryangko Shima, Shimane Prefecture.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라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선사시대와 고대

— 『중국통사 1—고대에서 기원전 500년까지—』를
중심으로

강인욱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서론
- II. 『중국통사 1』의 소개
- III. 『중국통사 1』의 주요 특징
- IV. 결론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고고학의 발전속도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더욱이 거대한 영토의 중국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양의 발굴과 연구자의 급증은 세계 고고학사에서 유례가 없다. 이러한 중국 고고학의 빅뱅의 시대에서 중국을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마저 일목요연하게 그 자료를 정리한 개론서의 발간이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개별 연구를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풍토와 발굴자료의 폭증이 맞물려서 이러한 개설서의 발간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양적인 팽창에



『중국통사 1』의 표지

도 불구하고 중국 고고학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무조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하상주단대공정」을 필두로 이어지는 공정사업과 중화문명 탐원공정으로 ‘다원일체’로 대표되는 중화문명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문화해석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중원 중심의 연구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방대한 자료로 인해 중국 선사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개설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2016년 7월에 출판된 『중국통사 1 - 고대에서 기원전 500년까지』¹(이하 『중국통사 1』로 약칭)는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지

1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История Кита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чала а XXI века: в 10 т./гл., ред. С. Л. Тихвинский, -М.: Наука-Восточная

난 200여 년간 중국을 독자적으로 연구한 러시아의 중국학과 시베리아 고고학이라는 두 전통이 결합한 보기 드문 노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고고학 연구의 두 축인 중화주의를 대표하는 중국, 그리고 서양의 시각을 탈피한 새로운 시각의 중국 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저작이다. 이 책은 다른 나라의 통사들과 달리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 유라시아에서 중국의 고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러시아어로 1,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양으로 구석기시대~춘추시대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짧은 서평으로 그 자세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전체 목차 및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저서가 가진 의미를 통하여 시베리아에서 바라본 고대 중국에 대한 이해를 엿보도록 하겠다.

II. 『중국통사 1』의 소개

이 책은 최근 러시아에서 간행된 10권짜리 『중국통사』의 제1권에 해당하는데, 2016년 9월 『중국 통사』 중에서 가장 먼저 간행되었으며 그 시간적인 범위는 선사시대~춘추시대(기원전 500년)를 다룬다. 1,000페이지 가까운 양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통사 1』은 21세기 들어서 폭증하고 있는 중국 고고학의 성과를 담아냈을 뿐 아니라,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는 처음 나오는 중국 고고학개설서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²

литература, -Т.1: Древнейшая и древняя история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данным): от палеолита до V в. до н.э./ред. А. П. Деревянко. - 2016, -974 с.

- 2 『중국통사 1』과 비교될 수 있는 소련 시절의 저서로는 1977년에 스타니스라브 쿠체라가 저술한 『중국고고학(1966~1975년) 구석기~상대까지』가 있다(С. Кучера, 1977, *Китай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65 - 1974 гг.: палеолит-эпоха Инь: Н аходки и проблемы*, Наука.). 쿠체라의 저서는 중국 고고학의 암흑기인 문화

모두 37명의 저자가 참여한 전체 책의 구성과 출판은 시베리아 과학원 고고민족학연구소의 중국 고고학 전문가인 S. A. 코미사로프와 S. V. 알킨이 주로 담당했다. 이 책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제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출판된 중국 고대와 고고학에 대한 개론서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정리했다는 데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는 18세기 이래로 다른 유럽과 달리 독자적으로 지난 200여 년간 중국의 고고학과 역사학을 발전시켰다. 러시아의 중국학은 다른 유럽과 달리 시베리아를 두고 청나라와 접경한 지난 300여 년간 발달했다. 즉, 중화사관에 입각하거나 서양 중심의 중국 고고학이 아닌, ‘유라시아 관점의 중국 고고학’이다. 전체 목차는 매우 세분되며 각 장의 내용은 각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되 내용 면에서는 전체 중국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서론

I. 중국 고고학의 고고학사와 고고학연구의 과정

1. 중국의 고고학 연구사

중국 고고학의 탄생

19세기 말~20세기 초 외국학자의 탐사

만주의 러시아 고고학자

중국의 고고학학파의 형성과 발달

2. 외국의 중국 고고학사

서방의 중국 고대사 및 고고학의 주제, 방법론, 연구이론

러시아의 중국 고고학 학파

혁명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개설서와는 다소 다른 맥락이다.

II. 구석기시대

1. 제4기 시기 중국의 고지형과 기후
2. 원고시대(180-150만~15만 년 전)
3. 고 구석기³(15~3만 년)
4. 후기 구석기문화의 형성(3만~1만 5,000년)
5. 구석기 최말기: 세석인 공작의 확산기
6. 중국 영역 내의 현대 인류의 현성

III. 신석기시대(기원전 9000~3000년대 중반)

1. 동아시아 역사권⁴의 신석기시대

동아시아 역사형성 과정에서의 신석기시대

동아시아 역사권의 지리적 형성

민족-언어적 상황

고고학적 문화와 그 구분

시대의 변환: 동아시아 남부의 토기와 마제석기의 등장

전기 / 중기 / 후기 구석기

2. 동아시아 역사권 바깥의 신석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고생태학의 문제, 초기 신석기의 특징, 홍산문화·부허문화·신락문화)

중국 서북지역

중국의 동남부

중국의 남부(광둥 및 광서 좡족자치성)

타이완

3 전기 구석기에 해당한다.

4 동아시아로 통상 사용하지만 이 글에서는 Historic region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현재 중국의 영토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둔 명칭이다.

신석기시대 동아시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총결론

IV. 국가의 탄생, 초기와 중기 청동기시대(기원전 2500~1300년)

1. 동아시아 역사적 권역의 초기 청동기시대(기원전 2500~1800년)

동아시아의 석기시대에서 금속기시대로의 전환

청동기시대의 지역별 편년

채광과 제련생산

1단계(기원전 2500~2100년)

2단계(기원전 2100~1800년)

2. 동아시아 역사적 권역의 중기 청동기시대(기원전 1800~1300년)

양자강⁵하류 / 산동 / 중원(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초기 상시대) /

황하 중류의 동부: 하칠원문화(下七垣文化), 북부도시, 대서 성지, 이리
두문화, 언사, 이리강문화

양자강 중류(반룡청유적)

황하 중류의 서쪽

소결

3. 동아시아 역사권역 외부의 초기~청동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하가점하층문화

중국 서북지역:

신강성의 청동기시대, 사파(四埧)문화, 고묘구(古墓溝, 아파나시에보)

문화, 소하(小河)문화, 체무레첵⁶ 문화현상

중국 동남부: 촌두(村頭)의 패총문화, 황과산(黃瓜山)문화, 광동과 홍콩
의 해안유적

5 현재 중국의 명칭은 장강이지만 원어에서는 양자강이라고 쓰여 이 서평에서는 원서의 용례를 따랐다.

6 키얼무치문화라고도 알려져 있다.

V. 상(은)시대와 서주(기원전 14세기 말~8세기), 후기 청동기시대

1. 상-은시대(기원전 1300~1027년)

상대사의 문헌

상대의 정치사

상 수도의 역사-고고학적 특징

정신문화 및 사회-정치적 구조:

정신문화, 정부구조 및 통치기구, 수공업 및 농업, 군사, 상나라의 주변
관계

상 이의 지역의 국가형성: 황하 중류의 동부 / 중원 / 산둥 / 양자강 중류/
양자강 하류 / 양자강 하류 / 상의 북쪽지역(河
套 및 汾河 일대), 황하 상류

초기 조의 고고학적 유적: 풍(豐)과 호(鎬)

목야지전(牧野之戰)과 상의 종말

2. 서주시기(기원전 1027~771년)

사료로서의 서주시기 명문자료

서주의 정치사

동아시아 제후국과 민족들

진(晉), 진(秦), 용(戎), 위(魏), 정(鄭), 송(宋), 회이(淮夷), 노(魯), 제(齊),
산둥의 제국, 동이(東夷), 초(楚), 오(吳)

서주의 여러 고고유적 - 황하 및 양자강 유역

3. 동아시아 역사권 외부의 후기 청동기시대

신강 / 잡약(卡若)문화/ 삼성퇴문화/ 광둥과 복건의 해안문화 / 민강(岷江)
과 구룡강(九龍江):

황하 중류의 동부/ 황토륜(黃土倫)문화/ 후산(後山)과 부빈(浮濱)문화
타이완: 지산암(芝山岩), 영포(營埔), 대호(大湖), 봉비두(鳳鼻頭), 비남
(卑南), 기린(麒麟), 원산(圓山), 식물원(植物園)문화

VI. 춘추시대(기원전 771~453년), 초기 철기시대

1. 춘추시대 동아시아 역사문화

자료: 청동기의 명문, 무기의 명문, 석종의 명문, 죽간 및 목간

정치사

정부구조 및 통치기구

시민 및 군인의 선발체제 및 백가의 형성

신앙과 의례

2. 동아시아 권역 제후국의 역사와 물질문화

왕의 개인적 통치

진(晉, 정치사, 수도의 구조, 天馬묘지) 제(齊, 정치사, 수도 임치의 유적)

노(魯, 정치사, 수도 曲阜)

정(鄭), 송(宋), 중산국(中山國), 연(燕), 초(楚, 정치사, 문화사, 초국 주변의 제후국 蔡 曾), 오(吳), 월(越)

3. 춘추시대 진국(秦國)

정치사 및 문화사

4. 춘추시대 동아시아 역사권 외부의 문화

중국 동북지역: 하가점상층문화

중국 북방지역: 옥황묘문화, 도홍파랍문화, 모경구문화, 양랑문화

신강지역: 차우후문화, 안불락문화, 이리강 유역(사카와 烏孫문화)

감숙-청해고원과 티베트

사정(沙井)문화, 곡공(曲貢)문화, 석관묘문화

중국 동남부와 남부

파촉(巴蜀)문화, 동손-디엔문명(기원전 8~3세기), 홍콩의 동손문화

유물

결론

기타 인덱스 및 대조표

『중국통사 1』은 노보시비르스크의 중국 고고학과 시베리아 고고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학자 37여 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고, 장별로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장은 중국의 고고학 연구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 고고학의 형성과정을 서구 및 중국 내의 연구사, 그리고 러시아의 연구 등을 다각적으로 서술하고 각각의 연구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20~1930년대에 하얼빈에서 만주 고고학을 전공했던 러시아학자의 활동과 같이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중국 북방지역 고고학에 대한 연구사는 다른 개설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⁷

II장은 구석기시대로 호모 에렉투스 단계를 가장 초기로 보고 네안데르탈인 단계인 15만 년~3만 년을 ‘고구석기’로 규정했다. 이러한 시기 설정은 전기와 중기의 구석기문화가 뚜렷하게 세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는 후기 구석기와 전환기 등으로 나누어서 후기 구석기시대 세석인(좁돌날) 문화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III장은 신석기시대로, 이 장부터는 ‘동아시아 역사권’과 그 바깥을 나누어서 세분하여 서술했는데, 이는 그 이후의 장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중원과 변방에 해당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하겠다. 또한 다른 개론서들과 달리 타이완, 티베트, 광둥/광서 지역을 독자적으로 서술했다. 반면에 동북지역은 매우 세분하여 홍산문화, 부하문화, 신락문화 등을 매우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7 제정러시아가 동청철도 건설 직후 하얼빈에서 거주하던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발해, 금, 말갈, 신석기시대 등의 유적을 조사했다. 국내에서는 서평자가 간단히 그들의 업적을 소개한 바 있다. 강인욱, 2014, 「V.V.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과 동아 고고학회」, 『고구려발해연구』 48, 77~105쪽; 강인욱, 2016,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山戎·東胡」, 『백산학보』 106, 31~60쪽.

하지만 상대적으로 길림이나 흑룡강성 일대에 대해서는 소략하다. 반면에 신강이나 내몽골, 서북지역과 같이 신석기시대가 뚜렷하지 않은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

IV장은 초기~중기 청동기시대이다. 초기는 대체로 하나라와 그보다 이른 시기의 청동기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이다. 한편, 중국과 달리 하상주 편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라(기원전 2000~1600년) 대신에 탄소연대와 유라시아 편년에 기반을 둔 편년체계(기원전 2500~1800년)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도 주목된다. 중기 청동기(기원전 1800~1300년)에서는 상나라 초기와 일부 하나라로 간주되는 이리두문화를 포함하여 함께 고찰하고 있다. 또한 변방지역의 경우 주로 동북지역(하가점하층문화), 서북지역의 신강 및 감숙회랑지역, 광둥성 일대를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V장에서는 먼저 상나라 말기와 서주의 역사 기록을 서술하고 서주의 주요한 제후국들과 이방민족들을 서술했다. 주요한 제후국으로는 진(晉), 진(秦), 위(魏), 정(鄭), 송(宋), 노(魯), 제(齊)를 서술하고, 이 외에 회이(淮夷), 산동의 제국, 용(戎), 동이(東夷), 초(楚), 오(吳) 등도 서술에 포함시켰다.

변방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신강 일대의 청동기문화, 티베트 동부의 잡약(卡若)문화, 사천 분지의 삼성퇴문화, 광둥과 복건의 해안문화, 사천/민강(岷江)과 구룡강(九龍江) 유역 등을 서술했다. 또한 타이완의 선사시대에도 매우 상세한 서술이 더해져서 지산암(芝山岩), 영포(營埔), 대호(大湖), 봉비두(鳳鼻頭), 비남(卑南), 기린(麒麟), 원산(圓山), 식물원(植物園)문화 등이 포함되었다.

VI장에서는 춘추시대의 여러 제후국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 발굴성과를 함께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晉, 天馬묘지) 제(齊, 임치의 유적) 노(魯, 수도 曲阜), 정(鄭), 송(宋), 중산국(中山國), 연(燕), 초(楚, 蔡 曾), 오(吳), 월(越) 등을 서술했다. 또한 독립적인 장으로 진(秦)을 서술했다. 이는 이후 II권의 주요 내용인 진한대의 서술에 등장하는 진제국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변방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은 하가점상층문화와 그 인접의 비파형동검문화, 중국 북방지역은 오르도스 청동기문화로도 통칭되었던 옥황묘문화, 도홍파랍문화, 모

경구문화, 양랑문화 등을 서술했다. 신강지역은 차우후문화, 안불락문화 등의 기원전 1000년기 초엽의 문화와 쿠르간으로 대표되는 이리강 유역의 사카와 오손(烏孫)문화를 서술했다. 감숙-청해고원과 티베트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문화권의 흐름에 따라서 사정(沙井)문화, 티베트 동부의 곡공(曲貢)문화, 사천~운남 서북지역의 석관묘문화 등을 차례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동남부와 남부의 파촉(巴蜀)문화, 동손-디엔문명(기원전 8~3세기), 홍콩의 동손문화 유물을 서술했다.

Ⅲ. 『중국통사 1』의 주요 특징

전반적인 체계로 보면 변방지역과 구석기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이 돋보인다. 노보시비르스크의 고고민족학연구소는 데니소바 동굴의 연구와 같은 세계적인 구석기 연구 중심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걸맞게 이 책에서도 중국의 구석기시대에 100여 페이지가 할애되었다. 대부분의 개설서가 구석기 연구의 특수성으로 간략하거나 아예 생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티베트, 타이완, 신강 등 변방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과 러시아인의 중국 고고학 연구사 등 다른 개설서에 없는 부분이 돋보인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중국과 접경한 시베리아의 고고학자들이 주요 필진으로 참가하여 시베리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 고고학의 서술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모두 37여 명 가까운 사람이 책에 참여했는데 중국인 또는 중국계 학자는 없다는 점도 매우 특이한 부분이다. 미국이나 서구에서 출판되는 중국 고고학 개론서는 중국인 또는 중국계⁸와 서양의 학자가 공동으로 저술하는 경우⁹

8 Li Feng, 2013, *Early China: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Rowan K. Flad, and Pochan Chen, 2013, *Ancient Central China: Centers and peripheries along the Yangzi riv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ne

가 대부분이다. 중국인 참여 없이 이렇게 많은 학자가 참여하여 서술한 종합적인 중국고고학 개론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책이 유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 저자의 핵심을 이루는 노보시비르스크 고고민족학연구소의 라리체프(1932~2013)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 고고학자와 중국과 접경한 시베리아와 몽골의 발굴을 담당하는 학자들의 인재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여타 서구의 중국 고고학 개론서와 달리 아시아의 중심인 중국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유라시아와 이웃한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서술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중화사관과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탈피한 합리적 대안으로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주목되는 점은 변방에 대한 매우 체계적인 서술이다. 대부분의 중국 고고학 개론서는 철저하게 중원 위주의 서술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중국 동북지역은 물론 신강, 티베트 지역, 중국 남부와 타이완, 홍콩 지역에 대한 서술을 매우 균형 있게 서술했다.

세 번째로 중국의 고대를 문헌이 아닌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책의 주요한 핵심은 중화사관의 합리적인 대안이다. 신화시대를 역사로 끌어들이거나 하상주 계통론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역사 대신에 고고학 발굴을 통한 물질문화와 목간/명문 등으로 그 고대사의 체계를 재건하고자 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부족하거나 재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고대사를 세우는 새로운 체계로 고고학을 기반으로 하는 점은 고고학 자료를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는 부분만 뽑아서 사용하는 데 그치는 기타 중국 고대사 전공자들의 태도와 차별화된다.

네 번째로 중국과 변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 글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동아시아의 역사 권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 용어는 신석기시

P. Underhill ed., 2013, *A companion to Chinese Archaeology*. John Wiley & Sons.

Li Liu, and Xingcan Chen, 2012, *The archaeology of China: from the late Paleolithic to the early Bronze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대 이래로 매 시대마다 사용되었다. 아마 증원 또는 천하라는 기존의 중국 고대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대체하여 선사시대에도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서평자는 현대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이러한 용어의 도입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 개념을 중국의 역사에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을 느낀다. 마치 ‘동아시아=중화문명’이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의 적합성을 제외하면 변방지역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서술은 단순한 ‘변방’으로 치부하는 것에서 진일보한 점이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동아시아 역사 권역’이라는 개념은 향후 중국뿐 아니라 한/중/일/시베리아와 몽골 등에도 적용하여 현재의 국경에 구애받지 않은 고대사상을 구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크게 참고할 여지가 있다.

한편, 37명이 모여서 거대한 중국의 선사~고대시대를 1권에 담아낸 만큼 책의 내용에서 아쉽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신석기시대의 중국 남부지역이나 상나라의 경우 1990년대의 자료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또한 너무나 많은 필진이 참여하다 보니 각 필자 간의 서술 방법이나 관점의 차이가 그대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베리아 과학원의 필진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필진들의 관점이나 서술 방식은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 이러한 단점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각 학파 간의 차이는 중국을 인접한 시베리아의 연구진과 유럽의 관점에서 중국과 동아시아에 접근하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학파의 중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중국 고고학 개론이 아니라 ‘중국통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체제나 중국문명론에 대한 검토보다는 문화사적 서술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권에 전체 중국 고고학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도 보인다. 예를 들면 서주시대 북경 일대 연국의 연하도가 빠진 점, 만주 일대의 경우 요서지방을 제외하면 흑룡강/길림 지역에 대한 서술이 없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거대한 중국의 고대를 담아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이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서양과 일본 중심의 중국 고대와 고고학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 학계에 지난 200년간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러시아의 중국사 연구라는 신선한 자극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이 서평에서는 간략하게 『중국통사 1권』의 개요와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짧은 서평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고찰보다는 그 발간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한국 학계에서는 굳이 러시아어를 참고하지 않아도 중국의 고대에 대한 개설적인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한국 학계에 던지는 의미는 그 문화사적인 전개나 개별 문화의 소개와 편년이 아니다. 대신에 중원 중심의 연구들을 벗어나서 유라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고대라는 새로운 시각이다. 시베리아와 중국은 중간에 몽골이라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상 지난 수백 년간 서로 이웃해왔다. 유럽 고고학의 전통을 가진 나라 중에 러시아는 유일하게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중국을 이웃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이성은 유라시아를 통한 중국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시베리아를 통한 유라시아의 흐름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고대는 중원 중심의 시각으로 고착화되는 중국 고고학의 연구에 새로운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과 이웃하며 그들을 해석하고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필요한 상황은 비단 시베리아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의 『중국통사 1』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편집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소장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중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8호(2020. 6)

초판 1쇄 인쇄 2020년 6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6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